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1 - 23 - 01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1-23-01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저 자		권미경, 박원순, 김지현, 윤유나, 손승우, 윤정호, 김동우, 정소이, 조승연, 박범수		
주관 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박원순 부연구위원 김지현 부연구위원	윤유나 연구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손승우 전문연구원	윤정호 선임연구위원 김동우 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소이 수석연구원	조승연 수석연구원 박범수 연구원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1년 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박 상 희

국문요약

기존의 육아지원정책은 시간 또는 서비스, 현금지원으로 범주화된다. 그러나 이 범주에 더하여 삶이 이루어지는, 육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공간'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육아정책의 수요자들인 부모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체감하는 생활환경인 주거단지 내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진단, 대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력하여 육아, 환경, 교육, 교통, 주거공간을 아우르는 육아친화적 환경의 요소를 구체화하고,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주거단지의 육아친화성 향상 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개념을 명료화하고,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의 운영을 통해 주거단지의 육아친화가 지니는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모색하였다. 육아친화 주거단지는 육아를 지지하고 환대하는 철학적 가치를 지니며, 그 철학을 바탕으로 육아하는 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과 환경이 준비된 곳이다. 즉 아이 기르는 데 최적화된 교육·보육시설, 공원 녹지 등의 물리적 환경, 도로 교통 등의 인프라, 육아 및 가족지원 제도, 지역주민의 참여 등 양육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 뿐 아니라 지지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곳이다. 연구에서는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구성요소를 철학과 가치, 물리적 환경,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로 구분하고 정책수요자의 요구와 전문가의 의견을 담아 주거단지의 육아친화 정도를 진단하는 60문항 체크리스트로 구성하고, 이를 리플렛으로 개발하였다.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 방향성을 육아권과 아동권의 존중, 수요자 참여 확대, 인적 네트워크 형성 강화, 주거단지 특성 반영으로 구체화하였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은 대상 주거단지의 선정, 주거단지의 육아친화적 요소 진단, 진단을 통한 개선점 도출, 육아친화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모색, 도출한 개선방안의 실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거단지 육아지원 기능의 역동성을 부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전담할 인력을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로 명명하고 그 운영 안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 육아친화, 육아친화 주거단지,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Abstract

The existing parenting support policies are categorized as time, service and financial support. However, in addition to this category, it is necessary to combine with the 'space' policy, a place where child-rearing takes place. Within the residential complex, where the parents closely experience child-rearing,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diagnose what is a 'good environment for child-rearing', and seek alternatives.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study to improve the parenting-friendliness of the residential complex, to specify elements of a child-rearing environment that encompasses child-rearing, environment, education, transportation and residential space, and to reflect the needs of policy consumers. In this study,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were cooperated.

In this study, we clarified the concept of childrearing-friendly residential complexes and shared multidisciplinary opinions about meaning of childrearing-friendly residential complexes through three consecutive forums. A 'parenting-friendly residential complex' implies a philosophical value of supporting and welcoming childrearing. Based on that philosophy, 'parenting-friendly residential complex' should the place where parents can raise their children in a great quality of physical environment and service infrastructure which is required by caregivers including education and childcare facilities optimized for raising children, parks and green areas, infrastructure such as road traffic, child-rearing and family support systems, and supportive human resources. In the study, the components of childrearing-friendly residential complexes are divided into 1) values of childrearing, 2) physical environment, 3) service infrastructure, and 4) human network. We developed the 60-item checklist based on those four components, the checklist diagnoses the degree of childrearing-friendliness of the residential complex.

The suggestions to build a parental-friendly residential complex include respecting the right to childrearing and children, expanding parents' participation, strengthening the formation of human networks, and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complex. This is a part of the childrearing-friendly residential complex creation model, and includes series of processes ranging from selection of the target residential complex, diagnosis of childrearing-friendly elements of the residential complex, derivation of improvement points through diagnosis, and searching

for specific action plans for enhancing child-rearing friendliness, and implementation of the derived improvement plans. Finally, we suggested the role of 'childcare support coordinator', which includes maintaining the childcare support function in the residential complex. and planning for its operation.

Keywords: childrearing friendly residential complexes, child-raising-friendly residential complexes checklist, child-raising support coordinator

정책 제안

1) 저출산 대응을 위한 '출산율 증진'을 목표로 진행되던 육아지원정책이 '개인의 선택 존중', '삶의 질'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상황에서는 육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공간'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접근이 추가되어야 한다.

   -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단순한 양적 지표가 아닌 '그 사회가 일과 육아를 양립하며 생활하기 어렵다는 정도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로 보아야 한다.

   - 육아정책의 수요자인 양육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진단과 검토, 개선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2)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 현재 주거단지가 지닌 육아친화성의 정도를 진단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의 구현을 위해서는 주거단지 내에 거주 주민이 체감하는 친화 정도 평가와 더불어 요구 수렴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주거단지 내 거주자들에게 양육지원이 실질적 체감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육아를 위한 다양한 공간의 제공에서 더 나아가 이용 가능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안내, 지역사회 육아지원 체계와의 연계,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등의 기능적인 역동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3) 본 연구에서는 주거단지의 육아친화성을 진단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철학과 가치', '물리적 환경',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라는 4가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하는 60가지 항목을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로 제안한다.

   -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는 기존 단지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 참여하여 개선점을 찾기 위한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이 과정은 주민 참여 워크숍이나 설문조사의 방법 등으로 진행하며, 수요자가 참여하여 주거단지의 육아친화 정도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구체화한다. 신규조성 단지에서는 조성계획 시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추후 손쉬운 활용을 위하여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를 리플릿 형태로 제작하였다.

〈표〉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구분	핵심 구성 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철학과 가치	아이와 가족에 대한 환대	공동체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고 느낀다.
			나와 가족이 마을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아이다움 인정	아동의 특성 인정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놀이터 소음 및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 등)
	성평등한 육아문화	성평등한 공간구성	주거단지 내 공용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다. (남성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비치 등)
		성평등한 서비스	주거단지 내 육아지원 서비스는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다. (남성 양육자 참여 놀이 프로그램)
	육아친화 가치 확산	육아친화 기회제공	주거단지 내 육아친화 환경 조성 기회가 있다. (육아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 남성양육자의 육아 참여 독려 모임, 행사 등)
물리적 환경 (단지내)	녹지 환경	자연환경 접근성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공원/녹지 공간(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이 있다.
		녹지기반 시설 안전성	녹지를 이용하여 쓰레기장, 재활용장 등 기피시설을 차폐하거나 분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녹지, 친환경시설 기반의 보차도 분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용 편의성	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세대 실내환경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이 반영되어 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바닥 두께, 기능성 바닥재, 공간배치 등)
		친환경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실내 마감재를 사용하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장치가 적용되었다.
		편리한 구조	충분한 수납공간, 자녀성장을 고려한 가변형 구조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내부 안전설계	아이맞춤형 치수, 방문 손끼임 방지장치, 모서리 마감처리, 콘센트 캡 설치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가 적용되었다.

구분	핵심 구성 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물리적 환경 (단지내)	외부 환경	외부 안전설계	놀이터 CCTV, 비상벨 설치 등이 적용되었다.
			단지 및 주차장 진입로, 단지 내부 등에 보차분리가 적용되었다.
		보행 편의성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하다.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용 편의성	아이와 함께 사용가능한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사용가능한 지붕있는 휴게시설(벤치, 정자)이 설치되어 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	인근에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1개 이상의 대중교통 인프라(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가 있다.
	주민공동 시설	육아지원시설	단지 내에 어린이집,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다.
			단지 내에 영유아 지원시설(영유아 놀이방,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대여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단지 내에 초등학생을 위한 지원시설(돌봄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문화시설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있다.
		체육시설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다.
		놀이시설	단지 내에 연령별 실외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다.
		주차장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서비스 인프라 (인근환경 포함)	보건 의료	의료시설 다양성	인근에 보건소 및 병·의원이 다양하게 있다.
		소아과 접근성	인근에 영유아를 위한 병·의원이 있다.
		긴급의료 접근성	인근에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가능한 병원이나 약국이 있다.
	영유아 보육 교육 및 돌봄	영유아기관 충분성	주거단지와 인근 보육(교육)시설의 정원이 충분하다.
		영유아기관 접근성	보육(교육) 시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거리에 있다.

구분	핵심 구성 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육아지원기관 접근성	인근에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공공시설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등)
		긴급돌봄 접근성	긴급하게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인근에 있다.
	초등 교육 및 돌봄	초등기관 접근성	아동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
			초등학교 등굣길이 안전하다 (보차도가 안전하게 분리, 유해시설 없음, 횡단보도 안전, 차량 속도제한 표시 등).
		초등돌봄 접근성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기관이 이용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치안 안전	단지 주변 안전점검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보행 안전성	단지 내 밤길이 안전하다(어두운 사각지대가 없다).
		단지 주변 시설	단지 주변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여가/문화 공간	여가/문화공간 접근성	인근에 여가/문화 공간이 있다.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등)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하다.
		여가/문화공간 다양성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키즈까페, 실내놀이 공간 등)
		여가문화공간의 육아친화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없게 조성되어 있다. (주차장 및 수유시설 동선 등)
인적 네트워크	단지 내 육아 지원	전담인력 여부	육아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이 있다.
		육아정보 제공	육아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주민 참여성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인적 네트워크 구성	주민 연결성	주거단지에 양육 정보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 모임이 있다.
		주민 활동 여부	아이를 기르는 데 함께 할 수 있는 주민활동이 있다.
	육아를	소통방법의	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있다.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구분	핵심 구성 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위한 소통 공간	다양성 (온라인/ 오프라인)	단지 내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 공간 이 있다.
		소통공간의 육아친화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수유시설, 주차시설 등).

4)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 방안을 제안한다.

-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한 방향을 '육아권과 아동권의 존중', '수요자 참여 확대', '인적 네트워크 형성 강화', '주거단지 특성 반영'으로 제시하였다.
-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은 대상 주거단지의 선정, 주거단지의 육아친화적 요소 진단, 진단을 통한 개선점 도출, 육아친화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도출한 개선방안의 실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 가능하다.
- 기존 주거단지의 경우는 이미 형성된 인프라와 서비스의 개선에 초점이 두어지는 반면, 신규단지의 경우는 주택 공급 계획 단계부터 육아친화 특화 단지로 공급을 기획 할 수 있다. 이렇듯 기존 주거단지와 신규 조성 단지에 따라 그 접근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방안(기존 단지)과 주택 공급 주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방안(신규 단지)으로 구분하여 제안 한다.

5) 본 연구에서는 주거단지 육아지원 기능의 역동성을 부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전담할 인력을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로 명명하고 그 운영방안과 역할을 제안한다.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1. 연구의 필요성 ····· 3
2. 연구 목적 ····· 5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 6
1. 연구내용 ····· 6
2. 연구방법 ····· 6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14
1. 선행연구 현황 ····· 14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6

제2장 연구의 배경

제1절 '육아친화(育兒親和)'의 개념 ····· 21
1. 육아친화(育兒親和)에의 논의 ····· 21
2. 육아친화(育兒親和)의 요소 ····· 22
3. 육아친화(育兒親和)의 개념화 ····· 23
4. 육아친화와 유사 개념 ····· 24

제2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개념 ····· 29
1. 주거단지에 대한 학술적 정의 ····· 29
2. 주거단지에 대한 법적 정의 ····· 30
3.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개념 ····· 32

제3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 대한 다학제간 접근 ····· 36
1.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 운영 ····· 36
2. 소결 ····· 49

제4절 국내 및 국외 조성 사례 ····· 51
1. 국내 사례 ····· 51
2. 국외 사례 ····· 67
3. 소결 ····· 74

제5절 지역사회 육아지원 전달체계 ····· 75
1. 건강가정지원센터 ····· 75
2. 육아종합지원센터 ····· 78

제3장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요구

제1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요구(Ⅰ): 설문조사 결과 ····· 83
1. 양육 상황 및 주거단지 진단 ····· 83
2.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 대한 요구 ····· 101
3. 육아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한 의견 ····· 118
4.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 127

제2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요구(Ⅱ): 심층면담 결과 ····· 132
1. 현재 주거단지에의 평가 ····· 132
2. 육아지원 서비스 경험 ····· 136
3. 육아를 위한 철학과 가치 ····· 140
4. 아버지의 양육참여 ····· 141
5.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 운영 ····· 143
6. 자녀 연령에 따른 지원요구 ····· 146

제3절 소결 ····· 149
1. 자녀 양육가구의 어려움과 거주경험 ····· 149
2. 자녀연령별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 150
3. 육아친화 코디네이터 운영 ····· 153

제4장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체크리스트

제1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도출 근거 ····· 157

1.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구성 요소 ····· 157
2.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철학적 요소 ····· 157
3.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물리적 환경 요소 ····· 159
4.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서비스 인프라 요소 ····· 162
5.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인적 네트워크 요소 ····· 165

제2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체크리스트의 구성 ····· 167

1.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 167
2.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 172
3.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활용 예시 ····· 173

제5장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제1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방안 ····· 187

1.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의 방향 ····· 187
2.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 188

제2절 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의 운영 ····· 191

1.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방안 ····· 191
2.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역할 ····· 193

■ **참고문헌** ····· 196

■ **부록** ····· 201

표 차례

〈표 1-1〉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포럼 운영 개요 ····· 8
〈표 1-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 9
〈표 1-3〉 심층면담 추진 개요 ····· 10
〈표 1-4〉 심층면담 응답자 특성 ····· 11
〈표 1-5〉 전문가 조사 개요 ····· 12
〈표 1-6〉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 17
〈표 2-1〉 육아친화환경 영역 및 요소 ····· 23
〈표 2-2〉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 25
〈표 2-3〉 여성친화도시 구성요소 ····· 26
〈표 2-4〉 가족친화도시 구성요소 ····· 27
〈표 2-5〉 각종 친화도시 유형별 특성 ····· 28
〈표 2-6〉 근린주구 개념에 의한 생활권 구분 ····· 29
〈표 2-7〉 신혼·육아세대를 위한 주택유형 ····· 53
〈표 2-8〉 행복주택 보육시설 특화사례 ····· 54
〈표 2-9〉 LH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방안 ····· 58
〈표 2-10〉 천안시 LH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개요 ····· 58
〈표 2-11〉 LH 협력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 59
〈표 2-12〉 동경도 육아를 배려한 주택가이드라인 내용 ····· 72
〈표 2-13〉 일본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 비교 ····· 73
〈표 2-14〉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 당 평균 참여인원 현황추이(2010-2019) ····· 77
〈표 2-15〉 2019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영역 별 참여인원 현황 ····· 78
〈표 2-16〉 2019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영역 별 참여인원 현황 ····· 79
〈표 3-1〉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학교 ····· 83
〈표 3-2〉 기관/학교 미이용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 85
〈표 3-3〉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정도 1 ····· 86
〈표 3-4〉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정도 2 ····· 86
〈표 3-5〉 아버지의 자녀 양육 분담 정도 ····· 88
〈표 3-6〉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 (전체) ····· 88
〈표 3-7〉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 (세부집단별) ····· 89
〈표 3-8〉 거주 중인 주택유형 ····· 90

〈표 3-9〉 자녀 양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택유형 ····· 91
〈표 3-10〉 아파트/단독주택이 자녀양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92
〈표 3-11〉 현재 거주지 선택의 가장 주된 이유 ····· 94
〈표 3-12〉 현재 거주단지의 양육친화 정도 ····· 95
〈표 3-13〉 현재 주거단지가 양육하기 좋은 이유 ····· 97
〈표 4-14〉 현재 주거단지가 양육하기 좋지 않은 이유 ····· 99
〈표 3-15〉 육아친화 주거단지 중요도 및 현재 거주하는 단지에 대한 진단 ····· 100
〈표 3-16〉 육아친화 거주단지의 중요도 ····· 100
〈표 3-17〉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 102
〈표 3-18〉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의 중요도 ····· 102
〈표 3-19〉 육아친화 주거단지 물리적 환경의 중요도 및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정도 ····· 104
〈표 3-20〉 육아친화 거주단지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의 중요도 ····· 106
〈표 3-21〉 육아친화 거주단지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중 우리 가족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정도 ····· 107
〈표 3-22〉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이용 의향 ····· 108
〈표 3-23〉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중요도 ····· 110
〈표 3-24〉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의향 ····· 111
〈표 3-25〉 영아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상위 10위(1+2순위) ····· 112
〈표 3-26〉 유아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상위 10위(1+2순위) ····· 112
〈표 3-27〉 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상위 10위(1+2순위) ····· 113
〈표 3-28〉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10위(1+2순위) ····· 113
〈표 3-29〉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이용의향 ····· 114
〈표 3-30〉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중요도 ····· 115
〈표 3-31〉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의향 ····· 116
〈표 3-32〉 철학과 가치 공유 방법 ····· 117
〈표 3-33〉 육아 관련 커뮤니티 시설 운영 시 실무자 필요성 인식 정도 ····· 118
〈표 3-34〉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육아 코디네이터 운영 주체 ····· 120
〈표 3-35〉 육아 코디네이터의 적절한 근무 형태 ····· 121
〈표 3-36〉 육아 코디네이터의 자격 요건 ····· 122
〈표 3-37〉 육아 코디네이터의 적정 임금 ····· 123
〈표 3-38〉 육아 코디네이터 운영의 비용 분담 방식 ····· 124
〈표 3-39〉 육아 코디네이터의 급여 공동 분담 수준 ····· 126
〈표 3-40〉 단지 내 프로그램/시설 운영 관리인력 필요여부 ····· 127
〈표 3-41〉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중요도 및 주거단지 내 이용의향 ····· 128
〈표 3-42〉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중요도 ····· 130

CONTENTS

〈표 3-43〉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가 이용 가능 시 이용 의향 ····· 131
〈표 3-44〉 자녀 연령별 특징과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대한 요구 내용 ····· 152
〈표 4-1〉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철학적 요소 체크리스트 ····· 159
〈표 4-2〉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 요소 체크리스트 ····· 161
〈표 4-3〉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요소 체크리스트 ····· 164
〈표 4-4〉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관련 요소 체크리스트 ····· 166
〈표 4-5〉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 168
〈표 4-6〉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충족 항목 수 ····· 172
〈표 4-7〉 조사단지(R 아파트) 개요 ····· 173
〈표 4-8〉 조사단지(R 아파트)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진단 ····· 174
〈표 4-9〉 조사단지(B 아파트) 개요 ····· 178
〈표 4-10〉 조사단지(B 아파트)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진단 ····· 179

그림 차례

[그림 1-1]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개발을 위한 협동 내용 ····· 7
[그림 1-2]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자 조사 내용 ····· 9
[그림 1-3] 연구 흐름도 ····· 13
[그림 2-1] 육아친화 개념도 ····· 24
[그림 2-2] 신혼부부의 육아지원 서비스 수요 ····· 34
[그림 2-3]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합" 교육공간의 조성 ····· 39
[그림 2-4]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거주 예정 입주자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 ····· 52
[그림 2-5] 국민임대 신혼부부 특화단지 추진방안(LH, 2018) ····· 53
[그림 2-6] 통학길 특화 설계 '학교 가는 길' ····· 55
[그림 2-7] 신혼희망타운 평면 예시(전용 55㎡) ····· 55
[그림 2-8] LH 맞춤형 놀이터 설계(안) ····· 56
[그림 2-9] 보육특화시설 설비기준 ····· 57
[그림 2-10] LH 공공임대주택 단지 육아 지원서비스 시설 운영현황(2020) ····· 57
[그림 2-11] LH 공공형 실내놀이터 ····· 60
[그림 2-12] 충북혁신 천년나무4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 61
[그림 2-13] 그로잉 센터 및 주거서비스 전문 코디네이터 운영 계획 ····· 62
[그림 2-14] 주거매니저 운영방식 ····· 63
[그림 2-15] 생활관리사 운영방식 ····· 64
[그림 2-16] 커뮤니티 시설 운영방식 ····· 64
[그림 2-18] 무지개 서비스 내용 ····· 65
[그림 2-19] 육아지원 커뮤니티 운영방안 모델 ····· 66
[그림 2-20] 캐나다의 자연친화적 놀이터 ····· 68
[그림 2-21] 식재를 통한 주거단지 기후환경 개선 ····· 69
[그림 2-22] 사이타마현 현영주택의 육아지원 리모델링 ····· 70
[그림 2-23] UR 하트아일랜드 신전의 어린이보육시설, 키즈룸, 놀이터 ····· 71
[그림 2-24]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 ····· 76
[그림 2-25]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 당 평균 참여인원 현황추이(2010-2019) ····· 77
[그림 2-26]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 79
[그림 3-1] 아파트가 양육하기 좋은 이유 ····· 93
[그림 3-2] '아파트 외'가 양육하기 좋은 이유 ····· 93

CONTENTS

[그림 3-3] 현재 주거단지가 양육하기 좋은 이유 (N=848명 응답) ····· 97
[그림 3-4] 현재 주거단지가 양육하기 좋지 않은 이유 (N=173명 응답) ····· 98
[그림 4-1] 육아친화 주거단지 구성요소 ····· 157
[그림 5-1]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모형 ····· 189
[그림 5-2]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방안 ····· 193

01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1분기에 0.9명, 2분기와 3분기에 0.84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이자 세계 최저의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세계 평균 2.4명, 유럽연합(EU) 평균 1.59명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현저하다.[1]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는 초저출산을 넘어서는 '초초저출산 사회'인 것이다. 인구의 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 노동력 감소, 소비 및 세수 부진, 잠재성장율 둔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고갈 등으로 이어져 국가 존망과 직결된다. 이러한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단순한 양적 지표가 아닌 '그 사회가 일과 육아를 양립하며 생활하기 어렵다는 정도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로 보아야 한다."[2]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육아지원정책은 시간과 서비스,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포함하는 시간지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서비스 지원,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 등의 현금지원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육아지원을 위한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저출산 대응으로 비롯되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부터는 그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인의 선택 존중', '삶의 질'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대하는 공공성 강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다면적인 육아지원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정작 정책수요자인 부모에게 체감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책의 목표로 삼은 육아의 질, 삶의 질의 강조하기위해서는 기존의 육아지원정책이 범주에 더하여 삶이, 육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공간'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표현과 같이 육아지원은 지역사회, 주거단지, 생활공간 안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고려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육아정책의 정책 수요자들이

1) 서울이코노미뉴스(http://www.seouleconews.com). 2020. 1.13. "핵폭탄보다 무서운 재앙...韓 세계 최저 출산율 대처, 지금이 '골든타임'"에서 인용(2020년 1월 14일 인출함).
2) 본 연구의 일환인 육아친화주거단지 조성 포럼 발표 원고(백선희 소장) 내용임.

일상생활에서 가장 밀접하게 체감하는 생활환경으로의 주거단지 내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온 마을'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아이 기르는 일, 육아의 과정이 지닌 다면적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양육하는 가정이 속한 주거환경에 담긴 요소들을 다루는 다양한 전문분야에서의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육아친화적 환경이란 아이 기르는 데 최적화된 교육·보육시설, 공원 녹지 등의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 내 도로 교통 등의 인프라, 육아 및 가족지원 제도, 지역주민의 인식과 참여 등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협력이 필요하다. 즉 '아이 기르기 좋은', '육아친화'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성에 기초한 다면적 이해를 토대로 필요한 요소를 논의하고 수렴하여 구체화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성장하는 영유아의 변화를 아우르는 지속가능성이 반영되어야한다. 육아친화적 요소도 영아, 유아, 초등학생으로 선정함에 따라 변화하여 이를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혼부부,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저학년 부모 등 자녀의 유무, 자녀의 연령에 기초한 요구 수렴이 필요하며, 공간의 구성과 운영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 현재 주거단지가 지닌 육아친화성의 정도를 진단하고,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여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아이 기르기 좋은,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기존 정책들이 어떻게 수요자의 생활환경 안에서 실행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 실효성 있는 육아지원정책의 구현을 위해서는 주거단지 내에 거주 주민이 체감하는 친화 정도 평가와 더불어 요구 수렴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19년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연구(1)'의 수행을 통해 시군구 단위 지역사회에서 이를 진단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와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을 개발하였다. 마을 내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를 중심으로 진단하는 객관적 '육아친화마을 지표'의 구성과 지역별 수요자의 욕구조사를 토대로 '육아친화 진단 체크리스트' 구성이라는 두 개의 축을 지닌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3] 그러나 마을 범위에의 이해가 다양하고 조작적이지 못해 정책수요자의 생활환경에서의 체감은 시군구 단위의 접근보다 더 작은 주거단지 내 개선 시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

3)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는 〈부록 1〉로 소개함.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부록 2〉로 소개함.

주거 환경에 대한 선행연구들도 많이 진행되었고, LH공사나, SH공사 등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육아하는 가정을 위한 환경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거단지 내 거주자들에게 양육지원이 실질적 체감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육아를 위한 다양한 공간의 제공에서 더 나아가 이용 가능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안내, 지역사회 육아지원 체계와의 연계,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등의 기능적인 역동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육아, 환경, 교육, 교통, 주거단지 공급주체 등 각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육아친화적 환경의 요소를 구체화하고,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생활환경인 주거단지의 육아친화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친화마을 조성 모형'을 주거단지에 적합하게 발전시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을 개발하고 조성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첫째, 육아친화성,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개념을 명료화한다. 기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나타난 육아친화의 개념을 검토한다. 또한 주거단지의 개념과 범위를 논의하여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의미를 구체화한다.

둘째, 육아친화 주거단지로 파악되는 국내외 사례를 파악한다.

셋째,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포럼 운영으로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 방향성과 지녀야 하는 요소에 대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의 다학제적 해석을 도모한다.

넷째,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요구를 수렴한다. 신혼부부를 포함하여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부모, 유아부모, 초등학생 부모가 지향하는 육아친화성을 구체화한다. 자녀의 성장, 구성원의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육아친화성의 구현 방법을 모색한다.

다섯째,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진단도구인 체크리스트를 구성한다. 육아를 지원하는 직접적인 인프라(교육·보육시설, 양육지원센터)와 더불어 간접지원 인프라(공원·녹지, 도서관, 도로·교통, 공기 질, 유해 시설, 범죄율 등)를 포함한다.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특성 도출 가능한 육아친화 체크리스트 풀(pool)을 구성한다. 기본적으로 2019년 육아정책연구소에서 개발한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와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을 토대로 시군구 단위가 아닌 주거단지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으로 발전적 연구를 도모한다.

여섯째, 육아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방안'을 제시한다.

2.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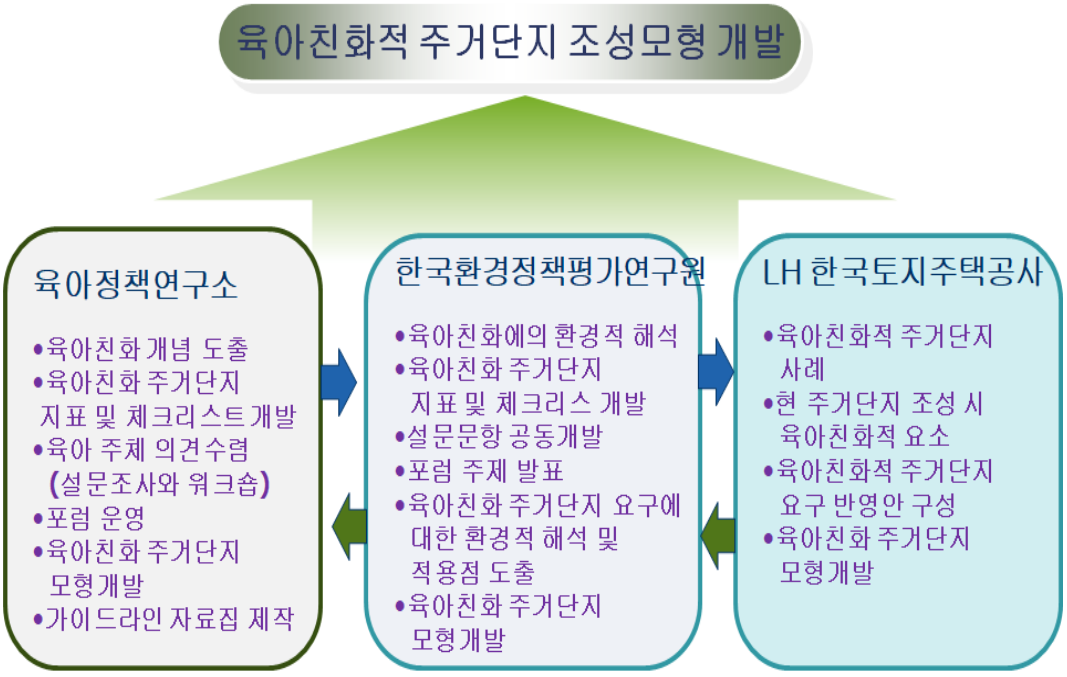
가. 협동연구 기획 추진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환경정책연구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업으로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모형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며, 그 협력 내용은 [그림 1-1]과 같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친화에의 개념과 요소를 구체화하고,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지표 및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인프라, 인적네트워크의 구성 부분을 집중 담당하고, 설문조사와 참여형 워크숍을 운영하여 육아주체의 의견을 수렴 하며, 전문가 포럼을 운영함. 또한 최종 도출된 모형을 담은 가이드라인 자료집을 제작한다.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은 육아친화에의 대한 환경친화적 관점에서의 해석과 더불어 아이 기르기 좋은 주거단지의 환경 부분을 집중 담당하고, 설문지 개발, 포럼 발표, 수렴된 요구를 반영하는 환경적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 발굴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관련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고, 설문지 개발, 포럼 발표 등에 참여하고, 연구를 통해 도출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지표와 체크리스트, 수요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현장 적용 방안을 모색한다.



[그림 1-1]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개발을 위한 협동 내용

나.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전문가 포럼 개최

주요 연구방법으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지속적인 포럼운영을 통해 다학문적 배경을 지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육아친화적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그리고 산학연의 협력과 융합이 중요하다.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적기업 더함, 국외전문가(일본) 등 각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2장에 정리하였다.

1차 포럼은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 대한 발산적 이해를 주제로 하였고, 2차 포럼은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건, 3차 포럼은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이루어졌다. 포럼의 운영 개요는 다음 〈표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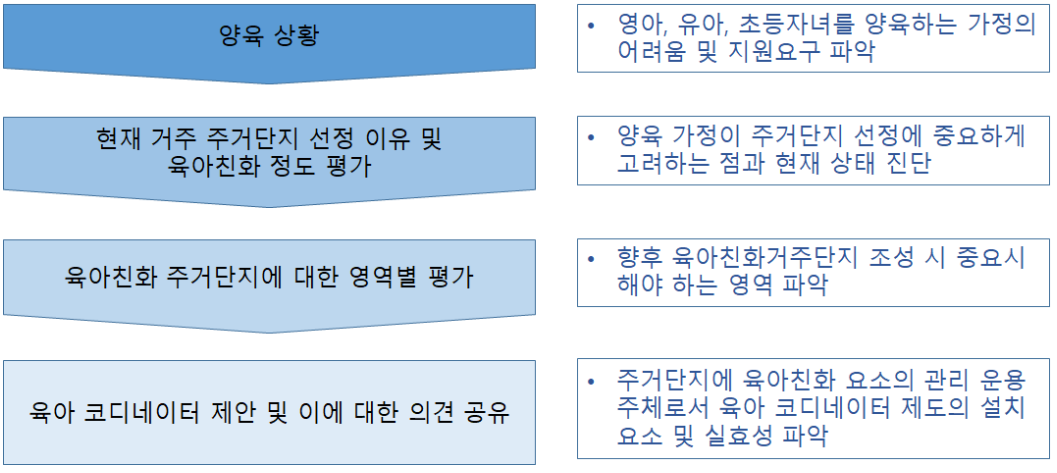
〈표 1-1〉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포럼 운영 개요

차시	구분	내용
1차 10월 13일(화)	주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 대한 발산적 이해
	발제	공간정책과 결합한 육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
		육아친화의 의미해석: 양육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연구위원)
		육아친화 주거단지에의 환경적 요소 – 생태·녹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손승우 전문연구원)
		육아친화주거단지 조성 방향 – 단지계획적 요소를 중심으로 (LH 토지주택연구원 정소이 수석연구원)
		양육 친화 주거 정책의 발전방안과 육아 친화 주거단지 조성 (국토연구원 이길제 부연구위원)
2차 10월 27일(화)	주제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건
	발표	[배움중심 마을학교] 도시는 교육을 어떻게 좌우하는가?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철 본부장)
		보육 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향 (SH서울도시주택공사 천현숙 SH도시연구원장)
		육아친화 아파트단지를 위한 보행안전 제도와 설계 (한국교통연구원 장한별 부연구위원)
		공동체 아파트틀 육아친화마을로… (사회혁신기업 더함 김종빈 이사)
3차 12월 1일(화)	주제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방안
	발표	가정육아 지원시설 접근성 제고방안 (인천광역시청 윤재석 육아지원과장)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수요자 요구분석 (육아정책연구소 김지현 부연구위원)
		주거단지의 육아친화서비스 지원방안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정소이 수석연구원)
		육아친화 주거단지에의 환경적 요소 진단과 과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손승우 전문연구원)

다. 설문조사를 통한 정책수요자 요구 및 개선의견 수렴

육아의 주체인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친화적 환경에 대한 의견과 요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2020년 9월~10월 중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으로 예비 부모로서 신혼부부도 포함하였다. '아이 기르기 좋은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위해 양육현황, 현재 주거단지 선정 이유 및 육아친화 정도 평가,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대한 영역별 평가, 육아 코디네이터에 대한 의견을 주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사 설문지는 〈부록 4〉로 제시하였다. 그 개요는 다음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수요자 조사 내용

양육 지원요구 수렴에 초점을 둔 만큼 조사대상은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영아 자녀를 둔 부모 304명, 유아자녀를 둔 부모 300명,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304명, 신혼부부 113명을 포함하여 1,021명이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특성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지역규모		어머니 취업 여부	
대도시	62.4(637)	취업	61.9(632)
중소도시	33.0(337)	무직	37.7(385)
읍면지역	4.6(47)	어머니 안 계심	0.4(4)
성별		거주형태	

구분	비율(수)	구분	비율(수)
남자	56.7(579)	자가	60.6(619)
여자	43.3(442)	민간임대	35.7(365)
응답자 연령대		공공임대	2.7(28)
20대	5.0(51)	기타	0.9(9)
30대	55.4(566)	월 평균 가구 소득	
40대	37.2(380)	200만원 미만	1.9(19)
50대	2.4(24)	200 ~ 399만원	22.5(230)
자녀 연령		400 ~ 599만원	35.7(365)
영아	29.8(304)	600 ~ 799만원	22.4(229)
유아	29.4(300)	800 ~ 999만원	12.0(123)
초등저학년	29.8(304)	1000만원 이상	5.4(55)
계(수)		100(1021)	

라. 심층면담 및 FGI 실시

1) 정책수요자 대상 심층면담

정책수요자인 영유아 부모와 초등 저학년 부모를 대상으로 양육지원요구와 살고 싶은 주거단지를 주제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을 위한 부모 질문지 〈부록 5〉로 제시하였다. 특히 현재 상대적으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로 고려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양육자들이 체감하는 특성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 추진 개요는 〈표 1-3〉으로 제시하였다.

〈표 1-3〉 심층면담 추진 개요

	구분	내용
1차	일시	9월 24일(목)
	대상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 주민(사회적 기업 더함 단지, 2020년 입주) - 영유아 부모 4인 - 초등학생 부모 4인
2차	일시	12월 11일(금), 14일(월) 전염병 상황이 엄중하여 일대일 전화 인터뷰로 진행함
	대상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신혼부부 특화단지, 2018 입주) 영아 부모 3인/ 유아 부모 3인 (행복주택 거주자 중에는 초등 학부모가 극소수로 섭외가 안됨)

연구진행 과정에 감염병 상황이 엄중하여 영유아 양육 가구와의 직접 면담이 어려워 일대일 전화 면담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도 하였다. 응답자의 특성은 〈표 1-4〉와 같다.

〈표 1-4〉 심층면담 응답자 특성

	일시	대상	내용				
1차	9월 24일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 주민	자녀 연령		낮 시간 이용 기관	양육 지원	맞벌이 여부
			만 6세		어린이집	-	외벌이
			만 1세		-	부모님	외벌이
			만 4세	만 2세	어린이집	-	맞벌이
			만 7세	만 1세	초등학교/ 어린이집	품앗이	맞벌이
			만 8세		초등학교	품앗이	맞벌이
			만 8세	만 5세		품앗이	맞벌이
			만 8세	만 6세	초등학교	-	맞벌이
			만 7세	만 5세	초등학교	-	맞벌이
2차	12월 11일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주민	만 2세		어린이집	부모님	맞벌이
			만 3세		어린이집	-	외벌이
			만 4세		어린이집	-	외벌이
			만 8세	만3세	초등학교/ 어린이집	-	맞벌이
			만 5세		어린이집	부모님	맞벌이
			만 6세		유치원	-	외벌이

2) 정책실무자 대상 FGI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원체계 업무 담당자와의 FGI를 개최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거단지의 육아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대표적인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전달체계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연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등 본 연구의 결과로의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모형과 제언의 초안을 작성한 뒤 업무 담당자와의 FGI를 개최하여 그 연계 협력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마. 전문가 조사

연구 착수 당시 연구를 통해 개발한 체크리스트 풀(pool)을 활용하여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요구를 영아 부모와 유아 부모, 초등학생과 초등학생 부모 대상으로 숙의 토론의 방식으로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연구 기간 중 감염병 상황이 심각하여 연구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다. 연구를 통해 육아친화 주거단지 진단과 조성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구성한 뒤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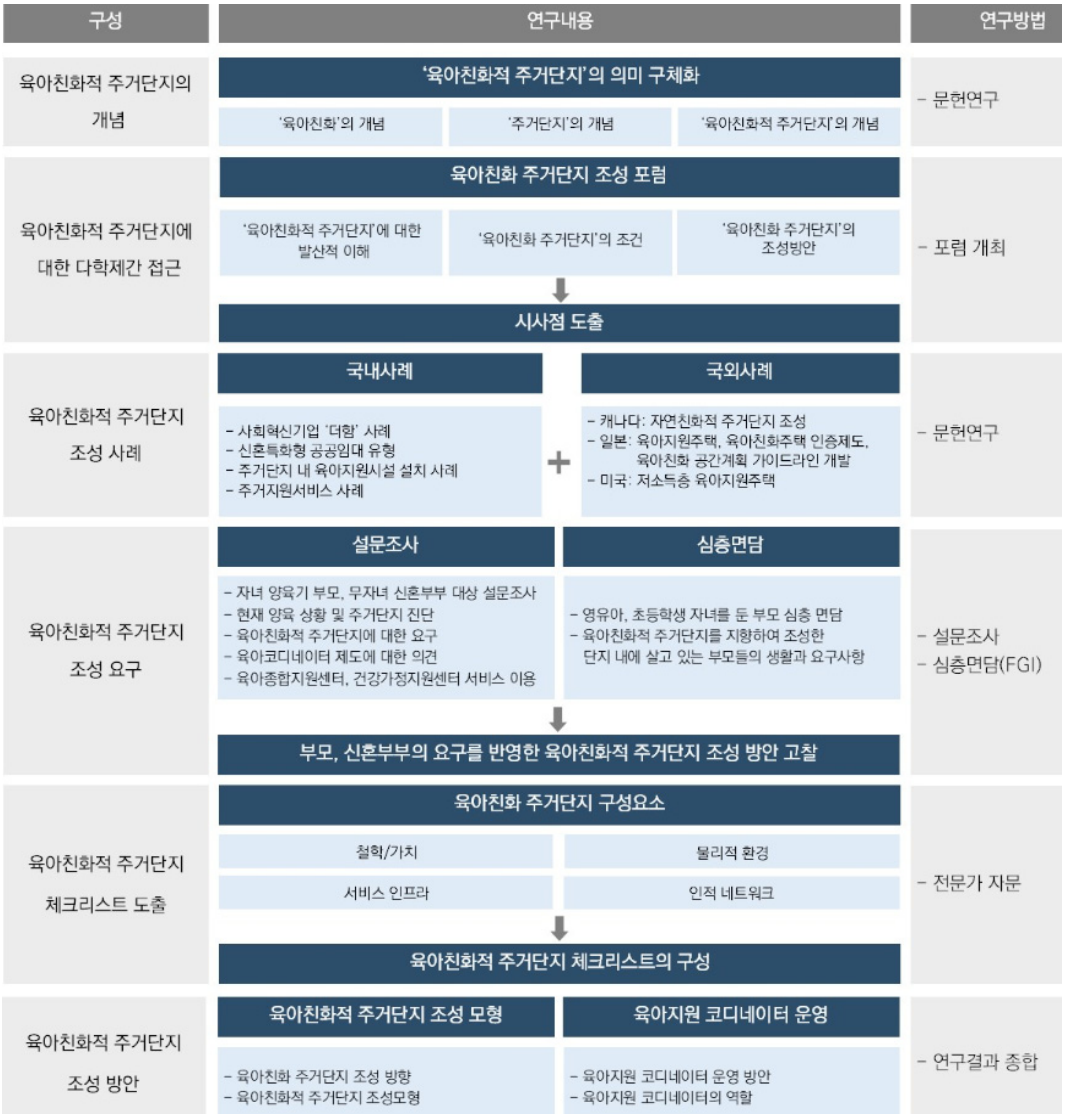
〈표 1-5〉 전문가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일시	2021년 1월 20~27일
대상	관련 전문가 20인 육아지원 분야 2명/ 환경 분야 2인/ 교통 분야 2인/ 교육 분야 2인/ 보육 분야 2인/ 지자체 정책실무자 2인/ 육아종합지원센터 2인/ 건강가정지원센터 2인/ 아동돌봄 전문가 2인/ 행정 전문가 2인

사.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리플렛 제작

주거단지 조성 시 육아친화성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한 본 연구결과를 담은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리플렛을 구성하였다. 이 체크리스트는 기존 주거단지의 육아친화성 검토와 더불어 추후 LH의 신규 주거단지 조성 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추진 내용과 방법은 다음 [그림 1-3]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구성
연구내용
연구방법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개념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의미 구체화
'육아친화'의 개념
'주거단지'의 개념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개념
- 문헌연구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 대한 다학제간 접근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 대한 발산적 이해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건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방안
시사점 도출
- 포럼 개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사례
국내사례
국외사례
- 사회혁신기업 '더함' 사례
-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유형
- 주거단지 내 육아지원시설 설치 사례
- 주거지원서비스 사례
+
- 캐나다: 자연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 일본: 육아지원주택, 육아친화주택 인증제도, 육아친화 공간계획 가이드라인 개발
- 미국: 저소득층 육아지원주택
- 문헌연구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요구
설문조사
심층면담
- 자녀 양육기 부모, 무자녀 신혼부부 대상 설문조사
- 현재 양육 상황 및 주거단지 진단
-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 대한 요구
- 육아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한 의견
-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 영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 심층 면담
-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를 지향하여 조성한 단지 내에 살고 있는 부모들의 생활과 요구사항
부모, 신혼부부의 요구를 반영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방안 고찰
- 설문조사
- 심층면담(FGI)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도출
육아친화 주거단지 구성요소
철학/가치
물리적 환경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체크리스트의 구성
- 전문가 자문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방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방향
-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모형
-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방안
- 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의 역할
- 연구결과 종합

[그림 1-3] 연구 흐름도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육아친화는 양육을 하는 가정이 자녀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아동친화도시', '육아친화마을', '육아친화 스마트시티' 등 공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 육아친화의 개념을 적용한 연구들이 그 범위와 대상 및 그 강조점을 달리하며 진행되어 왔다. 이미화·이윤진·박상신 외(2018)는 아동친화도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아동친화도시의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아동친화도시는 정신건강, 보건영역에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아동친화도시의 경우 아동 참여권에 초점을 두어 아동에 대한 성인의 인식개선과 부모대상 아동권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육아친화마을이라는 개념화와 구성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권미경 외, 2019). 연구는 육아친화마을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그 기본요건을 파악하여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러한 육아친화마을이 조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실제 사례에서 파악하고 적용하였다.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를 도출하고, 지역맞춤형 육아친화 마을 조성 요소도출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요소로 육아하는 가정을 배려하는 철학적 가치와, 육아를 하는데 필수적인 교육, 보육, 의료, 문화 시설들의 서비스 인프라와, 안전하고 편리한 놀이공간 및 육아공간이 조성되는 물리적 환경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인적네트워크를 제시하였다(권미경 외, 2019: 78).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강은진 외, 2020).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시티가 지역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서비스도 방범, 교통. 환경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제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30대와 40대 청년인구의 양질의 일자리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의 구축함과 동시에 인간중심적 기술을 구현하여, 영유아 가구의 생애주기별 욕구와 다양한 요구를 고려한 테크놀러지를 구현하는 것이다(강은진 외, 2020:220).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육아친화적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 도시의 계획과 개발에서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영유아 가구가 함께 참여해

나아가는 개념으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에 활용 가능하다.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육아관련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연구들도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다. 강은진·유해미·윤지연(2016)에서는 지역마다 육아지원환경이 다름은 인식하고, 친양육적인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환경 관련 요소 개념화하고 지역환경에 맞는 양육환경을 제공하도록 하여 저출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에서는 육아지원 환경을 영유아 교육·보육 영역, 육아지원서비스 영역, 돌봄 지원 영역, 문화인프라 영역,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영유아 안전관리·보호영역으로 구분하였다(강은진 외, 2016: 120-123).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맞게 전국의 육아지원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돌봄지원 환경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윤진·조혜주(2014)는 핵가족화 된 현대사회에서 정형화된 공식 보육서비스로 충족되기 어려운 가정의 다양한 육아수요에 대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하였다.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육아수요에 부응하고자 설치된 육아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 건강가정지원센터(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육아지원 네트워크 모델 개발을 제시하였으며, 개발 방향으로 '부모-자녀의 권익을 최우선시', '육아하는 가정의 접근성, 유익성, 편의성 도모'를 제시하였다. 이는 육아친화 거주단지의 구성에 있어서도 주변의 육아를 지원하는 기관들과 긴밀히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아이를 잘 낳아 기를 수 있고, 이러한 아이와 가족이 안전하게 기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김지혜 외(2019)는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에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를 정의하였다. 연구에서는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에서 중요한 점으로 일상생활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양육을 하는 가족에게 다양한 주거지원과 주거인프라, 주거서비스를 제공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구성요소로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을 하는 지원정책,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주거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주거인프라 지원정책, 그리고 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지원받게 되는 주거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정소이·최은희·박서경(2018)는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 및 계획방향 연구'에서는 신혼 및 육아를 하는 가정의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택정책수립의 일환으로 육아친화적 주거환경 조성을 연구하였다.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의 목표 아이를 낳아 기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안정성을 확보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하였다(정소이 외, 2018: 274). 육아친화 거주단지 조성에 있어서 저렴하고 장기

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생애주기 맞춤형 주택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정소이 외, 2018: 274), 저출산 대응 주택계획의 방향으로는,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아이를 키우기 편리한 환경, 그리고 함께 돌보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백혜선·이영환·박윤재(2018)는 '공적 돌봄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LH형 육아지원 공공주택단지 구축방안 연구'에서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중심 온종일 돌봄의 지원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LH형 육아지원 공공주택단지 조성방안에 대한 실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조성방안으로 지역 내 육아지원 환경에 대한 상시 분석, 중앙정부의 공적 돌봄 프로그램과의 효율적 연계, 공간 위계별 시설 설치 방향의 설정, 지속적인 운영체계 구축, 제도 개선 사항 도출 및 개정 추진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담당부서와 운영 주체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아이 기르는 일'이 지니는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육아친화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육아친화주거단지 조성포럼' 운영을 통한 전문 분야 간 다학제적 접근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연구 참여 주체인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뿐 아니라,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사회적 혁신기업 더함 등 전문가들과 기관장이 공동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함으로써 양육의 다면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자녀 연령, 부모 연령, 맞벌이 여부 등의 부모특성, 주택유형 등을 고려한 양육지원요구를 수렴하여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실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실제적 접근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육아지원을 위한 공간의 배치를 넘어서는 육아지원 서비스 간의 연계,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 및 연계를 강조하고자 한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부모 공동체 구성,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 상담과 정보제공 등이 업무를 담당하는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배치를 중심으로 육아친화성을 향상하고자 한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요소를 진단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향후 조성하는 주거단지에 적용을 도모함으로써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을 갖춘 주거단지' 확산을 도모하고자한다.

〈표 1-6〉 선행연구 요약 및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 연구(김지혜 외, 2019). -연구목적: 저출산에 대응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안 제시	-문헌연구 -정책협의 및 전문가 자문 -통계분석 -사례 및 해외 정책조사	-'양육친화', '주거정책'의 개념 검토,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정립, 구성요소, 범위 정의 -저출산 대응정책과 지원현황 분석 -삶의 질 관점에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안 제시
	2	-과제명: 공적 돌봄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LH형 육아지원 공공주택단지 구축방안 연구(백혜선 외, 2018). -연구목적: 온종일 돌봄의 지원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는 LH형 육아지원 공공주택단지 조성방안 도출	-문헌연구 -정책협의 및 전문가 자문 -사례 및 해외 정책조사	-국내 육아관련 사회현상 진단 -중앙부처 육아지원 정책 및 현황 분석 - LH 육아지원 사업 추진 현황 분석 -공적 돌봄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LH형 육아지원 공공주택단지 조성방안 제시
	3	-과제명: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 및 계획방향 연구(정소이 외, 2019). -연구목적: 신혼 및 육아를 하는 가정의 주거안정성 확보하는 주택정책 일환으로 육아친화적 주거환경 조성방안 모색	-문헌연구 -소셜 빅데이터 분석 -신혼육아세대대상 FGI -텍스트분석 -현장 및 담당자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및 LH실무담당자 협의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주거정책 중요성 검토 -신혼부부 육아세대의 저출산 관련 심층 주거수요 도출 다양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저출산대응 주택정책 및 주거모델 계획방향 제언
	4	-과제명: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리빙랩 운영방안 연구(강은진 외, 2020). -연구목적: 스마트시티를 추진 중인 도시중심으로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모델과 리빙랩 운영방안 제시	-문헌연구 -설문조사 -스마트시티 관련 워킹그룹 운영 -전문가 자문 숙의 토론제 공간 데이터 분석	-육아친화도시와 스마트시티 개념 및 동향 검토 -국내외 리빙랩 운영 사례조사 및 분석 -육아관련인프라 환경 평가 육아친화성 환경 수요조사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모델 및 기초설계
	5	-과제명: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방안 연구(1)(권미경 외, 2019). -연구목적: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마을 조성을 위한 지표와 체크리스트를 포함하는 조성모형 개발	-문헌연구 -정책협의 및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 -사례조사 및 해외 정책조사 -주민참여 워크숍 -전문가 자문회의	'양육친화', '주거정책'의 개념 검토,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개념정립, 구성요소, 범위 정의 현행 저출산 대응정책과 지원현황 분석 삶의질의 관점에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안 제시
본 연구		-과제명: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모형개발 연구 -연구목적: 아동과 육아하는 가족이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해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을 개발, 보급하는 것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 LH와 협동연구로 추진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 전문가 포럼(3회) -설문조사 -심층면담 및 FGI -주민 참여워크숍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개념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 대한 정책수요자의 요구 수렴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체크리스트 구성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제시

02

연구의 배경

본 장에서는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연구의 배경으로 다음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무엇보다 육아친화 주거단지는 과연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선행연구와 유사 친화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그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에서 공유된 다학문적 배경을 지닌 전문가들의 발제를 중심으로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이 지녀야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또 그러한 환경의 구축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로 고려될 수 있는 국내외 주거단지와 지원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사업에 대해 살펴보아 향후 주거단지 육아지원기능과의 접목 가능성을 살폈다.

제1절 ‘육아친화(育兒親和)’의 개념

1. 육아친화(育兒親和)에의 논의

‘육아친화’란 어떤 환경을 구성하거나, 정책적인 가치를 설정할 때에 영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키우고 있는 가족의 입장에서 생활하기 편하도록 환경, 서비스, 시설들을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육아친화 개념은 육아친화 마을 조성방안 연구(권미경 외, 2019:55)에서 언급되었으며, 기존의 가족 친화, 아동/청소년 친화 개념과 강조점은 다르나 공유되는 부분이 있다. 비교하여 설명하자면, 가족 친화는 아동 및 노약자를 포함한 가족의 돌봄 기능의 사회화를 위한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김도희, 2017: 92), 아동/청소년 친화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우선시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박금식·박지영, 2018: 14). 하지만 육아친화는 아동 친화 및 가족 친화 대상의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그 대상 자체보다는 영아·유아를 포함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치와 행위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미경 외, 2019: 53).

또한, 육아친화의 가치에는 아이들을 불편한 존재가 아닌 우리 마을 또는 사회가 잘 키워내야 할 의무가 있는, 함께 책임져야 하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러한 육아 환경을 모두가 함께 만들어간다는 책임의식이 포함되고,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육아친화의 개념에는 육아하는 부모의 권리와 노동할 권리가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이 포함된다. 육아는 부모가 자녀를 책임지고 돌봐야 할 의무이자 동시에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권리이다. 또한, 육아는 부모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는 노동을 하면서도 양육을 해야 할 의무가 동시에 있기 때문에, 노동권과 부모권이 동시에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실질적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권미경 외, 2019: 53).

육아친화 개념이 보편화되고, 부모 모두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지지받는 성평등 한 문화가 자리 잡았을 때, 가족의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 직장에서의 가족친화제도의 시행은 가정의 육아를 지지하는 육아친화적 제도의 하나이며,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 시행 및 이용 빈도의 증가는 육아를 하는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동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준다(최지은·김현경, 2019: 156-157).

2. 육아친화(育兒親和)의 요소

아이를 잘 키우는 일은 가족에게도 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한 육아친화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다. 첫째,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이해를 넘어 존중과 환대가 뒷받침되어야(권미경 외, 2019: 67).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에 대한 어려움과 중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는 경우, 아이들과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피하려는 경향이 생겨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일부 식당 등에서는 노키즈존(No kids zone)[4] 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이들을 불편한 존재로 생각하는 일부의 시선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며, 이러한 시선으로, 자녀를 동반하여 외출하는 부모의 경우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하는 데 있어 물리적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겪게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2017)는 일률적으로 아동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행위로 보고, 13세 이하 아동을 이용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최근 저출산 추세로 인해 실제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에는 감소가 있고, 아이들 보육 및 교육 시설들에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추세일수록 육아친화적 가치를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저출산 추세로 인해 신혼부부 사이에서도 자녀 출산이 소폭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며, 아이 출산 계획이 없는 신혼부부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나, 재출산 의향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정소이 외, 2018: 23).

둘째, 육아친화는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안전하고 편리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육아친화적인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동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모차 이용뿐 아니라, 아동들이 직접 사용하는 킥보드, 자전거 등의 이동에도 무리가 없도록 길에 턱을 없애고, 이동이 안전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들이 노는 놀이터의 설계, 바닥의 재질 등도 안전을 우선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육아를 하는 가정 및 육아 자체의 행위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위해서는 육아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지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를 키우는 행위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수유실, 기저귀 교환대 등 양육에 필요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외에도 아이들의 놀이시설, 공원시설, 공동육아가 가능한 공간 등 육아에 필요한 공간들을 고민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육아 친화적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육아를 하는 데 필요한 편의 시설들, 서비스 인프라의 설립과 원활한 운영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과 함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병원 및 의료시설, 초등학교 및 교육기관이 마련이 필수적이며, 교육환경, 놀이 및 여가환경,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이미화 외, 2019). 또한, 문화체육 시설 및 공연장 등 문화시설

4) 2014년에 사용된 신조어로 영유아 및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업소를 뜻함

의 설립은 신체적 발달과 문화적 경험을 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아이들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양육 친화적 지역사회 구성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이외에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과 연계된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이윤진, 2015). 지역사회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 및 도서 대여가 가능하고,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 긴급하게 돌봄을 제공해줄 수 있는 시설 등 육아에 도움이 될 시설의 고안 및 마련이 필요하다.

강은진 외(2016)에서는 육아친화환경 영역 및 요소를 영유아 교육·보육 영역, 육아지원 서비스 영역, 돌봄 지원 영역, 문화 인프라 영역,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 영유아 안전관리·보호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에 요소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강은진 외, 2020).

〈표 2-1〉 육아친화환경 영역 및 요소

구분	요소
영유아 교육보육 영역	국공립 유치원, 어린이집 공급률 및 정원충족률
육아지원서비스 영역	육아관련 기관(지역아동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유아교육진흥원) 공급 수준
돌봄지원 영역	시간제보육, 시간연장형, 24시간 보육, 휴일보육, 온종일돌봄 서비스 공릅률과 인력규모, 산모신생아도우미, 아이돌보미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워킹맘, 워킹대디 센터 인력규모
문화인프라 영역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 어린이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문화복합시설, 사회복지관, 박물관, 미술관, 공원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영유아 건강검진 실시기관, 어린이 전문 병원 공급률, 예방접종률
영유아 안전관리·보호영역	보행환경,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안전 체험 교육,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 아동 쉼터 공급 수준

자료: 강은진 외(2020).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운영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p. 25.
강은진 외, (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Ⅵ):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 1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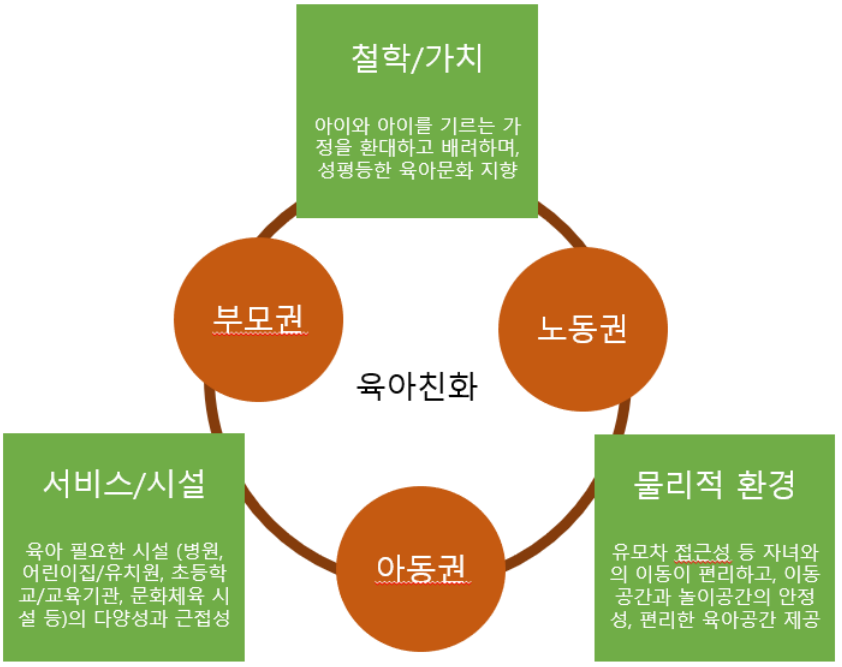
3. 육아친화(育兒親和)의 개념화

"친화(親和)의 사전적 의미[5]는 '사이좋게 잘 어울림', '서로 종류가 다른 물질이 화합함, 또는 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차용하면 육아친화(育兒親和)라는 성격은 아이 기르는 일(育兒)과 잘 어울리는 것을 뜻하며, 서로 다른 여러 요건들이 잘 화합하여 아이 기르는 일(育兒)에 도움이 되는 상태"이다(권미경 외, 2019. p.55.).

따라서, 육아친화는 육아를 지지하고 환대하는 철학적 가치에서 시작하여, 그 철학을 바탕으로

5)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친화' 검색 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39716&searchKeywordTo=3(2019. 6. 20. 인출)

도시, 마을 및 주거단지 등을 구상할 때 육아하는 가족의 입장에서 공간과 환경을 고려해야한다. 육아를 하는 가정에 필요한 공간과 환경,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이해하고 찬성하는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아이들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육아하는 가구와 아동이 생활하는 공간이 더욱 살기 편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의 근린환경에 대한 이해와 요구 및 주거지역의 특성을 파악하는 등의 아동의 독립적 이동과 생활권에 대한 고민 필요하다(강은진, 2020: 28-29). 이러한 육아친화의 개념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2-1]과 같다.



[그림 2-1] 육아친화 개념도

4. 육아친화와 유사 개념

가. 아동친화

'아동친화'라는 개념은 성인과는 다른 아동만의 특별한 발달과 행동특성을 고려한 개념으로 아동에게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모든 것을 말하며 환경적 측면에서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으로 나누어 설명해야 한다(김숙하, 2015).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를 말한다.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Habitat II)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아동의 행복이 인류의 거주 문제를 생각할 때 적합한 평가지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유니세프는 아동이 살기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정부, NGO등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제의하였고 이것이 결의안으로 채택되어 '아동친화도시' 개념이 등장하였는데, 유엔아동권리협약(CRC)이 제시하는 아동의 4대 기본권은 '생존의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에 필요한 권리, 참여의 권리'이므로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설명하면 '아동이 건강한 삶,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으며 성장, 발달하고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지자체'라 할 수 있다(하정화·박금식·손주영, 2016). 또한, NIUA(2016)는 '아동친화도시'를 '물리적인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아동의 성장에 적합하게 개선되어 아동이 역동적으로 즐겁고 책임감 있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라 정의하였다. 최아수(2019)는 아동친화도시를 '지역 사회 내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도시'의 환경에 초점을 맞춰 정의하였다. 이러한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는 〈표 2-2〉와 같다.

〈표 2-2〉 아동친화도시 구성요소

구분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
유니세프(2019)	아동권리 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옴부즈 퍼슨 아동권리홍보 및 교육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 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지정 요소)
하정화·박금식·손주영 (2016)	놀이와 여가 아동·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 강화로 활용도 증대 여가공간 확보 참여와 시민권 정책기획단계에서부터 아동.청소년 참여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 기존 제도와 프로그램 활용해 참여기회 확대 소속감 필요 안전과 보호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아동·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시민의식 강화

구분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
	교육(학교생활) 아동·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필요 개인생활 -아동·청소년의 능동적인 자세 정책적 요구 지역 특수성 반영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구축 아동·청소년 정책개발 및 지속적인 피드백

자료: 1) 유니세프(2019).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p. 8
2) 하정화·박금식·손주영(2016).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p. 194-195.

나. 여성친화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2015년 7월부터 시행된「양성평등기본법」의 제39조1항에 따라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이라 설명하였다.[6] 1994년 OECD의 '도시여성을 위한 유럽선언'과 1996년 UN의 제2차 '유엔인간정주회의'를 통해 여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해 국제적인 논의가 확산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9년부터 익산시를 시작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며 여성의 삶을 고려한 도시환경 조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2006년부터 김포시에서 신도시개발계획을 위한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2007, 2008년에는 대구와 광교에서 여성친화적인 도시의 조성을 계획한 것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현재는 전국 92개 시군구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정하였다.[7] 이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간조성에 꼭 필요한 구성요소를 정리하였는데 이를 〈표 2-3〉에 나타내었다.

〈표 2-3〉 여성친화도시 구성요소

구분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 구성요소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	시설 단위	신규공간 설치 (범죄예방형 원룸 주택, 여성센터 등)
		출산 양육지원 (수유실 등의 여성편의시설, 임산부 전용 관람구역 지정 유모차 대여 서비스 등)
		시장 (수유 및 놀이시설, 여성고객 편의시설 설치 등)
		공원 (여성편의시설과 가족시설 등 공원 정비사업 등)
		주차장 및 화장실 (여성배려·여성친화 등 공공 주차장 구획선 폭과 넓이 확장 등)

6)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23#J39:0 2020.09.11. 인출)
7)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8.do, (인출일: 2020년 9월 11일)

구분	여성친화도시 공간조성 구성요소	
	구역 단위	마을 만들기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셉티드 디자인 적용, 공동밥상이나 마을돌봄센터 만들기)
		도심재생
		지구단위 계획 (신도시 지구단위 계획에 보육중심거리, 여성특화거리 조성계획)
	이동	이동 안전 (어린이 안심구역 확대 등)
		특화 거리 조성

자료: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다. 가족친화

가족친화의 개념은 전체 가족구성원 모두를 고려한 마을환경 조성에 사용되고 있다. 이송지·김혜장·이경란·곽영선·정영화(2009)는 가족친화마을을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로 정의하였고(이송지 외, 2009: 24), 박소현(2006, 2007) 역시 가족구성원을 고려하여 이들을 고루 만족시키는 마을 환경이라 설명하였다. 홍승아(2007)도 가족친화적 지역사회를 공간이나 공동체가 가족책임과 가족생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사회라 설명하였다. 위의 설명이 포괄된 정의로 가족친화마을에 대해 가족 돌봄이 지역사회 내에서 공유될 수 있고 모든 세대를 위한 공간과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마을이라 정의할 수 있다(차성란, 2010: 65). 가족친화도시의 구성요소를 〈표 2-4〉에 정리하였다.

〈표 2-4〉 가족친화도시 구성요소

구분	가족친화마을/도시의 구성요소	
박소현(2007)[1]	보행거리 200m이내	보육시설, 경로당, 야채를 파는 식료품점, 어린이 공원(놀이터)
	보행거리 800m이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육시설, 도서관(어린이 도서관 포함), 교양 및 문화강좌 제공시설, 생활체육센터, 근린공원, 노인관련 시설, 청소년 수련원, 보건소, 재래시장, 할인점, 백화정
이송지·김혜장·이경란·곽영선·정영화(2009)[2]	기본권, 돌봄, 문화, 교육, 건강복지, 경제, 환경, 통합, 생활영역으로 구성	
차성란(2010)[3]	안락하고 편리한 거주환경	주거, 교육, 의료, 복지, 안전, 교통
	경쟁력 있는 근로환경	기업, 근로, 지원기관
	쾌적하고 즐거운 여가환경	문화, 예술, 경관, 환경, 위락, 스포츠

자료: 1) 박소현(2007). 가족친화마을 평가지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2) 이송지·김혜장·이경란·곽영선·정영화(2009).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3) 차성란(2010). 가족친화마을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63-76.
행정자치부(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모방안 수립연구를 참고로 재작성.

라. 지역사회 친화 조성 정책의 비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자체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친화정책이 추진 중이며 그 특성을 비교하면 〈표 2-5〉와 같다.

'육아친화'는 대상이 보다는 육아하는 행위에 초점을 둔 것으로 공간의 물리적 환경과 그 환경 안에 배태된 사회적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며 해당 환경은 직접 "육아"라는 행위를 수행하는 대상자의 욕구가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권미경 외, 2019: 53).

〈표 2-5〉 각종 친화도시 유형별 특성

구분	친화도시 유형별 특성			
	가족친화	아동친화	여성친화	육아친화
정책대상	가족	아동	여성	아동, 자녀를 기르는 가족
개념	전체 가족구성원 모두를 고려하여 아이를 마음놓고 키울 수 있고 어른들이 오래 살고 싶은 마을(이송지·김혜장·이경란·곽영선·정영화, 2009:24)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가진 지자체	지역정책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육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육아를 지원하는 서비스인프라와 물리적 환경을 갖추고, 온 마을이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지닌 마을
목적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사회화	아동의 권리와 의견을 지역사회에 공유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안전 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2017)	육아하기 좋고,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이 행복한 마을 조성
법적·제도적 근거	건강가정기본계획, 가족친화법	UN아동권리협약	양성평등기본법	*별도 근거는 없음
평가 및 실태조사	2009년, 2012년, 2015년 실태조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인증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별도 평가 및 실태조사는 없음
구축 사례	울산시 등	서울, 전북, 경기 등 전국의 33개 시군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의 92개 시군구	*별도 구축사례는 없음

출처: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54. 〈표 Ⅱ-1-5〉를 수정함.

제2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개념

1. 주거단지에 대한 학술적 정의

우리나라에서 단지식 아파트가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초반(마포아파트, 1962)으로, 이 때 단지계획에 적용한 주요 개념은 Clarence Arthur Perry의 근린주구론(Neighborhood Unit)이다. Perry의 근린주구론[8]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나라 아파트 단지 계획뿐만 아니라 이후 신도시계획에도 적용이 되어 우리나라의 현대적 의미의 주거단지계획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이 미친 이론이다.

양동양(1993)의 저술에는 근린주구 개념에 의한 생활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최두호(2007)에서 재인용)

〈표 2-6〉 근린주구 개념에 의한 생활권 구분

구분	인구규모	면적규모	관련시설
인보구	1,500명	• 6ha • 반경 100m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생활권	• 유치원, 놀이터
근린분구	6,200명	• 25ha • 반경 250m	• 약방, 세탁소, 아동공원
근린주구	25,000명	• 100ha • 반경 500m 정도	• 중학교가 있을 수 있는 범위로서 동사무소, 파출소, 은행, 교회, 슈퍼마켓 등이 필요한 지역
근린지구	100,000명	• 400ha • 반경 1k,m 정도	• 도시생활 대부분 시설이 필요한 범위

출처: 양동양, 도시·주거단지계획, 기문당, 1993, pp.104-105

8) C.A. Perry 의 근린주구론(Neighborhood Unit) : Perry는 근린주구론을 통해서, 규모, 경계, 개방공간, 공공건축용지, 근린점포, 주구 내 가로 체계 등에 대한 여섯 가지 계획원칙을 제시했고, 이러한 원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수용인원 600명의 초등학교를 갖는 한 근린주구 단위 적정인구는 5,000명 정도이며, 해당 근린주구 내에서 주민들이 도보로 상점이나 기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적정한 물리적인 크기를 반경 400m(1/4 mile)로 설정하였다.

최두호(2007)는 주거단지의 공간구조 구성의 기본단위를 생활권계획과 도로계획으로 구분하고, 국내외 주거단지 계획 이론의 고찰을 통하여 주거단지로서 생활권의 기능을 (1) 물리적 환경성으로서의 기능, (2) 공간적 영역성으로서의 기능, (3) 지역적 동질성으로서의 기능, (4) 계층성으로서의 기능, (5) 근린성으로서의 기능 등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주거단지의 범위는 일정범위 내에 기초생활의 근린생활시설 및 제반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근린주구[9] 또는 보행가능영역을 의미한다. 최두호(2007)는 주거단지의 범위를 근린성으로 정의하고, 이를 장소적 근린성과 사교적 근린성으로 다시 구분하여 주거단지의 범위를 정의하였다. 장소적 근린성은 생활권내의 주민들이 편익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으로 주거지와의 거리가 적정할수록 생활권의 장소적 근린성이 강화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사교적 근린성은 동일한 생활권 내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교제가 용이하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단위생활권은 하나의 보행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거단지를 일상적인 활동, 즉 취학아동의 등하교, 공원, 어린이놀이터 등에서의 레크리에이션, 생활필수품의 구매, 이웃과의 교류 등과 같은 활동이 가능한 보행권 범위로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주거단지의 물리적 규모는 거주하는 주택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행가능한 최대 거리 1km 이내로, 단위세대 주동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무리없는 보행거리인 500m~800m 정도로 보행권을 설정한다. 세대 규모의 경우 일정 세대 이상이 확보되어야 커뮤니티시설이 활성화되고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적 범위로 볼 때 1,000~1500세대의 규모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단독주택 주거단지와 공동주택 주거단지 즉, 저밀주거지와 고밀주거지에 적용되는 개념은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거단지는 주택의 집단 내외부에 각종의 생활관련시설-공원, 도로, 학교, 커뮤니티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포함한 종합적 계획을 나타내고 있는 개념이다. 공동주택 주거단지의 구성 요소는 개별 세대와 공용공간으로 이루어진 주거동, 도로·주차장·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공동시설[10] 등의 복리시설, 조경 등의 외부공간 등을 포함한다.

2. 주거단지에 대한 법적 정의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상 그 목적에 따라 주거단지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존재한다.

---

9) 국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에서는, 근린주구의 범위를 반경이 400미터 이내이고 공동주택의 계획건설세대수는 1,000세대~3,000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0) 주민공동시설 :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의미한다.

[참고] 주택법 제2조 제12호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공동주택관리법은 제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택법 제2조제12호의 주택단지를 공동주택단지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대수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참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2항 및 제3항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기타 주거기본법에서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정계획인 주거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으나, 주거단지의 정의나 크기 등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다.

[참고] 주거기본법 제5조 제4항
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주거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주택·택지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이하생략)

3.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개념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거주하고 있는 단지 근처에서 육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고령자에게 AIP(Aging in place)가 중요한 것처럼 단지 내에서 아이 키우는 것을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 및 체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를 단지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육아친화 주거단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육아공간이 필요하며 그 공간을 사용하고 주관해 나갈 사람이 필요하다. 과거에 형제, 조부모, 친척, 동네 이웃 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학습 활동이 가능했던 기능이 현재 살고 있는 집과 동네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육아친화 주거단지는 한 마디로 '아이기르기 좋은' 주거단지이다. 육아를 지지하고 환대하는 철학적 가치에서 시작하여, 그 철학을 바탕으로 육아하는 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과 환경을 지닌 곳이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는 육아친화적인 환경, 즉 아이 기르는 데 최적화된 교육·보육시설, 공원 녹지 등의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 내 도로 교통 등의 인프라, 육아 및 가족지원 제도, 지역주민의 인식과 참여 등 양육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 뿐 아니라 지지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곳이다.

가. 범위

일반적으로 주거단지의 범위를 정의하고 분류할 때 보행(도보)에 의한 접근성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육아친화적 환경의 관점에서 볼 때도 주거단지의 범위는 보행척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거단지의 범위는 보행 척도로 설정하되, 육아라는 관점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 약자의 보행능력을 고려하여 200~400m의 보행권[11]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11) 선행연구에서 노인을 고려하면 200m이내가 가장 접근이 용이한 규모로 400m 까지를 노인의 보행가능 범위의 NORC 주거단지로 연구결과에서 제시함. 아동의 생활환경 반경이 성인에 비해 좁은 점을 볼 때, 최소 200m 보행

판단된다. 특히 “육아친화”라는 관점에서는 보행척도의 기준이 단순히 2차원 지도에서 컴퍼스로 그린 기계적인 반경이 기준이 되거나 건강한 성인 단독보행자의 보행능력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유모차를 끄는 여성과 부주의하고 안전에 취약한 아동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보행능력을 충분히 고려한 규모와 보행환경(급격한 경사,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차로와 보행 동선의 교차 등)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나. 구성요소

1) 육아지원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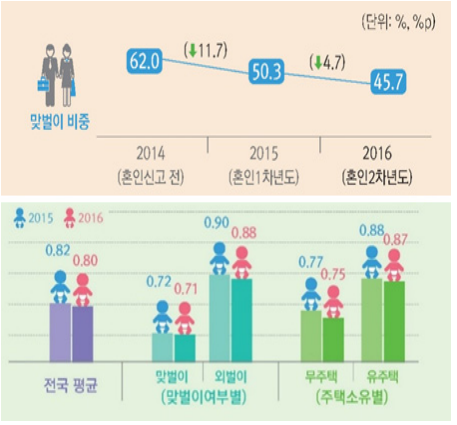
공동주택에서 육아서비스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복리시설 설치기준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육아와 관련된 복리시설로는 유치원(2,000세대 이상), 어린이놀이터(150세대 이상), 어린이집(300세대 이상), 작은도서관·다함께돌봄센터(500세대 이상)에 대한 세대수별 설치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육아친화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공유 가능한 육아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주민 간 커뮤니티를 통한 공동육아를 계획한다면, 주민공동시설 혹은 작은 도서관 등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복리시설에 대한 계획과 설치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공동육아와 육아서비스의 경우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아파트 등)은 단지 내, 소규모 공동주택(150세대 이하 또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건물(동)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기반으로 한다. 최근 LH의 경우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아파트 단지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단지 주민 및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단지 내 커뮤니티 공간을 고려하되, 단지 내 주민만이 아닌 지역주민도 접근 가능한 위치(단지 입구 등)를 고려하여 지역사회 제공 서비스로 계획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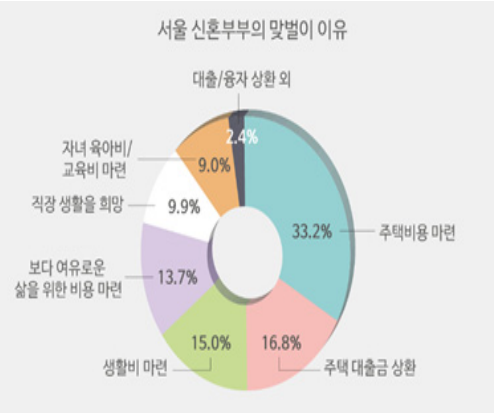
2) 육아지원 서비스

최근 주택마련을 위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 등 육아지원 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 중 유자녀 비중은 57.8%으로 외벌이 부부 69.1%에 비해 낮으며, 맞벌이의 주된 이유는 주택관련 자금 및 비용 마련(34.8%) 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벌이 이유로는 자녀육아가 75.8%로 가장 높게 나타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권 보다 확대된 단지로는 400m 보행권으로 보기도 함. (최병숙, 박정아, 2017)



[2016년 신혼부부 통계]



[2017년도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그림 2-2] 신혼부부의 육아지원 서비스 수요

라. 육아지원 인력(육아 코디네이터)

육아친화주거단지에는 아이가 행복하게 매일 매일 흥미롭고 다양한 놀이활동으로 부모가 없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를 돌보고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육아지원 시설 등이 공동주택 내에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련 서비스를 주민 스스로 기획 및 제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육아코디네이터 등 전문가의 지원과 컨설팅이 필요하다. 육아코디네이터는 단지 내 육아지원시설과 외부의 육아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거나, 주민 스스로 육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SH의 경우 공동체코디네이터를 양성해서 임대주택 거주자의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중 공동육아를 원하는 주택단지에는 부모교육 등을 통한 공동육아 기반 조성 및 부모역량 강화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육아서비스를 포함한 토탈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코디네이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住居團地)'의 환경적 개념

주거단지 공간은 다양한 관점과 기준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환경적 개념을 적용하여 조성할 수 있다. 모든 사용자에게 평등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주거단지를 조성하거나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개념을 도입하여 범죄예방에 기반 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처럼 주거단지에 도입 및 적용 가능한 개념은 다양하다.

최근에는 자연자원이나 친환경 재료를 주거단지에 도입하거나, 환경적 요소를 통해 주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예방하는 등 친환경적 주거단지 조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환경의 개념과 범위는 매우 방대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들이 환경을 경험하고, 환경을 통해 안전한 주거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적 개념을 적용한다.

주거단지에서의 환경적 개념은 공간 단위로 적용이 가능하며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주거단지에 다양한 자연공간을 조성하여 어린이들이 경험 또는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물리적 자연공간 및 흙, 동물, 풀, 낙엽 등을 경험할 수 있는 자연체험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자연 산책로 등을 이용하여 주거단지에서 끊임이 없는 순환형 그린 네트워크 및 비오톱과 생물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도록 서식지 네트워크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생태연못과 같은 수환경을 조성하여 물을 통해 시각적으로 관찰하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주거단지 출입구에 환경적 개념을 도입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수목 식재를 통해 출입구부터 주거동이나 여타 건물까지 친환경적으로 동선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출입구 주변에 위치한 쓰레기장 등의 유해시설을 수목으로 차폐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 보행공간과 휴게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보행공간 및 휴게공간 경계에 크기가 작은 관목을 식재하여 친환경적 공간 조성 및 안전을 도모해야 하며 유아차 통행에 적합한 폭으로 보행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휴식 및 어린이 관찰을 위해 보행공간 곳곳에는 친환경 벤치 등을 조성해야 한다.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놀이터는 친환경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해야 한다. 친환경 소재를 기반으로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녹음을 제공하며 겨울철에는 채광량을 높일 수 있는 수목을 식재해야 한다. 주거단지는 외부 유해물질 또는 소음 등으로부터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주거단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각종 대기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소음을 차단하거나 저감할 수 있는 수종을 경계부에 식재해야 한다.

제3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 대한 다학제간 접근

1.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 운영

본 연구는 목적은 아이 기르기 좋은 주거단지의 조성 방안을 찾는 것이다. 아이 기르는 일, 육아가 지니는 다면적인 특성으로 인해 육아친화적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학제 간 그리고 산학연의 협력과 융합이 중요하다. 이에 육아 뿐 아니라 교육환경, 도시, 건축, 교통, 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 운영을 통해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절에서는 포럼 발제문의 골자를 정리하고,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가. 공간정책과 결합한 육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12)]

1) 주요 내용

대한민국은 초초저출산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초저출산의 기준이 합계출산율 1.3명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에서 유래 없이 합계출산율 1.0이하로 2020년 1분기에는 0.9명, 2분기에는 0.84명으로 나타났다. 이 숫자는 단순히 양적 기준이 아닌 그 사회가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 어렵다는 정도를 나타내는 질적 지표로 보아야 한다.

국가는 일과 육아를 양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개인의 선택 존중’, ‘삶의 질’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육아지원 정책의 범주를 확장하여 보편적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육아휴직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보완하였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조정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확대를 도모하여 이용아동 기준 40%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12) 본 내용은 2020년 10월 13일 ‘제1차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에서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의 발제문 ’공간정책과 결합한 육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이러한 육아정책의 범주는 시간과 서비스, 현금지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 지원 제공 정책과 가정 내 양육지원을 위한 양육수당이라는 현금지원과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등의 시간지원정책이 주류를 이룬다. 현재의 정책들도 육아의 사회화라는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자의 욕구 다양화로 기존정책으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육아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표현은 육아를 위해 가정과 보육지원시설로의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협력해야함을 의미한다. 이에 육아정책에 '공간'의 개념을 결합하여야한다고 제안한다. 공간은 인간 삶의 주요한 요소로 향후 육아정책이 설계는 서비스 + 현금 + 시간 + 공간의 지원이 동시에 고려되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 중 '주', 공간을 넘어서는 장소로서의 접근이 고려되어야한다. 육아를 위한 '장소'를 만들기 위해 먼저 제대로 된 '공간'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공간은 가정인 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공원 녹지와 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생활권으로 대표된다. 아이들은 '공간'에서 태어나 공간에서 성장한다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

육아의 질, 삶의 질의 강조는 '공간'정책과의 결합이 필수적이다. 아이의 성장에, 육아에 필요한 공간을 조성하여 행복한 '장소'를 창조해야한다. 이는 다음의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인프라(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돌봄센터 등), 아이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인프라(보건, 복지, 교육, 문화, 체육, 공원 등), 시민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인프라(도로, 교통, 안전, 유해환경), 육아하는 당사자들의 자조모임이 가능한 환경(공동육아나눔터, 아빠교실 등), 지역주민들이 동네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육아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문화의 형성(지역주민이 교류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 등이다.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한다. 신도시형, 도시재생형, 농산어촌형, 산단지역형, 기존주거단지형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현재, 사회적 기업 더함의 협동조합 임대주택 단지에서의 공동체 회복 시도, LH 신혼 희망타운의 조성, SH의 청신호 등이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단지의 실제 사례들로 고려될 수 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였다고, 모든 육아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육아하였다고 추억할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 결합 육아정책을, 육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안한다.

2)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에의 시사점

첫째,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한 양적 지표와 더불어 실제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질적인 부분에의 반영이 필요하다.

둘째, 기존의 육아지원정책 틀에 '공간'의 구성, 지원의 개념이 더해져야 하며, 이는 육아친화적 주거환경의 조성에서 비롯된다.

셋째, 영유아기 자녀와 그 부모의 육아의 질, 삶의 질의 향상에 초점을 두기위해서는 삶의 공간인 주거 공간이 수요자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하여 육아친화적으로 구성되어야한다.

넷째, 주거단지에 육아친화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거주자의 구성에 따라 주거단지의 특성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단일 모형보다는 다양한 모형의 제안이 필요하다.

나. 배움중심 마을학교: 도시는 교육을 어떻게 좌우하는가[13)]

1) 주요 내용

국내의 도시계획 차원의 학교설립 관련 쟁점은 크게 신도시의 입주 시기를 고려한 학교 설립 시기에 관한 문제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공동화라는 두 가지 상충되는 문제로 요약될 수 있다. 신도시의 경우 유입되는 인구를 미리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학교 설립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시기가 맞지 않음으로 인해 상당 기간 동안 학교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과밀학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사회 전반에서는 지속되는 저출산의 환경 속에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학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학교 계획이 변화를 추구하여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고려한 학교 배치계획을 세우고, 학교를 공동주택용지에 인접하게 배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기존 학교설계와 동일한 획일적인 구조의 문제, 교육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연계가 부족한 문제 등이다.

이에 따라 우리가 도시계획단계에서 학교 계획을 고려할 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이 주도(agency)할 수 있는 교육환경, 둘째,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에 부합, 셋째, 지역사회와의 융합, 넷째, 기존의 획일적인 공간을 벗어난 유아교육 공간의 창조이다. 이런 네 가지 고려할 점을 통해서 배움 중심 마을학교는 짧은 통학거리, 학교 숲 공간을 조성, 복합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개방공간과 학습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야외 학습공간을 조

13) 본 내용은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에서 한국교육개발원 박성철 본부장의 발제문 ' 배움중심 마을학교: 도시는 교육을 어떻게 좌우하는가?'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야외학습은 통합적인 학습과정의 한 부분으로, 아이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길을 제공하며 감성, 신체, 미적 감각, 인지 능력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Education Scotland, 2019: 1; 박성철, 2020 에서 재인용). 한편 건축에 소요되는 대지의 면적의 경우 대상 학생의 연령이 어릴수록 더 많은 대지 면적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들에게 고밀도의 환경을 지양하고 저밀도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나이가 많은 학생들의 경우 고층설계를 통하여 동일한 대지 면적에서 이를 소화할 수 있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저층형 디자인이 더 적합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대지 면적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야 한다.



[그림 2-3] 학생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복합” 교육공간의 조성

출처: OECD(2019). OECD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2030 Concept Note, pp.1-14

이와 같은 조건으로 제안한 배움 중심의 마을학교는 결국 저층형 학교 디자인과 친환경 학교의 건축을 통한 커뮤니티형 학교 공간을 창조하고 삶·교육 연계형 학교복합시설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다.

2)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에의 시사점

배움 중심의 마을학교가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에 주는 시사점은, 그러므로 주거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초기 단계부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배치를 고려한 주거단지의 설계가 필요하다. 입지와 디자인에 있어서 고려할 점은 첫째, 주거지에서 유치원 등에 이르기까지 통학거리를 최소화하는 한편, 가급적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공간과 유치원 등이 지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며, 이 속에서 아이들이 최대한 주변 자연환경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 보육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향[14)]

1) 주요 내용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주택구입 핵심 연령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구조상 가격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경우엔 인구구조가 더 가파르게 고령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이런 현상은 더 심각하다.

자녀에 대한 보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에 대한 주거지원과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며 보육 친화적 주거정책 공간단위는 “마을”이다.

현재의 보육관련 주거정책은 첫째,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최조 특별공급, 신혼 희망타운과 같은 청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둘째, 영구임대, 매입방식의 다가구주택, 임차방식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등의 공공임대 공급제도, 셋째,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 모기지, 온익공유형 모기지,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과 같은 금융지원, 넷째 공공주택단지 보육시설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적용하거나,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단지에 세대당 0.33명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하는 등의 보육인프라 지원

14) 본 내용은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천현숙 원장의 발제문 ‘초저출산시대 밝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보육친화적 주거정책 발전방향’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서울시의 보육친화적 주거정책의 사례로는 청신호(청년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주택 사업을 들 수 있는데 주택단지 조성에 있어서는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서재, 육아 돌봄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알파공간 제공, 실사용 공간을 확대, 주방, 욕실, 수납, 침실, 거실 등 5대 공간의 최적화, 생애주기 맞춤형 가변 공간계획, 육아, 보육에 편리한 공간계획 등 세대 특화와 더불어, 유아차, 택배 등을 위한 현관 옆 공용부 수납공간 제공, 내집 앞 택배 공간 별도 마련과 같은 공용부 특화, 그리고 안전한 자녀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설치, 공동육아방과 같은 자녀 동반 가능 커뮤니티 공간 설치, 유아관련 나눔 물품 공간 제공, 마을 식당 설치, 교육, 생산, 문호, 예술, 창조 등 자녀의 컬쳐 인큐베이터와 같은 그로잉 커뮤니티 특화 사업이 있다.

향후 삶의 질과 보육친화적 주거정책의 발전방향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보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거복지정책과 저출산정책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출산은 저소득층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입자금, 전세자금대출 등에 보육가구를 포함하고 자녀수에 따른 금리 인하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 가구의 범위를 확대해 다자녀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개념 또한 영유의 자녀, 초등자녀 가구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 보육을 고려해 계층과 세대가 섞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보육에 편리한 촘촘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주거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보육서비스'를 추가하여 고려해야한다. 또한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차별적인 보육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 즉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단지 내에 '초등 돌봄시설'을 의무화하고 단독, 다세대주거지역에 인프라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간복지구현을 위한 보육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개방하는 공간복지로서 보육 접근하는 공간복지로서 보육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보육을 포함한 주거서비스 현황 진단과 발전계획수립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인증 공동주택단지 모델 정립하고, 공동체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확대해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파견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에의 시사점

첫째, 기존의 주거정책이 주거복지정책과 저출산정책이 혼합되어 추진되어 왔으나 저소득층이 아닌 대상도 저출산정책의 수요자이므로 기존 복지정책의 대상자에서 보다 확대된 보육정책을

품은 주거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별로 차별화된 보육서비스를 파악하고 주거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즉 일률적인 기준이 아닌 지역에 따른 특화된 보육서비스를 지자체별로 개발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육인증 공공주택단지 모델을 정립하되 각 지역별 필요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가 양성되고 파견되어 활약해야 한다.

라. 육아친화 아파트단지를 위한 보행안전 제도와 설계[15)]

1) 주요 내용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해오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단지와 같은 공동주택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의 문제가 심각하다. 먼저 아파트 단지 안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차량 차단기가 없으며, 현실적으로 평소 차량출입을 통제하지 않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어 온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하주차장으로서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 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 자주 문제가 되고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닌 곳일지라도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된다.

특히 최근 일명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의 입법으로 인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주차장에서 미끄럼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도로 이외의 곳에서의 사고 대부분(90% 이상)은 아파트와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아파트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내부 진입 시 조도 변화로 인한 암순응 문제, 주차면 부족에 따른 이중주차, 지하주차장 높이로 인한 과속방지턱 설치의 어려움의 문제가 어린이 보행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를 위한 추가 법률의 개정 방향은 단지 내 로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한 준수의무(일시정지의무, 주정차 금지구역, 이륜차운행구역제한), 자동차등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한 보호(어린이 통학버스 전용 승하차 공간 구획, 어린이 통학버스 전용 승하차 공간 주정차 금지 시간대 설정), 및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휴대전화 및 영상표시장치 사용금지, 야간전조등 등화 의무화, 보도침범금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15) 본 내용은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장한별 부연구위원의 발제문 ‘육아친화 아파트단지를 위한 보행안전 제도와 설계’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이 외에 제도적으로 아파트단지 교통안전 실태점검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하여 총 5개 년 연차사업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내 교통안전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소유관리자에게 취약점 개선명령 통보 및 이행확인하며, 국가와 지자체가 점검비용 및 시설 개선 비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설치관리자의 의무를 강화하고 관리규약 준칙 추가하여 도로 외 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자의 자동차 통행방법 제정, 개선 명령 이행, 중대한 사고 신고의무 부과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5대 교통규칙이 표준안으로 추가되도록 협조 요청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제4항 개정으로 가칭 '공동주택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제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 사업승인 전 교통영향평가 의무화를 통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설계 시 보행자와 차량의 교통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면제 근거 삭제해야 한다.

2)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에의 시사점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시 법률과 제도에 근거해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구조적 위험성은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지 내 관리 규약 등의 제정 시에 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담을 필요가 있다.

마. 양육 친화 주거정책의 발전방안과 육아 친화 주거단지 조성[16)]

1) 주요 내용

양육친화는 "자녀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들에게 정신적·물질적 지지와 지원 및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정민자 외, 2008). 그리고 주거정책이란 "공간으로서의 주택과 그 공간을 둘러싼 건강, 보장, 환경 등의 질적인 문제까지를 포함하는" 주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김은혜, 2005). 그러므로 양육친화적 주거정책은 "일상적·정서적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양육과 보호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족들에게 다양한 주거 지원과 양질의 주거 인프라 및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양육친화 주거정책의 구성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주거지원정책, 주거인프라

16) 본 내용은 2020년 10월 13일 '제1차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에서 국토연구원 이길제 부연구위원의 발제문 '양육 친화 주거정책의 발전방안과 육아 친화 주거단지 조성'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지원정책, 주거서비스지원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주거지원정책은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포함한 양육친화적 주거지원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중 주택공급은 공공·민간주택 공급 시 신혼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급비율 배분, 특별공급 우선권 부여, 거주기간 연장 및 공급면적의 확대, 단위세대 특화형 평면 제공 등의 정책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둘째, 주거인프라지원정책은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인프라를 구축·지원하는 양육친화적 주거인프라지원정책이 되어야 하는데 양육과정에서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주거인프라는 시설측면에서 공동이용시설(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등)과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보육시설, 도서실 등)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야 한다.

셋째, 주거서비스지원정책 역시 아동 양육 과정에서 부모와 아동이 지원받게 되는 양육친화적 주거서비스 지원정책이 되어야 한다. 주거서비스지원정책은 크게 부모와 아동의 가사 생활 및 육아·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양육 생활지원 서비스'와 양 육가구의 공동체 형성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양육 공동체지원 서비스'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서수정 외 2016).

김지혜 외(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육을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은 소득향상 및 고용안정(22.4%), 주택가격 안정(21.1%), 안전하고 쾌적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10.5%), 자녀 양육비용 부담 해소(9.9%), 양육관련 주거서비스 제공(9.8%), 주거안정성 확보(8.2%)의 순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육친화 주거정책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양육관련 시설의 확대(35.9%), 부모 및 아동을 위한 주거서비스 확대(17.9%), 주택마련 및 전세/월세금 대출지원 확대(17.6%),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16.9%), 양육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11.7%)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김지혜 외, 2019).

이를 통해 양육친화 주거정책의 4가지 기본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양육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 기존의 주거지원 정책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과 금융지원, 주거급여 지원 시 아동이 있는 가구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양육에 필요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제공이 필요하며, 이는 양육가구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다.

둘째, 아이키우기 좋은 촘촘한 주거인프라 구축 체계 마련 : 주거인프라의 구축은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중요한 요인이며, 돌봄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거주지역을 중심으로 한 돌봄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주거기능과 생활서비스 결합 : 단순히 공간만 제공하는 기존 주택에서 벗어나 양육가구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가사부담을 줄이며, 취미를 공유하는 등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지역공동체 중심의 양육지원 체계 마련 :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단위의 양육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이는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확충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동육아가 필요함,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역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양육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에의 시사점

주거지원 정책 수립 시 양육 가구가 더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과, 단지내외에 돌봄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하는 물리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이를 참여해 운영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바. 육아친화 주거단지에서의 자연환경 및 공원녹지 요소[17)]

1) 주요내용

도시화로 인해 자연공간이 감소하고 있으며 어린이들과 자연환경과의 관계성이 약화되고 있다(Seto et al., 2011). 자연환경과 어린이의 교류로 인한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꾸준히 연구되고 있으며, 어린이 신체 건강 개선(Bell et al., 2008 ; Sebire et al., 2011), 정서적 행복(J.Harvey et al., 2020), 주의력 향상(Huynh et al., 2013; Shannon et al., 2019), 인지 능력, 학업 참여, 성취도 증대(Payton et al., 2008), 사회 관계성 발달(이현정, 2014) 등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 조성되거나 정비되는 주거지역[18)]은 자연환경 요소들을 도입하여 친환경적 설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도시공원, 도시숲 등과 인접한 주거지역은 지가 상승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도시 내 주거지역에서 환경적 요소의 창출과 체계적 관리는 어린이들의 삶의질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주거지역 또는 단지에 도입 가능한 환경적 요소를 크게 자연환경과 접근성, 안전한 환경 공간과 시설의 질, 물리적 환경의 육아친화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다.

주거단지의 자연환경 요소 조성을 통해 어린이들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으며, 녹지, 생물 서식공간, 생태습지 등이 있다. 이러한 조성사례는 풍성하며 끊임없이 연결된 녹지, 체험형 텃밭, 생물

17) 본 내용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손승우 박사님의 발표를 토대로 정리한 것임.
18)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국토계획법 제 36조)하고 있다.

서식 공간 및 해설판, 관찰 및 이용을 위한 수 공간 등이 있다. 하지만 자연환경의 공간적 분포는 누구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 되어야 한다(손승우, 안동만, 2013)

주거단지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긍정적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환경에 밀접한 어린이와 청소년은 심리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Tillmann et al., 2018). 즉, 생활 환경에서 밀접한 곳에 자연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자연과의 접촉 정도가 클수록 아이들이 더 월등한 행복감을 느낀다 (Barrera-Hernandeze, 2020).

셋째, 놀이공간이 구조적인 모래 놀이터, 복합 놀이기구 등에서는 놀이가 한정적이나 비구조화된 놀이공간에서는 유아들이 스스로 놀이를 만드는 등의 더 많은 심리적 개방감을 표출하고 신체활동을 한다(Gyimothy, 2015).

넷째, urban greenery는 도시 환경에서 결여될 수 있는 인지능력, 사회성, 감정의 자극 및 건강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Gyimothy, 2015).

다섯째, 숲에서 하는 자유로운 놀이는 아동의 생활만족도와 전반적인 행복감에 좋은 영향을 미침. 특히, 몰입, 건강, 또래관계, 인지 및 성취, 정서, 부모관계, 생활만족 등에 대한 감정을 증진시켜주는 순기능이 있다(최수경 외., 2013).

여섯째, 야외에서 노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정을 쌓고 주변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구축한다(Gleeson & Sipe, 2006).

일곱째, 어린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신체 활용이 필요하다(Dong et al., 2017).

여덟째, 놀이와 여가활동에서의 신체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들은 더 큰 행복감을 느낌. 반면, 놀이공간이 조성된 이후 실질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가 없으면 아이들은 그 공간을 놀이친화적 환경으로 인식하지 않음.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물리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조성한 공간에서 뛰어 놀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박현선, 2020).

아홉째, Green space와 blue space는 아이들의 행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Amoly et al., 2014).

주거단지의 공간과 시설은 자연환경 요소를 활용하여 안전하게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의 질을 높임으로써 육아친화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외부의 유해물질, 폭염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공간을 조성하거나 자연소재에 기반하여 시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단지의 안전성 향상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시설 및 자전거 주차창은 휴게공간 혹은

놀이 공간 등과 분리하는 것이 좋다(변기동 외, 2015).

둘째, 주거동에서 외부공간으로 이동 시 주거동의 출입구 방향을 차로 방향이 아닌 공원 및 산책로의 방향으로 변경하면 영유아를 위한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김효정 & 박경옥, 2017).

셋째,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주변 시설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받은 제품들을 사용하여야한다(김자경, 2014).

넷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자연소재를 활용한 놀이 공간을 조성하여 화학물질로부터 안정성 확보가 필요. 즉, 물리적 안정성 외에도 화학적 안정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김자경, 2013).

다섯째, 식생의 PM2.5 흡수능은 잎의 형태와 관련이 크다. 특히, 기공의 비율은 PM2.5 포집량과 상관성이 높은데 활엽수는 잎의 형태가 넓기 때문에 PM2.5 포집에 유리하며, 잎 면적당 침엽수보다 우수한 포집율을 갖고 있다(Environ Sci Pollut Res Int, 2016).

여섯째, 식생은 공기온도를 변화시키고, 휘발성 유기 화합물을 방출하며 에너지 사용을 변경함으로써 미립자 물질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산림 패치의 내부는 산림 가장자리보다 미립자 물질의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의 웨스트 미들랜드(West Midlands)에서 도시내 전체 수목의 피복율을 3.7%에서 16.5%로 증가시키게 되면 평균 PM10 농도가 2.3㎎/㎥에서 2.1㎎/㎥으로 약 10%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Nowak et al, 2013).

여덟째, 초미세먼지 PM2.5의 침강 효과는 교목 중 버즘나무(83.0㎍/㎥), 괴불나무(79.2㎍/㎥), 단풍나무(72.0㎍/㎥), 복사나무(67.0㎍/㎥), 벚나무(59.2㎍/㎥), 백목련(50.5㎍/㎥)등이 높았으며, 관목에서는 영춘화(30.3㎍/㎥), 개회나무(30.0㎍/㎥), 자목련(28.3㎍/㎥), 개나리 (27.6㎍/㎥) 등에서 높게 나타난다. 해당 수종을 활용하여 유아친화 단지 등에 식재 시 초미세먼지 저감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Chen et al., 2016).

아홉째, 식생의 음이온 효과는 식물의 증산작용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대기를 정화하는데 효과가 있다(윤용한 외, 2014).

열번째, 식생의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 효과는 식생의 녹피율, 녹지용적, 족지용적계수, 식재구조와 관련성이 높다. 특히 교목 열식 및 관목/지피 다층 식재 시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증대되며, 하층 관목의 영향이 크다. 그러나 교목 밀식 시 수관이 중첩되면 초미세먼지가 정체되어 오히려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황광일 외, 2016).

사. 공동체 아파트를 육아친화마을로...[19)]

1) 주요 내용

위스테이별내는 개발 시 육아커뮤니티에 관심을 기울이고 조성한 아파트 단지이다. 예비 입주민들은 “아이 때문에 유치원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 공동육아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3명인데 모두 공동육아와 방과후학교로 키운지 7~8년차. 아이를 키우면서 아빠, 엄마들도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하며 아파트 입주를 준비해 왔다.

커뮤니티의 디자인은 1. 취미, 재능,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소그룹 모임을 형성하고, 2. 소그룹별로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컨셉을 논의하며, 3. 수요자 중심 공간 기획 및 인테리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을 운영하고 집기 리스트를 만드는데 입주민이 참여하는 참여형 설계를 도입하였으며, 4. 입주자 대상 커뮤니티 시설의 최종안을 발표하는 참여형 설계발표회를 통해 확정했다.

특히 협동조합 구성 후 입주 전까지 약 2년간 육아 커뮤니티 운영하며 공동체 육아의 가치와 철학, 육아역할을 의논하고 아이를 키우는 방향과 그 방식을 고민하였다. 이를 통해 조합 구성원이 함께 나누게 된 육아철학은 우리가 지향하는 육아는 부모의지가 아닌, 아이들의 의지에 따라 하고 싶은 활동이 이뤄지는 육아와 마을이 아이를 키우는 공동체로 수렴하게 되었다.

육아친화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커뮤니티 시설을 디자인할 때부터 육아하는 가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물리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유아와 장애인의 보행권 확보를 먼저 고려하였다. 그러나 육아친화마을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는 갈등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초 설계안에서는 단지 내 놀이터 2개소 모두 고무칩으로만 설계되었으나, 이 중 영유아 대상 놀이터를 정서발달에 도움이 되는 ‘모래놀이터’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조합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투표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도출하게 되었다. 특히 이는 조합원들 간에 찬반을 넘어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일부 갈등을 풀어내는 과정을 겪으며, 더욱 건강하고 단단한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간 사례로 볼 수 있다.

단지의 설치 이후에도 잔디광장에서 결혼식을 펼치고 이를 축하하기 위한 어린이 합창단의 활동, 그리고 코로나 시대 베란다 콘서트를 기획하고 실천하였으며 어린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단지 운영에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

19) 본 내용은 2020년 10월 27일 ‘제2차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포럼’에서 사회혁신기업 더함 김종빈 이사의 발제문 ‘공동체 아파트를 육아친화마을로...’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한 것임.

2)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에의 시사점

주거단지의 물리적 환경 뿐 아니라 육아친화적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 제도 및 주민의 참여가 절실하며 이를 통해 계속 소통하며 협의하는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소결

본 절에서는 아이기르기 좋은 환경으로의 주거단지 구성이라는 지향점을 두고 다소 새로운 개념인 '육아친화 주거단지'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기능을 가져야하는지에 대한 여러 학문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한 결과를 담았다.

첫째, 정책목표가 저출산 극복에서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변화를 고려할 때, 육아지원정책의 틀을 재구조화하여 양육 가정의 생활 터전인 공간범위까지 확장해야한다. 육아지원정책이 정책수요자에게 실질적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이 실현되는 장(場)인 지역사회, 주거단지 내에서 양육 가정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육아지원 전달체계의 지원이 주거단지 내로 확산되도록, 마련된 육아지원공간이 지속성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기능하도록, 또 정보의 제공, 안내 등을 전담하는 담당자를 둘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주거단지 안에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배치가 필요한 것이다.

둘째, 육아지원적 주거단지는 학생들의 통학거리를 고려한 학교 배치계획을 세우고, 학교를 공동주택용지에 인접하게 배치해야한다. 아이기르기 좋은 육아환경으로 대표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좋은 학교로의 접근성이다. 소위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단지)' 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로 교육환경이 강조된다. 육아하기 좋은 주거단지의 교육환경은 짧은 통학거리, 학교 숲 공간을 조성, 복합 커뮤니티 형성, 개방공간과 학습 공간 분리로 요약될 수 있다.

셋째, 보육에 편리한 촘촘한 주거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서는 주거서비스 정책에 주요 요소로 '보육서비스'를 조성 단계부터 고려해야한다. 육아친화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양육자의 가장 많은 요구는 돌봄지원 요구이다. 보육 친화적 주거정책 공간단위는 "마을", 주거단지로 접근하되, '지역현황'과 '주택유형'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초등 돌봄시설'을 의무화와 더불어, 단독, 다세대주거지역에 인프라 기준을 마련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거단지 내 안전한 보행환경은 활동성이 많고 사고예측이 어려운 영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 중요한 육아친화 요소이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추가 법률의 개정 방향은 단지내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한 준수의무(일시정지의무, 주정차 금지구역, 이륜차운행 구역제한), 자동차 등의 최고속도를 시속 20km로 제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특별한 보호(어린이

통학버스 전용 승하차 공간 구획, 어린이 통학버스 전용 승하차 공간 주정차 금지 시간대 설정),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휴대전화 및 영상표시장치 사용금지, 야간전조등 등화 의무화, 보도침범 금지)을 강화 등이다.

다섯째, 육아친화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단지 내 시설을 디자인할 때부터 육아하는 가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육아하는 가구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리한 본 연구 결과가 주거단지 조성 계획 시 참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영유아, 초등 자녀 양육 가구의 요구를 유목화하고, 육아하기 좋은 주거단지가 갖추어야하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여 이를 가이드북으로 제작 배포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협동연구 주체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하는 주거단지에 반영되길 기대한다.

여섯째, 주거단지 내 육아지원 서비스 운영의 구심점이 필요하다. 주거단지가 육아친화적으로 체감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 구성과 서비스 제공 뿐 아니라 공동체성, 육아하는 가구에 대한 배려와 인정이 필요하다. 조합형으로 조성된 주거단지의 경우도 이러한 구심점은 민주적 소통을 통하여 협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하고 얻은 성과이다. 조합형 주거단지가 아닌 경우 이와 동일한 정도의 공동체 구성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다른 형태의 운영의 구심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단지 내 육아지원 구심점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주민 자치는 지속성을 지니기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구심점으로 육아지원 크리에이터즈의 설치방안을 핵심요소로하는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4절 국내 및 국외 조성 사례

1. 국내 사례

가. 사회혁신기업 더함

더함의 사례를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사례로 살펴봄은 단지의 설계단계부터 예비 입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그에 근거한 육아친화적 요소들을 단지 내 환경으로 구현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사회혁신기업 더함은 공간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다음의 정체성을 지향하며 2014년 설립된 스타트업이다. 첫째, 사회의 여러 영역에 걸친 문제 지점들을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돌파해 나가고자한다. 둘째, 부동산, 금융, 가치평가 등 그간 독과점 된 양적 성장을 중심 사유되어왔던 것들을 '사회적인 것'으로 새롭게 창출해 내는 가치를 지향한다(더함 홈페이지, http://www.deoham.co.kr/about-us, 2021. 1. 5. 인출). 사회혁신기업 더함은 국토교통부의 위스테이(westay: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주관사로 선정되었다(중앙일보, 2018. 6. 29. 보도).[20]

위스테이로 2020년 입주 한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는 2017년과 2018년에 물리적 공간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면서 구성된 조합원의 실질적인 입주준비와 관계형성을 하여, 입주자가 단순한 임차인이 아닌 협동 조합원으로 주택을 공동체적으로 소유함으로써 주택 공급과 운영의 주체가 되어, 커뮤니티 공간 및 서비스, 주거환경, 아파트 운영 등에 의견을 냈다(사회혁신기업 더함, 2019: 1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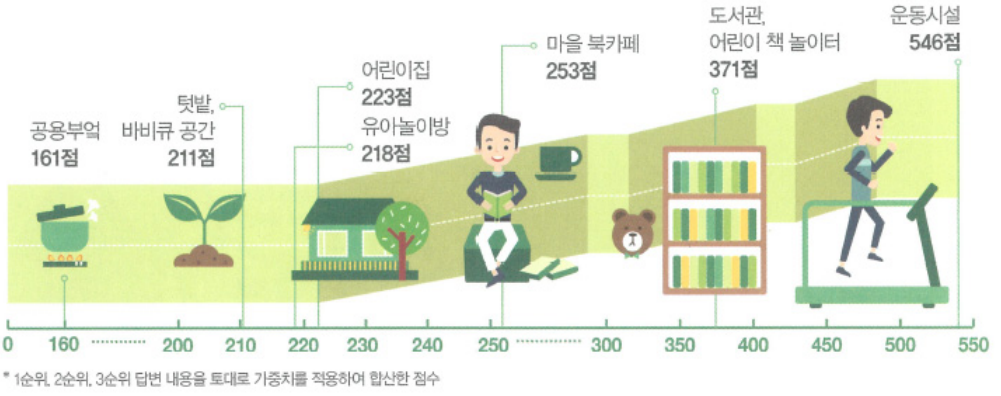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분야로 나누어 커뮤니티 공간 및 서비스를 구체화하여 2020년 입주한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의 사례를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는 커뮤니티와 공간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분과로 나누어 구성원들과 워크숍을 통한 의견수렴을 지속하여 왔는데, 이 중 육아를 주거단지의 주요부분으로 고려하였다. 이와 같은 논의가

20) 중앙일보(2018. 6. 29). 입주민 협동조합 아파트 '위스테이' … 임대주택 새로운 주거실험. https://news.joins.com/article/22758070(2021.1. 5. 인출)

21) 사회혁신기업 더함(2019). 위스테이 별내 연구보고서-커뮤니티를 살다.

가능하게 됨은 예비 입주자가 실제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 예비 입주자들이 위스테이에서 희망하는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그림 2-4]와 같은데, 어린이집, 유아놀이방, 도서관과 어린이 책 놀이터 등 아동을 위한 시설을 원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그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위스테이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를 돌보거나 입주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공유 부엌, 커뮤니티 카페, 놀이광장 등 아이를 위한 시설 뿐만 아니라 부모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였다. 또한 그 공간에서 공동체 활동가들의 활동을 통해 긴급 돌봄 제공, 100개의 학교 운영 등 육아하기 좋은 주거단지로서의 기능들이 채워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주민 대상 심층면담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림 2-4] 남양주 위스테이 별내 거주 예정 입주자들이 원하는 커뮤니티 시설

자료: 사회혁신기업 더함(2019). 위스테이별내 연구보고서-커뮤니티를 살다. p. 29.

나. 신혼·육아세대를 위한 주택 유형

신혼·육아세대를 위한 주택유형에는 신혼특화형 공공임대(행복주택, 국민임대)와 신혼희망타운이 대표적이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국토부, 2018.07) 」에서 신혼특화형 공공임대주택 20만호(건설형),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

1) 특화형 공공임대 : 행복주택, 국민임대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서민(소득 4분위 이해)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거유형이며, 행복주택은 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거유형이다.

2) 신혼희망타운 : 분양형 + 임대형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 및 육아·보육 수요를 반영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심 내외에 건설하여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으로 저리 대출 연계로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주택 유형이다.

〈표 2-7〉 신혼·육아세대를 위한 주택유형

주택유형	평균소득	유형	임대료(지원)	규모	거주기간
국민임대	도시근로자 소득 70%	아파트	인근 시세 60~80%	60m2 이하	최장 30년
행복주택	100% (맞벌이 120%)	아파트	인근 시세 80%	59m2 이하	최대 6년 (유자녀 10년)
신혼희망타운 (분양)	120% (맞벌이 130%)	아파트	분양가 시세 70~80%	60m2 이하	분양

다. 주거단지의 육아친화적 요소

1) 국민임대 신혼특화단지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주거환경과 서비스를 갖춘 맞춤형 주택공급으로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우는 임대주택'을 구현하였다.

추진 목표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우는 임대주택		
세부 중점 과제	절약하는 알뜰한 신혼생활을 도와주는 생활비 절약 특화계획	아이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뛰어놀게 아이중심 단지구성	다같이 돌보고 가르치며 키우는 아이키움 플랫폼 강화
	• 주거비 줄여주는 설계 – 공용부 LED, 태양광 발전 • 차량비를 낮춰주는 설계 – 카셰어링 공간 마련, 셀프차량 정비 공간 확보 • 맞춤형 공간계획 – 평균평형 확대, 원룸비율 축소	• 차량보다 사람중심 공간 – 주출입구 승하차 공간계획 • 다치지 않게 안전특화 – 무단차 진입 • 건강하게 놀기 좋은 단지 – 착한 위험·차별 없는 놀이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층간소음 완화	• 公的 육아·돌봄 체계 구축 – 국공립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설 설치 • 안전 설계지침 수립·적용 – 육아·돌봄 시설 안전설계 지침 수립 및 활용

[그림 2-5] 국민임대 신혼부부 특화단지 추진방안(LH, 2018)

2) 행복주택 신혼특화단지

행복주택은 정주여건이 좋은 교통요충지에 대규모 단지로 공급되며, 입주물량의 50% 수준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공급평형은 기본형(전용 36㎡), 공간분리형(전용 44㎡)이 있으며, 임대료가 주변시세 대비 60~80%로 저렴하다. 단위세대는 육아를 위한 투룸 적용, 주방 공간 및 수납공간을 강화하였고, 단지 차원에서는 보육 안전설계 도입, 공립어린이집·키즈카페·카셰어링 등 육아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표 2-8〉 행복주택 보육시설 특화사례

구분	보육시설	운영
영유아놀이방 (서울 가좌행복주택)	 	단지 자체운영
공동육아실 (천안 백석행복주택)	 	천안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위탁운영
장난감 대여실 (서울 오류동행복주택 복합커뮤니티센터)	 	서울시 구로구 위탁운영

출처 : 정소이 외(2018),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 및 계획 방향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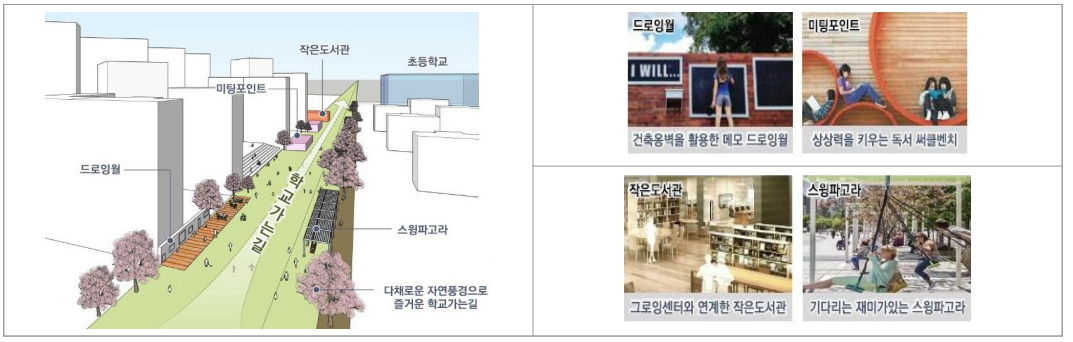
입주민 특성에 따른 이용 수요, 인근 지역의 시설 설치현황 등을 고려하여 주민공동시설을 특화(공용세탁실, 게스트룸, 주민카페, 피트니스센터, 창업지원실, 공동육아실 등)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행복주택 입주민을 위한 법정 부대복리시설 외에 지역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편의시설(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며,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와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3)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인접한 역세권 부지를 사업지로 선정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주거유형이다. 모든 주차장을 지하화하여 차량주행공간과 지상공간을 분리함으로써 안전한 지상공간을 조성하고, 주차대수를 가구당 1.2대로 적용하고

주차폭을 0.1~0.2m 확대 및 임산부전용 2.7m 주차 공간을 신설하였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스마트폰 연동 원패스시스템과 어안 장착 360° CCTV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학교와 단지를 연결하는 '학교가는 길'을 조성하고 공공건축가와 지역주민참여형 특화설계로 추진하였다.



[그림 2-6] 통학길 특화 설계 '학교 가는 길'

출처 : LH 보도자료(2018.07), "LH, 신혼희망타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

육아세대를 고려하여 자녀 출산에 따른 세대 구성원 변화와 자녀 성장에 따른 변화를 수용 가능한 가변형 설계 및 층간소음 완화 설계를 적용하였다. 46㎡ 및 55㎡형 평면 도입, 부부침실과 자녀방 외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알파룸 제공, 팬트리와 워크인 드레스룸 도입, 계절창고를 아파트 지하에 설치하는 등 수납에 효율적인 평면을 적용고, 최고성능의 바닥완충재와 생활소음 감소효과가 있는 차음 기능성 바닥재를 적용하였다.



[그림 2-7] 신혼희망타운 평면 예시(전용 55㎡)

출처 : LH 보도자료(2018.07)

또한, 연령대별 놀이행태를 고려해 365일 뛰어놀 수 있는 맞춤형 실내·외 놀이터 등 '창의 놀이터'를 제공한다.



[그림 2-8] LH 맞춤형 놀이터 설계(안)

출처 : LH 보도자료(2018.07)

안심하고 육아할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도서관, 맘스카페,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등 보육특화시설의 냉·난방설비, 위생설비 및 환기설비 등을 보강하고, 미세먼지·CO2 감지센서와 환기장치가 연동되어 오염물질을 자동배출하는 스마트 환기시스템을 적용하였다.

또한 외부 먼지 유입을 차단을 위한 에어샤워기 등 현관청정시스템과 중앙집진식 진공청소시스템을 도입하여 영·유아를 외부 오염 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냉·난방겸용 시스템에어컨, 화상방지 수도꼭지, 높낮이 조절형 세면대, 공기청정기, 장난감 살균기와 초음파식 장난감세척기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지속적으로 신혼부부가 거주 가능하도록 신혼부부의 생애주기, 육아 및 보육여건 등을 고려한 주거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특화된 설계가 적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2-9] 보육특화시설 설비기준

출처 : LH 보도자료(2018.07)

라. 주거단지 내 육아지원시설 설치 사례

LH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정부와 지자체 협업을 통한 “LH 공공임대주택 주거복지 플랫폼” 구축을 통해 육아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 상	영유아	취학전 아동 (6세이하)	취학후 아동 (17세이하)
육아시설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 민간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현황	가정어린이집 82호	국공립 어린이집 419개소	지역아동센터 42개소
	공동육아나눔터 34개소	민 간 어린이집 303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25개소
육아 서비스 개요	▪ **가정어린이집** : 가정 내 0~2세 영아 위주 보육시설 ▪ **국공립 · 민간 어린이집** : 단지 내 영유아 보육시설 ▪ **공동육아나눔터** :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육아 품앗이 등을 함께하는 공간 ▪ **지역아동센터** :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시설 ▪ **다함께 돌봄센터** : 지역중심 초등생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시설		

[그림 2-10] LH 공공임대주택 단지 육아 지원서비스 시설 운영현황(2020)

1) 공동육아나눔터

「LH-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협약(2017.09)」을 통해, 건설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 '18~'22까지 연간 공동육아나눔터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LH-여성가족부-지자체가 협동하여, LH는 시설을 제공하고 정부 및 지자체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표 2-9〉 LH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방안

구분	LH	여성가족부	지자체
시설	• 공간 제공(50㎡ 이상) • 필수시설 시공	• 장난감 등 기자재 설치	
운영	• 작은도서관과 연계	• 운영비 지원	•위탁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천안시의 경우 LH 협력 공동육아나눔터는 2개소(2018.05 기준)로, LH 충남지역본부와 천안시가 MOU를 체결하여 LH 임대단지의 주민공동시설 내 유휴공간을 무상임대로 운영하고 있다. 천안시 백석동 국민임대단지 내 공동육아나눔터(아이마루/2011년 개소)는 기존 주민공동시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며 장난감 대여소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천안시 백석동 행복주택 내 공동육아나눔터는 단지 최초 입주와 함께 개소하였으며, 본래 주민공동시설 내 사회적기업을 위해 계획되어 있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현재 영유아 놀이 및 프로그램 운영 공간, 육아 품앗이 공간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2-10〉 천안시 LH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개요

분류	천안백석 국민임대	천안백석 행복주택
단지 정보	입주연도 : 2002 세대수 : 1,144	입주연도 : 2017 세대수 : 562
공동육아나눔터 정보	개소연도 : 2011 1일 평균이용객 : 10명 내외	개소연도 : 2018.04 1일 평균이용객 : 30~50명
위치	주민공동시설 2층	주민공동시설 지하1층, 지상1층
설치공간	기존 주민공동시설의 유휴공간 활용	최초 입주 시 계획, 주민공동시설 내 사회적기업 입주공간 활용
운영 프로그램	장남감 대여	영유아 놀이·프로그램 운영 공간, 육아 품앗이 활동 등
이용료	무료 장남감 대여료 1,000원/월	무료 일부 프로그램 참가비

분류	천안백석 국민임대	천안백석 행복주택
현황		

출처 : 정소이 외(2018), 전게서 참조하여 재작성

공동육아나눔터의 성공요건은 주체적인 운영 활성화로, 코디네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연계 방안과 공동육아 교육 등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어린이집

LH는 2005년 여성가족부(現 보건복지부 소관)와 보육시설 무상제공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임대단지 내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하여 국·공립 및 가정 어린이집으로 설치·운영 중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2018.12;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2018; 공공임대 일부 세대를 6년 이내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가능) 등 정부의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에 따라 공공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3) 지역아동센터

저소득 계층과 맞벌이가정 자녀의 급식 및 방과 후 돌봄 활동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공립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국민임대 단지 유휴공간 활용하거나 신규단지 설계추진 시 관련시설을 반영하고 있으며, LH임대 단지에 개소당 아동수 20~29인(82.5㎡)의 공립 지역아동센터로 운영 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있다.

〈표 2-11〉 LH 협력 지역아동센터 운영방안

구분	LH	보건복지부	지자체
시설	• 82.5㎡ 이상 시설 제공 • 필수시설 시공	• 리모델링비 지원	
운영	• 작은도서관, 운동시설과 연계 가능하도록 계획	• 운영비 지원	• 공립 지역아동센터로 운영

4) LH 공공형 실내놀이터 : 집쏙 달팽이 실내놀이터

2017년부터 미세먼지, 폭염, 층간소음 등으로 뛰어놀 공간이 부족한 어린이들에게 전천후 놀이시설을 제공하고, 주거공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자 임대단지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실내놀이터에 대한 육아세대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이용도 및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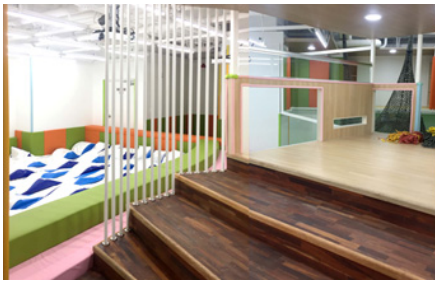
공용 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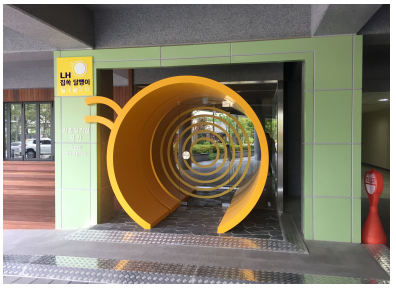
다양한 수납공간



어린이 화장실



놀이공간



실내놀이터 입구

[그림 2-11] LH 공공형 실내놀이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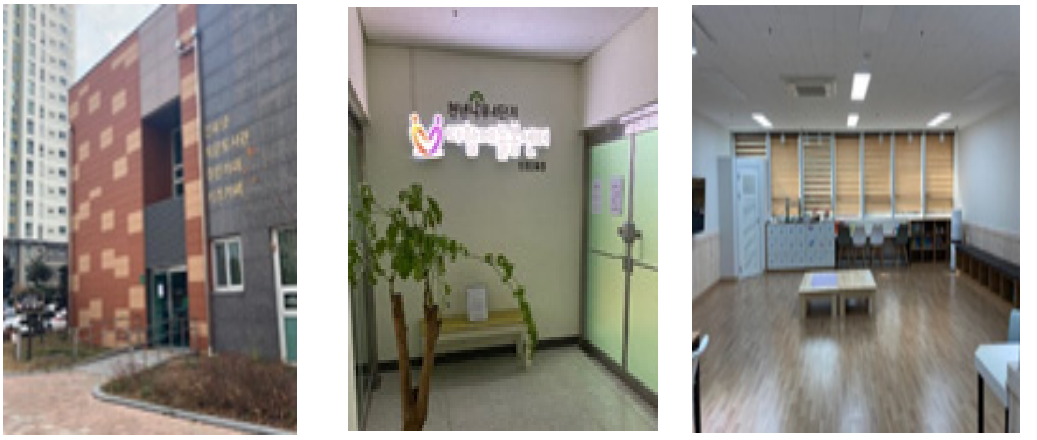
출처 : 정소이 외(2018), 전게서

5) 다함께 돌봄센터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 2019년 법제화(2020.06; 500가구 이상 신축아파트 초동돌봄시설 의무화)됨에 따라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충북혁신 천년나무4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는 신축 공공주택 주민복지관 1층에 위치하며, 사회적 기업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LH가 공간을 무상임대하고 지자체(진천군)가 리모델링을 시행하고 기자재·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주요대상은 맞벌이, 다자녀가구 자녀이며, 입주민과 도보

가능거리의 지역주민이 이용대상이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아동의 연령별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최초 계획단계부터 시설공간계획이 반영될 필요가 있으며, 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림 2-12] 충북혁신 천년나무4단지 내 다함께 돌봄센터

6) 신혼희망타운 주거서비스 플랫폼(그로잉센터)

보육 걱정 없는 돌봄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영유아부터 학령기 어린이까지 케어시설을 집적화한 '그로잉센터'를 설치하고 주거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전문 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신혼희망타운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의 50~80%를 입주 자녀에게 배정하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및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협력해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체계를 갖추고 전문 코디네이터를 통해 토탈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2-13] 그로잉 센터 및 주거서비스 전문 코디네이터 운영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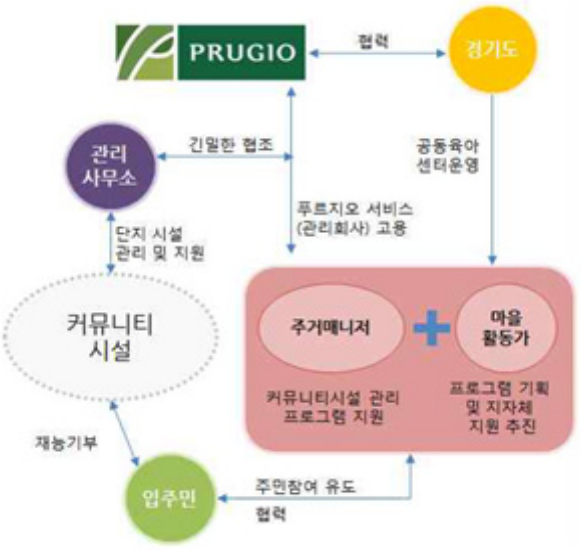
출처 : LH 보도자료(2018.07)

마. 주거지원서비스 사례

주거단지 내 육아서비스를 포함한 주거서비스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들을 통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민간임대) 주거매니저_동탄 행복마을 푸르지오

관리사무소 소속 주거매이저가 커뮤니티 시설관리, 프로그램 기획/지원 등의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총 1,135세대로 경기도와 협력하여 국공립어린이집과 아이러브맘카페 운영하고 있다. 운영비용은 공동체 기금(건설사 상가수익, 지자체 지원, 유료 커뮤니티 프로그램 수익금 등)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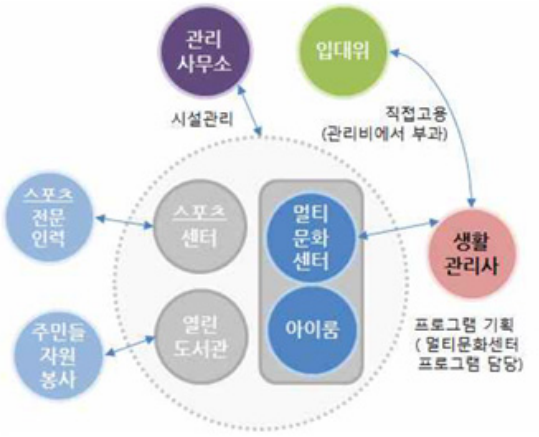


[그림 2-14] 주거매니저 운영방식

출처 : LH(2018, 한국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

2) (민간분양) 생활관리사_대구달성 래미안

건설사에서 초기 1년간 생활관리사의 인건비, 커뮤니티 운영비를 제공하고, 추후 입주자가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건비는 2010년 기준 월 200만원이며 생활관리사는 멀티문화센터 내 문화, 여가, 보육 관련 프로그램을 전담한다. 입주자들의 이용만족도가 높고, 단지 애착심과 소속감 상승의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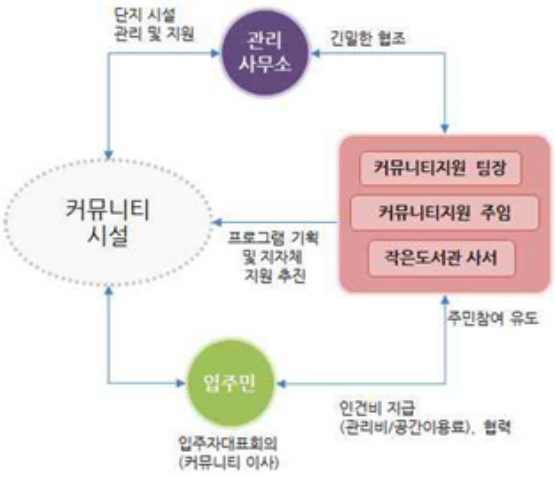


[그림 2-15] 생활관리사 운영방식

출처 : LH(2018, 한국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

3) (공공분양) 커뮤니티 전문가_성남여수 센트럴타운

총 1,039세대 공공분양아파트로 보금자리주택 사전입주자 제도로 인해 입주 초부터 커뮤니티 코디네이터의 필요성 높아 커뮤니티 지원팀을 구성하고, 커뮤니티 전문가 고용을 통한 공용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커뮤니티 지원팀은 관리사무소 소속으로 인건비는 관리비 및 프로그램 수강료로 충당하며, 자체+외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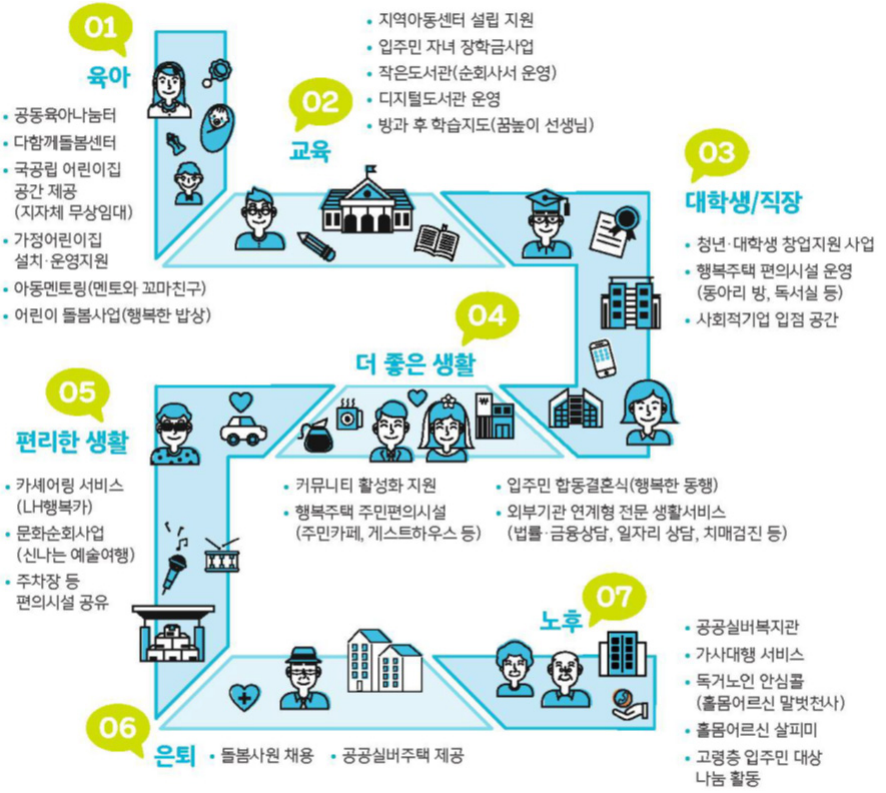


[그림 2-16] 커뮤니티 시설 운영방식

출처 : LH(2018, 한국주거서비스 소사이어티)

4) (LH) 임대주택 주거생활서비스_무지개서비스

LH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생애주기별 다양한 주거관련 서비스를 직접서비스, 플랫폼 서비스, 공동체서비스, 기부서비스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림 2-18] 무지개 서비스 내용

5) (LH) 임대주택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 시범사업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내 별도공간에 상주하며, 입주자 상담,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주택관리공단과 협업하여 입주자의 건강,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요 업무는 주거관련 정보제공, 주거생활서비스 기획 및 제공 지원, 주거환경개선 서비스,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 등이 있다. 또한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르 대상으로 주거복지사 및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인 “LH 매입임대 홀몸어르신 살피미”가 방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시행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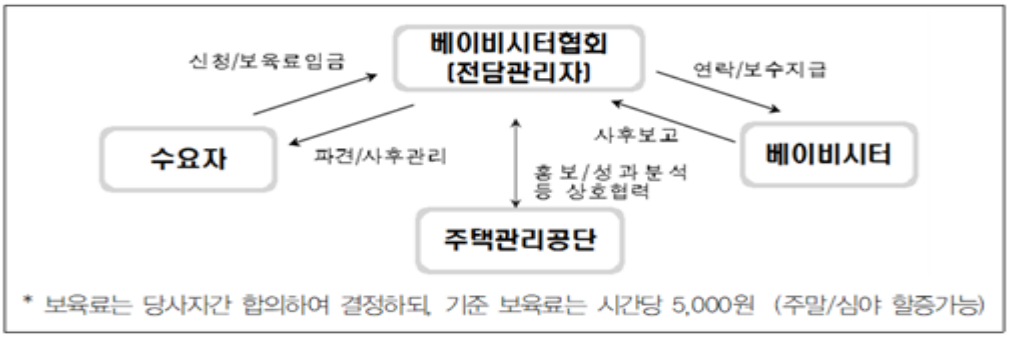
6) (SH)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2020),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

SH에서는 공동체주택 유형별 적합한 프로그램 기획 및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교육(60시간)을 수료한 전문인력을 공동체주택 코디네이터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주요 업무는 관리규약 수립 지원, 외부 프로그램 연계, 공동체 활동 지원, 하자/보수 지원, 입주민 갈등해결 지원, 입주민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취약계층 주거생활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를 2020년 도입하여, 임대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주거서비스, 공동체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입주자 실태조사 및 심층상담을 통한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할 예정이다.

7) (국토부) 육아지원 커뮤니티 활성화 시범사업(2010)

국토부, 주택관리공단, 한국베이비시터협회간에 MOU 체결을 통해, 베이비시터로 활동하고자 하는 임대단지 내 유휴인력(주부, 고령자 등)이 주택관리공단에 신청하여 소정의 교육(한국베이비시터협회 주관 총 40시간, 교육비 공단 지원) 후 동일 혹은 인근 단지 내에서 신청한 육아가정에 배치되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림 2-19] 육아지원 커뮤니티 운영방안 모델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2010.6.30)

8)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 관련 시사점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은 육아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관에 운영주체로서의 역할을 위탁하거나, 입주민단체(공동육아 관련 주민동아리 구성)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외부기관이 전문가로 참여할 경우 육아서비스에 대한 주민 요구와 운영경험을 살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입주자가 직접 공동육아 등에 참여할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육아전문기관의 컨설팅과 모니터링

이 필요할 것이다. 육아지원 시설의 공간제공 및 내부 인프라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담당하고 공간관리 방침 등은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혹은 임차인대표회의) 등에서 결정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소유자가 아니므로 서비스 공급주체는 주택공급기관이 하고 육아부모를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 협력하여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주택은 거주자가 중심이 되므로 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체의 단지관리사무소에 서비스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단지의 규모 및 단지 내 육아세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육아지원 서비스 전담 인력을 고용할지, 육아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주거서비스 전담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육아지원공간을 이용할 입주민이 20인을 넘어가면 육아코디네이터를 별도로 배치(가정어린이집이 아동 20인임을 기준)한다는 등의 전문 코디네이터와 프로그램의 기획 관리를 위한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이의 수가 많지 않다면 주거코디네이터의 업무범위에 육아코디네이터 역할을 부여하고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육아는 그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주거코디네이터 등 인력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육아 관련 교육과정을 일정 시간 추가이수 하도록 함으로써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코디네이터의 배치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비용의 처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육아친화단지에 주거서비스 뿐 아니라 육아지원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배치할 경우, 아이를 키우는 거주자, 나아가 아이성장에 맞춘 청소년이 있는 거주자까지 포괄하여 협의체를 형성하여 상호 협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육아친화단지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보육시간 이외 가정에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입장을 공교육의 개념과 같이 국가가 아이키우기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육아친화주거단지의 효과성은 감소할 수 있다.

2. 국외 사례

가. 자연 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자연환경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적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Tillmann et al., 2018). 자연에서 지내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 불안과 주의산만과 같은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질환이 생기기도 하며 자연과의 접촉 정도에 따라 아이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이전보다 더욱 자연을 사랑하고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Barrera-Hernandez et al., 2020).



[그림 2-20] 캐나다의 자연친화적 놀이터

자료출처 : Balogh et al., 2020

최근 주거단지에는 다양한 환경적 요소를 도입하여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놀이시설, 휴게시설, 관찰시설 등을 주거단지에 도입하여 어린이들이 이용함으로써 주거단지에서 자연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

나. 자연 친화적이면서 안전한 주거단지 조성이란

주거단지 내부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어린이의 사회적, 인지적 발달과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안전한 어린이 활동 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Carroll et al., 2011). 자연요소를 이용하여 주거단지에서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나무 식재, 그림자 제공을 통한 보행자 환경 개선



나무 식재, 인공 시설을 활용한 놀이터 그림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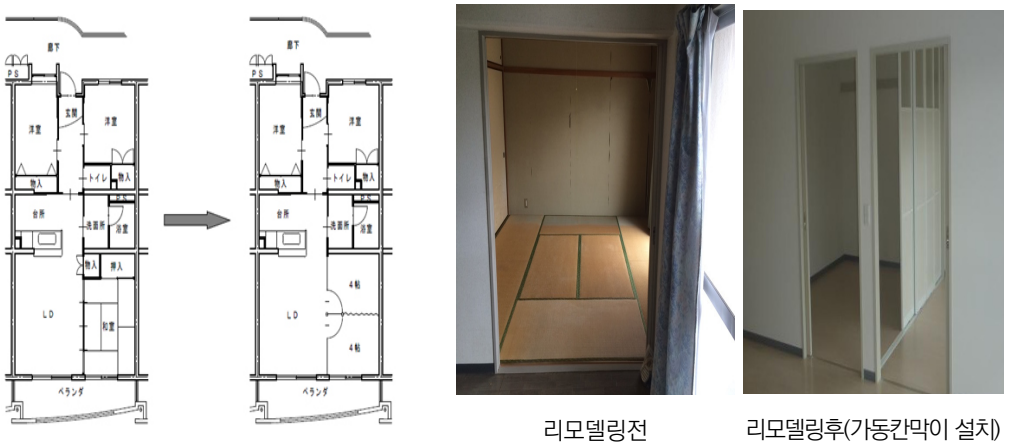
[그림 2-21] 식재를 통한 주거단지 기후환경 개선

자료출처: Government of New South Wales, Australian: Apartment Design Guide, 2015

주거단지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쓰레기장, 재활용장, 주차장) 등을 환경적 요소를 이용하여 분리하거나 차폐하는 등의 공간 조성이 가능하다(Government of New South Wales, Australian: Apartment Design Guide, 2015). 도시의 건축자재, 교통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화학, 금속 물질은 놀이터와 운동시설의 토양 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오염된 시설과 토양에 노출된 어린이들의 건강 이상과 발달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Różański et al., 2018). 따라서 친환경적 요소를 이용하여 주거단지 내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 주거단지에 식재된 나무로 인해 생성되는 그늘은 주위의 미기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상록수와 낙엽수의 균형잡힌 식재를 통해 여름에는 그늘을 제공하고, 겨울에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Government of New South Wales, Australian: Apartment Design Guide, 2015).

다. 일본 사이타마현 육아 해피 현영주택: 육아지원주택

사이타마현(埼玉県)은 「사이타마 스마일 육아 응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육아지원주택 공급사업인 '육아 해피 현영주택'을 시행하고 있다. 입주자격은 입주가능한 날 전날 시점에서 부부 모두 39세 이하(자녀 유무는 상관없음), 입주하려는 세대구성원 전원의 연수입 총액이 기준액(부부 약 351만엔, 부부+1자녀 484만엔) 이하이어야 한다. 저출산에 대응하여 자녀 출산을 유도하고 아이 성장에 맞춘 생활이 가능하도록, 기존 현영주택에 가동 칸막이를 설치하여 방 개수를 늘리는 리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는 부부가 이상적인 자녀수를 가질 수 없는 주된 이유인 주거비 부담과 육아에 적절하지 않은 주택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평면도

리모델링전 리모델링후(가동칸막이 설치)

출처 : 사이타마현 홈페이지(http://www.pref.saitama.lg.jp/)

[그림 2-22] 사이타마현 현영주택의 육아지원 리모델링

출처 : 정소이 외(2018), LHI

라. 일본 UR 도시기구 육아 특화주택_하트아일랜드 신전: 육아지원주택

전체 1,052가구의 대규모 UR 임대주택 단지로 전국 최초의 어린이 놀이터를 활용한 환승 스테이션, 보육마마[22]에 의한 그룹 보육 등 육아 세대가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지자체 및 UR 도시기구가 협동으로 지원하는 단지이다. 단지 내 설치된 육아 특화 요소로는 ① 「키즈 룸」: 0~3세까지의 어린이와 보호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류・정보 교환 장소로, 연계한 사립 유치원 버스의 픽업 전후 시간대의 보육을 실시하는 「유치원 픽업 스테이션 사업」실시, ② 「어린이 보육

22) 보육마마제도 :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보육원 문닫는 사각시간 등에 아동 3~5명을 가정에서 돌보는 제도

실」(정원 50명) : 방학이나 주말 등 휴일에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집회실을 이용하여 아침부터 밤(8시)까지 자녀를 돌보는 민영 돌봄교실, ③「그룹 보육」: 주호를 활용하여 보육마마가 가정 분위기에서 그룹 보육(0~2세 아이)을 실시, ④ 사립 보육원・유치원 병설 등이 있다.



[그림 2-23] UR 하트아일랜드 신전의 어린이보육시설, 키즈룸, 놀이터

출처 : 정소이 외(2018), LHI

마. 미국 저소득층 육아지원주택_뉴욕 슈가힐(Sugar Hill): 육아지원주택

노숙자 및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지역기반 비영리 단체 BHC(Broadway Housing Communities)에서 공급한다. 거주자 대부분이 아프리카계·라틴계 미국인 또는 이민자로 해당 지역 어린이 70% 이상이 빈곤가정에서 태어나, 취약계층 가정의 주거안정과 해당 가정의 어린이에게 양질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빈곤가정, 특히 이민자 가정의 아동은 교육에 취약하므로 양질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취학 후 학습 성과를 향상 시키고, 학교준비, 신체건강(영양, 치과진료 등), 사회정서 및 인지발달, 특수교육 등의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 직업 훈련 및 알선, 사회복지분야의 포괄적인 서비스(의료, 정신, 약물남용 치료, 상담 등) 또한 제공하며, 영구임대주택과 어린이 예술 & 스토리텔링 뮤지엄, 뮤지엄유치원, 아트갤러리 등 예술기반 유아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활동의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바. 미국 아동친화주택 가이드라인(포틀랜드시): 육아지원주택 인증제도 및 가이드라인

미국 오리건 주에 위치한 포틀랜드 시(市)의 계획국(brureau of planning)은 주호, 놀이장소, 접근성, 프라이버시와 상호작용, 안전과 보안, 그리고 완전도로에 대한 내용을 다룬 아동친화주

거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안전하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야외 놀이환경을 갖추어야 함
② 교통, 오염, 및 신체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야함
③ 자연환경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함
④ 다른 아동들과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어야 함
⑤ 아동이 자신만의 개인 공간(나무집, 요새 등)을 가질 수 있어야 함
⑥ 아동이 집주변을 뿐만 아니라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비교적 먼 거리도 돌아다니기 안전해야 함

사. 일본 동경도 육아를 배려한 주택 가이드라인: 육아지원주택 인증제도 및 가이드라인

동경도는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주거환경 만들기를 목적으로, 주택사업자나 도민이 활용 가능한 「육아를 배려한 주택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표 2-12〉 동경도 육아를 배려한 주택가이드라인 내용

1. 안심,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주거(21항목)	(1) 넘어짐 방지 : 단차 해소,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무리 등 (2) 떨어짐 방지 : 떨어짐 방지 난간의 설치 (3) 위험한 곳으로 진입방지 : 욕실문의 열쇠 설치 등 (4) 문짝, 설비에 의한 상처 등 방지 : 내장문의 확보, 돌출 부분의 깎기 가공 등 (5) 방범 대책 : 범죄의 방지를 고려한 구조 및 설비 (6) 화재. 재해대책 : 가구 넘어짐 방지, 화재감지 경보장치(연동형)의 설치 (7) 아이 지킴이 :부엌에서 시야 확보
2. 편리하고 기능적인 주거 (12항목)	(1) 이동의 용이성 : 난간의 설치, 공동주택의 EV설치 등 (2) 가사의 편리성 : 실내에서 빨래건조대, 청소 개수대 설치 등 (3) 이웃에게 소리 고려 : 다른 바닥, 다른 벽 소음
3. 가족, 지역과 접촉하는 주거 (6항목)	(1) 가족간 접촉의 증진 : 부엌, 욕실, 화장실의 크기 확보 (2) 지역에서 접촉의 증진 : 벤치 등 설치, 다양한 주거의 공급 등
4. 어린이 건강과 성장을 고려한 주거 (9항목)	(1) 어린이 건강의 고려 : 내장 마무리, 외벽 개구부의 방음 등 (2) 어린이에게 사용하기 쉬운 배려 : 조명 스위치의 높이, 문 손잡이 등 (3) 어린이 성장의 고려 : 구조의 가변성, 수납 공간의 확보

가이드라인은 신축 및 기존 공동주택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총 48항목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사항을 「우선」, 경제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할 사항을 「권장」으로 구분하였다.

아. 일본 지자체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 육아지원주택 인증제도 및 가이드라인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는 육아를 위한 주택이 부족하고 거주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도심부에 유자녀 가족의 정주화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2-13〉 일본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 비교

항목		스미다구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 제도	오사카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도	요코하마시 육아응원 공동주택 인증제도	히로시마현 육아스마일 공동주택 인증제도
시작연도		2003	2005	2008	2013
인증기간		3년	-	5년	5년
건물 요건	유형	임대/신규분양	신규 민간 공동 주택	임대/분양/신축/ 기존 불문	임대/분양/신축/ 기존 불문
	주호수	6호 이상	10호 이상	10호 이상	-
	주호 면적	• 55m²이상인 주호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	• 주호 전용면적 40m² 이상 • 55m²이상인 주호가 전체의 3분의 2 이상	• 55m²이상인 주호가 전체의 4분의 3 이상	• 주호 전용면적 40m²이상 • 70m²이상인 주호가 전체의 2분의 1 이상
평가 내용		• 주호내부 관련 사양 • 공용부 관련 사양 • 관리 운영상의 고려 사항	• 쾌적, 안전, 편리, 즐거움, 기타(육아지원 서비스, 인근 보교육/ 의료 환경)	• 주택기준(필수항목과 권장항목으로 구성)과 병설 육아지원시설에 대해 규정	• 하드사양 • 소프트웨어 지원 • 입지환경
지원·보조		• 구 홈페이지에 홍보 • 인증기간 동안 거주자에게 육아 정보 제공	• 시 홈페이지에 홍보	• 시 홈페이지에 홍보 • 육아지원시설 용적율 가산 • 200호 이상 단지 개발 시 보육시설 운영사업자 선정 시 시에서 지원	• 현 홈페이지에 홍보 • 주택 구매자에게 현 및 금융기관의 제휴 대출 (모기지 금리우대) • 용적률 완화

※ 최희원(2013), 일본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기준의 평가항목 및 계획요소에 관한 기초연구 내용 참고하여 구성

2003년 동경도 스미다구를 시작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지원 공동주택'으로 인증하면 지자체의 홍보, 키즈룸·놀이터 등 아동시설 정비비용에 대한 보조, 용적률 가산, 보육시설 운영 사업 지원, 육아 자원봉사자 파견 비용 지원, 육아관련 정보 제공, 육아모임 활동비 지원, 주택 구매자 모기지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육아지원 공동주택 인증제도의 인증내용은 지자체별로 다르나 주택내부와 공용부의 물리적 환경,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여부, 주변환경·입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평가하고 있다.

3. 소결

국내 육아지원주택은 주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저렴한 주거비와 안정적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 등 신혼·육아세대를 위한 전용주택을 공급하고, 육아세대를 위한 특화설계 및 정부정책 연계형 보·교육 시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LH의 경우 육아하기 좋은 주거환경의 구축을 위해 아동친화적인 물리적 환경과 부대복리시설을 활용하여 보육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자체 운영 서비스 및 정부의 돌봄정책과 연계된 육아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또한 최근 육아지원서비스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바, 향후 육아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육아전문가 활용 및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육아전문가 운영은 주택유형(민간/공공)과 단지 내 육아수요 규모 및 요구서비스 등에 따라 운영방식과 형태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마련 방안에 대한 덤토가 필요하다.

국외 중 일본의 경우 육아지원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육아친화적 주거환경의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육아친화주택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육아친화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참고할 만 하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에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저소득 계층의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임대주택의 부정적 인식 개선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제5절 지역사회 육아지원 전달체계

본 연구에서 주거단지 내 육아지원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 전달체계와의 연계 강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육아하는 가족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전달체계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추진 중인 사업 내용을 확인하였다.

1. 건강가정지원센터[23)]

가. 목적 및 사업내용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전국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크게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양한 가족통합지원', '지역사회 연계'의 6개 영역으로 나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족돌봄나눔' 영역은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이 중 모두가족봉사단은 가족단위의 봉사를 통해 바람직한 가족의 가치를 형성,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갖고자하는 목적을 지닌다. 가족사랑의 날은 평소 함께 하기 어려운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양육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 기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부모의 출장, 야근 또는 아동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양육공백에 따른 돌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 자녀의 안전과 건강한 양육을 위해 1:1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취업부모에게 가정 내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23)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familynet.or.kr)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그림 2-24]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

자료: 1)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familynet.or.kr/ (인출일: 2020.12.31.)

'가족(집단)상담'은 부모자녀 상담, 부부 상담, 가족관계에 의한 갈등 상담 등을 지원한다. '가족문화'는 가족 사랑의 날 프로그램, 가족여가 프로그램, 지역참여 및 나눔행사, 건강가정 관련 캠페인 등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연계'를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 연계, 센터사업 유관관계 연계 등을 도모한다. '다양한 가족' 부분은 한부모/조손/다문화/맞벌이/장애아를 둔 가족/북한이탈주민가족/군인가족 등의 지원을 모색한다.

'가족교육' 영역에서는 생애주기별 (조)부모교육, 남성대상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서비스 수행기관에서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가족 관계향상, 의사소통방법, 역할지원 등 가족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부모, 부부, 조부모, 자녀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별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과 가족생활의 남성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자녀와의 놀이방법 등을 비롯한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양육방법을 알려주는 남성대상 육아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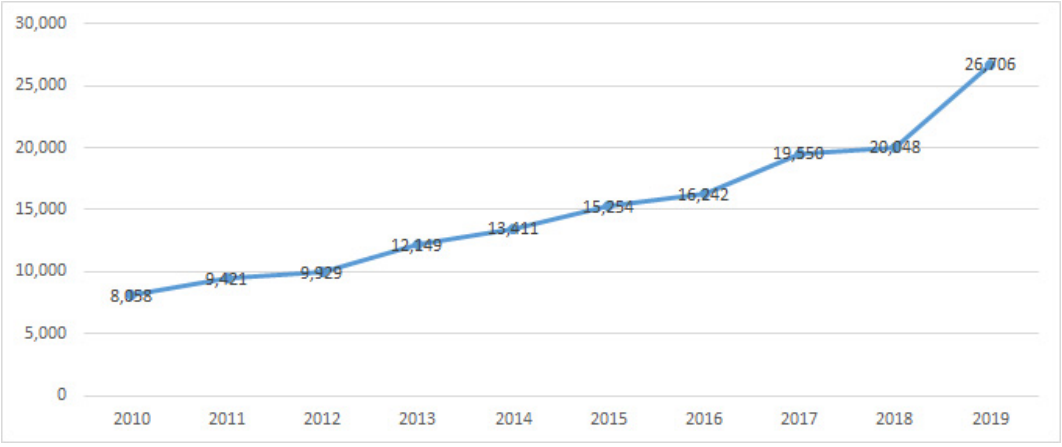
나. 이용 현황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양한 가족 통합'으로 구분하여 2019년 기준 사업 영역별 참여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14〉와 같다.

〈표 2-14〉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 당 평균 참여인원 현황추이(2010-2019)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센터 평균인원	8,058	9,421	9,929	12,149	13,411	15,254	16,242	19,550	20,048	26,706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9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p. 24, 표[Ⅰ-1]을 참고하여 재구성.



[그림 2-25]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 당 평균 참여인원 현황추이(2010-2019)

2019년 센터 당 건강가정지원사업의 평균 참여인원의 수(26,706명)는 2018년(20,048명) 대비 33.21%가 증가하였으며, 2010년부터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9, pp. 24-25). 이는 건강가정지원사업에서 운영하는 육아지원사업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15〉에서와 같이 가장 이용률이 높은 사업은 모두가족봉사단, 모두가족품앗이, 아버지-자녀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램, 아이돌봄 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포함된 가족돌봄나눔 영역이다. 2019년 참여 인원은 404,199명으로, 이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사업 이용자의 63.06%에 이른다. 가족돌봄나눔사업에 대한 높은 참여율을 통해 지역사회의 돌봄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5〉 2019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영역 별 참여인원 현황

구분	가족돌봄나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다양한 가족 통합	계
			일반, 일시성	프로그램			
참여인원	404,199	61,515	51,449	17,259	105,640	880	640,942
영역별 비중(%)	63.06	9.60	8.03	2.69	16.48	0.14	100.00

자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9 가족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p. 25

2. 육아종합지원센터[24)]

가. 목적 및 사업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보육교직원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육아지원기관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전국 시군구에 위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크게 '어린이집지원', '가정양육지원', '기타사업'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어린이집지원' 사업은 표준보육과정이나 어린이집 설치, 운영 등 다양한 어린이집관련 사업으로 대표된다.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가정양육지원'사업은 부모교육 및 상담, 부모-자녀체험프로그램 운영, 육아콘텐츠 개발 및 지원, 영유아 체험프로그램 및 놀이공간 제공, 도서·장난감 등 제공 또는 대여,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부모소모임 등 교류 공간 제공, 영유아 발달에 관한 검사, 그 밖에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한 사업들을 포괄적으로 추진 중이다.

각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실정에 맞도록 지원사업의 차이는 있지만, 장난감 도서관, 부모자녀를 위해 실내놀이 공간 및 공동육아 나눔터로써의 역할을 하는 하늘열린 육아방, 놀이체험실 및 다목적 교실을 통한 영유아 프로그램운영, 시간제보육, 부모교육 강의 등을 제공되고 있다. '기타사업'은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보육프로그램 및 양육 콘텐츠 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관기관과 연계사업,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 관련 상담 등을 의미한다.

24)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entral.childcare.go.kr)의 내용을 토대로 구성함.



[그림 2-26]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달체계

자료: 1)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central.childcare.go.kr/ (인출일: 2020.12.31.)

나. 이용 현황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가정양육지원' 사업은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체험)실, 영유아 및 부모-자녀 체험 프로그램, 양육상담, 부모교육 등을 포함한다. 2019년 기준 각 사업 부문별 이용자 수 현황은 아래 〈표 2-16〉과 같다.

2019년 기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가정양육지원사업 중 이용인원이 가장 많은 사업은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체험)실,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순이다. 이를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자들이 가정양육지원 중에서도 부모와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2-16〉 2019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 영역 별 참여인원 현황

구분	장난감 및 도서대여			놀이 (체험)실	체험프로그램	
	놀잇감	도서	기타물품		부모-자녀	영유아
이용인원	1,467,788	535,331	196,560	2,002,757	970,380	131,465
계	2,799,679			2,002,757	1,101,845	

구분	부모교육			양육상담	
	클로버 부모교육	공통부모교육	자체부모교육	비대면 (건수)	대면
이용인원	92,072	44,265	84,379	64,020	38,936
계	220,716			-	

자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전국센터 사업별 통계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https://central.childcare.go.kr/ccef/community/data/DataSIPL.jsp?BBSGB=1114 (인출일: 2021년 1월 5일)

03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요구

본 연구에서는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수요자들의 요구사항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게 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시행하였으며, 본 장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2020년 11월에는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영아 자녀를 둔 부모 304명, 유아 자녀를 둔 부모 300명,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 304명,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113명이 참여하였다. 설문결과가 하위 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부모 연령대 및 성별, 자녀연령, 아파트 거주 여부, 맞벌이 여부 등으로 나누어 결과 차이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2020년 9월, 12월 각각 실시한 부모 면담조사에는 '남양주 별내 위스테이' 거주 영유아, 초등학생 부모 8명,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 거주 영유아 부모 6명이 참여하였고, 부모님 면담을 통해 현재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를 지향하여 조성한 단지 내에 살고 있는 부모님들의 생활과 요구사항을 담았다.

제1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요구(Ⅰ): 설문조사 결과

1. 양육 상황 및 주거단지 진단

가. 양육 상황

1) 자녀 이용 기관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기관/학교를 알아보았을 때, 어린이집이 27.3%. 초등학교가 32.4%, 유치원이 17.6%, 기관을 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 경우가 11%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 기간이 COVID-19가 유행하고 있는 시기임을 감안하여, 기관을 다니지 않고 집에 있는 비율이 11%로 높음을 주목하였는데, 특히 영아자녀의 31.9%가 집에 있는 비율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에도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가 집에 있는 경우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의 자녀 돌봄에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1〉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학교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기관/학교 다니지 않고 집에 있음	반일제 이상 학원 등	기타	계(수)
전체	37.3	32.4	17.6	11.0	1.3	0.3	100(908)
연령대X성별							
30대이하 남성	47.5	15.6	19.1	16.0	1.9	0.0	100(257)
30대이하 여성	47.7	20.5	15.9	14.4	0.4	1.1	100(264)
40대이상 남성	23.2	51.8	17.4	5.8	1.8	0.0	100(276)
40대이상 여성	24.3	51.4	18.9	4.5	0.9	0.0	100(111)
$x^2(df)$				143.98(15)***			
자녀연령							
영아	65.1	0.0	1.0	31.9	1.3	0.7	100(304)
유아	47.0	0.0	50.0	1.0	2.0	0.0	100(300)

구분	어린이집	초등학교	유치원	기관/학교 다니지 않고 집에 있음	반일제 이상 학원 등	기타	계(수)
초등저학년	0.0	96.7	2.3	0.0	0.7	0.3	100(304)
$x^2(df)$				1220.1(10)***			
가구소득							
월400만원미만	42.3	22.5	15.4	18.5	1.3	0.0	100(227)
400~599만원	34.3	37.1	16.5	11.4	0.0	0.6	100(315)
600~799만원	39.7	32.4	18.6	6.9	2.0	0.5	100(204)
800만원 이상	33.3	37.0	21.6	4.9	3.1	0.0	100(162)
$x^2(df)$				47.05(15)***			
주택유형							
아파트	36.0	33.5	18.2	10.6	1.3	0.4	100(764)
아파트 외	44.4	26.4	14.6	13.2	1.4	0.0	100(144)
$x^2(df)$				6.4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8.6	33.5	18.0	8.9	0.9	0.2	100(529)
맞벌이 아님	35.6	30.9	17.2	14.0	1.8	0.5	100(379)
$x^2(df)$				8.39(5)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주 돌봄 제공자

기관/학교 미이용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을 물었을 때, 부모가 돌본다고 응답한 비율이 65.9%, 자녀의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가 17.2%, 초등돌봄 등 공공기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5.9% 순서로 나타났다.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영아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76.3%), 유아도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가 높으나(65.0%), 조부모 돌봄 비중이 영아보다는 더 높았으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는 초등돌봄 등의 공공기관 돌봄서비스 이용(11.5%) 및 사교육기관 이용(14.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맞벌이인 경우는 24.8%가 조부모가 주로 돌보고 있어, 맞벌이 아닌 경우(6.6%)보다 조부모 돌봄이 월등히 높았으며, 공공돌봄 서비스 및 사교육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가 맞벌이가 아닌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기관/학교 미이용시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

단위: %(명)

구분	부모	아이 조부모	공공기관 돌봄 서비스	사교육 기관	개인 돌봄 서비스	주로 혼자 있음	기타	계(수)
전체	65.9	17.2	5.9	5.6	4.2	0.7	0.6	100(908)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71.2	16.3	3.1	3.1	5.8	0.4	0.0	100(257)
30대 이하 여성	61.4	22.0	4.2	6.4	4.2	1.5	0.4	100(264)
40대 이상 남성	67.4	12.3	6.2	8.3	4.0	0.4	1.4	100(276)
40대 이상 여성	60.4	19.8	16.2	2.7	0.9	0.0	0.0	100(111)
$x^2(df)$				58.57(18)***				
자녀연령								
영아	76.3	15.8	1.0	0.3	5.3	0.3	1.0	100(304)
유아	65.0	22.7	5.3	2.0	5.0	0.0	0.0	100(300)
초등저학년	56.3	13.2	11.5	14.5	2.3	1.6	0.7	100(304)
$x^2(df)$				124.59(12)***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84.6	7.9	2.2	2.2	1.3	0.9	0.9	100(227)
월 400~599만원 미만	71.1	13.3	4.8	5.7	3.5	1.0	0.6	100(315)
월 600~799만원 미만	56.4	21.6	8.3	5.9	7.4	0.5	0.0	100(204)
월 800만원 이상	41.4	32.1	10.5	9.9	5.6	0.0	0.6	100(162)
$x^2(df)$				105.69(18)***				
주택유형								
아파트	64.8	16.8	6.4	6.5	4.3	0.8	0.4	100(764)
아파트 외	71.5	19.4	3.5	0.7	3.5	0.0	1.4	100(144)
$x^2(df)$				14.01(6)*				
맞벌이 여부								
맞벌이	50.9	24.8	8.5	8.5	5.9	0.9	0.6	100(529)
맞벌이 아님	86.8	6.6	2.4	1.6	1.8	0.3	0.5	100(379)
$x^2(df)$				128.62(6)***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3) 양육부담 정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정도를 질문하였는데, 양육을 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정도를 모든 영역에서 3.5점 이상을 나타내어, 모든 영역에

서 평균 이상의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이 평균 3.9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교육문제가 3.89점으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정도 1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부담을 느끼는 편이다	매우 부담을 느낀다	계(수)	평균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	0.9	5.0	18.0	51.5	24.7	100(908)	3.94
체력적 부담	0.7	8.3	24.2	45.0	21.8	100(908)	3.79
인적 자원 부족	1.5	11.8	31.3	39.0	16.4	100(908)	3.57
경제적 부담	1.8	8.4	22.9	43.8	23.1	100(908)	3.78
자녀 돌봄 부재로 인한 문제	2.8	9.8	25.8	40.4	21.3	100(908)	3.68
자녀교육 문제	1.0	3.2	25.7	46.6	23.6	100(908)	3.89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평균 값은 5점 만점(1점: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5점: '매우 부담을 느낀다')으로 평정한 값을 평균내어 제시함.

양육 부담 정도는 부담 종류에 따라 가구소득별, 자녀연령별, 맞벌이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체력적 부담, 인적자원 부족으로 인한 부담은 자녀가 클수록 줄어들었으나, 자녀교육문제는 유아 및 초등저학년 자녀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맞벌이의 경우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3.81점)을 더 크게 느꼈고, 자녀 돌봄 부재로 인한 부담을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 비해 더 크게 느끼고 있어, 요즘과 같이 자녀들이 학교 및 기관을 가지 못하는 경우(3.50점) 더욱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표 3-4〉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정도 2

단위: 점(명)

구분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	체력적 부담	인적 자원 부족	경제적 부담	자녀 돌봄 부재로 인한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수)
전체	3.94	3.79	3.57	3.78	3.68	3.89	(908)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3.96	3.81	3.60	3.75	3.72	3.82	(257)
30대 이하 여성	4.01	3.95	3.64	3.86	3.68	3.94	(264)
40대 이상 남성	3.86	3.59	3.45	3.73	3.64	3.86	(276)
40대 이상 여성	3.94	3.86	3.62	3.81	3.66	4.00	(111)
F	1.56	7.71***	2.05	1.03	0.24	1.71	
자녀연령							

구분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	체력적 부담	인적 자원 부족	경제적 부담	자녀 돌봄 부재로 인한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수)
영아	3.98	4.01	3.63	3.72	3.66	3.78	(304)
유아	3.95	3.82	3.59	3.83	3.72	3.91	(300)
초등저학년	3.90	3.54	3.48	3.80	3.65	3.97	(304)
F	0.70	21.99***	2.04	1.14	0.38	4.25*	
가구소득							
월 400만원미만	3.81	3.83	3.56	4.00	3.56	3.84	227)
월400~599만원	3.94	3.73	3.60	3.82	3.69	3.89	(315)
월600~799만원	4.00	3.82	3.54	3.67	3.73	3.90	(204)
월 800만원 이상	4.06	3.81	3.56	3.55	3.75	3.93	(162)
F	3.21*	0.68	0.19	8.55***	1.43	0.40	
주택유형							
아파트	3.97	3.81	3.57	3.79	3.70	3.91	(764)
아파트 외	3.81	3.6)	3.54	3.76	3.53	3.77	(144)
t	2.13*	1.40	0.38	0.25	1.85	1.80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9	3.79	3.59	3.74	3.81	3.92	(529)
맞벌이 아님	3.87	3.80	3.54	3.84	3.50	3.84	(379)
t	2.08*	−0.17	0.84	−1.67	4.60***	1.34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4) 양육 분담 및 양육 참여

〈표 3-5〉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 자녀양육분담 정도를 합산하여 100%가 되도록 각각 응답한 결과를 아버지의 양육분담 정도, 어머니의 양육분담 정도를 평균내어 나타냈다. 전체 평균은 아버지 양육분담 30%, 어머니 분담 70% 정도로 나타나, 여전히 어머니들의 양육분담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맞벌이의 경우에는 어머니 분담정도가 65.7%로 전체 평균보다는 낮았으나, 여전히 높고, 초등저학년의 경우 영유아 시기보다 어머니 양육 분담률이 높게 나타났다(71.23%).

〈표 3-5〉 아버지의 자녀 양육 분담 정도

단위: %(표준편차, 명)

구분	아버지 양육 분담정도		어머니 양육분담 정도	
	평균 (표준 편차)	계(수)	평균 (표준 편차)	계(수)
전체	30.31 (16.12)	100 (908)	69.69 (16.12)	100 (908)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33.02 (15.83)	100 (257)	66.98 (15.83)	100 (257)
30대 이하 여성	28.09 (15.88)	100 (264)	71.91 (15.88)	100 (264)
40대 이상 남성	31.94 (15.72)	100 (276)	68.06 (15.72)	100 (276)
40대 이상 여성	25.27 (16.61)	100 (111)	74.73 (16.61)	100 (111)
자녀연령				
영아	31.07(15.88)	100(304)	68.93(15.88)	100(304)
유아	31.10(16.24)	100(300)	68.90(16.24)	100(300)
초등저학년	28.77(16.17)	100(304)	71.23(16.17)	100(304)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26.26(16.40)	100(227)	73.74(16.40)	100(227)
월 400~599만원 미만	29.57(14.81)	100(315)	70.43(14.81)	100(315)
월 600~799만원 미만	31.92(15.77)	100(204)	68.08(15.77)	100(204)
월 800만원 이상	35.40(17.04)	100(162)	64.60(17.04)	100(162)
주택유형				
아파트	30.20(16.22)	100(764)	69.80(16.22)	100(764)
아파트 외	30.87(15.57)	100(144)	69.13(15.57)	100(144)
맞벌이 여부				
맞벌이	34.26(15.62)	100(529)	65.74(15.62)	100(529)
맞벌이 아님	24.79(15.17)	100(379)	75.21(15.17)	100(379)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표 3-6〉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를 각 하위 영역별로 보았는데, 아버지 양육 참여는 '자녀와의 놀이(3.92점)' 영역에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사활동(3.61점) 및 자녀의 학습지원(3.42점)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표 3-6〉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 (전체)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계(수)	평균
기본생활돌봄	2.2	11.5	21.4	48.8	16.1	100(908)	3.65
자녀 돌봄을 위한 가사	4.3	12.0	22.0	41.3	20.3	100(908)	3.61
자녀와의 놀이	0.7	4.8	20.8	49.4	24.3	100(908)	3.92
자녀의 훈육	1.1	5.2	30.0	47.8	15.9	100(908)	3.72
자녀의 학습지원	3.9	13.7	31.5	38.1	12.8	100(908)	3.42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평균 값은 5점 만점(1점:'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5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으로 평정한 값을 평균내어 제시함.

〈표 3-7〉에서는 아버지 양육 참여 정도를 세부집단별로 살펴보았는데, 하위 그룹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자녀가 어릴수록 아버지 양육참여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영아의 경우 기본생활 돌봄, 가사활동, 자녀와의 놀이, 자녀 훈육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 정도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자녀와의 놀이를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는 맞벌이인 경우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3-7〉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 (세부집단별)

단위: 점(명)

구분	기본생활 돌봄	자녀 돌봄을 위한 가사활동	자녀와의 놀이	자녀의 훈육	자녀의 학습지원	수
전체	3.65	3.61	3.92	3.72	3.42	898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3.79	3.81	4.04	3.76	3.61	257
30대 이하 여성	3.55	3.46	3.85	3.65	3.25	260
40대 이상 남성	3.71	3.74	3.94	3.80	3.54	276
40대 이상 여성	3.39	3.16	3.74	3.59	3.05	105
F	5.97***	12.63***	3.83**	2.72*	12.24***	
자녀연령						
영아	3.84	3.79	4.03	3.77	3.55	302
유아	3.66	3.54	3.94	3.72	3.36	298
초등저학년	3.45	3.50	3.79	3.67	3.36	298
F	13.14***	6.67**	6.66**	1.02	3.70*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3.52	3.48	3.82	3.57	3.29	221
월 400~599만원	3.63	3.58	3.87	3.72	3.42	311
월 600~799만원	3.75	3.69	4.01	3.86	3.52	204
월 800만원 이상	3.74	3.75	4.02	3.74	3.47	162
F	2.72*	2.55	2.99*	4.34**	2.12	
주택유형						
아파트	3.65	3.60	3.91	3.72	3.41	756
아파트 외	3.67	3.65	3.96	3.75	3.46	142
t	−0.24	−0.53	−0.61	−0.39	−0.55	
맞벌이 여부						
맞벌이	3.77	3.77	3.99	3.82	3.51	527
맞벌이 아님	3.48	3.39	3.82	3.59	3.29	371
t	4.57***	5.29***	2.92	4.09***	3.30**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 p 〈 .05, ** p 〈 .01, *** p 〈 .001.

나. 주거 현황 및 진단

1) 거주 중인 주택유형

양육자 가구들이 거주 중인 주택유형을 살펴보았을 때는, 조사대상의 82.8%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연립주택에 12.4%, 단독주택에 3.0%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연립/다세대 주택에 사는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22.1%), 가구소득이 고소득인 경우 현저하게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았다(92.1%).

〈표 3-8〉 거주 중인 주택유형

단위: %(명), *N* = 1021

구분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기타	계(수)
전체	82.8	12.4	3.0	1.5	0.3	100(1021)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81.4	14.6	2.7	1.4	0.0	100(295)
30대 이하 여성	82.6	12.1	1.9	3.1	0.3	100(322)
40대 이상 남성	85.6	10.2	3.9	0.0	0.4	100(284)
40대 이상 여성	80.0	13.3	5.0	0.8	0.8	100(120)
$x^2(df)$			19(12)			
자녀연령						
자녀없음	71.7	22.1	2.7	3.5	0.0	100(113)
영아	82.2	12.5	2.6	2.3	0.3	100(304)
유아	83.7	12.0	3.3	1.0	0.0	100(300)
초등저학년	86.5	9.2	3.3	0.3	0.7	100(304)
$x^2(df)$			24.19(12)*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79.1	16.1	2.8	1.2	0.8	100(249)
월 400~599만원 미만	79.5	15.6	3.3	1.4	0.3	100(365)
월 600~799만원 미만	84.7	11.4	2.6	1.3	0.0	100(229)
월 800만원 이상	92.1	2.2	3.4	2.2	0.0	100(178)
$x^2(df)$			28.18(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83.2	11.8	3.4	1.5	0.2	100(620)
맞벌이 아님	82.0	13.5	2.5	1.5	0.5	100(401)
$x^2(df)$			2.19(4)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양육에 적합한 주택유형 및 그 이유

〈표 3-9〉에서는 자녀 양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택유형을 물어보았는데, 62.8%가 아파트, 35.3%가 단독주택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현재 응답자의 82.8%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단독주택 거주는 3.0.%에 지나지 않는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현재는 아파트 거주하지만,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이 30% 정도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파트가 자녀 양육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62.8%로 높게 나타나, 아파트 거주에 장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9〉 자녀 양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택유형

단위: %(명), *N* = 1021

구분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기타	계(수)
전체	62.8	1.6	35.3	0.3	0.1	100(1021)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63.4	2.7	33.2	0.7	0.0	100(295)
30대 이하 여성	65.8	1.2	32.3	0.3	0.3	100(322)
40대 이상 남성	60.6	1.1	38.4	0.0	0.0	100(284)
40대 이상 여성	58.3	0.8	40.8	0.0	0.0	100(120)
$x^2(df)$			12.50(12)			
자녀연령						
자녀없음	66.4	1.8	31.0	0.0	0.9	100(113)
영아	63.2	2.3	34.2	0.3	0.0	100(304)
유아	59.7	1.7	38.3	0.3	0.0	100(300)
초등저학년	64.1	0.7	34.9	0.3	0.0	100(304)
$x^2(df)$			13.40(12)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65.9	2.8	31.3	0.0	0.0	100(249)
월 400~599만원 미만	56.7	1.4	41.6	0.0	0.3	100(365)
월 600~799만원 미만	63.8	1.3	34.1	0.9	0.0	100(229)
월 800만원 이상	69.7	0.6	29.2	0.6	0.0	100(178)
$x^2(df)$			21.60(12)*			
주택유형						
아파트	64.7	0.8	34.3	0.0	0.1	100(845)
아파트 외	53.4	5.1	39.8	1.7	0.0	100(176)
$x^2(df)$			35.88(4)***			
맞벌이 여부						

구분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	기타	계(수)
맞벌이	62.6	1.1	35.6	0.5	0.2	100(620)
맞벌이 아님	63.1	2.2	34.7	0.0	0.0	100(401)
$x^2(df)$	4.60(4)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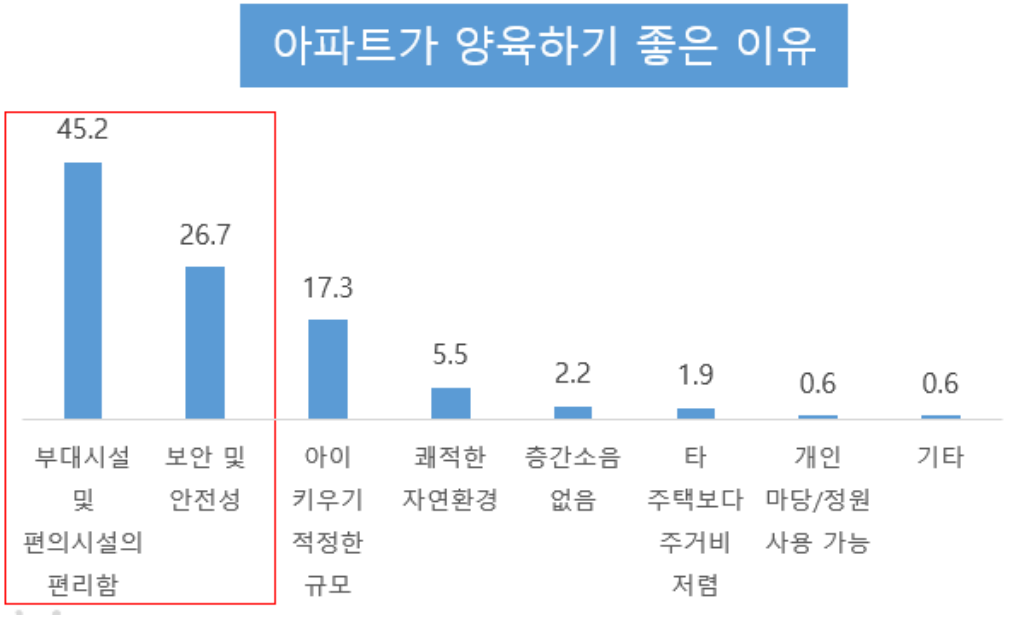
〈표 3-10〉에서는 자녀양육에 적합한 주거형태에 따른 장점을 물어보았는데, 아파트를 선택한 응답자와 단독주택 포함 아파트 외를 선택한 응답자 간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파트'가 자녀 양육에 적합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각종 편의시설 이용 편리(45.2%)', '보안 및 안전성(26.7%)' 이 주요 이유로 나타난 것에 반해, '단독주택 포함 아파트 외'가 자녀 양육에 적합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층간소음 걱정 없음(50.9%)', '개인 마당/정원 등을 사용 가능(35.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0〉 아파트/단독주택이 자녀양육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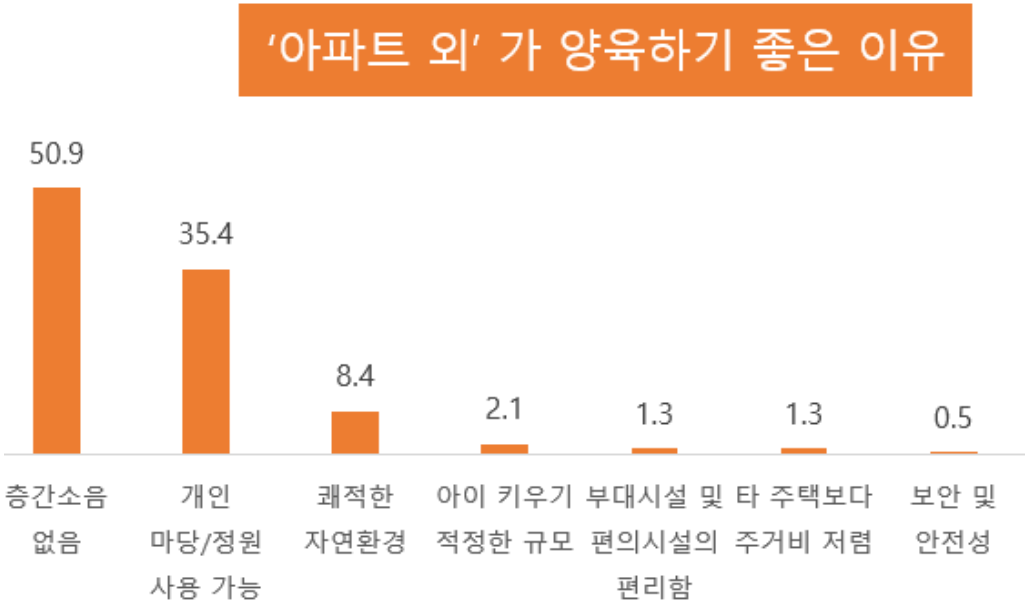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아파트	단독주택 (기타포함)
놀이터, 주차장, 부대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여	45.2	1.3
보안 및 안전성 때문에	26.7	0.5
아이를 키우기에 적정한 규모(세대 혹은 단지)여서	17.3	2.1
쾌적한 자연환경 때문에	5.5	8.4
층간소음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어서	2.2	50.9
타 주택유형보다 주거비가 저렴해서	1.9	1.3
개인 마당/정원 등을 사용가능해서	0.6	35.4
기타	0.6	0
계(수)	100(641)	100(379)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그림 3-1] 아파트가 양육하기 좋은 이유



[그림 3-2] '아파트 외'가 양육하기 좋은 이유

3) 현 거주지 선택 이유

〈표 3-11〉에서는 현재 거주지를 선택한 이유를 각 그룹별로 나타내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집값 및 임차료의 적절함'이 27.8%, '직장 가까움'이 20.4%, '보육/교육시설 편리'가 16.0%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조부모 댁 근거리'(8.5%) 및 '조부모 외 돌봄제공 지인'(7.7%)이 합쳐 16.2%로 자녀 돌봄으로 인한 이유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영아는 돌봄의 이유로 조부모댁 근거리(11.5%) 및 돌봄제공 지인(8.6%)의 비율이 높았고, 초등저학년의 경우 교육의 이유로 보육/시설 편리(25.7%)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가구는' 직장 근거리', 맞벌이인 가구는 '직장 근거리 및 조부모 근거리' 조건이 중요하게 나타났다.

〈표 3-11〉 현재 거주지 선택의 가장 주된 이유

단위: %(명), N = 1021

구분	집값 및 임차료 적절	직장 가까움	보육/교육 시설편리	공원 등 근린 시설	조부모댁 근거리	조부모댁 외 돌봄 제공 지인	시장, 마트 근접	기타	계(수)
전체	27.8	20.4	16.0	11.2	8.5	7.7	5.8	2.6	100(1021)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35.6	20.3	10.2	8.1	9.2	7.1	7.1	2.4	100(295)
30대 이하 여성	25.2	20.2	13.7	12.1	10.2	9.9	5.6	3.1	100(322)
40대 이상 남성	22.9	19.0	23.9	12.0	7.0	7.0	6.0	2.1	100(284)
40대 이상 여성	27.5	24.2	17.5	14.2	5.8	5.0	2.5	3.3	100(120)
$x^2(df)$					43.99(21)**				
자녀연령									
자녀없음	41.6	25.7	1.8	8.8	4.4	5.3	8.8	3.5	100(113)
영아	30.6	24.0	7.9	7.9	11.5	8.6	6.9	2.6	100(304)
유아	29.0	16.3	19.7	12.7	7.3	8.3	4.0	2.7	100(300)
초등저학년	18.8	18.8	25.7	13.8	8.2	7.2	5.3	2.3	100(304)
$x^2(df)$					89.20(21)***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39.8	17.3	12.9	10.4	4.8	6.0	5.6	3.2	100(249)
월 400~599만원	29.0	18.6	16.4	12.1	8.5	6.3	6.3	2.7	100(365)
월 600~799만원	25.3	19.7	16.6	11.4	12.2	7.9	5.2	1.7	100(229)
월 800만원 이상	11.8	29.2	18.5	10.1	9.0	12.9	5.6	2.8	100(178)
$x^2(df)$					58.61(21)***				
주택유형									

구분	집값 및 임차료 적절	직장 가까움	보육/교육 시설편리	공원 등 근린 시설	조부모댁 근거리	조부모댁 외 돌봄 제공 지인	시장, 마트 근접	기타	계(수)
아파트	23.6	22.2	17.9	12.8	8.5	7.0	5.9	2.1	100(845)
아파트 외	48.3	11.4	6.8	3.4	8.5	11.4	5.1	5.1	100(176)
$x^2(df)$					71.82(7)***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0	21.0	15.2	10.5	9.8	9.8	5.3	2.4	100(620)
맞벌이 아님	30.7	19.5	17.2	12.2	6.5	4.5	6.5	3.0	100(401)
$x^2(df)$					16.60(7)*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4) 현 거주단지 양육친화 정도

〈표 3-12〉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단지의 양육친화정도를 평가하였는데, 만족도는 '매우 좋은 환경이다' 또는 '대체로 좋은 환경이다'의 긍정적인 답변이 83.1%,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또는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다'의 부정적 답변이 16.9%로 나타나, 대부분이 현재의 거주지역에 대한 양육친화 정도를 높게 나타내었다. 다만,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재 거주 단지의 양육친화 정도에 대해 '매우 좋은 환경이다'의 비율이 15.0%로 높게 나타났고, 신혼부부의 경우는 양육친화 정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이는 위의 결과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아파트 외' 거주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결과로 보인다.

〈표 3-12〉 현재 거주단지의 양육친화 정도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좋은 환경이다 (1점)	대체로 좋은 환경이다 (2점)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3점)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다 (4점)	계(수)	평균
전체	13.2	69.9	14.9	2.0	100(1021)	2.06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15.3	66.8	15.3	2.7	100(295)	2.05
30대 이하 여성	15.2	68.0	15.8	0.9	100(322)	2.02
40대 이상 남성	9.2	73.9	15.1	1.8	100(284)	2.10
40대 이상 여성	12.5	73.3	10.8	3.3	100(120)	2.05
$x^2(df)/F$			12.29(9)			0.70
자녀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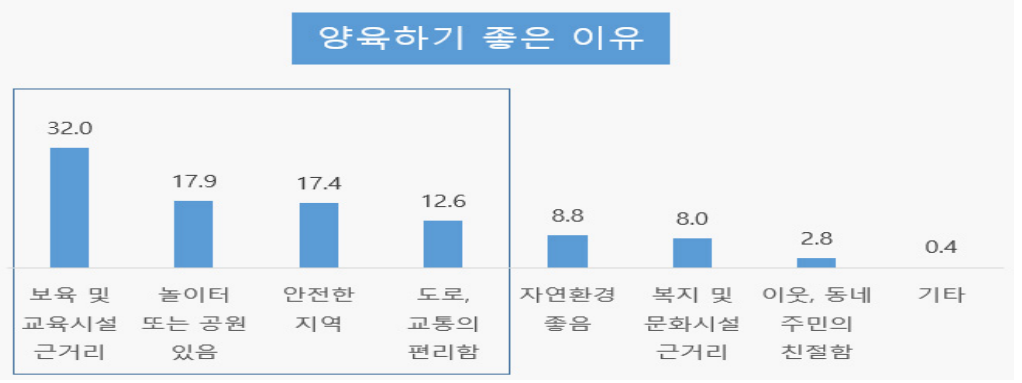
구분	매우 좋은 환경이다 (1점)	대체로 좋은 환경이다 (2점)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3점)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다 (4점)	계(수)	평균
자녀없음	16.8	56.6	23.0	3.5	100(113)	2.13
영아	12.2	67.8	17.4	2.6	100(304)	2.11
유아	12.0	71.3	14.3	2.3	100(300)	2.07
초등저학년	14.1	75.7	9.9	0.3	100(304)	1.96
$x^2(df)/F$			24.48(9)**			3.81**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11.6	65.9	19.7	2.8	100(249)	2.14
월 400~599만원	11.5	70.7	16.4	1.4	100(365)	2.08
월 600~799만원	14.4	72.1	11.4	2.2	100(229)	2.01
월 800만원 이상	17.4	71.3	9.6	1.7	100(178)	1.96
$x^2(df)/F$			16.16(9)			3.78*
주택유형						
아파트	15.0	72.8	11.2	0.9	100(845)	1.98
아파트 외	4.5	56.3	32.4	6.8	100(176)	2.41
$x^2(df)/t$			87.18(3)***			−7.86***
맞벌이 여부						
맞벌이	13.5	69.7	14.5	2.3	100(620)	2.05
맞벌이 아님	12.7	70.3	15.5	1.5	100(401)	2.06
$x^2(df)/t$			1.01(3)			−0.07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매우 좋은 환경이다'가 1점,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다'가 4점.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환경을 뜻함.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3]에서는 현재 주거단지가 양육하기 좋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양육하기 좋은 이유를, [그림 3-4]에는 양육하기 좋지 않다고 응답한 양육하기 좋지 않은 이유를 각각 물어본 후 그 결과를 그림으로 정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5) 양육하기 좋은 이유

먼저, 양육하기 좋은 이유로는 '보육 및 교육시설 근거리'(32.0%), '놀이터 또는 공원'(17/9%), '안전한 지역'(17.4%)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3-3] 현재 주거단지가 양육하기 좋은 이유 (N=848명 응답)

현재 주거단지가 양육하기 좋은 이유를 세부 그룹별로 나타냈을 때에는, 자녀 연령에서만 그룹별 차이를 보였는데, 초등 저학년의 경우 '보육 및 교육시설의 근접성'(32.0%)이, 유아의 경우 '놀이터 혹은 공원 접근성'(23.6%)이, 영아(12.8%)의 경우 '자연환경 좋음'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3〉 현재 주거단지가 양육하기 좋은 이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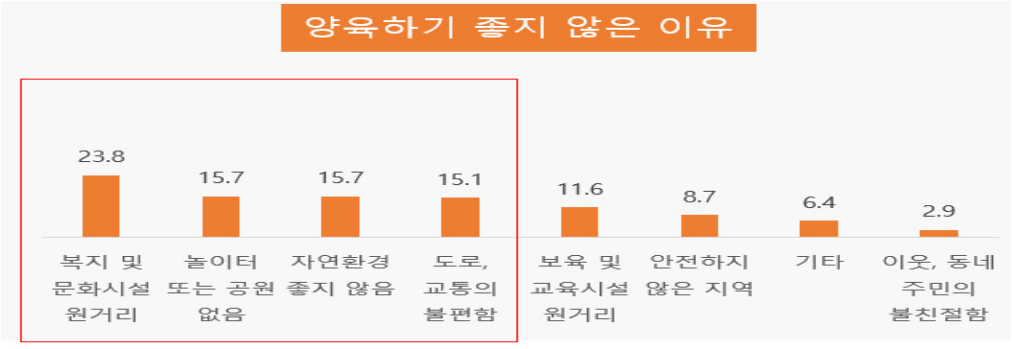
구분	보육 및 교육시설 근접성	놀이터 혹은 공원 근접성	도로, 교통의 편리성	자연환경 좋음	이웃, 동네 주민 친절	기타	계(수)
전체	32.0	17.9	12.6	8.8	2.8	0.4	100(849)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26.0	19.4	14.5	8.7	4.5	0.4	100(242)
30대 이하 여성	29.9	20.5	11.2	7.5	2.2	0.4	100(268)
40대 이상 남성	39.0	14.8	11.4	10.2	2.5	0.0	100(236)
40대 이상 여성	35.9	14.6	14.6	9.7	1.0	1.0	100(103)
$x^2(df)$				22.11(21)			
자녀연령							
자녀 없음	30.1	15.7	15.7	6.0	2.4	0.0	100(83)
영아	25.5	19.8	13.6	12.8	3.7	0.8	100(243)
유아	33.2	23.6	9.6	7.6	2.8	0.0	100(250)
초등저학년	37.4	11.7	13.6	7.3	2.2	0.4	100(273)
$x^2(df)$				36.61(21)*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32.6	18.1	13.5	7.8	4.1	0.5	100(193)

구분	보육 및 교육시설 근접성	놀이터 혹은 공원 근접성	도로, 교통의 편리성	자연환경 좋음	이웃, 동네 주민 친절	기타	계(수)
월 400~599만원	31.0	16.0	14.0	11.0	2.0	0.0	100(300)
월 600~799만원	33.8	18.7	11.6	4.5	2.5	0.5	100(198)
월 800만원 이상	31.0	20.3	10.1	11.4	3.2	0.6	100(158)
$x^2(df)$				19.60(21)			
주택유형							
아파트	32.7	17.9	12.4	8.0	3.0	0.3	100(742)
아파트 외	27.1	17.8	14.0	15.0	1.9	0.9	100(107)
$x^2(df)$				11.01(7)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6	19.6	12.6	9.3	2.3	0.2	100(516)
맞벌이 아님	31.2	15.3	12.6	8.1	3.6	0.6	100(333)
$x^2(df)$				8.99(7)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6) 양육하기 좋지 않은 이유

양육하기 좋지 않는 이유로는 '복지 및 문화시설 원거리'(23.8%), '놀이터 또는 공원 없음', '자연환경 좋지 않음'이 둘 다 15.7%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놀이터 및 자연환경, 도로 교통의 편리함 등이 좋은 이유, 좋지 않은 이유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어, 중요한 양육 친화 주거단지의 조건으로 파악된다.



[그림 3-4] 현재 주거단지가 양육하기 좋지 않은 이유 (N=173명 응답)

현재 주거단지가 양육하기 좋지 않은 이유를 세부 그룹별로 나타냈을 때에는, '아파트 거주 여부'에 따라서만 그룹별 차이를 보였는데, 아파트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놀이터 및 공원 부족'(24.6%), '도로/교통 이용 불편'(20.3%)이 큰 이유로 나타났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의 보육/교육 시설 원거리'(14.6%)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14〉 현재 주거단지가 양육하기 좋지 않은 이유

단위: %(명)

구분	복지 및 문화 시설 원거리	놀이터 및 공원 부족	도로, 교통 이용 불편	자녀의 보육/교육 시설 원거리	기타	이웃, 동네 주민불친절	계(수)
전체	23.8	15.7	15.1	11.6	6.4	2.9	100(172)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15.1	15.1	22.6	13.2	3.8	3.8	100(53)
30대 이하 여성	31.5	16.7	9.3	5.6	7.4	5.6	100(54)
40대 이상 남성	20.8	14.6	14.6	18.8	10.4	0.0	100(48)
40대 이상 여성	35.3	17.6	11.8	5.9	0.0	0.0	100(17)
$x^2(df)$				24.49(21)			
자녀연령							
자녀없음	23.3	23.3	10.0	6.7	6.7	3.3	100(30)
영아	23.0	14.8	18.0	8.2	8.2	4.9	100(61)
유아	20.0	20.0	22.0	12.0	4.0	0.0	100(50)
초등저학년	32.3	3.2	3.2	22.6	6.5	3.2	100(31)
$x^2(df)$				23.78(21)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23.2	8.9	17.9	12.5	5.4	5.4	100(56)
월 400~599만원	18.5	21.5	10.8	16.9	7.7	1.5	100(65)
월 600~799만원	41.9	16.1	22.6	0.0	3.2	0.0	100(31)
월 800만원 이상	15.0	15.0	10.0	10.0	10.0	5.0	100(20)
$x^2(df)$				24.94(21)			
주택유형							
아파트	25.2	9.7	11.7	14.6	7.8	1.9	100(103)
아파트 외	21.7	24.6	20.3	7.2	4.3	4.3	100(69)
$x^2(df)$				14.15(7)*			
맞벌이 여부							
맞벌이	26.9	16.3	14.4	11.5	7.7	2.9	100(104)
맞벌이 아님	19.1	14.7	16.2	11.8	4.4	2.9	100(68)
$x^2(df)$				4.80(7)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7) 육아친화적 요소 필요 정도 및 진단

〈표 3-15〉에서는 육아친화 주거단지가 되기 위한 요소인 '철학과 가치관', '물리적 환경',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단지에 대해 각 영역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나타내었다.

〈표 3-15〉 육아친화 주거단지 중요도 및 현재 거주하는 단지에 대한 진단

단위: % (명, *N* = 1021, 점)

구분	중요도						현재 거주하는 단지에 대한 진단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철학과 가치관	0.6	0.7	10.3	50.1	38.3	4.25	2.3	8.1	34.1	47.6	7.9	3.51
물리적 환경	0.6	0.9	10.3	50.1	38.1	4.24	2.7	13.5	34.1	43.2	6.5	3.37
서비스 인프라	0.3	0.8	9.3	42.1	47.5	4.36	3.4	12.5	31.5	41.8	10.7	3.44
인적 네트워크	0.1	1.8	15.0	49.5	33.7	4.15	3.9	17.6	42.8	29.5	6.2	3.16

주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평균 값은 5점 만점(1점: '전혀 중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한 값을 평균내어 제시함

각 영역에 대한 중요도는 모두 4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냈지만, 현재 거주하는 단지는 3.16~3.51점 사이로 나타났다. 특히, 현재 거주하는 단지의 평가 중 '인적 네트워크'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개선의 여지가 필요해 보였다.

〈표 3-16〉에는 육아친화적 주거단지가 되기 위한 요소 중 각각의 영역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각 영역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단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 지를 세부 그룹별로 살펴본 결과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여성이 인적네트워크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였고, 대체로 아파트에 사는 경우, 소득이 높은 경우, 현재 주거단지에 대한 철학적 요소 및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3-16〉 육아친화 거주단지의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철학적 가치관		물리적 환경		서비스 인프라		인적네트워크		수
	중요도	평가	중요도	평가	중요도	평가	중요도	평가	
전체	4.25	3.51	4.24	3.37	4.36	3.44	4.15	3.16	1021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4.27	3.45	4.24	3.32	4.33	3.37	4.19	3.14	295

구분	철학적 가치관		물리적 환경		서비스 인프라		인적네트워크		수
	중요도	평가	중요도	평가	중요도	평가	중요도	평가	
30대 이하 여성	4.30	3.53	4.30	3.39	4.37	3.40	4.23	3.19	322
40대 이상 남성	4.18	3.55	4.16	3.37	4.33	3.52	4.05	3.19	284
40대 이상 여성	4.23	3.47	4.27	3.46	4.47	3.51	4.07	3.09	120
F	1.60	0.87	2.05	0.78	1.46	1.71	3.85**	0.44	
자녀없음	4.23	3.50	4.35	3.26	4.37	3.37	4.16	3.16	113
영아	4.29	3.52	4.26	3.34	4.38	3.37	4.22	3.12	304
유아	4.24	3.46	4.23	3.33	4.30	3.41	4.14	3.14	300
초등저학년	4.22	3.55	4.19	3.49	4.39	3.56	4.09	3.23	304
F	0.53	0.63	1.49	2.80*	1.08	2.41	1.58	0.74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4.22	3.39	4.13	3.18	4.24	3.23	4.12	3.00	249
월 400~599만원	4.19	3.44	4.24	3.31	4.37	3.37	4.11	3.10	365
월 600~799만원	4.35	3.61	4.31	3.48	4.44	3.59	4.18	3.24	229
월 800만원 이상	4.29	3.70	4.33	3.63	4.40	3.66	4.22	3.43	178
F	2.96*	7.01***	3.38*	10.93***	3.65*	10.08***	1.14	9.15***	
아파트	4.25	3.56	4.25	3.47	4.36	3.51	4.13	3.21	845
아파트 외	4.23	3.26	4.23	2.90	4.34	3.07	4.23	2.94	176
t	0.32	4.32***	0.32	7.96***	0.46	5.63***	−1.55	3.60***	
맞벌이	4.28	3.54	4.28	3.40	4.38	3.49	4.20	3.20	620
맞벌이 아님	4.20	3.46	4.18	3.33	4.32	3.35	4.07	3.11	401
t	1.60	1.59	2.28*	1.21	1.21	2.25*	2.87**	1.50	

주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평균 값은 5점 만점(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한 값을 평균내어 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2.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 대한 요구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어떤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될 지를 철학과 가치, 물리적 환경, 서비스 환경, 인적네트워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가.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철학과 가치

〈표 3-17〉에서는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 별로 '철학과 가치' 영역에서의 중요도를 물어본 결과를 나타내었다.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에서는 모든 요소가

3.9점 이상의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어, 육아친화 주거단지 형성에 있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배려하고, 어려움을 공감하며, 아이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환대하는 인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17〉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

단위: % (명), *N* = 1021

구분	중요도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평균
자녀가 있는 가족을 환대	0.2	1.2	22.7	57.6	18.3	3.93
아이다움을 인정	0.0	1.3	18.1	51.2	29.4	4.09
자녀 양육 가정을 배려	0.0	1.8	17.2	51.3	29.7	4.09
자녀 양육 가정의 어려움을 공감	0.1	1.4	17.5	54.6	26.4	4.06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 지향	0.8	1.1	26.2	50.6	21.4	3.91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평균 값은 5점 만점(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으로 평정한 값을 평균내어 제시함

다음은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의 중요도를 세부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집단별로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30대 이하 여성, 40대 이상 여성 순으로 양성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 소득이 높은 경우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배려'하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두 영역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정도가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18〉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필요한 철학과 가치의 중요도

단위: 점

구분	자녀가 있는 가족을 환대	아이다움을 인정	자녀 양육 가정을 배려	자녀 양육 가정의 어려움을 공감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 지향	수
전체	3.93	4.09	4.09	4.06	3.91	1021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3.98	4.05	4.08	4.07	3.83	295
30대 이하 여성	3.90	4.12	4.07	4.07	4.06	322
40대 이상 남성	3.88	4.07	4.13	4.03	3.80	284
40대 이상 여성	3.96	4.13	4.08	4.08	3.93	120
$x^2(df)/t/F$	1.16	0.69	0.44	0.20	7.37^{***}	
자녀연령						
자녀없음	3.93	4.05	3.97	3.96	3.88	113

구분	자녀가 있는 가족을 환대	아이다움을 인정	자녀 양육 가정을 배려	자녀 양육 가정의 어려움을 공감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 지향	수
영아	3.91	4.09	4.11	4.12	3.92	304
유아	3.92	4.07	4.09	4.00	3.89	300
초등저학년	3.94	4.12	4.11	4.09	3.92	304
F	0.08	0.33	1.15	2.37	0.17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3.87	4.05	4.03	4.04	3.92	249
월 400~599만원	3.87	4.06	4.04	3.98	3.84	365
월 600~799만원	3.99	4.12	4.16	4.13	3.95	229
월 800만원 이상	4.04	4.15	4.19	4.15	3.98	178
F	3.98**	0.96	3.00*	3.18*	1.87	
주택유형						
아파트	3.93	4.09	4.11	4.07	3.92	845
아파트 외	3.92	4.08	4.01	4.02	3.86	176
t	0.13	0.15	1.67	0.86	0.83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5	4.10	4.09	4.07	3.94	620
맞벌이 아님	3.89	4.07	4.08	4.04	3.85	401
t	1.33	0.44	0.15	0.59	1.89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나.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물리적 환경' 영역에서의 중요도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정도를 물어보았는데, 중요도에 있어서는 '안전한 통학로/보행로(4.41)', '충분한 가로등(4.31)', '차, 오토바이 등이 없는 환경(4.28)', 'CCTV 및 비상벨 설치(4.24)', '이동에 불편이 없는 도로(4.18)', '자연생태계 체험 및 교육 환경(4.11)', '실외 놀이터(4.11)' 순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각 영역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정도는 중요도 영역보다는 낮은 점수대를 형성했지만, '충분한 가로등(3.56)', '실외 놀이터(3.54)', '안전한 통학로/보행로(3.49)', 'CCTV 및 비상벨 설치(3.46)', '순환형 녹지 네트워크 산책로(3.43)' 순으로 각 영역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표 3-19〉 육아친화 주거단지 물리적 환경의 중요도 및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정도

단위: % (명, *N* = 1021)

구분	중요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이동에 불편이 없는 도로	0.0	0.9	13.8	51.5	33.8	4.18	2.6	13.5	34.2	39.4	10.3	3.41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0.1	1.6	10.0	34.2	54.2	4.41	2.3	12.2	34.5	36.3	14.7	3.49
충분한 가로등	0.2	1.3	10.0	44.0	44.6	4.31	1.6	10.3	33.4	40.4	14.4	3.56
차, 오토바이 등이 없는 환경	0.0	1.0	12.2	44.9	41.9	4.28	7.2	21.0	35.2	25.2	11.5	3.13
자연생태계 체험 및 교육 환경	0.1	1.6	17.0	49.5	31.8	4.11	2.3	12.8	34.0	38.1	12.8	3.46
실외 놀이터	0.2	0.6	17.7	51.0	30.5	4.11	2.3	9.7	32.7	42.1	13.2	3.54
실내 놀이터	0.4	5.1	30.8	42.3	21.4	3.79	9.2	23.4	35.7	24.0	7.6	2.97
통학버스 기다림 공간	0.2	2.2	21.5	49.6	26.5	4.00	3.7	18.7	37.4	30.0	10.2	3.24
녹지를 이용한 그늘	0.1	1.9	22.8	51.3	23.9	3.97	4.3	16.2	39.5	30.9	9.2	3.24
놀이시설 근처의 부모를 위한 별도의 공간	0.8	4.9	26.0	47.6	20.8	3.83	4.4	17.6	39.4	32.0	6.6	3.19
주민들이 소통가능한 공간	1.4	6.6	36.5	38.9	16.7	3.63	5.0	16.7	42.1	28.9	7.3	3.17
순환형 녹지 네트워크 산책로	0.3	2.1	21.5	50.7	25.4	3.99	3.4	12.2	34.5	38.1	11.8	3.43
비, 눈 등 대피 시설	0.7	2.2	28.1	47.5	21.5	3.87	3.6	17.2	40.3	31.0	7.8	3.22
물환경 시설 및 관찰시설	1.7	7.2	34.3	40.5	16.4	3.63	8.7	18.0	38.4	27.2	7.6	3.07
색채 및 공간 디자인	0.7	3.8	28.7	49.0	17.8	3.79	5.0	18.6	41.6	29.0	5.8	3.12
CCTV 및 비상벨 설치	0.4	1.1	13.1	44.7	40.7	4.24	2.8	11.9	35.1	36.8	13.3	3.46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평균 값은 5점 만점(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한 값을 평균내어 제시함.

〈표 3-20〉에서는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의 중요도를 세부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물리적 환경 중 몇 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였다. 먼저, ① 유아차, 휠체어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 도로 ②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③ 야간 보행 안전에 충분한 가로등 ④ 차, 오토바이 등이 다니지 않는 환경 ⑧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 ⑫ 순환형 녹지 네트워크 산책로 조성 ⑯ 안전 및 보안을 위한 놀이터 및 주동 현관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항목에서는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또한, 자녀 연령대에 따라서도 중요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⑦ 실내놀이터'와 ⑭ 물환경 시설(인공연못, 폭포 등) 및 관찰시설은 특히 영아자녀 부모에게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21〉에서는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정도

를 세부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자녀연령에 따라 많은 항목에서 실질 혜택 받을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① '유아차, 휠체어, 자전거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 도로', '②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④ 차, 오토바이 등이 다니지 않는 환경', '⑥ 실외 놀이터', '⑧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은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혜택 받을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도 실질 혜택받을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⑦ 실내 놀이터 ⑬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 두 항목을 제외하고는 월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 모든 영역에 혜택을 받을 정도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표 3-20〉 육아친화 거주단지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의 중요도

단위: 점 (명, *N* = 1021)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전체	4.18	4.41	4.31	4.28	4.11	4.11	3.79	4.00	3.97	3.83	3.63	3.99	3.87	3.63	3.79	4.24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4.19	4.31	4.24	4.22	4.04	4.10	3.85	3.95	3.97	3.82	3.61	3.90	3.83	3.60	3.78	4.20
30대 이하 여성	4.26	4.46	4.43	4.36	4.20	4.17	3.84	4.12	4.02	3.91	3.68	4.07	3.94	3.68	3.82	4.34
40대 이상 남성	4.05	4.36	4.25	4.19	4.07	4.01	3.69	3.91	3.88	3.73	3.58	3.92	3.79	3.60	3.77	4.13
40대 이상 여성	4.26	4.61	4.36	4.40	4.16	4.19	3.77	4.01	4.05	3.84	3.64	4.13	3.97	3.60	3.84	4.36
F	5.46**	5.67***	4.66**	4.54**	2.77*	3.03*	2.24	4.37**	2.16	2.20	0.59	4.98**	2.74*	0.64	0.38	5.51***
자녀없음	4.14	4.32	4.26	4.14	4.06	4.00	3.74	3.92	3.89	3.77	3.48	3.93	3.77	3.37	3.74	4.21
영아	4.25	4.34	4.36	4.33	4.15	4.17	3.94	4.08	3.98	3.88	3.66	4.02	3.93	3.74	3.84	4.26
유아	4.16	4.43	4.29	4.24	4.16	4.14	3.80	4.02	4.02	3.88	3.69	4.02	3.91	3.68	3.82	4.26
초등저학년	4.15	4.49	4.32	4.31	4.05	4.07	3.66	3.93	3.94	3.75	3.59	3.95	3.81	3.56	3.74	4.22
F	1.41	2.69*	0.74	2.38	1.49	2.08	6.01***	2.25	1.13	1.71	1.98	0.79	2.17	5.62***	0.97	0.22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4.12	4.29	4.25	4.22	4.06	4.09	3.81	3.97	3.98	3.85	3.68	3.97	3.92	3.63	3.82	4.22
월 400~599만원 미만	4.13	4.41	4.29	4.30	4.13	4.08	3.76	3.99	3.94	3.78	3.60	3.99	3.78	3.66	3.79	4.23
월 600~799만원 미만	4.28	4.50	4.38	4.32	4.10	4.14	3.80	4.02	3.97	3.84	3.61	3.99	3.89	3.56	3.75	4.26
월 800만원 이상	4.26	4.45	4.36	4.25	4.19	4.16	3.84	4.04	4.02	3.88	3.64	4.01	3.98	3.63	3.83	4.27
F	3.53*	3.63*	1.70	1.06	1.07	0.65	0.43	0.35	0.53	0.80	0.50	0.07	3.21*	0.64	0.41	0.22
아파트	4.18	4.40	4.31	4.27	4.11	4.11	3.81	4.01	3.97	3.84	3.65	4.01	3.89	3.63	3.81	4.25
아파트 외	4.18	4.45	4.34	4.30	4.14	4.10	3.73	3.97	3.96	3.77	3.53	3.86	3.80	3.59	3.74	4.21
t	0.14	−0.82	−0.54	−0.49	−0.56	0.27	1.04	0.56	0.20	0.94	1.56	2.40	1.28	0.57	1.02	0.64
맞벌이	4.21	4.44	4.32	4.32	4.15	4.14	3.81	4.03	3.99	3.85	3.65	4.00	3.88	3.64	3.81	4.26
맞벌이 아님	4.14	4.36	4.30	4.22	4.06	4.06	3.77	3.96	3.95	3.79	3.60	3.97	3.85	3.61	3.77	4.21
t	1.67	1.59	0.54	2.12*	1.78	1.70	0.84	1.37	0.88	1.18	0.88	0.78	0.66	0.50	0.68	1.15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① 유아차, 휠체어, 자전거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 도로 ②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③ 야간 보행 안전에 충분한 가로등 ④ 차, 오토바이 등이 다니지 않는 환경 ⑤ 수목이 풍부하고 자연생태계를 체험 및 교육할 수 있는 환경 ⑥ 실외 놀이터 ⑦ 실내 놀이터 ⑧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 ⑨ 놀이터 및 스쿨버스 공간에 녹지를 이용한 그늘 ⑩ 아이들의 놀이 시설 근처에 부모를 위한 별도의 공간 ⑪ 주민들이 소통가능한 공간 ⑫ 순환형 녹지 네트워크 산책로 조성 ⑬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 ⑭ 물환경 시설(인공연못, 폭포 등) 및 관찰시설 ⑮ 자녀들의 정서안정을 고려한 색채 및 공간 디자인 ⑯ 안전 및 보안을 위한 놀이터 및 주동 현관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표 3-21〉 육아친화 거주단지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 중 우리 가족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정도

단위: 점 (명, N = 1021)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전체	3.41	3.49	3.56	3.13	3.46	3.54	2.97	3.24	3.24	3.19	3.17	3.43	3.22	3.07	3.12	3.46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3.38	3.39	3.53	3.13	3.49	3.58	3.03	3.20	3.23	3.18	3.12	3.34	3.26	3.06	3.13	3.42
30대 이하 여성	3.42	3.49	3.57	3.03	3.45	3.52	2.92	3.26	3.21	3.17	3.20	3.43	3.16	3.07	3.08	3.44
40대 이상 남성	3.46	3.58	3.57	3.26	3.46	3.53	2.99	3.27	3.31	3.19	3.20	3.49	3.25	3.10	3.15	3.50
40대 이상 여성	3.36	3.51	3.58	3.08	3.44	3.53	2.94	3.23	3.21	3.25	3.13	3.45	3.24	3.02	3.13	3.50
F	0.45	1.86	0.18	2.27	0.11	0.26	0.60	0.33	0.60	0.22	0.62	1.22	0.73	0.18	0.28	0.49
자녀없음	3.19	3.34	3.42	3.13	3.38	3.38	2.67	3.09	3.14	3.04	3.13	3.40	3.14	3.05	3.04	3.42
영아	3.36	3.36	3.52	2.95	3.41	3.47	2.94	3.18	3.17	3.14	3.08	3.35	3.13	2.98	3.05	3.37
유아	3.43	3.43	3.54	3.11	3.48	3.52	3.00	3.23	3.25	3.19	3.14	3.39	3.21	3.08	3.13	3.43
초등저학년	3.53	3.73	3.66	3.32	3.54	3.70	3.09	3.37	3.36	3.29	3.31	3.54	3.36	3.15	3.21	3.59
F	4.07**	9.91***	2.22	5.86***	1.21	4.92**	4.34**	3.08*	2.31	2.28	3.19*	2.15	3.49*	1.36	1.75	2.74*
월 400만원 미만	3.24	3.24	3.39	2.97	3.33	3.36	2.85	3.12	3.10	3.06	3.11	3.27	3.08	2.92	2.99	3.27
월 400~599만원 미만	3.33	3.45	3.49	3.13	3.38	3.49	2.94	3.20	3.16	3.14	3.11	3.31	3.16	3.01	3.06	3.44
월 600~799만원 미만	3.56	3.61	3.65	3.16	3.61	3.67	3.09	3.25	3.31	3.26	3.23	3.61	3.27	3.16	3.23	3.56
월 800만원 이상	3.61	3.75	3.81	3.30	3.65	3.75	3.07	3.49	3.54	3.38	3.30	3.63	3.49	3.29	3.28	3.62
F	8.42***	11.35***	8.82***	3.20*	6.93***	8.43***	2.59	5.19**	8.64***	4.80**	2.34	9.69***	7.74***	5.39**	4.76**	5.79***
아파트	3.47	3.56	3.61	3.18	3.51	3.61	3.00	3.30	3.30	3.23	3.23	3.48	3.25	3.10	3.16	3.51
아파트 외	3.12	3.14	3.32	2.88	3.22	3.20	2.84	2.95	3.00	2.96	2.88	3.15	3.10	2.92	2.92	3.22
t	4.59***	5.34***	3.44***	3.37***	3.76***	5.46***	1.82	4.40***	3.68***	3.50***	4.52***	4.14***	1.86	2.09*	3.08**	3.61***
맞벌이	3.44	3.52	3.57	3.16	3.48	3.56	3.00	3.26	3.28	3.19	3.17	3.46	3.26	3.09	3.13	3.49
맞벌이 아님	3.37	3.45	3.53	3.08	3.44	3.51	2.94	3.21	3.19	3.19	3.17	3.38	3.17	3.05	3.10	3.40
t	1.09	1.09	0.73	1.09	0.55	0.91	0.82	0.71	1.46	0	0.06	1.29	1.50	0.57	0.54	1.45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① 유아차, 휠체어, 자전거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 도로 ②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③ 야간 보행 안전에 충분한 가로등 ④ 차, 오토바이 등이 다니지 않는 환경 ⑤ 수목이 풍부하고 자연생태계를 체험 및 교육할 수 있는 환경 ⑥ 실외 놀이터 ⑦ 실내 놀이터 ⑧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 ⑨ 놀이터 및 스쿨버스 공간에 녹지를 이용한 그늘 ⑩ 아이들의 놀이 시설 근처에 부모를 위한 별도의 공간 ⑪ 주민들이 소통가능한 공간 ⑫ 순환형 녹지 네트워크 산책로 조성 ⑬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 ⑭ 물환경 시설(인공연못, 폭포 등) 및 관찰시설 ⑮ 자녀들의 정서안정을 고려한 색채 및 공간 디자인 ⑯ 안전 및 보안을 위한 놀이터 및 주동 현관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서비스 인프라

〈표 3-22〉에서는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 영역에서의 중요도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정도를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적합한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을 1) 보육기관 2) 돌봄 및 육아공간 3) 문화공간 4) 근린시설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요소에 대한 중요도에서는 ①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학원시설로 이루어진 '보육/교육기관' 모두가 4점 이상의 높은 평균을 나타냈고, '돌봄 및 육아공간' 중에서는 ④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4.13점), ⑦ 초등 돌봄 제공(4.09)의 중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냈고, '문화공간' 중에서는 ⑪ 소규모 도서관(대여가능)이 4.01점, ⑫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3.92점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근린시설' 중에서는 ⑮ 의료시설이 4.21점으로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요소에 대한 이용의향은 대부분 3.5 이상의 높은 의향을 나타냈으며, 중요도와 비슷하게 ② 초등학교(4.13), ① 어린이집 및 유치원(4.08), ⑮ 의료시설(3.90), ③ 학원시설(3.80)의 순으로 이용의향이 높게 나타났고, '문화공간' 중에서는 ⑪ 소규모 도서관(3.83), ⑨ 실내 체육시설(3.68)이, '돌봄 및 육아공간' 중에서는 ⑦ 초등돌봄 제공(3.67), ④ 영유아 긴급돌봄 제공(3.59)이 높은 이용의향을 보였다.

〈표 3-22〉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이용 의향

단위: % (명, *N* = 1021)

구분		중요도						이용 의향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평균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이 있다	평균
보육 교육 기관	①	0.3	0.2	8.2	42.3	49.0	4.39	1.1	4.7	13.2	40.7	33.7	4.08
	②	0.2	0.6	7.9	40.5	50.8	4.41	0.7	4.0	13.5	41.2	36.0	4.13
	③	0.3	2.3	20.4	51.7	25.4	4.00	1.5	7.9	24.2	36.9	25.3	3.80
돌봄 및 육아 공간	④	0.1	1.7	16.8	47.8	33.6	4.13	3.0	11.6	26.5	32.3	20.1	3.59
	⑤	0.1	1.9	24.1	49.5	24.5	3.96	3.4	11.9	27.2	34.0	16.5	3.52
	⑥	0.5	5.3	32.7	42.5	19.0	3.74	6.3	15.7	30.5	27.7	14.1	3.29
	⑦	0.3	2.0	16.6	50.7	30.5	4.09	3.3	9.1	26.2	31.3	23.7	3.67
	⑧	1.5	5.4	33.2	39.9	20.1	3.72	5.3	14.9	28.0	28.9	16.9	3.40
문화 공간	⑨	0.5	5.0	26.4	45.9	22.1	3.84	3.5	9.8	24.2	35.3	23.4	3.68
	⑩	0.8	5.4	33.7	41.1	19.0	3.72	3.3	9.7	26.6	37.9	19.4	3.62
	⑪	0.4	2.9	18.9	50.9	26.8	4.01	3.5	7.0	20.1	37.0	28.6	3.83
	⑫	0.5	3.1	22.7	51.3	22.3	3.92	4.3	11.7	26.4	31.9	19.2	3.54
	⑬	2.1	6.8	34.9	38.8	17.5	3.63	7.1	14.0	29.1	27.7	17.5	3.36

구분		중요도						이용 의향					
		전혀 중요 하지 않다	중요 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 하다	평균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 이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이 있다	평균
	⑭	3.7	11.9	37.3	32.3	14.7	3.42	9.2	16.9	26.6	29.1	14.9	3.24
근린 시설	⑮	0.4	1.8	14.0	44.6	39.3	4.21	2.6	6.9	19.8	35.4	31.6	3.90
	⑯	1.5	3.2	30.2	45.1	20.1	3.79	4.8	11.4	25.4	33.9	21.4	3.57
	⑰	1.0	2.4	25.8	49.0	21.8	3.88	3.9	9.2	24.8	35.8	22.7	3.67
	⑱	0.6	2.1	26.7	47.3	23.3	3.91	4.5	10.0	27.8	33.5	20.5	3.58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평균 값은 5점 만점(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으로 평정한 값을 평균내어 제시함
3: ①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학원시설 ④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 ⑤ 영유아 실내 놀이방 ⑥ 공동육아 공간 ⑦ 초등 돌봄 제공 ⑧ 장난감 대여 시설(주민 나눔) ⑨ 실내 체육시설(헬스, 수영장 등) ⑩ 실외 체육시설(배드민턴, 테니스 코드 등) ⑪ 소규모 도서관(대여가능) ⑫ 청소년을 위한 공간(청소년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⑬ 입주민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스터디룸등) ⑭ 입주민 cafe ⑮ 의료시설(소아과, 보건소 등) ⑯ 문화시설(공연, 체육) ⑰ 육아시설(문화센터, 키즈카페 등) ⑱ 공공육아지원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표 3-23〉에서는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필요한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세부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중요도는 몇몇 항목에서 성별x연령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⑨ 실내 체육시설(헬스, 수영장 등)' '⑪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는 40대 이상 여성의 경우 40대 이상 남성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연령에 따라서도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영유아 실내 놀이방'에 대해서는 초등저학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중요도를 평가한 반면, 영아자녀 부모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또한, 자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그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영아를 위한 시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맞벌이의 경우 '④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 '⑦ 초등 돌봄 제공' 등의 돌봄관련 시설 및 프로그램을 맞벌이가 아닌 가구에 비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돌봄관련 시설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24〉에서는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필요한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 중 실질적 이용의향을 세부집단으로 나누어 물어보았는데, 연령x성별, 주택유형,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자녀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는데, 영아, 유아자녀의 부모는 '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의향'을 높게 나타냈고, 유아, 초등저학년 자녀의 부모의 경우 '③ 학원시설'의 이용의향도 각각 3.86점, 3.91점으로 높게 나타냈다. 유아는 '④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 및 '⑥ 공동육아 공간'에 대한 이용의향을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냈고, '⑤ 영유아 실내 놀이방'의 경우 영아, 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높은 이용의향을 보였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⑧ 장난감 대여 시설', '⑨ 실내 체육시설(헬스, 수영장 등)' '⑪ 소규모 도서관'영역에서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의향을 보였다.

〈표 3-23〉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중요도

단위: 점 (명, N = 1021)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전체	4.39	4.41	4.00	4.13	3.96	3.74	4.09	3.72	3.84	3.72	4.01	3.92	3.63	3.42	4.21	3.79	3.88	3.91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4.43	4.43	3.95	4.18	4.01	3.74	4.04	3.68	3.83	3.67	3.95	3.92	3.63	3.41	4.21	3.73	3.87	3.84
30대 이하 여성	4.46	4.41	4.05	4.17	4.00	3.83	4.14	3.84	3.93	3.77	4.09	3.95	3.66	3.48	4.25	3.84	3.96	3.98
40대 이상 남성	4.30	4.38	3.94	4.08	3.89	3.64	4.06	3.62	3.70	3.67	3.92	3.85	3.58	3.40	4.10	3.75	3.83	3.83
40대 이상 여성	4.38	4.45	4.10	4.03	3.93	3.77	4.13	3.71	3.96	3.85	4.15	4.01	3.66	3.38	4.32	3.89	3.83	4.04
F	3.30*	0.49	2.08	2.06	1.53	2.76*	1.14	3.47*	4.71**	1.90	4.37**	1.35	0.35	0.45	3.10*	1.56	1.47	3.79*
자녀없음	4.38	4.35	3.88	4.24	4.05	3.81	3.99	3.69	3.96	3.59	4.04	3.88	3.58	3.36	4.22	3.70	3.90	3.87
영아	4.47	4.41	3.95	4.21	4.11	3.83	4.08	3.86	3.86	3.77	3.96	3.94	3.66	3.45	4.22	3.79	3.96	3.96
유아	4.41	4.42	4.03	4.10	3.95	3.74	4.12	3.76	3.82	3.71	4.02	3.94	3.66	3.41	4.20	3.83	3.90	4.00
초등저학년	4.31	4.43	4.06	4.04	3.79	3.64	4.12	3.55	3.81	3.74	4.03	3.89	3.58	3.43	4.19	3.79	3.77	3.77
F	2.93*	0.33	2.11	3.59*	9.93***	2.84*	0.91	6.48**	1.07	1.23	0.50	0.34	0.68	0.21	0.08	0.62	3.01*	5.20**
가구소득																		
월 400만원미만	4.36	4.35	3.99	4.08	4.01	3.76	3.98	3.78	3.85	3.68	4.00	3.94	3.64	3.43	4.22	3.76	3.86	3.95
월 400~599만원	4.39	4.39	3.92	4.10	3.95	3.71	4.05	3.68	3.81	3.66	3.94	3.87	3.57	3.37	4.16	3.71	3.84	3.86
월 600~799만원	4.42	4.46	4.03	4.20	3.94	3.77	4.15	3.73	3.82	3.74	4.08	3.93	3.65	3.38	4.23	3.85	3.96	3.93
월 800만원이상	4.43	4.47	4.12	4.19	3.97	3.75	4.24	3.68	3.94	3.88	4.08	3.99	3.72	3.57	4.23	3.93	3.90	3.92
F	0.56	1.61	2.80*	1.75	0.42	0.32	4.83**	0.80	1.05	2.71*	2.22	1.10	1.17	1.70	0.54	3.11*	1.01	0.79
아파트	4.39	4.41	4.01	4.14	3.97	3.73	4.09	3.72	3.85	3.73	4.02	3.92	3.65	3.44	4.21	3.80	3.89	3.90
아파트 외	4.43	4.41	3.91	4.09	3.92	3.78	4.10	3.68	3.82	3.70	3.98	3.92	3.51	3.32	4.19	3.74	3.85	3.93
t	−0.81	0.05	1.68	0.78	0.84	−0.66	−0.22	0.57	0.32	0.39	0.59	−0.03	1.88	1.53	0.24	0.89	0.55	−0.46
맞벌이	4.41	4.44	4.01	4.21	3.98	3.80	4.17	3.71	3.86	3.74	4.04	3.94	3.67	3.43	4.20	3.83	3.89	3.93
맞벌이 아님	4.37	4.37	3.97	4.01	3.93	3.65	3.97	3.73	3.81	3.69	3.96	3.89	3.57	3.41	4.22	3.73	3.87	3.87
t	1.08	1.51	0.88	4.19***	1.06	2.73**	4.07***	−0.25	0.90	0.86	1.52	1.01	1.71	0.30	−0.46	1.81	0.31	1.27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①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학원시설 ④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 ⑤ 영유아 실내 놀이방 ⑥ 공동육아 공간 ⑦ 초등 돌봄 제공 ⑧ 장난감 대여 시설(주민 나눔) ⑨ 실내 체육시설(헬스, 수영장 등) ⑩ 실외 체육시설(배드민턴, 테니스 코드 등)⑪ 소규모 도서관(대여가능) ⑫ 청소년을 위한 공간(청소년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⑬ 입주민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스터디룸등) ⑭ 입주민 cafe ⑮ 의료시설(소아과, 보건소 등) ⑯ 문화시설(공연, 체육) ⑰ 육아시설(문화센터, 키즈카페 등) ⑱ 공공육아 지원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표 3-24〉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의향

단위: 점 (명, N = 1021)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전체	4.08	4.13	3.80	3.59	3.52	3.29	3.67	3.40	3.68	3.62	3.83	3.54	3.36	3.24	3.90	3.57	3.67	3.58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4.08	4.08	3.73	3.60	3.55	3.32	3.65	3.38	3.64	3.51	3.78	3.57	3.30	3.20	3.81	3.51	3.62	3.58
30대 이하 여성	4.17	4.14	3.87	3.58	3.55	3.31	3.59	3.52	3.70	3.69	3.91	3.47	3.33	3.28	4.01	3.62	3.69	3.62
40대 이상 남성	4.00	4.16	3.76	3.58	3.47	3.27	3.73	3.25	3.61	3.58	3.77	3.54	3.41	3.30	3.85	3.56	3.64	3.50
40대 이상 여성	4.05	4.15	3.88	3.59	3.45	3.25	3.79	3.45	3.86	3.81	3.91	3.61	3.47	3.13	3.93	3.64	3.78	3.63
F	1.95	2.63*	1.16	2.05	1.15	0.33	1.95	0.77	1.05	1.01	0.37	0.88	1.56	2.05	1.15	3.77*	0.32	0.16
자녀없음	3.91	3.99	3.55	3.52	3.46	3.31	3.42	3.37	3.73	3.45	3.73	3.31	3.29	3.28	3.95	3.52	3.53	3.44
영아	4.13	4.03	3.71	3.58	3.59	3.29	3.60	3.53	3.63	3.57	3.79	3.52	3.34	3.22	3.82	3.56	3.63	3.59
유아	4.25	4.19	3.86	3.66	3.60	3.46	3.72	3.45	3.66	3.68	3.88	3.59	3.44	3.23	3.97	3.64	3.82	3.74
초등저학년	3.92	4.21	3.91	3.54	3.37	3.13	3.78	3.23	3.72	3.68	3.87	3.57	3.33	3.26	3.89	3.54	3.60	3.44
F	12.53***	3.72*	3.96**	7.82***	7.36***	3.55*	0.84	1.03	0.79	1.20	0.55	2.33	2.30	0.48	0.86	1.48	0.57	0.55
가구소득																		
월 400만원미만	3.96	3.95	3.64	3.47	3.37	3.22	3.55	3.39	3.52	3.47	3.69	3.45	3.26	3.16	3.79	3.37	3.49	3.48
월 400~599만원	4.03	4.14	3.78	3.50	3.45	3.21	3.61	3.31	3.64	3.55	3.76	3.47	3.31	3.16	3.82	3.54	3.61	3.53
월 600~799만원	4.19	4.24	3.83	3.70	3.66	3.36	3.73	3.44	3.79	3.72	4.02	3.58	3.44	3.34	4.07	3.69	3.82	3.67
월 800만원이상	4.22	4.22	4.02	3.78	3.68	3.48	3.89	3.54	3.83	3.86	3.94	3.73	3.52	3.40	3.99	3.78	3.83	3.68
F	1.72	1.41	2.07	2.38	2.66*	2.00	2.51	3.09*	2.96*	1.72	3.83**	0.57	3.73*	1.57	0.92	0.01	0.53	0.76
아파트	4.12	4.15	3.83	3.61	3.53	3.32	3.70	3.40	3.70	3.64	3.84	3.56	3.42	3.27	3.89	3.58	3.67	3.59
아파트 외	3.92	4.01	3.64	3.48	3.44	3.19	3.53	3.36	3.56	3.52	3.80	3.41	3.09	3.11	3.92	3.56	3.66	3.52
t	0.85	−0.43	0.17	1.29	0.40	0.06	1.62	1.42	0.75	0.65	1.42	−0.21	−0.03	0.32	2.04*	0.79	1.16	0.24
맞벌이	4.11	4.18	3.86	3.64	3.57	3.33	3.74	3.40	3.73	3.65	3.89	3.56	3.38	3.25	3.94	3.66	3.71	3.57
맞벌이 아님	4.04	4.05	3.70	3.50	3.43	3.24	3.57	3.40	3.60	3.58	3.75	3.50	3.34	3.23	3.84	3.45	3.60	3.58
t	1.70	0.64	0.92	1.05	−0.03	0.60	0.30	−1.32	−0.56	0.07	0.44	0.50	1.99*	0.35	1.77	−0.37	1.13	1.39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①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② 초등학교 ③ 학원시설 ④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 ⑤ 영유아 실내 놀이방 ⑥ 공동육아 공간⑦ 초등 돌봄 제공 ⑧ 장난감 대여 시설(주민 나눔) ⑨ 실내 체육시설(헬스, 수영장 등) ⑩ 실외 체육시설(배드민턴, 테니스 코드 등) ⑪ 소규모 도서관(대여가능) ⑫ 청소년을 위한 공간(청소년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⑬ 입주민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스터디룸 등) ⑭ 입주민 cafe ⑮ 의료시설(소아과, 보건소 등) ⑯ 문화시설(공연, 체육) ⑰ 육아시설(문화센터, 키즈카페 등) ⑱ 공공육아 지원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표 3-25〉에서는 '영아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한 주거단지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각 자녀연령대(무자녀포함)에 따라 가장 필요한 주거단지 시설을 2순위까지 응답하게 하여, 합산한 비율을 자녀연령대 그룹으로 파악해보았다. 영아자녀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60.4%)', '의료시설(32.9%)', '영유아 긴급돌봄 제공(28.5%)' 순으로 나타냈다. 특히, 무자녀 신혼부부 그룹에서 '영유아 긴급돌봄 제공'을 38.1%로 선택한 것은 자녀출산을 계획하는 가족에게 중요한 요소임을 나타냈다.

〈표 3-25〉 영아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상위 10위(1+2순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의료 시설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	영유아 실내 놀이방	육아 시설	공공육아 지원시설	초등학교	장난감 대여 시설	학원 시설	공동육아 공간	사례수
전체	60.4	32.9	28.5	17.6	10.7	9.0	8.0	6.6	5.9	5.8	(1021)
자녀연령											
자녀 없음	55.8	31.9	38.1	18.6	8.8	8.0	8.0	3.5	4.4	7.1	(113)
영아	65.5	33.9	24.0	14.8	12.2	8.9	5.9	9.2	4.6	6.9	(304)
유아	61.7	32.7	28.7	19.0	8.7	10.0	8.3	5.3	5.3	5.0	(300)
초등저학년	55.9	32.6	29.3	18.8	11.8	8.6	9.9	6.3	8.2	4.9	(304)

〈표 3-26〉에서는 '유아자녀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은 영아와 같은 순서이지만 비율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67.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무자녀 신혼부부 그룹에서는 '영유아 긴급돌봄', '영유아 실내 놀이방' 등 돌봄관련 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3-26〉 유아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상위 10위(1+2순위)

단위: % (명)

구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의료 시설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	영유아 실내 놀이방	육아 시설	공동육아 공간	초등학교	공공육아 지원시설	학원 시설	장난감 대여 시설	사례수
전체	67.3	27.8	21.0	18.5	11.9	8.3	7.9	6.7	6.0	5.3	(1021)
자녀연령											
자녀 없음	65.5	23.9	23.0	24.8	12.4	6.2	7.1	4.4	3.5	6.2	(113)
영아	66.8	29.3	18.1	20.1	12.2	7.6	7.2	8.2	6.6	6.3	(304)
유아	66.3	28.7	19.3	16.7	10.7	8.7	8.0	7.0	4.7	7.3	(300)
초등저학년	69.4	27.0	24.7	16.4	12.5	9.5	8.9	5.6	7.6	2.0	(304)

〈표 3-27〉에서는 '초등저학년 자녀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나타냈는데, 초등학교(64.9%), '초등돌봄 제공(35.9%), 학원시설(19.9%)'의 순서로 높게 나타냈고, 특히 실제 초등학교저학년 자녀 부모들의 경우 학원시설(26.0%)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27〉 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상위 10위(1+2순위)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초등돌봄제공	학원시설	의료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소규모 도서관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	공동육아 공간	실내 체육 시설	실외 체육 시설	사례수
전체	64.9	35.9	19.9	14.8	12.0	9.8	5.9	5.1	4.9	4.3	(1021)
자녀연령											
자녀 없음	70.8	41.6	23.0	11.5	12.4	8.8	4.4	6.2	6.2	0.9	(113)
영아	58.9	35.2	15.1	19.1	13.8	9.2	5.3	6.3	4.6	5.3	(304)
유아	62.0	35.0	17.3	14.0	15.0	7.7	7.7	4.7	5.7	3.3	(300)
초등저학년	71.7	35.5	26.0	12.5	7.2	12.8	5.3	3.9	3.9	5.6	(304)

〈표 3-28〉에서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나타냈는데, '실내체육시설(41.7%)', '문화시설(33.4%)', '실외체육시설(25.5%)', '입주민 cafe(20.4%)'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자녀양육 가구와는 현저히 다른 영역의 요구를 보였다. 하지만, 실제 무자녀 신혼부부 그룹의 경우, 타그룹의 응답과 차이를 보였는데, '문화시설(36.3%)' 및 '소규모 도서관(17.7%)'에 대한 요구가 전체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실외체육시설(20.4%)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에 비해 낮은 요구를 보였다.

〈표 3-28〉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위해 꼭 필요한 시설 및 프로그램 10위(1+2순위)

단위: % (명)

구분	실내 체육 시설	문화 시설	실외 체육 시설	입주민 Cafe	의료 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소규모 도서관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	입주민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	영유아 실내 놀이방	사례수
전체	41.7	33.4	25.5	20.4	11.4	11.3	10.6	7.4	6.9	5.4	(1021)
자녀연령											
자녀 없음	44.2	36.3	20.4	15.9	14.2	8.0	17.7	6.2	5.3	5.3	(113)
영아	42.4	31.6	26.0	20.4	10.9	11.2	11.5	7.2	6.6	5.9	(304)
유아	41.3	31.7	26.0	17.0	12.0	13.7	8.3	8.3	7.3	5.3	(300)
초등저학년	40.5	35.9	26.3	25.3	10.2	10.2	9.2	7.2	7.2	4.9	(304)

라.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인적 네트워크

〈표 3-29〉에서는 육아친화 주거단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영역에서의 중요도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정도를 나타내었다.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경우 대체적으로 높은 중요도와 실질적 혜택 받을 정도 점수를 나타냈으나, 모두 4점 이하에 머물러, 물리적 환경 및 육아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 및 실질적 혜택정도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 중 '육아지원 안내 프로그램' 및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실제 이용 의향에 있어서도 두 영역이 높게 나타냈다.

〈표 3-29〉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중요도 및 이용의향

단위: % (명, *N* = 1021)

구분	중요도						이용의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평균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이 있다	평균
온라인 소통방	3.1	7.1	34.0	42.9	12.8	3.55	6.3	16.5	36.0	33.5	7.7	3.20
공동체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	1.3	5.6	34.5	44.9	13.8	3.64	7.3	15.2	37.9	31.6	7.9	3.18
육아지원 안내 프로그램	0.5	3.6	26.4	49.5	20.0	3.85	4.6	13.3	34.8	35.7	11.6	3.36
부모교육 프로그램	1.3	5.1	29.8	45.0	18.9	3.75	6.6	15.8	31.8	34.4	11.5	3.28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	0.4	2.9	23.4	49.6	23.7	3.93	5.3	12.2	29.5	35.8	17.1	3.47
주민 자치회	1.4	6.2	34.0	42.6	15.9	3.65	6.0	14.9	39.5	30.4	9.3	3.22
어린이 자치회	2.3	6.7	39.8	37.6	13.7	3.54	8.4	15.2	41.0	27.2	8.1	3.11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평균 값은 5점 만점(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전혀없다', 5점: '매우 중요하다/매우 많이 있다')으로 평정한 값을 평균내어 제시함

〈표 3-30〉에서는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필요한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중요도를 세부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세부집단 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주민 자치회'나 '어린이 자치회'에 대한 중요도가 자녀연령별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주민 자치회'나 '어린이 자치회'가 전체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 점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영아, 유아 부모'의 경우 '자녀 없음'과 '초등저학년 부모'보다 '주민 자치회'나 '어린이 자치회'에 대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표 3-30〉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중요도

단위: 점 (명, *N* = 1021)

구분	온라인 소통방	공동체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시스템	육아지원 안내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	주민 자치회	어린이 자치회
전체	3.55	3.64	3.85	3.75	3.93	3.65	3.54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3.55	3.60	3.80	3.71	3.87	3.61	3.49
30대 이하 여성	3.59	3.70	3.91	3.86	4.01	3.69	3.60
40대 이상 남성	3.54	3.61	3.79	3.69	3.89	3.64	3.48
40대 이상 여성	3.48	3.69	3.93	3.72	3.97	3.71	3.63
F	0.48	0.99	2.09	2.40	1.77	0.70	1.66
자녀연령							
자녀없음	3.41	3.58	3.83	3.73	3.84	3.51	3.25
영아	3.59	3.65	3.87	3.78	3.95	3.71	3.60
유아	3.58	3.74	3.84	3.82	3.96	3.73	3.63
초등저학년	3.54	3.57	3.85	3.66	3.92	3.58	3.49
F	1.19	2.34	0.07	1.98	0.70	2.93*	5.94***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3.52	3.65	3.85	3.84	3.91	3.66	3.53
월 400~599만원	3.51	3.61	3.78	3.68	3.91	3.62	3.51
월 600~799만원	3.59	3.67	3.90	3.73	3.94	3.62	3.52
월 800만원 이상	3.63	3.67	3.93	3.80	4.01	3.76	3.62
F	0.89	0.37	1.93	1.84	0.74	1.28	0.68
주택유형							
아파트	3.56	3.63	3.86	3.74	3.93	3.67	3.54
아파트 외	3.51	3.69	3.80	3.80	3.94	3.56	3.52
t	0.64	−0.77	0.86	−0.75	−0.20	1.64	0.26
맞벌이 여부							
맞벌이	3.55	3.67	3.88	3.74	3.96	3.67	3.54
맞벌이 아님	3.55	3.60	3.80	3.77	3.90	3.63	3.54
t	0.15	1.23	1.54	−0.58	1.21	0.69	0.07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표 3-31〉에서는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필요한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 의향 정도를 세부집단으로 나누어 물어보았는데, 실제 이용의향 정도를 물었을 때, 세부 그룹별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온라인 소통방',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에서 가구소득별로 차이가 나타났고, 또한 가구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위의 세 영역에서 이용의향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3-31〉 인적 네트워크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 의향

단위: 점 (명, N = 1021)

구분	온라인 소통방	공동체 활동을 위한 물리적 공간과 시스템	육아지원 안내 프로그램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자녀 참여 프로그램	주민 자치회	어린이 자치회
전체	3.20	3.18	3.36	3.28	3.47	3.22	3.11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3.18	3.12	3.39	3.32	3.45	3.22	3.08
30대 이하 여성	3.22	3.19	3.32	3.23	3.44	3.16	3.10
40대 이상 남성	3.17	3.18	3.30	3.26	3.46	3.25	3.11
40대 이상 여성	3.28	3.28	3.56	3.42	3.63	3.31	3.23
F	1.21	5.77	0.32	0.23	0.22	0.16	1.34
자녀연령							
자녀없음	3.02	3.19	3.45	3.23	3.41	3.12	2.96
영아	3.21	3.13	3.36	3.33	3.45	3.22	3.09
유아	3.23	3.21	3.30	3.27	3.51	3.24	3.16
초등저학년	3.23	3.18	3.39	3.28	3.49	3.24	3.16
F	1.41	0.29	0.75	0.27	0.30	0.50	1.29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3.05	3.13	3.30	3.22	3.33	3.16	3.01
월 400~599만원	3.19	3.10	3.32	3.25	3.44	3.15	3.09
월 600~799만원	3.29	3.24	3.40	3.32	3.58	3.25	3.13
월 800만원 이상	3.30	3.31	3.49	3.40	3.60	3.41	3.29
F	3.16*	2.08	1.64	1.27	3.07*	3.01*	2.52
주택유형							
아파트	3.20	3.17	3.36	3.28	3.47	3.22	3.11
아파트 외	3.18	3.19	3.37	3.32	3.49	3.21	3.12
t	0.26	-0.24	-0.09	-0.54	-0.29	0.16	-0.07
맞벌이 여부							
맞벌이	3.23	3.21	3.40	3.30	3.52	3.25	3.15
맞벌이 아님	3.15	3.12	3.30	3.26	3.40	3.18	3.05
t	1.34	1.30	1.52	0.65	1.83	1	1.48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마. 공동체성 발현 방법

〈표 3-32〉에서는 아이기르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이나 서비스 인프라 뿐 아니라 주거단지 내 구성원 간에 아이 기르는 일에 가치를 두고 가족을 배려하는 철학과 가치를 공유함이 중요한데 그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대해서, '모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의 동의가 3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주민들이 함께하는 소통 공간 마련(25.7%)', '육아를 응원하는 표어의 선정과 단지 내 부착(예. 유아차 먼저, 육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14.5%)', '온라인 공간을 통한 홍보 및 교육(11.1%)', '환경개선 참여 체계 마련(예.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의 환경)(8.9%)'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2〉 철학과 가치 공유 방법

단위: % (명)

구분	프로그램 확대	소통 공간 마련	육아 응원 표어 선정 및 단지 내 부착	온라인 홍보 및 교육	환경개선 참여 체계 마련	계(수)
전체	39.9	25.7	14.5	11.1	8.9	100(1021)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39.0	22.0	16.6	11.2	11.2	100(295)
30대 이하 여성	44.1	25.5	14.0	8.1	8.4	100(322)
40대 이상 남성	34.2	29.2	14.8	12.7	9.2	100(284)
40대 이상 여성	44.2	26.7	10.0	15.0	4.2	100(120)
$x^2(df)$			19.83(12)			
자녀연령						
자녀없음	46.0	23.9	11.5	8.0	10.6	100(113)
영아	37.2	26.0	17.1	9.5	10.2	100(304)
유아	38.7	25.3	15.7	11.7	8.7	100(300)
초등저학년	41.4	26.3	11.8	13.2	7.2	100(304)
$x^2(df)$			10.86(12)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41.0	24.9	17.7	9.6	6.8	100(249)
월 400~599만원	38.1	26.3	13.7	12.1	9.9	100(365)
월 600~799만원	38.9	24.9	16.2	10.0	10.0	100(229)
월 800만원 이상	43.3	26.4	9.6	12.4	8.4	100(178)
$x^2(df)$			9.70(12)			
주택유형						
아파트	39.6	25.8	14.8	10.5	9.2	100(845)
아파트 외	40.9	25.0	13.1	13.6	7.4	100(176)

구분	프로그램 확대	소통 공간 마련	육아 응원 표어 선정 및 단지 내 부착	온라인 홍보 및 교육	환경개선 참여 체계 마련	계(수)
$x^2(df)$	2.22(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1.9	25.6	12.4	10.3	9.7	100(620)
맞벌이 아님	36.7	25.7	17.7	12.2	7.7	100(401)
$x^2(df)$	8.22(4)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3. 육아코디네이터 제도에 대한 의견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시 '육아 코디네이터'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여 나타냈는데, '육아 코디네이터'란 주거 단지 내에서 육아관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가를 뜻하며, 필요 시 영유아 놀이방 및 단지 도서관 등 필요한 시설에 상시 근무 가능하다고 정의하였다.

가. 육아 관련 커뮤니티 운영 실무자 필요성

〈표 3-33〉에서는 육아 코디네이터 필요 정도를 물었는데, 육아 관련 커뮤니티 시설 운영 시 실무자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확인한 결과, '필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52.3%,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19.4%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71.7%가 그 필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5점 척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이 3.83점으로 '필요한 편이다'에 수렴하는 가운데, 가구소득에 따른 차이를 보여, 월소득 600~799만원 미만인 집단에서 3.97점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3-33〉 육아 관련 커뮤니티 시설 운영 시 실무자 필요성 인식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계(수)	평균
전체	1.2	5.4	21.7	52.3	19.4	100(1021)	3.83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2.7	7.8	22.7	48.8	18.0	100(295)	3.72
30대 이하 여성	0.9	3.7	21.4	53.1	20.8	100(322)	3.89
40대 이상 남성	0.4	5.6	21.5	54.9	17.6	100(284)	3.84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계(수)	평균
40대 이상 여성	0.0	3.3	20.8	52.5	23.3	100(120)	3.96
$x^2(df)/F$			18.31(12)				3.37
자녀연령							
자녀없음	0.0	5.3	28.3	48.7	17.7	100(113)	3.79
영아	1.0	5.9	21.4	49.3	22.4	100(304)	3.86
유아	1.7	4.7	21.7	52.0	20.0	100(300)	3.84
초등저학년	1.3	5.6	19.7	56.9	16.4	100(304)	3.82
$x^2(df)/F$			10.40(12)				0.28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1.6	6.4	29.7	42.6	19.7	100(294)	3.72
월 400~599만원 미만	1.9	4.4	21.1	54.2	18.4	100(365)	3.83
월 600~799만원 미만	0.4	2.6	17.5	59.0	20.5	100(229)	3.97
월 800만원 이상	0.0	9.6	17.4	53.4	19.7	100(178)	3.83
$x^2(df)/F$			33.36(12)***				3.34*
주택유형							
아파트	0.9	5.8	21.3	52.4	19.5	100(845)	3.84
아파트 외	2.3	3.4	23.9	51.7	18.8	100(176)	3.81
$x^2(df)/t$			4.22(4)				0.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0.6	5.3	20.6	53.9	19.5	100(620)	3.86
맞벌이 아님	2.0	5.5	23.4	49.9	19.2	100(401)	3.79
T/F검정							
$x^2(df)/t$			5.42(4)				1.37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평균 값은 5점 만점(1점:'전혀 필요하지 않다', 5점: '매우 필요하다')으로 평정한 값을 평균내어 제시함
* p < .05, ** p < .01, *** p < .001.

나. 운영 주체

〈표 3-34〉에서는 바람직한 육아 코디네이터 운영 주체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육아관련 공공기관(41.6%)', '단지 내 주민 협의체(20.3%)', '지자체 행정기관(18.3%)', '단지 내 관리사무소(11.8%)', '민간(사회적 기업 등) 관련기관 위탁운영(7.8%)'의 순서로 높게 답하였다. 또한, 주택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였고, 아파트 외 거주의 경우 '육아관련 공공기관'이라는 응답 비율이 50%를 상회하여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3-34〉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육아 코디네이터 운영 주체

단위: % (명)

구분	육아관련 공공기관	단지 내 주민 협의체	지자체 행정기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민간 관련 기관 위탁운영	기타	계(수)
전체	41.6	20.3	18.3	11.8	7.8	0.2	100(1021)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40.0	20.3	19.3	13.9	6.1	0.3	100(295)
30대 이하 여성	44.4	19.9	16.8	10.2	8.4	0.3	100(322)
40대 이상 남성	39.4	20.8	19.7	11.6	8.5	0.0	100(284)
40대 이상 여성	43.3	20.0	16.7	10.8	9.2	0.0	100(120)
$x^2(df)$				7.18(15)			
자녀연령							
자녀없음	39.8	17.7	21.2	8.8	12.4	0.0	100(113)
영아	43.1	20.7	16.8	12.2	7.2	0.0	100(304)
유아	44.3	19.0	15.7	13.3	7.3	0.3	100(300)
초등저학년	38.2	22.0	21.4	10.9	7.2	0.3	100(304)
$x^2(df)$				12.84(15)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47.8	18.1	15.3	12.0	6.4	0.4	100(249)
월 400~599만원	43.6	20.3	18.6	10.1	7.1	0.3	100(365)
월 600~799만원	34.9	22.3	21.0	12.2	9.6	0.0	100(229)
월 800만원 이상	37.6	20.8	18.5	14.0	9.0	0.0	100(178)
$x^2(df)$				14.19(15)			
주택유형							
아파트	39.5	20.2	19.1	13.4	7.7	0.1	100(845)
아파트 외	51.7	20.5	14.8	4.0	8.5	0.6	100(176)
$x^2(df)$				19.2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41.8	22.1	17.3	11.0	7.9	0.0	100(620)
맞벌이 아님	41.4	17.5	20.0	13.0	7.7	0.5	100(401)
$x^2(df)$				7.49(5)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다. 근무 형태 및 자격요건

1) 근무 형태

공동체 육아를 위해서 육아 코디네이터 제도가 생긴다면 그 적절한 근무형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는데, '하루 9-6시 상주할 수 있는 인력(49.5%)', '하루 반일 근무정도의 파트타임 인력(29.6%)',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인력(15.6%)', '자원 봉사 형태로의 자발적 참여 인력(5%)'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상시 근무인력의 배치에 대한 선호를 보였다(<표 3-35>).

<표 3-35> 육아 코디네이터의 적절한 근무 형태

단위: %(명)

구분	하루 9-6시 상주	하루 반일 정도의 파트타임	필요한 업무 있을 시 간헐적 근무	자원 봉사 형태의 자발적 참여	기타	계(수)
전체	49.5	29.6	15.6	5.0	0.3	100(954)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51.5	28.4	17.0	3.0	0.0	100(264)
30대 이하 여성	49.5	28.3	15.3	5.9	1.0	100(307)
40대 이상 남성	51.7	30.7	13.9	3.7	0.0	100(267)
40대 이상 여성	39.7	32.8	17.2	10.3	0.0	100(116)
$x^2(df)$			20.86(12)			
자녀연령						
자녀없음	50.5	30.8	12.1	6.5	0.0	100(107)
영아	53.7	25.4	16.6	3.9	0.4	100(283)
유아	47.0	32.0	14.9	5.3	0.7	100(281)
초등저학년	47.3	30.7	16.6	5.3	0.0	100(283)
$x^2(df)$			9.28(12)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48.9	32.3	14.8	3.9	0.0	100(229)
월400~599만원	47.1	33.0	15.5	4.1	0.3	100(342)
월600~799만원	50.0	25.7	18.5	5.0	0.9	100(222)
월 800만원 이상	54.7	23.6	13.0	8.7	0.0	100(161)
$x^2(df)$			17.39(12)			
주택유형						
아파트	49.6	29.8	15.9	4.4	0.3	100(788)
아파트 외	48.8	28.3	14.5	7.8	0.6	100(166)

구분	하루 9-6시 상주	하루 반일 정도의 파트타임	필요한 업무 있을 시 간헐적 근무	자원 봉사 형태의 자발적 참여	기타	계(수)
$x^2(df)$			3.96(4)			
맞벌이 여부						
맞벌이	49.6	29.2	14.8	6.0	0.5	100(583)
맞벌이 아님	49.3	30.2	17.0	3.5	0.0	100(371)
$x^2(df)$			5.53(4)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자격 요건

〈표 3-36〉에서는 육아코디네이터의 자격은 어떠해야 하는 지를 나타냈는데,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64.7%)', '단지 내 거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모 중에서(11.3%)' 등으로 높게 나타나 자격 갖춘 전문가에의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36〉 육아 코디네이터의 자격 요건

단위: %(명)

구분	자격증 보유 전문가	자녀 양육 가구의 부모	단지 내 거주청년	단지 내 거주 어르신	누구나 가능	자원봉사 단체	계(수)
전체	64.7	11.3	4.4	4.1	11.2	4.3	100(954)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63.6	12.1	4.2	5.7	11.0	3.4	100(264)
30대 이하 여성	65.5	11.1	4.6	4.2	11.1	3.6	100(307)
40대 이상 남성	65.9	10.9	3.4	2.2	10.9	6.7	100(267)
40대 이상 여성	62.1	11.2	6.9	4.3	12.9	2.6	100(116)
$x^2(df)$				12.40(15)			
자녀연령							
자녀없음	70.1	9.3	1.9	5.6	12.1	0.9	100(107)
영아	65.4	10.6	6.4	4.2	10.6	2.8	100(283)
유아	61.9	13.5	4.3	4.6	11.4	4.3	100(281)
초등저학년	64.7	10.6	3.5	2.8	11.3	7.1	100(283)
$x^2(df)$				18.59(15)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65.1	11.4	4.4	5.7	10.5	3.1	100(229)
월 400~599만원	69.3	11.1	3.5	3.8	9.4	2.9	100(342)
월 600~799만원	63.1	11.7	5.0	5.0	9.5	5.9	100(222)
월 800만원 이상	56.5	11.2	5.6	1.2	18.6	6.8	100(161)

구분	자격증 보유 전문가	자녀 양육 가구의 부모	단지 내 거주청년	단지 내 거주 어르신	누구나 가능	자원봉사 단체	계(수)
$x^2(df)$				24.95(15)			
주택유형							
아파트	64.3	11.9	4.3	4.2	10.9	4.3	100(788)
아파트 외	66.3	8.4	4.8	3.6	12.7	4.2	100(166)
$x^2(df)$				2.1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66.6	10.5	4.3	4.1	10.3	4.3	100(583)
맞벌이 아님	61.7	12.7	4.6	4.0	12.7	4.3	100(371)
$x^2(df)$				2.98(5)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라. 적정 임금 및 비용 분담 방식

1) 적정 임금

〈표 3-37〉에서는 육아코디네이터는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나타냈는데, '경력과 시간에 맞는 임금 제공(84.6%)',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제공(15.2%)' 등으로 나타났다.

〈표 3-37〉 육아 코디네이터의 적정 임금

단위: %(명)

구분	경력과 시간에 맞는 임금 제공	실비 제공	기타	계(수)
전체	84.6	15.2	0.2	100(954)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83.7	16.3	0.0	100(264)
30대 이하 여성	85.0	14.7	0.3	100(307)
40대 이상 남성	84.3	15.4	0.4	100(267)
40대 이상 여성	86.2	13.8	0.0	100(116)
$x^2(df)$		1.83(6)		
자녀연령				
자녀없음	86.0	14.0	0.0	100(107)
영아	82.0	17.7	0.4	100(283)
유아	83.6	16.0	0.4	100(281)
초등저학년	87.6	12.4	0.0	100(283)

구분	경력과 시간에 맞는 임금 제공	실비 제공	기타	계(수)
$x^2(df)$		4.83(6)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83.8	16.2	0.0	100(229)
월 400~599만원	86.0	13.7	0.3	100(342)
월 600~799만원	82.9	16.7	0.5	100(222)
월 800만원 이상	85.1	14.9	0.0	100(161)
$x^2(df)$		2.66(6)		
주택유형				
아파트	84.1	15.7	0.1	100(788)
아파트 외	86.7	12.7	0.6	100(166)
$x^2(df)$		2.45(2)		
맞벌이 여부				
맞벌이	85.8	13.9	0.3	100(583)
맞벌이 아님	82.7	17.3	0.0	100(371)
$x^2(df)$		3.20(2)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비용 분담 방식

〈표 3-38〉에서는 육아코디네이터 운영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단지 거주민 간에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나타냈는데, 실제 이용자들이 분담하자는 의견이 65.5%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 가구들만 분담하자는 의견에 19.5%, 주민 전체가 분담하자는 의견에는 14%의 동의를 보였다. 이에 대한 집단차이를 살펴보면, 남성(30대 60.6%, 40대 57.7%)보다는 여성 집단(30대 74.6%, 40대 70.7%)에서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자는 의견에 동의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표 3-38〉 육아 코디네이터 운영의 비용 분담 방식

단위: %(명)

구분	주민 전체가 분담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 가구 분담	실제 이용자 분담	기타	계(수)
전체	14.0	19.5	65.5	0.9	100(954)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20.5	18.9	60.6	0.0	100(264)
30대 이하 여성	10.1	14.7	74.6	0.7	100(307)
40대 이상 남성	15.7	25.1	57.7	1.5	100(267)

구분	주민 전체가 분담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 가구 분담	실제 이용자 분담	기타	계(수)
40대 이상 여성	6.0	20.7	70.7	2.6	100(116)
$x^2(df)$			39.84(9)***		
자녀연령					
자녀없음	11.2	15.0	72.9	0.9	100(107)
영아	14.5	19.8	65.4	0.4	100(283)
유아	14.2	18.5	66.2	1.1	100(281)
초등저학년	14.5	21.9	62.2	1.4	100(283)
$x^2(df)$			5.97(9)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15.7	20.5	63.3	0.4	100(229)
월400~599만원 미만	14.3	18.4	66.1	1.2	100(342)
월600~799만원 미만	11.3	18.9	68.9	0.9	100(222)
월 800만원 이상	14.9	21.1	62.7	1.2	100(161)
$x^2(df)$			4.10(9)		
주택유형					
아파트	13.7	19.0	66.4	0.9	100(788)
아파트 외	15.7	21.7	61.4	1.2	100(166)
$x^2(df)$			1.52(3)		
맞벌이 여부					
맞벌이	11.8	20.6	66.4	1.2	100(583)
맞벌이 아님	17.5	17.8	64.2	0.5	100(371)
$x^2(df)$			7.35(3)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3) 비용 분담 수준

〈표 3-39〉에서는 주거단지에 육아를 위해서 육아코디네이터 제도가 생긴다면 육아 코디네이터 업무에 대한 급여를 공동으로 지불할 의향과 부담 가능 비용 범위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공동 분담 의향이 전혀 없는 경우는 12.4%로 나타났고, 분담 의향이 있는 경우는 87.6%였다. 분담 의향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분담 비용으로는 '월 5천원 - 1만원 이내(28.3%)' 와 '월 5천원 이내(28.2%)'에 대한 응답이 높음. 즉, 월 1만원 이내 정도로 분담 가능하다는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과반을 상회하였다.

연령과 성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분담의사 없다는 비율이 남성(30대 7.6%, 40대 9%)보다는 여성 집단(30대 16.9%, 40대 19%)에서 높게 나타났고, 여성 집단에서 남성 집단보다 전반적으

로 낮은 분담비용에의 동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자녀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25.2%)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16.3%)에 분담의사 없다는 비율이 영아(6.4%)나 유아 자녀(9.6%)를 둔 경우 보다 높았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 600~799만원 미만’, ‘월 800만원 이상’ 등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 분담의사 동의비율이 다소 높고, 월 2만원 이상 분담하자는 동의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3-39〉 육아 코디네이터의 급여 공동 분담 수준

단위: %(명)

구분	전혀 없다	월 5천원 이내	월 5천원 – 1만원 이내	월 1만원 – 2만원 이내	월 2만원 이상	계(수)
전체	12.4	28.2	28.3	15.3	15.8	100(954)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7.6	26.5	29.5	15.9	20.5	100(264)
30대 이하 여성	16.9	30.6	26.4	13.4	12.7	100(307)
40대 이상 남성	9.0	25.5	29.6	17.6	18.4	100(267)
40대 이상 여성	19.0	31.9	27.6	13.8	7.8	100(116)
$x^2(df)$			32.76(12)**			
자녀연령						
자녀없음	25.2	28.0	16.8	17.8	12.1	100(107)
영아	6.4	29.7	30.7	14.1	19.1	100(283)
유아	9.6	27.0	28.8	15.7	18.9	100(281)
초등저학년	16.3	27.9	29.7	15.2	11.0	100(283)
$x^2(df)$			43.31(12)***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16.6	30.6	29.7	11.8	11.4	100(229)
월 400~599만원 미만	12.6	26.9	29.8	17.8	12.9	100(342)
월 600~799만원 미만	9.0	29.3	26.6	15.8	19.4	100(222)
월 800만원 이상	10.6	26.1	25.5	14.3	23.6	100(161)
$x^2(df)$			24.02(12)*			
주택유형						
아파트	12.6	28.6	28.3	15.0	15.6	100(788)
아파트 외	11.4	26.5	28.3	16.9	16.9	100(166)
$x^2(df)$			0.8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12.7	27.3	26.9	15.4	17.7	100(583)
맞벌이 아님	11.9	29.6	30.5	15.1	12.9	100(371)
$x^2(df)$			4.80(4)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마. 단지 내 담당 업무

〈표 3-40〉에서는 각각의 단지 내 프로그램/시설들이 운영되기 위해 관리 인력이 필요한지 또 어느 정도의 근무가 필요한지를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44.5%)', '영유아 실내 놀이방 운영(38%)'에 대해서는 종일 근무하는 상주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초등 돌봄 제공(43.6%)', '청소년을 위한 공간(40.3%)' 등에 대해서는 반일제 인력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을 위한 공간(30.6%)'은 별도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필요하다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표 3-40〉 단지 내 프로그램/시설 운영 관리인력 필요여부

단위: % (명)

구분	종일 근무 상주	반일제	별도의 요구가 있을 때만	필요 없음	계(수)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	44.5	27.1	27.1	1.3	100(1021)
영유아 실내 놀이방 운영	38.0	38.5	20.1	3.4	100(1021)
초등 돌봄 제공	31.7	43.6	22.9	1.8	100(1021)
소규모 도서관	30.2	37.4	26.8	5.6	100(1021)
공동육아 공간	29.5	36.1	26.4	7.9	100(1021)
청소년을 위한 공간	20.4	40.3	30.6	8.8	100(1021)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4.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가. 제공 서비스 중요도와 이용 의향

〈표 3-41〉에는 지역사회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거단지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할 때, 각 서비스가 아이를 양육할 때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얼마나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나타내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살펴보면, 도서대여(4.04점), 부모교육(3.9점), 열린육아방(3.84점), 장난감도서관(3.82점)의 순으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도서대여(3.78점), 부모교육(3.43점), 장난감도서관(3.41점), 열린육아방(3.35점)의 순으로 답하여, 중요도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용의향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중요도 평가를 살펴보면, 가족·부모·자녀 상담(3.97점), 가족교육(3.88점), 공동육아나눔터(3.72점),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3.7점)의 순으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향후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가족·부모·자녀 상담(3.47점), 가족교육(3.41점),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3.22점), 공동육아나눔터(3.21점)의 순으로 높게 답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중요도 평가보다는 이용의향이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표 3-41〉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중요도 및 주거단지 내 이용의향

단위: 점 % (명, *N* = 1021)

구분		중요도						이용 의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평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
육아종합	장난감 도서관	0.6	3.5	28.6	48.3	19.0	3.82	5.0	14.0	30.9	35.4	14.8	3.41
	도서 대여	0.1	2.2	19.5	50.3	27.9	4.04	2.4	7.1	23.8	42.7	23.9	3.78
	열린육아방	0.3	2.6	29.4	48.5	19.2	3.84	4.8	14.7	34.4	33.1	13.0	3.35
	부모 교육	0.7	3.5	24.9	46.9	24.0	3.90	4.9	13.5	31.1	34.1	16.4	3.43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 교육	1.0	3.3	27.2	44.0	24.5	3.88	4.9	13.5	32.2	34.8	14.6	3.41
	가족 상담	0.3	2.0	23.6	48.4	25.8	3.97	4.6	12.8	31.0	34.4	17.2	3.47
	공동육아나눔터	0.9	4.6	34.8	41.5	18.2	3.72	5.6	18.4	35.8	29.6	10.6	3.21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1.2	4.9	35.0	40.5	18.4	3.70	7.1	15.5	37.4	29.0	11.1	3.22

주 1: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2: 평균 값은 5점 만점(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중요하다'/'매우 그렇다')으로 평정한 값을 평균내어 제시함.

〈표 3-42〉에서는 지역사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거 지 내에서 이용 가능 한 것에 대한 중요도를 집단별로 나타냈다. 먼저, '장난감 도서관'의 경우 영아(3.95점)와 유아 자녀(3.85점)를 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가족·부모·자녀 상담'도 영아(4.05점)와 유아 자녀(4점)를 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열린육아방'은 영아자녀를 둔 집단(3.94점)의 평가가 높았고, '부모교육'의 경우는 자녀가 없는 집단(4.03점)에서의 평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43〉에서는 지역사회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거단지 내에서 이용 가능 시 이용의향에 대해 집단차이를 살펴보았다. '장난감 도서관'의 경우 영아(3.52점)와 유아 자녀(3.51점)를 둔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이용의향을 높게 평가하였고, '열린육아방'에 대해서도 영아자녀(3.43점), 유아자녀(3.46점)를 둔 집단의 이용의향 평가가 높았다. '부모교육'은 자녀가 없는 집단에서 중요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나, 이용의향에서는 영아

(3.52점), 유아(3.51점) 자녀 부모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교육'도 영아(3.50점)와 유아 자녀(3.47점) 부모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나 맞벌이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가구소득 월 8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 '부모교육', '가족교육', '가족·부모·자녀 상담', '공동육아 나눔터',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영역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이용의향을 보였고, 맞벌이 가족의 경우 '가족·부모·자녀 상담(3.54점)', '공동육아 나눔터(3.29점)',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3.28점)'에서 맞벌이가 아닌 가족(각각 3.36점, 3.10점, 3.12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 3-42〉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 중요도

단위: 점(명)

구분	장난감도서관	도서대여	열린육아방	부모교육	가족교육	가족·부모·자녀 상담	공동육아 나눔터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계)
전체	3.82	4.04	3.84	3.90	3.88	3.97	3.72	3.70	100(1021)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3.78	3.93	3.84	3.92	3.85	3.95	3.66	3.62	100(295)
30대 이하 여성	3.94	4.16	3.90	3.96	3.96	4.08	3.84	3.86	100(322)
40대 이상 남성	3.71	3.97	3.76	3.83	3.83	3.89	3.60	3.57	100(284)
40대 이상 여성	3.82	4.15	3.82	3.87	3.83	3.95	3.80	3.80	100(120)
F	4.27	6.37	1.69	1.28	1.40	3.18	5.13	7.52	
자녀없음	3.70	3.95	3.84	4.03	3.88	3.98	3.77	3.67	100(113)
영아	3.95	4.06	3.94	3.95	3.95	4.05	3.76	3.76	100(304)
유아	3.85	4.01	3.88	3.89	3.88	4.00	3.75	3.74	100(300)
초등저학년	3.69	4.08	3.69	3.81	3.80	3.87	3.62	3.62	100(304)
F	6.37***	0.99	5.57***	2.65*	1.62	3.19*	1.94	1.72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3.90	4.02	3.85	3.91	3.87	3.96	3.67	3.73	100(249)
월 400~599만원	3.76	3.95	3.80	3.89	3.88	3.94	3.69	3.72	100(365)
월 600~799만원	3.82	4.09	3.87	3.89	3.84	3.97	3.75	3.62	100(229)
월 800만원 이상	3.79	4.17	3.84	3.92	3.94	4.06	3.79	3.73	100(178)
F	1.57	3.87**	0.40	0.05	0.47	0.90	0.92	0.79	
주택유형									
아파트	3.80	4.03	3.83	3.91	3.89	3.97	3.73	3.71	100(845)
아파트 외	3.88	4.10	3.86	3.86	3.81	3.97	3.65	3.68	100(176)
t	-1.12	-1.13	-0.44	0.74	1.20	0.04	1.08	0.33	
맞벌이	3.78	4.07	3.82	3.89	3.88	4.00	3.79	3.71	100(620)
맞벌이 아님	3.87	3.99	3.86	3.91	3.87	3.93	3.60	3.69	100(401)
t	-1.76	1.81	-0.80	-0.39	0.34	1.61	3.59***	0.39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표 3-43〉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가 이용 가능 시 이용 의향

단위: 점 (명)

구분	장난감 도서관	도서대여	열린육아방	부모교육	가족교육	가족·부모·자녀 상담	공동육아 나눔터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계)
전체	3.41	3.78	3.35	3.43	3.41	3.47	3.21	3.22	100(1021)
연령대X성별									
30대 이하 남성	3.39	3.62	3.37	3.44	3.40	3.45	3.17	3.19	100(295)
30대 이하 여성	3.49	3.90	3.38	3.46	3.44	3.50	3.25	3.27	100(322)
40대 이상 남성	3.33	3.75	3.30	3.39	3.40	3.47	3.16	3.16	100(284)
40대 이상 여성	3.42	3.96	3.35	3.45	3.35	3.43	3.36	3.28	100(120)
F	1.21	5.77	0.32	0.23	0.22	0.16	1.34	0.71	
자녀없음	3.30	3.72	3.38	3.39	3.27	3.34	3.19	3.10	100(113)
영아	3.52	3.73	3.43	3.52	3.50	3.54	3.28	3.25	100(304)
유아	3.51	3.82	3.46	3.51	3.47	3.51	3.24	3.31	100(300)
초등저학년	3.24	3.84	3.14	3.30	3.30	3.41	3.13	3.13	100(304)
F	5.23**	0.93	5.87***	2.76*	2.85*	1.42	1.21	2.08	
가구소득									
월 400만원 미만	3.43	3.71	3.25	3.32	3.31	3.31	3.09	3.12	100(249)
월 400~599만원	3.36	3.73	3.32	3.41	3.38	3.44	3.17	3.17	100(365)
월 600~799만원	3.42	3.84	3.38	3.44	3.39	3.53	3.24	3.21	100(229)
월 800만원 이상	3.48	3.93	3.51	3.64	3.61	3.67	3.43	3.44	100(178)
F	0.55	2.45	2.30	3.28*	3.11*	4.34**	4.04**	3.46*	
아파트	3.39	3.78	3.35	3.44	3.41	3.47	3.21	3.21	100(845)
아파트 외	3.51	3.82	3.34	3.40	3.38	3.45	3.20	3.25	100(176)
t	-1.51	-0.59	0.21	0.43	0.47	0.26	0.18	-0.47	
맞벌이 여부									
맞벌이	3.40	3.82	3.38	3.47	3.45	3.54	3.29	3.28	100(620)
맞벌이 아님	3.43	3.73	3.30	3.38	3.33	3.36	3.10	3.12	100(401)
t	-0.47	1.36	1.29	1.34	1.77	2.53*	2.85**	2.39*	

주: 본 연구를 위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의 결과임.

제2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요구(II): 심층면담 결과

본 절에서는 영아, 유아,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미니들을 대상으로 주거단지에서의 양육 경험과 지원 개선요구에 대해 심층면담으로 수렴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현재 비교적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로 평가되고 있는 경기도 남양주 별내 신도시와 서울특별시 오류동 행복주택단지 등에서 면담대상을 확보하였고, 면담자들의 이전 주거경험과 현재 주거단지 경험을 비교하여 논의함을 통해 육아친화적으로 체감하는 부분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1. 현재 주거단지에의 평가

이전 거주하던 주거단지와를 비교해서 현재 거주하는 주거단지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만족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개선이 요구되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가. 장점으로 체감하는 부분

아파트라는 주거단지가 다른 주거단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녀들이 또래 친구들을 사귀기 좋은 여건임을 강조하였다.

> 저는 그 전에 살던 곳이 일반 빌라였어요. 그리고 재개발이 되는 곳이라서 되게 흉흉했어요. ...거기가 약간 어두운 곳이라면 여기는 햇살 같아요. 빛이 되게 환해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파트 생활 처음 하는 거거든요. 동네 친구들이 진짜 많고...요새는 엄마들이 친구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유아부모 1).

> 친인척들 만나면 저 친구들 많아서 TV 안 봐요, 핸드폰 안 보고 싶고, TV 안 보고 싶어, 이렇게 바로 딱 얘기했거든요. 아이들은 바로 체감하는 것 같아요(초등부모 1).

> 00이는 친구가 너무 많다고, 놀이터 갔더니 주변에 언니, 오빠들이 다 00아, 00아, 알아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정말 아이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구나 되게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초등부모 1).

> 보통 엄마들이 친해지면 누구 엄마 아이인데 같이 놀아볼래? 이건데 저희는 역전됐거든요. 애들끼리 먼저 친해요. 그래서 이 친구 엄마가 이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오히려 더 아이의 부모님들을 소개해주

는 그런 상황이 좀 많아요(초등부모 4).

부모들도 육아하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은 환경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화로 공급된 경우에는 영유아 자녀를 기르는 가구가 많음이 장점으로 꼽힌다.

> 출산하고 나서 아파트로 왔는데, 여기는 확실히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들도 많고 아무래도 신혼부부 단지로 조성이 된 거라 비슷한 또래 엄마도 많고 아니면 한두 살 많은 엄마들도 많아서 처음에 육아 정보 얻기도 되게 좋았고 유모차 끌고 나가면 비슷한 또래 엄마들 만나면서 그 시기에 힘들었던 일 뭐가 있고 뭐 그런 육아 얘기하면서 좀 위로도 받고 이런 걸 쉽게 할 수 있었거든요(유아부모 5).

> 저희 아파트가 가치관이 비슷한 인물들이 모였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초등부모 5).

유모차로 산책이 가능한 도로 여건과 산책로 조성이 특히 영유아 부모들에게 육아하기 좋은 요건으로 체감되고 있다.

> (이전에는)산책을 나가면 바닥이 울퉁불퉁하다고 해야 할까, 유모차를 끌고 다니기에는 좀 길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고 길이 노후가 되어 있어서 어수선하고 아파트에 차가 주차장에 빼곡히 있고 위험한 요소들이 좀 많았는데 여기는 이제 조경이 잘 되어 있어서 주변에 산책하기도 좋고 다른 아파트 가서 둘러보기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이쪽 안에서 조경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요, 아파트랑 아파트 사이(영아부모 1).

> 유모차 끌고 다니긴 단지 자체는 되게 좋아요. 길도 잘 깔려있고, 넓고, 차도 택배 차 들어오는 시간이 거의 일정해가지고 그런 시간들만 피하면 거의 뭐 강아지들도 산책도 별로 안 해서 애랑 조용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요 아파트 단지 안에 흡연구역이 지정되어 있고(유아부모 5).

차량으로부터의 안전, CCTV 설치 등 안전한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 차도 많이 안 다녀서, 애들이 사실 막 킥보드 타고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크게 위험한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유아부모 5).

> 이전에는 아파트였지만 아이들 스스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는 안전하다는, 차가 위에 많이 없고 안전하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들 스스로 나가고 놀고 오고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초등부모 2).

> 그리고 저희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거를 집에서 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걸 보고 엄마가 날 볼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저기 누가 놀고 있네, 누가 계시네 그렇게 파악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아무도 없으면 안 나가요(초등부모 2).

보육을 포함하여, 공동육아나눔터 등 육아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이 아이를 기르기 좋은 환경으로 체감되고 있으며, 또한, 주거단지 안에서 다양한 시설 및 커뮤니티가 있어서 육

아하는 가정에 도움이 됨을 강조하였다.

> 일단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랑 그 다음에 놀이터랑 공동육아나눔터가 가까이 있어서 이런 뭐랄까 영유아 시설이 좀 가까이에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영아부모 4).

> 제일 큰 게 저는 어린이집이 가까운 데 있다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육아하면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게 이제 돌봄이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가까운 데 있어서 좋고,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넣으려면 우선순위가 되는 것도 힘든데, 다행히 행복 주택 거주하면 우선순위가 되어서 반영이 돼서 너무 좋고, 일단 가까운 게 제일 또 좋아요(유아부모 3).

> 이제 여기가 새로 단지가 지어졌잖아요. 우선은 옆에 공동육아나눔터라고 해서 아이들 실내 활동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요. 행복주택 입주자 우선으로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도 이용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이 있어요(유아부모 4).

> 일단 교통이 가깝고, 단지 안에 아이들을 위한 공원이나 놀이터가 잘 구성이 되어있어서 사는 것도 좋고 공동육아나눔터나 그 아이 장난감 빌리는 곳이 가깝게 있어서 아이 키우는 데는 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영아부모 2).

> 예전 집은 빌라여서 이런 뭐 놀이터나 육아 관련 시설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이사 오고 나서 애기 낳았거든요. 여기는 앞에 놀이터도 있고 공동육아시설도 있고 그 옆에 장난감나라도 그것도 있어서 애기 키우기 좋다고 생각해요(영아부모 3).

> 입주하고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건 마을 안에서 다 된다, 체육관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고, 아이들 공원처럼 뛰어 놀 수 있는 잔디 광장도 있고. 이전 살던 주거 공간에서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차를 타고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우리 집 현관만 열고 나오면 동네 안에서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거, 저는 그게 제일 큰 차이점이었던 거 같아요(초등부모 2).

> 커뮤니티 활동을 계속 여기 공간을 이용하고 활동하면서 여러 사람과의 교류가 다양해서 아이들도 부모들도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고(초등 부모 3).

소통의 공간으로, 공동체성을 체감할 수 있는 잔디 광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흙이 있는 공간, 모래 놀이 공간이 좋다는 의견이 있었다.

> 저도 잔디광장이 오히려 더 만족도가 높거든요. 잔디광장을 둘레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남편이랑. 저 같은 경우는 남편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접점이 생겼어요. 아이들도 자전거 타고 씽씽카 타고 자기들끼리 광장 돌면서 되게 재밌어 하고 저희 아이들 사이에서 문화가 되어 가고 있어요(초등부모 5).

> 저는 요즘 잔디 광장 중심으로 아파트가 둥그런 느낌이, 블럭화 되어 있지 않고 둥그런 게 가장 만족도가 높아요. 각지지 않은 집이라서 그 자체가. 애들도 둥글둥글 돌아다니면서, 둥그런 느낌이라서 좋아요(초등부모 2).

> 여기 오니까 모래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여기 빠져서 잘 놀아요, 둘째랑. 그런 모습 봤을 때 놀이터 구성이 좋다, 이게 타 단지랑은 비교되는 점인 것 같아요. 관리도 잘 되고요(유아부모 2).

주거단지의 환경과 구성원의 태도가 아이 기르는 가족에 대한 배려가 체감될 때 좋은 곳에 살고 있다고 체감하며, 이웃을 통해 돌봄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함께 키우는 동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 저도 비슷하게 단지 내 환경이 일단 아이들 배려하는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차량이 진입하는 문제 이런 거를 전 주민들이 나서서 같이 반응해준다는 게, 일단은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유아부모 2).

> 이 주거 단지의 장점이 사실 약간 돌봄이 그렇잖아요, 티가 안 나고 그림자 노동이잖아요, ... 뭔가 큼직한 이런 것보다는 일상의 돌봄의 공백을 메꿔주는 데서 오는 만족. 그런 사소한 것들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별 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 거에서의 만족도는 되게 크죠(유아부모 1).

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층간소음을 포함하여 소음의 문제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게 풀기 힘든 문제이고 이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층간소음에 대해) 말은 많은데, 그걸 어떻게 풀어갈지 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는 서로 열심히 찾고 있는 거 같긴 해요. 힘든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유아부모 2).

> 아무래도 그 소음, 아이 키우다 보면 이제 뛰거나 좀 소리 지르는 거 이런 것들이 제어가 사실은 제 맘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분도 있는데 좀 불편해하시는 거를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영아부모 2).

> 아무래도 층간소음에 대한 그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요. 아이를 키워도 윗집에서 또 옆집에서 이렇게 아이 소리가 들리거나 쿵쾅쿵쾅하는 소리가 들리면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육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신혼부부도 계시고,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를 하다보니까는(유아부모 3).

육아하는 가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에 대해 양육자의 입장에서의 서운함을 표현하였다.

> 철학, 그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저희는 아파트에서는 여기가 육아 친화 아파트라는 걸 아무리 내세워도 싱글이 있고, 예비 신혼부부가 있고, 그런 분들은 민원을, 그 분들은 민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떤 불편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거침없어요. 그런데 그게 대부분은 아이들에 대한 얘기에요. 애들이 너무 시끄럽다(초등부모 1).

> 게시글에는 그런 분들이 되게 거침없이 올려요, 막 층간소음, 애들 울음소리 시끄럽다, 놀이터 시끄럽다, 그런 걸 올리는데...이게 당사자 입장에서는, 애들을 키우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더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도 풀어야 되는 과제죠. 사실 그런 분들이 소수지만 카페에 글을 올린다는 건 뭔가 공론화되어 있는 거잖아요.(유아 부모 2).

거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위한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저는 약간 강당이나 다 같이 아이들이 모여서 뭐 연극이나 뮤지컬 뭐 작게라도 볼 수 있는 소극장처럼, 운용할 수 있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유아부모 1).

저는 소그룹 모임 공간이요. 저희가 단위가 큰 공간만 있어요. 전체홀. 근데 5명~10명 내외의 그룹들이 외부 간섭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소그룹 장소가 없어요. 그런 장소가 있으면 다양한 소모임들이 공간 걱정 안 하고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초등부모 3).

주거단지 인근 환경이 육아하기 좋은 지역이 아님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뒤편에 모텔 같은 숙박업소들이 좀 있어요, 많아요. 모텔, 호텔. 아이들이 이제 00이가 일곱 살인데 글씨를 읽는 것 배우는 시기잖아요. 간판들 주로 보는데 어디, 무슨 모텔, 이런 것까지 다 글씨를 읽고, 아이들한테 좀 안 좋은데...(유아부모 4).

2. 육아지원 서비스 경험

가. 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

주거단지 내 입주 이벤트에서 친구가 형성되고, 소통 기회가 주거단지 안에 마련됨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프로그램은 아니고 아이들이 처음 안면을 트게 된 계기인데 거기에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입주민 환영회.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그렇게 모여서 아이들이 노래를 같이 부르니까 친해지더라고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벤트가 한 번 있었고(초등부모 2).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단지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은 저는 카페. 사랑방처럼 왔다갔다 만나는 것 같아요. 카페로 와, 뭐 이렇게(초등부모 3).

저희 집은 중앙 광장이 보이거든요. 행사나 모일 때 보이니까 관심 있으면 나갈 수 있어요. 놀이터랑 잔디광장이랑 카페가 한 눈에 보이니까 그런 게 좋더라고요(초등부모 3).

주거단지 내에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있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공동육아나눔터랑 저기 문화센터에 있는 장난감 대여 정도 이용한 거 같아요. 거기서 문화프로그램 있어서 프로그램 수업 들었거든요(영아부모 2).

일단은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몇 분 안에 갈 수 있는, 보통 문화센터 가려면 막 차 타고 나가든가 좀 멀리 나가야되는데 단지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 엄마들이 여기 좀 부러워하더라고요. 옆에 이런 시설들이 있어가지고... 편리하고. 또 무료로 해주셨거든요. 그런 것들

이 좋았죠(영아부모 3).

여기 이사 오고 나서는 공동육아센터 보고는 국가가 양육을 하는데 지원하고 있다고 느꼈어요(영아부모 3).

공동육아나눔터 이용해봤어요. 거기에서 매주 아침마다 모여서 하는 문화센터 놀이처럼... 한 2개월이었나 그 정도 수업을 들어 본 적이 있어요(영아부모 4).

아 네 장난감나라랑 공동육아나눔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를 애들이 이제 오늘은 어디 가고 싶어 했을 때 그쪽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유아부모 3).

00동 공동육아나눔터에 저희가 돌봄 공동체, 행복모임이라고 아이들 열 명 이렇게 그룹으로 활동을 또 하고 있어요. 엄마들끼리 아이들을 위해서 돌봄을 하는 건데 돌봄 공동체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활동 수업을 한다거나(유아부모 4).

나. 서비스 개선 필요 부분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만 수요자가 많아 이용기회 제한이 어려움으로 지적되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프로그램이 조금 한정적이고 너무 경쟁이 세다 보니까, 한 번 프로그램을 이용하기가 거의 복불복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행복주택 거주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어디까지 포함하는지 모르겠는데 구로구 포함되니까(영아부모 2).

시간제 돌봄, 돌봄지원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많았으며, 또래 부모와의 자조모임 구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진짜 붙박이로 24시간 붙어 있으면 엄마의 정신 건강이 피폐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 돌봄. 한 두 시간만이라도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영아부모 1).

보통 돌봄 같이 돌봄 양육? 애기 같이 봐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급한 일 있을 때 서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애기 봐주고(영아부모 3).

요즘 엄마들이 열의가 되게 많잖아요. 아이가 되게 어려도 막 뭐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들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게 있을 수 있고(초등부모 1).

주거단지 내 육아 중심 상담 서비스에의 요구와 더불어 기존 육아지원 서비스의 경우 주거단지로 찾아오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부모들이 독박으로 아이들 키우다 보면 되게 피폐해지거든요. 정신이. 감정 배출구가 아이가 되잖아요. 하수구가. 저는 그래서 그 정신 건강에 대한 면담이라든가 그런 거 되게 필요한 거 같아요(유아부모 1).

건강지원센터 감정코칭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되게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같은 육아를, 그게 대상이 있었거든요, 부모들, 육아하는 엄마들,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통해서 지역의 같이 아이 키우는 그런 관계가 형성도 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는 거 아니고 와줘서 해줬으면 좋겠어(초등부모 1).

다. 문화 인프라

문화시설, 인프라가 제공됨이 주거단지의 장점으로 체감되고 있었고 신규 조성 단지의 경우 문화 인프라의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문화센터 이용할 수 있어서, 그니까 오류아트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화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또 그게 어린이집과 연계가 돼서 애들이 공연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게 같은 건물에 있어서 그렇게 애들이 힘들지 않게 바로 엘리베이터만 타면 위로 올라가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좋더라고요(유아부모 3).

문화 인프라도 약한 편이죠. 신도시다보니 아무래도 그런 게 없기는 해요. 구리 쪽으로 간다거나, 그런 상황(초등부모 2).

영아자녀를 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것이 제한적이며, 또한 일하는 부모가 함께 참여 가능한 주말프로그램에의 요구가 있다.

옆에 문화센터에 아트홀이 생겨서, 일단은 제가 애기 키우고 있어서 그 문화를 잘 못 이용하고, 또 애기가 너무 어려서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은 또 없더라고요. 문화 그런 공연 같은 거는 (영아부모 3).

문화적인 거는 잘 되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저희 아이에 맞는 문화프로그램은 사실 좀 없는 것 같고요. 부모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도 있긴 한데 저희같이 일을 하는 부모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주말 프로그램이 조금 더 있다든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영아부모 2).

어쨌든 저는 애기가 그런 문화체험 미술놀이라든지 음악놀이든지, 이런 부분을 어쨌든 충족시켜주기가 집에서는 조금 어려우니까, 그런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30분이나 40분 정도만이라도 해주는 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업이 있다면 저는 퇴근 후라도 참여할 의향이 있어요(영아부모 4).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있다.

어린이도서관 있었으면 좋겠어요.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데는 좀 많지 않아서 멀리 나가야돼서, 어린이 도서관 영유아에 맞는 책도 빌리기 쉽게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영아부모 3).

저는 사실 도서관 같은 게 조금 가까이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약간 아쉽긴 해요. 가까이 있지 않아서. 뭔가 연회비같이 연회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일 년 동안은 뭐 자유롭게 뭐 도서를 빌리든지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영아부모 4).

라. 의료 서비스

병의원의 접근성은 병원의 이용이 많은 시기인 영아 부모들에게 특히 강조되는 부분으로 특히 전문병원에 대한 요구가 높다.

> 저는 약간 병원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살던 아파트가 바로 뒤에 마트가 있고 병원이 있고 워낙 편리한 곳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병원에 가려고 하면 여기 있기는 하지만 좀 더 크고 괜찮은 병원은 사실 근처에는 없는 것 같아요, 소아과가. 약간 그 점은 아쉽고...(영아부모 1).

> 긴급하게 가야 될 때, 그러니까 주말에 아픈데 만약에 그 근교 병원이 닫으면 저희가 좀 멀리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그건 불편하죠. ... 좀 보완될만한 의료시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영아부모 2).

> 의료 시설은 신도시 특성상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혼 부부라던지, 이제 시작하는 3040대가 많다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큰 병원은 없는데 작은 병원들은 굉장히 어디보다 많은(초등부모 2).

> 아이 기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병원이지 않을까요? (영아부모 4).

마. 교통 편리성

지하철은 육아하는 가정의 교통 접근성을 가늠하는 주요한 척도임을 알 수 있었다.

> 빨리 지하철이 뚫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대중교통으로는 어디 나갈 엄두가 안 나요.(초등부모 1).

> 교통은 저희가 이제 역 근처에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하철을 이용해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제일 좋고요.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게 가까운 데가 있어서(유아부모 3).

> 어른들이 다니긴 너무 좋죠. 지하철역 바로 연결되어있고 버스도 내리면 한 5분에서 10분이면 아파트 단지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좋죠(유아부모 5).

대중교통의 편리성은 육아지원기관에의 접근성과도 연결되는 개념이다.

> 그리고 사실 서울은 교통편도 잘 되어 있고 되게 근접해 있잖아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공동 육아방,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게 구마다 있다든지 그런데 남양주시에는 있지만 한 번 가려면 대중교통으로는 갈 수도 없고 자차로 가도 40분, 그럴 거면 그냥 여기에서 놀고 말지. 제가 남양주시 살면서 그런 시설들이 되게 구색 맞추기다,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거 같아요(유아부모 1).

>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별내 안에서도 어떤 아파트는 모든 버스가 다 지나가고, 근데 우리 아파트는 딱 한 대밖에 안 지나가고, 더 나가야 하고(초등부모 3).

3. 육아를 위한 철학과 가치

가. 주거단지 내 필요한 육아를 위한 철학과 가치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을 중요하게 공유할 철학으로 꼽았다.

아이다움을 일단은 다들 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인정하고, 애들이 밤낮 없이 우는 거 당연한 거고, 이렇게 어린 애 새벽에 우는 거 당연한 거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어쩔 수 없음이 있잖아요(초등부모 1).

어쨌건,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이잖아요. 그걸 왜 인정 못하죠? 제일 기본적인 건데... 사회 전반적인 가치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영아부모 1).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를 키울 때 육아 친화적이라서 아이들이 이해받고 존중 받았으면 좋겠다인거고(초등부모 2).

아무래도 여기가 신혼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다들 아이가 다 있어서 서로서로 존중하고 다 배려하는 것 같아요 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영아부모 3).

주거단지 조성 시 육아친화성에 대한 가치의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저는 아파트를 짓는 것보다는 그 속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계기가 좋고, 잘 해왔던 게 여기에 이 아파트가 지어지기 4년 전부터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임이 없었다면 여기 와서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누구랑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몰랐을 것 같아요(초등부모 2).

나. 철학과 가치의 공유 방법

주거단지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인식의 확산을 중요한 공유방법으로 제시되었다.

저는 가치를 공유하는 방법, 구체적으로 온라인 카페 같은 게 굉장히 매체인 것 같기는 해요. 부모 커뮤니티가 잘 만들어지면 그게 어떤 아이를 키우기 좋은 공간이 되는 첫 걸음인 것 같아요(초등부모 1).

단지 안에서 뭐 프로그램으로 좀 뭔가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안에 뭐 부스를 차리거나 이렇게 저희 공연장도 있잖아요, 공연에 뭐 슬로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주제를 잡아서 하면 그래도 전달이 어느 정도 좀 되지 않을까(영아부모 2).

때로는 역으로 소통의 장이 있어서 육아하는 가족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 아파트 단지 카페(온라인카페) 올라오긴 하더라고요. 애기 울음소리라든가 시끄럽게 쿵쿵쿵거리는 소리 다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서로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영아부모 3).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 교류, 행사가 진행되고 안건이 올라가면 의견을 묻고 입주민들 생각들을 구하는 작업이 꽤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없는 세대도 많다, 너무 아이들 위주로 집중되는 거에 대해 불편해하는 시선이나 의견들이 게시판에 많이 게시되기도 했었거든요. 오히려 전에는 각자가 다 살다 보니 그런 공동체 안에서 애들이 어떻다 그런 말을 할 기회가 없었는데 여기는 모두가 소통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불편한 지점이 나타나면 때때로 부모 입장에서 가끔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초등부모 2)

단지의 조성 시점에서부터 홍보하면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임을 강조하여 육아지원적인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따.

애초에 저는 일단은 입주를 모집할 때 애초에 행복주택을 홍보할 때 그런 문구들이 일단 좀 필요하지 않나 지금은 그냥 신혼부부 지원이나 어 그런 것들만 집중돼서 되다보니까 이 행복주택의 제가 생각하는 취지는 그건데, 어쨌든 취지를 좀 잘못 전달이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애초에 행복주택을 PR할 때 이런 것까지 같이 담아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영아부모 2).

단지 내 공유 공간 등에 육아친화적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가시적인 걸로,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 같은 데에 그런 문구, 아이 키우는 가정을 존중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스터나 스티커를 키움방에다 해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같은 데, 유아차 먼저, 이런 스티커(유아부모 1).

캠페인 장려 같은 건 현수막 붙이든가 엘리베이터에 공지해서 이렇게 공고 같은 거 올리면 좀 더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요?(영아부모 3).

그런 홍보를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뭐 포스터홍보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 영상 볼 수 있도록 작은 TV가 붙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캠페인 같은 거, 뭐 흡연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육아에 대한 광고(유아부모 3).

4. 아버지의 양육참여

가. 아버지 양육참여 정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아버지의 역할 기대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참여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저보다도 퇴근 시간이 빠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 픽업하고 등원하고 하는 거를 아빠가 도와주는 편이어서...(유아부모 1).

아기도 잘 놀아주고. 잘 봐주고. 뭐 집안들도 다 하고 잘 하고 있어요(영아부모 4).

남편이 퇴근하면 무조건 다.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은 주말 거의 한 80%는 남편이 해주고 있어요. 퇴근하면 목욕은 다 남편이 해주고, 저녁 먹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목욕까지 재우는 것까지 하고, 주말에는 밖에 나가서 몸으로 놀아주고 그런 거 해주고 그 외 집안일도 되게 많이 뭐 분리수거나 청소나 그런 거는 많이 해주는 편이라(유아부모 5).

제가 생각하는 육아는 아이에게 집중하는 거 말고요,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저는 육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남편이 마을 활동에 참여하는 게 아이들한테 매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남편이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육아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초등부모 2).

아이와 함께 하는 공간이나 활동의 기회가 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육아하는 아버지들을 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공간이 생기니까 나가긴 하더라고요. 아들하고 주말에 창작소에 가서 게임을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고, 그것도 하고 같이 하려는 시간을 일부러 내서 가더라고요. 저희 남편은(초등부모 3).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래서 아빠도 따로 놀아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놀이터 나가면 다 엄마들이 있으니까, 항상 아빠는 좀 겉돌더라고요. 그런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유아부모 1).

아빠들은 또 놀아주는 방식도 약간 다르거든요(영아 부모 1).

나. 주거단지에서 아버지의 육아참여 활성화 방안

육아참여 독려를 위해 아버지 교육이나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을 고려하였다.

아빠도 뭔가 아빠수업처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빠 교육(영아부모 4).

인식 개선이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엄마에 해당되지 않고 아빠들 관련해서도 저는 같이 교육이나, 강의나, 아니면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주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영아부모 1).

아빠랑 함께하는 뭐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 있으면 애랑 같이 보낼 수, 둘이서만 아빠랑 친해지게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문화센터 프로그램처럼(영아부모 3).

부모 교육이 아니라 아빠 교육. 왜냐하면 아빠들이, 와이프가 하면 잔소리 같은데, 누군가 권위있는 사람이 딱 얘기해주면 아, 이렇게 되는.(초등부모 1).

아버지들끼리 서로 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기보다는 어떤 온라인 강의 같은 거를 듣고 서로 그냥 한마디라도 뭐 남겨본다든지 소감 같은 걸 남겨본다든지 그렇게 영상시청 같은 걸 통해서 뭘 하는 거(유아부모 3).

아빠교실? 아빠수업? 토요일마다 한 5~6회기정도 했었거든요 그런 걸 하면 아이 그런 거 왜 가 싶은데 막상 갔다 오면 되게 재미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애랑 어떻게 놀아야 될지 몰랐는데 거기서 해 준 거 집에 와서

좀 놀아주니까 더 되게 좋았던 것 같다. 아니면 아빠들도 그런 거 아빠 쿠킹 클래스처럼 아빠가 만들어주는 이유식, 약간 이런 거 좀 특별하잖아요(유아부모 5).

5.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 운영

가. 주거단지 내 공동체 경험

주거단지 내에 주민이 참여하여 운영할 수 있는 소모임의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였다.

소모임들 있죠. 소모임을 저희 사무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백 개 학교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걸 좀 더 체계화할 수 있도록 판을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소모임들이 있고 만약에 강사 분이 직접적으로 자기의 강사료나 이런 것들을 다 본인이 만드시는 거예요, 강사 계획안이나 모든 걸 다(초등부모 1).

단지 안에서 문화 센터를 운영을 하는 거죠. 공간은 여기를 이용하고. 부모님들 마음 한 모금, 연극 활동 같은 것도, 엄마들의 모임들도 있고 그거 말고도 소소하게 동아리에서 활동해가지고 4~7세 아이들 공동 육아하는 모임, 그런 모임들이 하나하나 시작되고 있죠(유아부모 2).

저희 돌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마을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돌봄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평일에 1시부터 5시까지 아이들 모아서 여러 가지 문화 활동도 하고 애들끼리 놀이비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이용을 하는데 저희 아이가 거기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는 제가 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거든요(초등부모 5).

맞벌이 부모를 위한 커뮤니티 참여기회에 대해 요구가 있다.

특히 저처럼 일을 하는 그룹군이 따로 있으면 제가 조금 다가가거나 시간 구성에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텐데 아마 지금은 대개는 아마 주로 육아를 하시는 분들 위주의 커뮤니티 같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또 다가가기도 힘든데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가 전혀 없으니까, 저는 좀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기는 어려운 구조인 것 같아요(영아부모 2).

육아지원을 위한 공간의 구성 뿐 아니라 운영을 위한 체계의 구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의 운영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게 한계인 것 같아요. 뭐가 못 되냐면, 이게 필요해, 이게 필요해 해서 공간을 만들어 놨어, 아이들하고 이용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처음에는 이용이 있는데 누군가 그거를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하잖아요(초등부모 1).

(참여자들) 이 사람들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가 막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거고 누군가는 내 너무 친한 친구가 하니까 같이 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하는 사람들은 내 중요한 1%를 다

제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목 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 만들어 주면 이용하길 바라면서(초등부모 1).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시나 구에서 하는 게 오히려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또 이제 주민들이 뽑아서 쓰는 거보다 전체적인 운영을 거기서 맡아 주는 게 아무래도...(영아부모 3).

나. 주거단지 내 커뮤니티 운영 요구

시설이나 커뮤니티 운영의 전담인력 배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약간 육아 도우미처럼 뭐 이런 정보가 있다 저기 가면 뭐가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 그런 방향 제시를 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영아부모 4).

저는 사람들이 바빠서 이용을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바쁘지 않은데도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는 시설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더라고요. 지금 나가야하는데 온라인 신청 안 했지,.. 그냥 말지, 그런(초등부모 4).

보드게임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중 하나에요. 그 공간에 상주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어요(초등부모 2).

육아지원 전담인력의 자격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측면에의 요구가 높고, 엄마의 마음을 공감 가능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시하였다.

전문성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제일 믿음직스러울 것 같은데요, 육아 관련 전공이나. 아니면 그래도 조금 약간 교육이 있어서 교육받은 사람이요(영아부모 3).

일단은 엄마 마음을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 진짜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좀 싫어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도 모르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데는 없는 (엄마들을 위해)... 육아정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유아부모 3).

육아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비용을 분담함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서로 이제 공동으로 해서 조금씩 나눠 내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좀 저렴하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부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오천 원, 만 원 선이면 엄마들이 좋아할 것 같긴 해요.(영아부모 3).

비용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거니까. 그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좀 안된다면 돈을 주고서라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이 발생하더라도...(유아부모 3).

육아를 지원하는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비용을 모든 구성원이 분담하는 안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제로 이용자만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용자만 부담을 하고 자치구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요(영아부모 4).

근데 그게, 아이가 있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아이가 없는 사람이 그걸 낸다고 할 때, 관리비 넣는다고 하면 내가 아이가 있으면야 당연히 내겠지만 내가 아이가 없는데 그 돈을 내고 싶어 할까요? 내 아이들은 다 컸는데?(초등부모 1).

아이가 없는 가정에도 분담이 된다면, 부담이 되고, 아이가 있는 가정도 그거에 대해서 어 나는 그럴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조금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되게 힘드니까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해야 될 것 같아요(유아부모 3).

주체를 일단 아파트 내에서, 주민이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 주체가 나서서 해주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해주면 좋은 거(영아부모 1).

지금 커뮤니티비용 5만원씩 내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상주 활동가들을 원해서 채용하는데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5만원도 충분하고, 비싸다고 느끼는 의견도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해요(초등부모 2).

주민 중에서 주거단지 커뮤니티 운영 활동가를 양성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이런 활동가 분들도 고충이 많으시니까, 활동가 양성하는 부분에도 지원이 있으면 그 지속성에 대해서는 또 보장이 되니까(유아부모 2).

육아지원 전담인력의 배치에 따른 운영비용의 분담에 대해서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실하고, 도움이 된다라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하면, 분담의향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뭐, 한, 수준이 더 올라간다면 좋긴 하겠지만 이만 원까지 뭐 낼 수는 있긴 한데...(영아부모 2).

일단은 비용이 들어가는 입장이면 엄마들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얼마만큼의 자기한테 도움이 되어야 도움이 많이 되면 이만 원을 내도 아깝지 않고 삼만 원을 내도 아깝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이거는 또 상황이 그거 내용을 이제 딱 계획을 하고서 봐야 이제 저도 금액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유아부모 4).

6. 자녀 연령에 따른 지원요구

가. 영아 자녀

무엇보다 영아 자녀를 기르는 가족의 경우 양육과정에서 체감하는 부정적 경험으로 인해 에 대한 환대, 인식의 개선을 희망하였다.

> 이거야말로 환대인데? 따뜻한 시선과 환대(영아부모 1).

영아기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과 부모를 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음 아무래도 그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놀이터라든지 아니면 뭐 아니면 아까 말했던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네 공동육아나눔터 뭐 이런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영아부모 4).

> 6~7개월 애들이 이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보여서 조금 더 어린 아이들도 엄마들끼리 좀 소통할 수 있게 뭔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조금 더 어린 영아들(영아부모 3).

>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건 애기 이유식 하는 시기의 엄마들끼리 모여서 이유식을 매번 만들기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들끼리 식단을 정해서 같이 공유하는 거죠 조금씩 양을 좀 많이 만들어서 같이 메뉴를 다양하게 공유하고, 이제 그런 거 그리고 그게 이유식 그 다음에는 유아 반찬 뭐 유아식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가지고(유아부모 5).

영아기는 처음 부모됨의 갈등도 많은 시기일 수 있어 부부 상담, 부모교육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었다.

> 부부상담 이런 거 너무 좋을 거 같아요(영아부모 1).

> 저는 서울에 살 때 아이가 어렸을 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육아 스트레스 너무 심해서.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나라에서 상담해주고 이러는 거, 애들 진짜 어릴 때 부부관계 되게 소원해지는 시기고...(초등부모 1).

> 인식 개선이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꼭 엄마에 해당되지 않고 아빠들 관련해서도 저는 같이 교육이나, 강의나, 아니면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주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영아부모 1).

나. 유아자녀

돌봄 서비스, 또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 돌봄 서비스. 영유아면 말씀하신 것처럼 주양육자가 결국에는 제일 많이 필요한 시간이니까 돌봄 서비스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유아부모 2).

아무래도 돌봄 기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아이가 있으면서 출산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이 돌봄을 맡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아 정말 어린이집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그게 잘 되어있을 경우에 보육기관에 보낼 수 있다는 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유아부모 3).

좀 음 위급할 경우나 또 긴급하게 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긴급돌봄센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유아부모 4).

활동성이 증가하는 유아들의 안전에 대하 부분과 통학버스, 등하원 버스 대기 장소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안전은 그런 거죠. 택배 차 시간이나 아니면 여기 올라올 수 있는 차를 제한해준다거나 아니면 애완동물을 좀 많이 키우시는데 애완동물 산책, 단지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런 산책하는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그런 위험으로부터. 그리고 외부에서 자전거 타고 들어오시는 것도 좀 막아주시고 그렇게 애들이 더 안심하고, 애들이 뛰어놀기에 안전한. 그런 거. 놀이터도 시설 보수도 되게 잘해주시거든요 망가지면, 그런 것도(유아부모 5).

어린이집 차량 통학 다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승하차 장소를 따로 마련을 해주는 단지들도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그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비가 오고 너무 덥고 너무 추워도 길가에 서서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엄마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차를 기다릴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유아부모 5).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양육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상담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場)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주로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많다보니까 약간 엄마들이 심리적으로 좀 어 우울감? 그런 걸 많이... 애도 어린데 집에만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매. 약간 좀 그런 상담 같은 걸 해주는 곳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유아부모 4).

대부분 혼자 엄마들이 도움 없이 혼자 가정 돌봄 하는 엄마들이 많다보니까 좀 우울하고 좀 힘든 시기가 있으니까 좀 이런 거를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곳. 좀 비슷한 연령 시기의 부모들이 함께 서로서로 위로도 해주고 어 네 고민도 얘기하면...(유아부모 4).

다. 초등학생 자녀

아동 존중의 철학 공유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초등학생 자녀라고 하면 어쨌건 영유아보다는 이제 자기 발로 뛰면서 나가서 혼자 노는 나이가 시작되는 나이들인데, 동등하지 않더라도 저는 존중의 개념? 아이들에게도 사람 대 사람으로 제가 아이를 키우고 공부

할 때 많이 느꼈던 건데, 아이를 손님으로 대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거 같은데, 아동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불편한 시선들이 조금, 이게 존중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마음가짐이(초등부모 2).

돌봄센터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틈새돌봄이라고 짧은 시간 돌봄 제공에 대한 요구가 있으며, 주거단지 내 시니어 인력을 활용한 틈새 돌봄 제공을 도모하기도 하였다.

다 함께 돌봄 센터를 꾸려가서 거기 오픈을 해야죠. 공간이 부족해서, 이용 시간 외에는 다른 아이들이나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픈도 고려하고 있어요(초등부모 2).

저희 안에서 틈새 돌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이가 초등을 다닐 정도면 부모님 한참 직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고, 아이는 아이대로 수시로 아프거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조퇴를 하거나 부모님이 호출을 받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아이 일로 조퇴를 하거나 잠시 외출을 하는 게 여의치 않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보호자 대신 믿을 수 있는 어떤 마을의 사람이나, 믿을 수 있는 어른이 그 아이들을 동행해주거나 그렇게 좀 틈새 돌봄을 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초등부모 4).

처음에 저희가 이런 틈새 돌봄이 필요할 거 같아서, 단지 내에, 인품 시니어 플러스라는 모임이 있거든요. 저희 조합원 중에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8시간에 걸쳐서 기본적인 육아 교육을 해드렸고, 테스트로 일주일간 모집을 받았어요. 원하는 시간대를 해서 선생님들을 배치해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처음 보는 선생님이고, 옆집 할머니이기도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고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됐는데, 생각보다 선생님들이 너무 친근하게 아이들을 잘 봐주셔가지고 부작용 하나 없이 사고 하나 없이 잘 끝냈던 거 같아요. 아이들 집에 가서 하고, 또 중간에 놀이터에 애들 많이 나오니까 애들이 나가고 싶잖아요, 그럼 놀이터 나가면 선생님들 같이 만나서 서로 같이 돌봄하고, 그런 식으로(초등부모 3).

초등학생의 경우 학교 교육이외에 사교육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중요하게 고려하기도 하였다.

사교육 얘기하시는 분들은, 별내가 처음에는 그런 게 많이 약했는데... 상계동에서 유명한 학원 차들이 다니더라고요, 별내로. 저는 약간 사교육 관심이 있었어서 반가웠어요. 별내도 이제 통학이 된다고 하더라고요(초등 부모 2).

제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족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요소, 또한 양육하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생각하는 요소들을 파악해보았다.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해 초등학생 저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족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요소, 또한 양육하기 좋은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생각하는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1. 자녀 양육가구의 어려움과 거주경험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가구는 양육자체에 대한 부담이 가장 컸으며, 자녀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적 부담이,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육체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가구의 고충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어머니가 양육을 맡는 비율이 평균 70%로 아직까지도 어머니의 양육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주로 놀이 참여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들의 육체적 부담뿐만 아니라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이 주거단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의 주거단지 선정에 대한 기준의 차이가 있어, 이를 존중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가 공존하며 만족할 수 있는 주거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주거단지 선정 기준을 보았을 때,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집값이나 직장 근접성의 비중이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보다 높았던 반면에,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보육 및 교육시설, 돌봄을 해줄 수 있는 지인의 존재 또한 주변 자연환경 및 문화시설 등의 비중을 높게 생각하여 주거단지 선택에 대한 기준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보육 및 교육시설, 놀이터 및 공원 근접성에 대한 선호가 자녀가 있는 가구만큼 높았고,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이 멀리 있거나, 놀이터 및 공원이 부족할 경우 주거단지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여, 교육 보육 근거리, 놀이터 및 복지/문화시설에 대한 요구 등은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중시 되는 요소들임을 확인

하고 이를 중심으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자녀연령별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본 육아 친화적 주거단지 요소인 '철학과 가치', '물리적 환경', '육아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의 요소를 중심으로, 자녀 연령별로 바라는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파악해 보았다.

첫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 무엇보다도 바라는 것은 현재 아이를 키우고 있지 않아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아이들을 존중하고 이해해 주는 마음이었다.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일수록 가족 중심, 어린 자녀 위주의 프로그램이나 행사들이 동네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자녀가 없는 가정의 이해가 무엇보다 더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가정뿐 아니라 그렇지 않는 가정의 이해를 바라는 요구가 높았다. 양성평등 및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을 바라는 요구는 영아 자녀의 가족에게 크게 나타났으며,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를 손님처럼 대하라'는 말처럼 아이를 하나하나 존중의 대상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져주기를 바랐다. 이러한 육아친화적 철학 및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주거단지를 조성할 당시부터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공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거단지 내에 육아친화적 문구를 제시하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도 육아친화성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는 등, 아이들의 아이다움을 인정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공유하고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바라는 주거단지 내 물리적 환경은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는 또한 자녀가 없는 가정에서도 해당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으로, 가로등이 충분하고 차, 오토바이 등이 없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주거단지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실외 놀이터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실외 놀이터의 조성 자체 뿐만 아니라, 실외놀이터를 어떻게 구성할지, 실외 놀이터를 육아친화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만남의 중심으로 삼아, 실외 놀이터를 중심으로 주거단지 내의 자녀를 육아하는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외 놀이터 주변의 조경, 벤치 등의 공간마련도 함께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 또한, 순환형 녹지 및 자연생태계 체험 등의 요구도 높아, 아파트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자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 뿐 아니라 정서적 발달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물리적 환경에 대한 요구에 대한 연령별 요구로는 영아자녀의 경우는 실외놀이터 뿐 아니라 실내 놀이터 및, 유아차 이동 편리성을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실외 물리적 환경 중에

서는 인공연못, 폭포 등의 물환경 시설에 대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유아자녀의 경우 등하원 버스대기장소에 대한 요구 등 초등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에게는 차나 오토바이가 다니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로, 자전거 등을 이용한 이동에도 불편이 없는 도로, 실외놀이터 대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이제 혼자 다니게 되는 초등학생들의 도보안전도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육아친화 시설 및 프로그램' 영역 중에서도 돌봄에 대한 우선적 노력이 필요하다. 부모들의 양육 시 요구에서는 영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도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바와 같이, '돌봄'은 영아, 유아, 초등저학년까지 자녀를 둔 부모들의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여성의 취업률이 점차 높아지고, COVID-19로 인한 상황으로 자녀들의 활동이 제한되면서 주거단지와 근거리에서 편하고 쉽게 돌봄을 맡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돌봄의 요구를 단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돌봄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물리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연령별로 적합한 육아 및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소모임을 하고, 어린 자녀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단지 내에서 생활하면서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며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골고루 발달할 수 있도록 하고, 부모님들에게는 아이들이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다. 영유아 중심의 실내 놀이공간과 소모임의 구성은 영유아 부모님들을 모이게 하여 함께 육아할 수 있는 효과를 내고 이를 통해 육아에 대한 대화, 정보교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주거단지 내에 위치한 대여가 가능한 소규모 도서관은 자녀가 있는 가정 뿐만 아니라 자녀가 없는 가족들에게도 높은 요구 정도를 보였다.

다섯째,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양육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주거단지 내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회를 다른 가족과 함께하면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운동을 하거나 게임 등을 함께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체육 공간, 여가 공간 등을 제공한다던지 여러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육아 지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양육하는 방법 및 어려움에 대해 도움받을 수 있도록 필요시 부모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단지 내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 3-44〉 자녀 연령별 특징과 육아친화 주거단지에 대한 요구 내용

구분		영아자녀 가구	유아자녀 가구	초등자녀 가구	맞벌이 가구
철학과 가치	강조 요소	-자녀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 대한 배려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 -자녀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	-자녀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 지향
	특징	노키즈존 등 육아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적 시선과 어려움	활동성이 증가하는 유아의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람 (층간소음, 놀이터 소음)	활동성이 증가하는 초등학생의 발달특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람	맞벌이 상황에서 남편의 육아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음
물리적 환경	강조 요소	-유아차나 휠체어이동에 불편이 없는 도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물 환경 시설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의 안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등하원 버스대기장소	-아이들의 통학로/보행로 안전 -놀이터/공원 등의 공간의 안전 -자전거 등 이동에 불편 없는 도로,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차 오토바이 다니지 않는 환경, -실외놀이터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녹지 -아이 데리고 대중교통 이용편리
	특징	유아차 등 이동에 대한 편리성 필요	바깥놀이를 즐기고 또래친구들을 좋아하는 유아의 특징	독립적인 활동성이 증가하는 초등학생 시기의 안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요구
서비스 인프라	강조 요소	-보육기관 교사 대 아동 비율 -어린이 도서관 -영유아 실내 놀이방 -공동육아 공간 -장난감 대여시설	-보육교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영유아 긴급돌봄 -공동육아 공간 -유아 실내 놀이방 -학원시설	-보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 -학원시설 -도서관 -실내 체육시설 -청소년을 위한 공간	-보육제공시간 양육자 근무하기에 충분해야
	특징	영아를 위한 특화 서비스에의 요구	유아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서비스 요구	학령기 특성이 반영된 서비스 요구 증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보육지원 요구
인적 네트워크	강조 요소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공동체 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 -육아를 지원하는 공동체 활동 있음	-공동체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이용 편리하게 조성	-공동체 활동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 -육아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특징	양육정보, 부모교육, 육아상담에 대한 요구	자녀의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이 가능함에 따라 부모의 공동체 활동의 요구증가	가족이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과 활동에 대한 요구 증가	상대적으로 육아관련 정보가 적다고 체감하여 지원요구 높음

3. 육아친화 코디네이터 운영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해 주거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육아관련 공간 및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로서 '육아코디네이터'제도를 제안하였고 이에 대한 요구를 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육아친화 주거단지 내에서 제공하는 공간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육아관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육아관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및 책임자가 필요하다. 최근 신규 조성 주거단지에서는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족에 위한 육아 공간을 마련하지만, 이에 대한 활용과 운영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해 공간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간을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 활용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으로 '육아 코디네이터' 제도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육아관련 커뮤니티 시설 운영 시 실무자가 필요함에 전체 응답자 중 72%가 찬성하였다.

둘째, 육아 코디네이터의 운영주체와 운영방법 및 운영자격에 대해서는 주거단지의 규모와 구성 가구의 성격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조사에 따르면 '육아관련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고,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전일제 근무'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정도가 각각 가장 높았다. 또한, 단지 내 주민 협의체의 활동이 활발하다면,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협의 하에 단지 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부모 중에서 '육아코디네이터'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동의도 상당부분 있어 다양한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육아코디네이터 운영으로 인한 비용분담주체 및 비용정도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육아코디네이터 운영을 중심으로 단지 내에서 요구가 높은 영유아 긴급돌봄 제공 및 실내 놀이방 운영, 초등돌봄 제공 실현이 가능하다.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서 놀 수 있도록 영유아를 위한 실내 놀이방 및 놀이공간을 마련하고,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상주하고 있는 육아코디네이터에게 시간당 돌봄을 맡기고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운영이 가능하며 수요가 많을 경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채용도 가능하다. 초등 돌봄의 경우는 반일제 운영에 대한 수요가 높아 시간을 정해두고 초등돌봄이 주로 필요한 시간당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넷째, 육아코디네이터 운영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육아지원 서비스들을 연계하여, 주거단지 내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표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서비스 중에서 특히 주거단지 내에서 제공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높은 도서 및 장난감 대여와 부모교육, 가족교육, 가족상담 등 교육과 상담이 이루

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 육아지원서비스들은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접근성의 문제로 지역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의 육아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들이 거주하는 주거단지에 주기적으로 파견을 나가 주거단지 내 공간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04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체크리스트

본 장에서는 삶의 공간, 주거단지에서의 육아친화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는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2019년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25]을 토대로 포럼에서 제시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협동연구진과의 협력으로 주거단지로의 접목을 시도한 것이다. 체크리스트 초안은 아동학, 주거학, 건축학, 교육학, 행정실무자 등 각계 전문가 자문(약 15~20명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되었다. 구성된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체크리스트는 향후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시점에서는 '아이기르기 좋은 주거단지'로 만드는데 필요한 점검요소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것이며, 이미 조성된 단지의 경우에는 육아친화성을 향상하기 위해 진단과 보완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다.

25) 부록 2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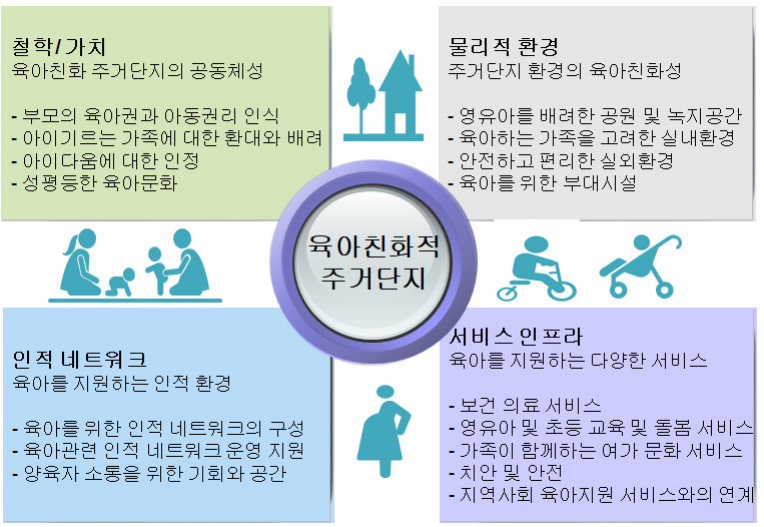
제1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도출 근거

1.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구성 요소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과연 아이기르기 좋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이에 3장까지 연구의 내용에 기초하여 관련 선행연구와 연구과정에서의 양육자 대상 면담,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도출되는 육아친화마을의 요소는 다음 〈그림 4-1〉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이는 아이기르기 좋은 주거단지,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체크리스트의 구성 근거이다.



[그림 4-1] 육아친화 주거단지 구성요소

2.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철학적 요소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은 아이와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환대와 아이 기르는 과정을 존중해주는 사회적 합의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아이를 기르는 육아과정에 여러 편견과 곤란 상

황에 직면하기도 한다. 부모의 양육권과 성장하는 자녀의 아동권이 존중되는 사회적 가치 공유가 요구된다.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에 내재되어야 할 철학과 가치와 관련하여 강조되었던 내용을 압축하면 세 가지 정도였다. 첫째,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 대한 환대의 가치이다. 둘째,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가치이다. 셋째, 성평등한 육아문화의 가치이다(권미경 외, 2019. 224).”

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양육자들은 면담과정에서 아이 기르고 있음에 대해 환대받고 싶다고 표현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환대는 “반갑게 맞아 정성껏 후하게 대접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26] 즉 양육자들이 바라는 환대는 내가 사는 공동체에서 아이를 기른다는 이유로 배제나 배척되지 않고, 구성원으로 포함되어 반가운 존재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환대를 통해 육아하는 가족이 단지에서 소속감을 갖게 되고 서로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다.

나.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은 ‘아직 아이이니까’로 이해하자는 의미이다. 영유아·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고, 어른의 시각이 아닌, 아이의 말과 행동을 ‘아이다움’으로 아이의 발달 상황에 맞춘 개별성 그 자체로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큰소리로 우는 것도, 다소의 층간소음의 발생도, 놀이터에서의 아이들의 소리들도 아이다음으로 받아들여 주는 주거단지에 대한 희망이다.

다. 성평등한 육아문화

성평등한 육아문화는 주거단지의 모든 공간, 서비스, 가치가 성평등적으로 제공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는 “독박육아(혹은 고립육아)”라는 단어에 나타나듯 육아가 주로 여성 양육자의 일로 여겨지고 있음에 대한 변화 요구라 할 수 있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육아하는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모두를 고려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주거단지에서의 양육 지원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남성 양육자들의 참여가 가

---

2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환대’ 검색 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pageSize=10&searchKeyword=%ED%99%98%EB%8C%80(2021.1.5 인출)

능하도록 설계되어야한다. 또한 이러한 공간과 서비스에 대한 요구뿐 아니라 주거단지 구성원들의 육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남성의 여성의 육아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요구하는 캠페인 등을 추진할 필요도 있다.

라. 육아친화 가치 확산

신규 단지는 물론이고 기존 단지에서도 구성원들이 육아친화적 가치를 공유하기는 쉽지않다. 이에 주거단지 내에서 홍보나 캠페인이라든지, 교육 기회라든지, 콘서트 등을 활용하여 아이와 아이 기르는 가족을 존중하고, 성평등한 육아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회를 갖는 것이다. 이는 중심축이 필요하고 향후 본 과제에서 제안하는 육아지원 코디네이터가 이런 기회를 기획할 수 있다.

〈표 4-1〉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철학적 요소 체크리스트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철학과 가치	아이와 가족에 대한 환대	공동체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고 느낀다.
			나와 가족이 마을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아이다움 인정	아동의 특성 인정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놀이터 소음 및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 등)
	성평등한 육아문화	성평등한 공간구성	주거단지 내 공용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다. (남성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비치 등)
		성평등한 서비스	주거단지 내 육아지원 서비스는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다. (남성 양육자 참여 놀이 프로그램)
	육아친화 가치 확산	육아친화 기회제공	주거단지 내 육아친화 환경 조성 기회가 있다. (육아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 남성양육자의 육아 참여 독려 모임, 행사 등)

3.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물리적 환경 요소

육아친화 주거단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이 키우기에 적정한 규모와 쾌적한 환경을 갖춘 세대 전용공간, 안전하고 이동이 용이한 외부환경을 계획하고, 단지 주변 근린환경이 양호하고 육아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이용 및 접근성이 우수해야 한다.

주거단지에 조성되는 녹지, 생물 서식 공간, 생태습지, 놀이터 등 자연환경은 어린이와 보호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조성해야 한다. 특히 각 주거동의 출입구와 주거단지 내부 어린이집, 주차장 등의 주요 시설의 위치와 유아차, 킥보드, 자전거 등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과 보행환경을 고

려하여 물리적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가. 녹지 환경

녹지 환경은 어린이 신체 건강 개선(Bell et al., 2008 ; Sebire et al., 2011), 정서적 행복(J.Harvey et al., 2020), 주의력 향상(Huynh et al., 2013; Shannon et al., 2019), 인지 능력, 학업 참여, 성취도 증대(Payton et al., 2008), 사회 관계성 발달(이현정, 2014) 등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에 따라 단지 내 어느 곳에서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녹지를 이용하여 쓰레기장 등의 기피시설로부터 어린이들을 시각적,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보차 분리를 통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나. 실내환경

실내환경은 생활의 기본이 되는 공간이며 육아 및 양육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다. 따라서 아이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환기시설 및 친환경 소재의 마감재 등을 사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아이를 안전하게 키울 수 있도록 안전설계가 적용되어야 하며, 충분한 수납공간 및 자녀성장을 고려한 가변형 디자인을 적용하여 육아하기 편리한 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특히, 육아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계획 및 기술적 고려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다. 외부환경

실외 환경은 기본적으로 연령, 성별, 장애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이나 유아차가 이동하기 편리한 보행도로 조성 및 안전하게 통학차량 등에서 승하차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인근에 지하철이나 버스, 공공자전거 등의 다양한 대중교통을 아이들을 포함한 모두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라. 주민공동시설

육아친화단지에는 거주하고 있는 단지 내에 육아를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복리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중요하다.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녀양육

가구의 육아 관련 고충과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유치원, 어린이집, 돌봄센터, 어린이 놀이터 등의 육아지원시설의 설치 뿐만 아니라 법정시설 외의 육아세대의 자연스러운 커뮤니티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 장난감 대여소 등 다양한 육아지원시설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공간을 설치하여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배려 및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4-2〉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물리적 환경 요소 체크리스트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물리적 환경 (단지내)	녹지 환경	자연환경 접근성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공원/녹지 공간(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이 있다.
		녹지기반 시설 안전성	녹지를 이용하여 쓰레기장, 재활용장 등 기피시설을 차폐하거나 분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녹지, 친환경시설 기반의 보차도 분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용 편의성	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세대 실내환경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이 반영되어 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바닥 두께, 기능성 바닥재, 공간배치 등)
		친환경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실내 마감재를 사용하였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장치가 적용되었다.
		편리한 구조	충분한 수납공간, 자녀성장을 고려한 가변형 구조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내부 안전설계	아이맞춤형 치수, 방문 손끼임 방지장치, 모서리 마감처리, 콘센트 캡 설치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가 적용되었다.
	외부 환경	외부 안전설계	놀이터 CCTV, 비상벨 설치 등이 적용되었다.
			단지 및 주차장 진입로, 단지 내부 등에 보차분리가 적용되었다.
		보행 편의성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하다.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이용 편의성	아이와 함께 사용가능한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사용가능한 지붕있는 휴게시설(벤치, 정자)이 설치되어 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시설이 있다.
		대중교통 접근성	인근에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대중교통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1개 이상의 대중교통 인프라(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가 있다.
	주민공동 시설	육아지원 시설	단지 내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다.
			단지 내에 영유아 지원시설(영유아 놀이방,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대여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단지 내에 초등학생을 위한 지원시설(돌봄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문화시설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있다.
		체육시설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다.
		놀이시설	단지 내에 연령별 실외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다.
		주차장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4.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서비스 인프라 요소

육아친화 주거단지에서 육아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단지 주변 다양한 육아 지원 자원 및 서비스, 육아하기 양호한 근린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살고 있는 주택단지 주변에 유해한 시설은 없는지, 육아에 필요한 교육·문화·의료 시설 등이 얼마나 있는지, 이동은 양호한지 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가.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의 경우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이다. 성장하는 영유아(아동)들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작스럽게 아픈 경우가 많아 보건·의료 서비스 인프라는 영유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가까운 곳에 병의원이 있음을 아이 기르기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양육자들은 감기 등의 일상적인 질병에 대처하거나 예방접종을 위한 개인병원의 필요성 뿐 아니라 긴급한 사고나 질병 등의 대처하기 위해 대형병원의 필요성도 아울러 요구하였다. 또한 주말에 문을 여는 병의원이나 약국에 대한 수요도 높았다.

나. 보육·교육 돌봄 서비스

육아하는 가정에 가장 필요한 지원은 단연 돌봄과 교육 관련 부분이다. 특히 가까운 거리에 보내고 싶은 양질의 보육·교육 시설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영유아 자녀를 둔 경우에는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원이 충분하여 이용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 특히 국공립 기관에의 선호

가 높아 정원 충분 정도가 육아친화적 척도로 고려된다. 또한 양육을 지원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등의 공공기관이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우 긴급 돌봄으로 시간제보육을 제공하기도 한다.

다. 초등 교육 및 돌봄 서비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꿈의 주거단지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표현이 나올 만큼 교육기관의 우수성과 근접성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이와 더불어 초등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을 지원하는 기관의 유무와 프로그램의 우수성도 양육 가정이 육아친화성을 체감하게 하는 부분이다. 또한 초등학생의 경우는 성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차도와 인도가 안전하게 분리되어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며, 차량 속도제한 표시 등이 고려된 등하굣길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라. 치안 안전 서비스

양육자들은 활동성이 많고 위험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영유아와 초등 자녀의 안전에 관심이 높다. 자녀가 성장할수록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일들이 많아지므로 안전한 환경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 학대와 폭력이 빈번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그 경향성이 심화되고 있다. 단지 주변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는 것도 부모들의 고려 사항이다. 안전을 위한 물리적 환경으로는 CCTV의 설치 정도가 고려되며, 사각지대가 없고 단지 내 밤길이 안전하다고 체감되는 지가 중요하다.

마. 여가문화 관련 서비스

여가·문화 공간도 공원녹지 서비스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면담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핵심 구성요소를 접근성, 다양성, 공간과 시설의 질 등으로 가늠할 수 있다. 여가·문화 공간은 어린이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 박물관, 미술관 등으로 가족들이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여가문화 서비스에의 접근성은 물리적 접근성과 더불어 적정 비용으로 이용 가능한지도 고려사항이다. 여가·문화 공간에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있고, 그 이용시간과 방법이 편리한지, 공간의 구성이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는 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3〉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요소 체크리스트

구분	핵심 구성 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서비스 인프라 (인근환경 포함)	보건 의료	의료시설 다양성	인근에 보건소 및 병·의원이 다양하게 있다.
		소아과 접근성	인근에 영유아를 위한 병·의원이 있다.
		긴급의료 접근성	인근에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가능한 병원이나 약국이 있다.
	영유아 보육 교육 및 돌봄	영유아기관 충분성	주거단지와 인근 보육(교육)시설의 정원이 충분하다.
		영유아기관 접근성	보육(교육) 시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거리에 있다.
		육아지원기관 접근성	인근에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공공시설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등)
		긴급돌봄 접근성	긴급하게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인근에 있다.
	초등 교육 및 돌봄	초등기관 접근성	아동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
			초등학교 등굣길이 안전하다 (보차도가 안전하게 분리, 유해시설 없음, 횡단보도 안전, 차량 속도제한 표시 등).
		초등돌봄 접근성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기관이 이용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치안 안전	단지 주변 안전점검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보행 안전성	단지 내 밤길이 안전하다(어두운 사각지대가 없다).
		단지 주변 시설	단지 주변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여가/문화 공간	여가/문화공간 접근성	인근에 여가/문화 공간이 있다.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등)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하다.
		여가/문화공간 다양성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키즈까페, 실내놀이 공간 등)
		여가문화공간의 육아친화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없게 조성되어 있다. (주차장 및 수유시설 동선 등)

5.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인적 네트워크 요소

인적네트워크의 핵심 구성요소는 크게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과 구성원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양육자들의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함께 아이를 기르는 것”과 관련 있다. 아이를 기르는 가정 간 또는 아이를 기르는 가정이 단지 내 구성원들과 연결이 되어 서로 의지할 수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가. 단지 내 육아지원

단지 내에 육아지원을 위한 행정이나 인적 구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주거단지 행정지원, 정보접근 등을 그 핵심 요소로 삼을 수 있다. 지원체계는 육아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육아지원코디네이터)이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육아의 과정은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한다. 양육자는 육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들을 편리하게 통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유아와 초등자녀의 양육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고 체감함은 양육자의 양육역량감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주거단지가 아이기르기 좋은 곳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지도 고려될 요소이다.

나. 인적 네트워크 구성

주거단지 내에서 가족처럼 의지하면서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직이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아이를 기르기 좋은 주거단지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자녀 또래 부모들과 양육 정보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 모임이 있는 지, 아이를 기르는 데 함께 할 수 있는 주민활동이 있는 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다. 육아를 위한 소통공간

양육자들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희망한다.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처럼 오프라인에서 양육자 간 만남과 소통을 필요로 한다. 지역맘 카페처럼 온라인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공간도 필요하다. 그러한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오프라인의 공간이 양육자들에게 더불어 양육하고 있다는 느낌과 함께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

로 체감된다. 또한 구성원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들은 주차시설이나 수유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 육아친화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표 4-4〉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관련 요소 체크리스트

구분	핵심 구성 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인적 네트워크	단지 내 육아 지원	전담인력 여부	육아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이 있다.
		육아정보 제공	육아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주민 참여성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인적 네트워크 구성	주민 연결성	주거단지에 양육 정보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 모임이 있다.
		주민 활동 여부	아이를 기르는 데 함께 할 수 있는 주민활동이 있다.
	육아를 위한 소통 공간	소통방법의 다양성 (온라인/오프라인)	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있다.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단지 내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 공간 이 있다.
		소통공간의 육아친화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수유시설, 주차시설 등).

제2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체크리스트의 구성

1.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주거단지를 기준으로 앞서 논의해 온 요소들이 아이 기르는 일, 육아를 지원하는 환경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진단 가능한 체크리스를 1절에서 제시한 틀과 고려 요소들을 반영하여 다음 〈표 Ⅳ-2-1〉과 같이 제시하였다.

가. 구성 과정

연구진이 선행연구와 면담결과 설문조사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체크리스트(안)을 만들었다. 구성 초안은 아동학, 건축학, 환경학, 주거공학, 교육학, 행정학 등 전문가 20인의 서면자문으로 제시된 의견[27]을 반영하여 수정되었다.

나. 내용

본 체크리스트는 주거단지 내 환경에 대한 육아친화적 요소를 진단하기 위한 도구이다.철학과 가치, 물리적 환경, 서비스 인프라, 인적네트워크로 구분하여 고려되는 핵심구성요소를 제시하고 그를 가늠할 수 있는 측정항목을 제시하였으며, 그 진단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구체화 하였다. 진단은 “주거단지에서는 ….. ” 체크리스트 항목 마다에 ‘그렇다(있다)’ 또는 ‘아니다(없다)’에 표시하도록 한다.

이는 신규단지 조성 시에는 공급자 및 조합구성원에 의해 조성 시점에서 주거단지의 육아친화성 증진을 위해 고려할 진단 요소를 진단할 수 있다. 또한 기존단지의 경우에는 주거단지의 육아친화성 증진 위해 거주자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는데 활용 될 수 있다.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따라서 기존단지에서 적용 가능한 부분과 신규 단지 조성 시 적용 가능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27) 육아친화 체크리스트에 대한 서면자문은 2021년 1월 19일 ~1월 23일 진행하였고 결과는 부록으로 제시함.

〈표 4-5〉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진단		적용	
				그렇다 (있다)	아니다 (없다)	기존 단지	신규 단지
철학과 가치	아이와 가족에 대한 환대	공동체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고 느낀다.			●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 공간이라고 느낀다.			●	
	아이다움 인정	아동의 특성 인정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놀이터 소음 및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 등)			●	
	성평등한 육아문화	성평등한 공간구성	주거단지 내 공용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다. (남성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 대 비치 등)			●	●
		성평등한 서비스	주거단지 내 육아지원 서비스는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다. (남성 양육자 참여 놀이 프로그램)			●	
	육아친화 가치 확산	육아친화 기회제공	주거단지 내 육아친화 환경 조성 기회가 있다. (육아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 남성양육자의 육아 참여 독려 모임, 행사 등)			●	
물리적 환경 (단지내)	녹지 환경	자연환경 접근성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공원/녹지 공간(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이 있다.			●	●
		녹지기반 시설 안전성	녹지를 이용하여 쓰레기장, 재활용장 등 기피시설을 차폐하거나 분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	●
			녹지, 친환경시설 기반의 보차도 분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	●
		이용 편의성	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	●
			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	●
			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	●
	세대 실내환경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이 반영되어 있다.			●	●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진단		적용	
				그렇다 (있다)	아니다 (없다)	기존 단지	신규 단지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바닥 두께, 기능성 바닥재, 공간배치 등)				
		친환경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실내 마감재를 사용하였다.			●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장치가 적용되었다.			●	●
		편리한 구조	충분한 수납공간, 자녀성장을 고려한 가변형 구조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	●
		내부 안전설계	아이맞춤형 치수, 방문 손끼임 방지장치, 모서리 마감처리, 콘센트 캡 설치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가 적용되었다.			●	●
	외부 환경	외부 안전설계	놀이터 CCTV, 비상벨 설치 등이 적용되었다.			●	●
			단지 및 주차장 진입로, 단지 내부 등에 보차분리가 적용되었다.			●	●
		보행 편의성	보행도로는 유모차, 휠체어, 자전거 등이 다니기 편리하다.			●	●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	●
		이용 편의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사용가능한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사용가능한 지붕있는 휴게시설(벤치, 정자)이 설치되어 있다.			●	●
		통학버스 승하차 시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시설이 있다.			●	●
		대중교통 접근성	인근*에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
		대중교통 인프라	2개 이상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에 접근할 수 있다.			●	●
	주민공동시설	육아지원시설	단지 내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다.			●	●
			단지 내에 영유아 지원시설(영유아 놀이방,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대여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단지 내에 초등학생을 위한 지원시설(돌봄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	●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진단		적용	
				그렇다 (있다)	아니다 (없다)	기존 단지	신규 단지
		문화시설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있다.			●	●
		체육시설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다.			●	●
		놀이시설	단지 내에 연령별 실외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다.			●	●
		주차장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	●
서비스 인프라 (인근환경 포함)	보건 의료	의료시설 다양성	인근*에 보건소 및 병·의원이 다양하게 있다.			●	●
		소아과 접근성	인근*에 영유아를 위한 병·의원이 있다.			●	●
		긴급의료 접근성	인근*에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가능한 병원이나 약국이 있다.			●	●
	영유아 보육 교육 및 돌봄	영유아기관 충분성	주거단지와 인근* 보육(교육)시설의 정원이 충분하다.			●	●
		영유아기관 접근성	보육(교육) 시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거리에 있다.			●	●
		육아지원기관 접근성	인근*에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공공시설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등)			●	●
		긴급돌봄 접근성	긴급하게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인근*에 있다.			●	●
	초등 교육 및 돌봄	초등기관 접근성	아동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			●	●
			초등학교 등굣길이 안전하다 (보차도가 안전하게 분리, 유해시설 없음, 횡단보도 안전, 차량 속도 제한 표시 등).			●	●
		초등돌봄 접근성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기관이 이용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	●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	●
	치안 안전	단지 주변 안전점검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	●
		야간 안전성	밤에도 어두운 사각지대가 없어 야간 보행이 안전하다.			●	●
		단지 주변 시설	단지 주변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	●
	여가/문화	여가/문화공간 접근성	인근*에 여가/문화 공간이 있다.			●	●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진단		적용	
				그렇다 (있다)	아니다 (없다)	기존 단지	신규 단지
	공간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등)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하다.			●	●
		체험형 여가/문화공간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	●
		여가문화공간의 육아친화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	●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없게 조성되어 있다. (주차장 및 수유시설 동선 등)			●	●
인적 네트워크	단지 내 육아 지원	전담인력 여부	육아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이 있다.			●	
		육아정보 제공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육아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	
	인적 네트워크 구성	주민 참여성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	
		주민 연결성	주거단지에 양육 정보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 모임이 있다.			●	
		주민 활동 여부	육아를 위한 우리단지만의 주민 활동이 있다. (운영위원회 등)			●	
	육아를 위한 소통 공간	소통방법의 다양성 (온라인/오프라인)	단지 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있다.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	●
			단지 내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 공간이 있다.			●	
		소통공간의 육아친화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수유시설, 주차시설 등).			●	●

*인근: 인근이란 도보로 10분 이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말함.

2.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활용 방법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는 기존 단지에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 참여하여 개선점을 찾기 위한 도구로 활용가능하다. 이 과정은 주민 참여 워크숍이나 설문조사의 방법 등으로 진행하며, 수요자가 참여하여 주거단지의 육아친화 정도를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구체화한다. 신규조성 단지에서는 조성계획 시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의 항목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활용을 위하여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를 리플릿 형태[28]로 제작하였다.

가. 체크리스트 항목 진단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는 주거단지의 철학과 가치, 물리적 환경, 서비스 인프라, 인적 네트워크 등 영역에 대한 총 6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의 내용이 주거단지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며 '그렇다(있다)' 또는 '아니다(없다)'에 표시한다.

나. 충족 항목 수 확인

각 영역별로 전체 항목 중 '그렇다(있다)' 에 충족하였다고 표시한 항목의 수를 〈표 4-6〉에 기록한다. 이러한 진단 자료가 모이면 주거단지 간 육아친화성 정도의 비교도 가능할 수 있다.

〈표 4-6〉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충족 항목 수

구분	충족 항목 수
철학과 가치	6개 항목 중 ( ) 개
물리적 환경	27개 항목 중 ( ) 개
서비스 인프라	19개 항목 중 ( ) 개
인적 네트워크	8개 항목 중 ( ) 개
전체	60개 항목 중 ( ) 개

다. 불충족 항목 내용 확인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에 체크한 내용들을 분야별로 살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과정이다.

28) 〈부록 6〉으로 제시함.

철학과 가치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물리적 환경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서비스 인프라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인적 네트워크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

라. 개선방안 찾기

이러한 진단의 과정을 통해 '아이 기르기 좋은'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하는 부분이 보인다.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지를 논의하면서 계획으로 발전시킨다.

3.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활용 예시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를 서울시에 소재한 민간아파트와 대전시 소재한 공공임대아파트 2군데에 적용하여 보았다. 이는 이 과정을 통해 발견되는 적용의 어려움을 찾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함이다.

가. 기존단지 진단을 위한 시범조사

1) 서울시 소재 민간아파트 R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표 4-7〉 조사단지(R 아파트) 개요

입주일자	2011년 4월	
건물형태	계단식, 10개동	
세대수	총 844세대	
주택형 (Type)	79㎡(194세대), 80㎡(38세대), 111㎡(422세대), 150㎡(190세대)	

〈표 4-8〉 조사단지(R 아파트)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진단

구분	핵심 구성 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진단
철학과 가치	아이와 가족에 대한 환대	공동체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고 느낀다.	○
			나와 가족이 마을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
	아이다움 인정	아동의 특성 인정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놀이터 소음 및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 등)	○
	성평등한 육아문화	성평등한 공간구성	주거단지 내 공용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다.(남성화장실 내 기저귀 갈이대 비치 등)	없음
		성평등한 서비스	주거단지 내 육아지원 서비스는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다.(남성 양육자 참여 놀이 프로그램)	프로그램 없음
	육아친화 가치 확산	육아친화 기회제공	주거단지 내 육아친화 환경 조성 기회가 있다. (육아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 남성양육자의 육아 참여 독려 모임, 행사 등)	없음
물리적 환경 (단지내)	녹지 환경	자연환경 접근성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공원/녹지 공간(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이 있다.	○
		녹지기반 시설 안전성	녹지를 이용하여 쓰레기장, 재활용장 등 기피시설을 차폐하거나 분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
			녹지, 친환경시설 기반의 보차도 분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
		이용 편의성	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
			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
			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
	세대 실내환경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이 반영되어 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바닥 두께, 기능성 바닥재, 공간배치 등)	○
		친환경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실내 마감재를 사용하였다.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장치가 적용되었다.	없음
		편리한 구조	충분한 수납공간, 자녀성장을 고려한 가변형 구조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
		내부 안전설계	아이맞춤형 치수, 방문 손끼임 방지장치, 모서리 마감처리, 콘센트 캡 설치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가 적용되었다.	없음
	외부 환경	외부 안전설계	놀이터 CCTV, 비상벨 설치 등이 적용되었다.	○
			단지 및 주차장 진입로, 단지 내부 등에 보차분리가 적용되었다.	○
		보행 편의성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하다.	○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
		이용 편의성	아이와 함께 사용가능한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

구분	핵심 구성 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진단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사용가능한 지붕있는 휴게시설(벤치, 정자)이 설치되어 있다.	○
		통학버스 승하차 시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없음
		대중교통 접근성	인근에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대중교통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1개 이상의 대중교통 인프라(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가 있다.	○
	주민공동 시설	육아지원시설	단지 내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다.	○
			단지 내에 영유아 지원시설(영유아 놀이방,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대여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없음
			단지 내 초등생을 위한 지원시설(돌봄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없음
		문화시설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있다.	없음
		체육시설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다.	○
		놀이시설	단지 내에 연령별 실외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다.	○
		주차장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없음
서비스 인프라 (인근환경 포함)	보건 의료	의료시설 다양성	인근에 보건소 및 병·의원이 다양하게 있다.	○
		소아과 접근성	인근에 영유아를 위한 병·의원이 있다.	○
		긴급의료 접근성	인근에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가능한 병원이나 약국이 있다.	○
	영유아 보육 교육 및 돌봄	영유아기관 충분성	주거단지와 인근 보육(교육)시설의 정원이 충분하다.	○
		영유아기관 접근성	보육(교육) 시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거리에 있다.	○
		육아지원기관 접근성	인근에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공공시설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등)	○
		긴급돌봄 접근성	긴급하게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인근에 있다.	○
	초등 교육 및 돌봄	초등기관 접근성	아동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	○
			초등학교 등굣길이 안전하다(보차도가 안전하게 분리, 유해시설 없음, 횡단보도 안전, 차량 속도제한 표시 등).	없음
		초등돌봄 접근성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기관이 이용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없음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판단이 어려움
	치안 안전	단지 주변 안전점검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

구분	핵심 구성 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진단
		보행 안전성	단지 내 밤길이 안전하다(어두운 사각지대가 없다).	○
		단지 주변 시설	단지 주변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없음
	여가/문화 공간	여가/문화공간 접근성	인근에 여가/문화 공간이 있다.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등)	○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하다.	○
		여가/문화공간 다양성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키즈까페, 실내놀이 공간 등)	○
		여가문화공간의 육아친화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없게 조성되어 있다. (주차장 및 수유시설 동선 등)	○
인적 네트워크	단지 내 육아 지원	전담인력 여부	육아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이 있다.	없음
		육아정보 제공	육아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없음
		주민 참여성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다양하진 않음)
	인적 네트워크 구성	주민 연결성	주거단지에 양육 정보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 모임이 있다.	○(단지모임은 아님)
		주민 활동 여부	아이를 기르는 데 함께 할 수 있는 주민활동이 있다.	없음
	육아를 위한 소통 공간	소통방법의 다양성 (온라인/오프라인)	공동체 활동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있다.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없음
			단지 내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 공간 이 있다.	○(단지모임은 아님)
		소통공간의 육아친화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수유시설, 주차시설 등).	○

① 공원 및 녹지환경

산책로 및 조경환경이 가족친화적으로 조성되어있고, 안전성과 이동편의성을 고려하여 조성되어 있다.






② 실내환경



층간소음 문제가 심각하지 않으며, 친환경 실내 마감재를 사용하였다. 내부 안전설계와 가변형 구조 등은 별도 적용되지 않았으며 사용 중에 레일 등을 설치하여 사용 중인 세대도 있다. 건설시점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취득하였다.

③ 실외환경

주변에 지하철 2개 노선 2개역(제기동역, 용두역) 및 버스정류장 3개소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서울시 공용자전거 이용이 가능하며, 용두근린공원이 인접하고 정릉천 보행로를 따라서 청계천 산책로까지 이동가능하다. 차량용 진출입로와 보행 진출입로로 출입구를 분리하여 보차분리를 동선 및 마감으로 실시하였다.





④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은 지하 체육시설(코로나로 미운영)이 있으며,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에 CCTV 설치되어 있다. 단지 내 어린이집(국공립)이 설치되어 있다.







⑤ 서비스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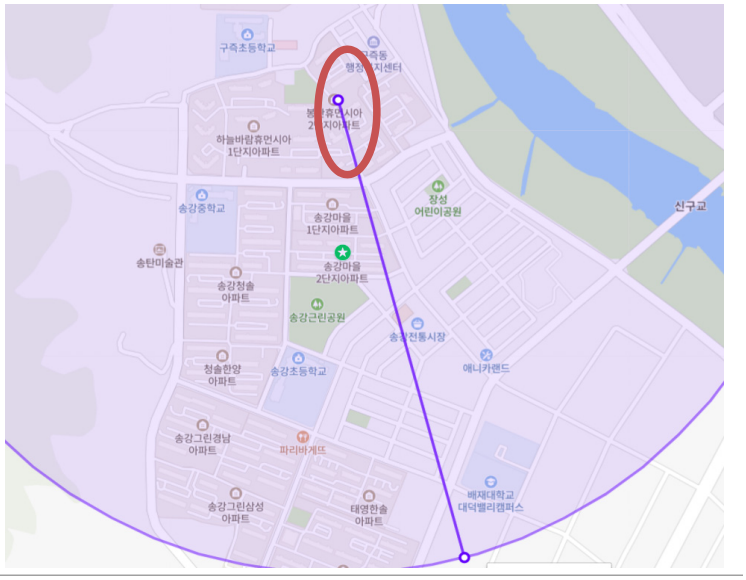
약 500m (도보 8분)거리에 용두초등학교, 시립동부병원 등이 위치하며, 주민센터, 소아과, 치과, 한방의원 등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동대문구청이 500m 이내 도보권이며, 서마장어린이공원, 청계천 박물관 등이 500m이내 도보권에 위치, 성동복지관 아이꿈누리터, 경동시장 내 희망놀이터 등이 도보 10분 이내에 위치한다.

⑥ 인적 네트워크

단지 내 커뮤니티는 별도로 없으나, 동대문구 지역맘 카페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2) 대전시 소재 공공임대 B[29)]

〈표 4-9〉 조사단지(B 아파트) 개요

준공 일자	2009년 7월	
건물형태	계단식, 8개동	
세대수	총 853세대	
주택형 (Type)	46.93m2(125세대) 51.6m2(145세대) 51.75m2(140세대) 59.96m2(443세대)	

29) 본 아파트 단지는 코로나 상황의 지속으로 입주민 면담이 어려워, 철학과 가치, 실내환경, 인적네트워크 부분에 대한 진단이 실시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표 4-10〉 조사단지(B 아파트)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진단

구분	핵심 구성 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진단
물리적 환경 (단지내)	녹지 환경	자연환경 접근성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공원/녹지 공간(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이 있다.	○
		녹지기반 시설 안전성	녹지를 이용하여 쓰레기장, 재활용장 등 기피시설을 차폐하거나 분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없음
			녹지, 친환경시설 기반의 보차도 분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없음
		이용 편의성	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
			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
			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없음
	외부 환경	외부 안전설계	놀이터 CCTV, 비상벨 설치 등이 적용되었다.	○
			단지 및 주차장 진입로, 단지 내부 등에 보차분리가 적용되었다.	○
		보행 편의성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리하다.	○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없음
		이용 편의성	아이와 함께 사용가능한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없음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사용가능한 지붕있는 휴게시설(벤치, 정자)이 설치되어 있다.	○
		통학버스 승하차 시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시설이 있다.	없음
		대중교통 접근성	**인근**에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대중교통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1개 이상의 대중교통 인프라(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가 있다.	○
	주민공동 시설	육아지원 시설	단지 내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다.	○
			단지 내에 영유아 지원시설(영유아 놀이방,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대여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
			단지 내에 초등학생을 위한 지원시설(돌봄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없음
		문화시설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있다.	○
		체육시설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다.	○
		놀이시설	단지 내에 연령별 실외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다.	○
		주차장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없음

구분	핵심 구성 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주거단지에서는...)	진단
서비스 인프라 (인근환경 포함)	보건 의료	의료시설 다양성	인근에 보건소 및 병·의원이 다양하게 있다.	○
		소아과 접근성	인근에 영유아를 위한 병·의원이 있다.	○
		긴급의료 접근성	인근에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가능한 병원이나 약국이 있다.	없음
	영유아 보육 교육 및 돌봄	영유아기관 충분성	주거단지와 인근 보육(교육)시설의 정원이 충분하다.	○
		영유아기관 접근성	보육(교육) 시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거리에 있다.	○
		육아지원기관 접근성	인근에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공공시설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등)	○
		긴급돌봄 접근성	긴급하게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인근에 있다.	○
	초등 교육 및 돌봄	초등기관 접근성	아동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	○
			초등학교 등굣길이 안전하다(보차도가 안전하게 분리, 유해시설 없음, 횡단보도 안전, 차량 속도제한 표시 등).	○
		초등돌봄 접근성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기관이 이용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없음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없음
	치안 안전	단지 주변 안전점검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
		보행 안전성	단지 내 밤길이 안전하다(어두운 사각지대가 없다).	○
		단지 주변 시설	단지 주변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
	여가/ 문화 공간	여가/문화공간 접근성	인근에 여가/문화 공간이 있다. (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등)	○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하다.	○
		여가/문화공간 다양성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키즈까페, 실내놀이 공간 등)	○
		여가문화공간의 육아친화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없게 조성되어 있다. (주차장 및 수유시설 동선 등)	없음

① 녹지 환경

단지 내 및 외부에 보행거리권 내 어린이공원이 입지하여 조경 환경이 충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활동 공간인 놀이터의 경우에도 적절한 녹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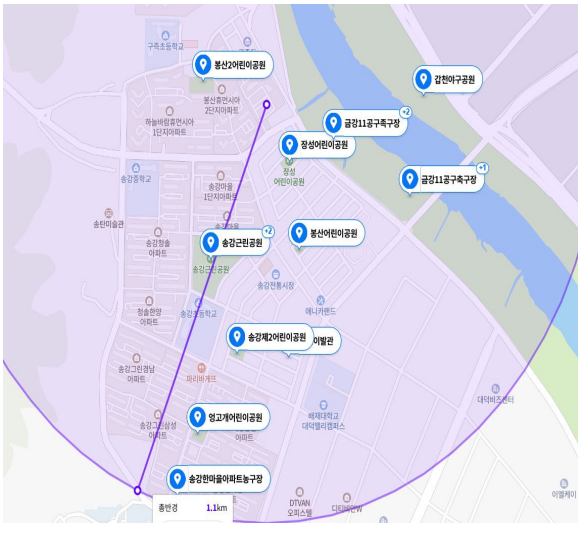




② 외부환경

단지 출입로에는 차량과 보행 동선이 분리되어 있으나, 단지 내부는 보차병행 방식이 적용되어 있으며, 보행도로는 유모차와 휠체어가 다니기에 편리하게 적용되어 있으나 다소 협소한 편이다. 아파트 주변에 약 5개의 버스정류장이 운영되고 있다.





③ 주민공동시설

단지 내에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나, 반경 1km 내에 어린이 공원 및 근린공원, 천변 축구장 등이 다양하게 형성되어 있다. 단지 내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접한 행복주택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등 육아지원시설이 형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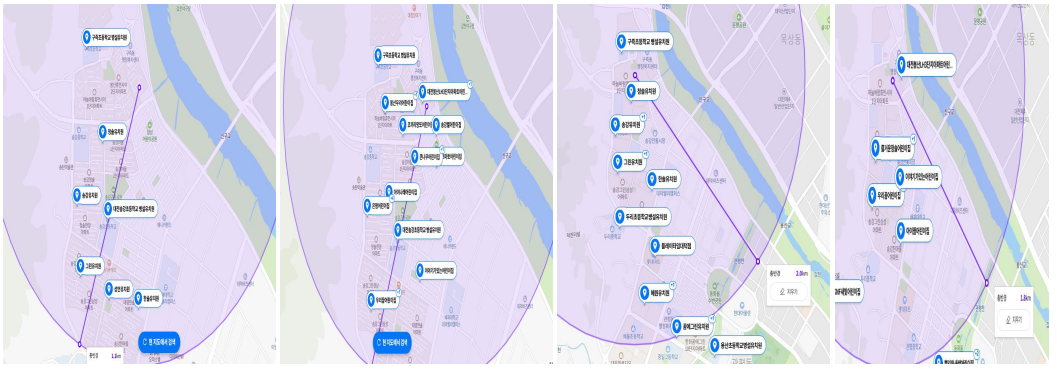
④ 서비스 인프라

단지 주변 반경 2km 내 치과, 안과 등 병원이 위치하며, 도보 3분거리(256m)에 구즉초등학교가 위치, 등굣길 횡단보도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되어 있으며 차량 속도제한 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다. 초등학교 맞은편에 파출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유해시설이 없어서 어린이들의 치안과 안전은 충분히 확보되고 있다. 반경 1km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다수 분포하여 영·유아를 위한 돌봄기관은 충족한 것으로 보여진다. 어린이 여가/문화 관련 공간은 도보 15분 거리에 구립도서관이 있다.







나. 시범조사를 통한 활용성 검토

1) 철학과 가치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조사결과에 개인차가 발생하며, 개인의 의견이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주거단지에 대한 평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의견이 모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물리적 환경

실내환경 중 층간소음 항목은 생활자의 생활패턴, 인접 거주자(위아래, 대각선 등 입주자)의 생활패턴에 따라 개인적인 판단이 가미될 수 있으며, 바닥재 종류나 공간배치로 층간소음이 저감되었는지를 입주자가 실제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건축기간이 오래 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가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사양에 대해 정보 취득이 어렵다.

실외환경 중 대중교통의 접근성 및 다양성 부분은 서울,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편차가 크므로 이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시내의 경우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도보권 내에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입지적 속성에 더 기인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도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기준으로 적용이 필요하다. 대다수의 지표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근', '공간 및 시설의 유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진단 시 개인차가 발생하는 애로점이 있다.

3) 서비스 인프라

육아세대가 아니면 육아지원 관련 서비스 및 인프라 정보에 대한 관심이 없어 파악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등에 대해 접근성 등 제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자체가 아니라 지자체의 노력에 따라 서비스 인프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서울, 수도권, 광역시, 지방에 따른 편차가 많이 발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인적네트워크

신축단지 등의 경우 주민 커뮤니티 등을 통한 네트워크가 활발히 구성되어 있고, 오래된 단지의 경우 주민 커뮤니티는 없으나 오프라인 공간(카페, 부녀회)등을 통한 주민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현재의 지표만으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05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제1절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방안

1.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의 방향

아이 기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한 본 연구에서는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가. 육아권과 아동권의 존중

무엇보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서는 육아의 주체인 부모의 육아권과 성장하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공동체 철학과 가치의 공유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양육하는 가정이 생활공간 안에서 육아로 인한 차별이나 갈등을 경험하지 않도록, 육아를 둘러싼 부정적 시각을 줄이고 배려하는 분위기의 조성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가 양육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덜고, 일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이 주거단지에 구현될 필요가 있다.

나. 수요자 참여 확대

주거 단지는 삶의 기반이며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거주하는 수요자의 특성에 맞춘 개선이 필요하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조성은 주거단지의 육아친화 정도가 거주민, 수요자의 시각에서 진단되고 그 개선점이 도출될 필요가 있다. 주거단지 조성 또는 개선 준비 과정에 수요자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 개진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거단지 내 입주자나 입주예정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육아친화 체크리스트를 통한 진단 설문 등이 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 인적 네트워크 형성 강화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은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과 지속적인 유지가 중요한 요인이다. 함께 양육하는 이웃이 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필요 시 긴급 지원도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

하다. 이러한 주거단지 내에서 육아 관련 네트워크의 구성을 지원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

라. 주거단지 특성 반영

주거단지에서 육아친화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인구 구성, 조성 시점 등 주거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접근이 요구된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은 거주하는 주민의 인구특성으로 자녀들의 연령별 요구가 담겨야 하며, 그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녀 연령에 따른 변화 가능성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조성되어야한다. 또한 신규조성 단지와 기존 주거단지에도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본 연구는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조성은 대상 주거단지의 선정, 주거단지의 육아친화적 요소 진단, 진단을 통한 개선점 도출, 육아친화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 도출한 개선방안의 실행이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추진 가능하다.

기존 주거단지의 경우는 이미 형성된 인프라와 서비스의 개선에 초점이 두어지는 반면, 신규단지의 경우는 주택 공급 계획 단계부터 육아친화 특화 단지로 공급을 기획 할 수 있다. 이렇듯 기존 주거단지와 신규 조성 단지에 따라 그 접근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방안(기존 단지)과 주택 공급 주체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방안(신규 단지)으로 구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가. 대상 주거단지의 선정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은 대상지의 선정부터 시작한다. 기존 단지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공모를 통해 개선을 희망하는 단지를 신청 받아 이를 토대로 선정한다.

신규단지의 경우에는 육아지원에의 요구가 높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육아지원 특화 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또한 시작 시점에서 육아친화 주거단지로 기획하고 홍보함으로써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모일 수 있고, 육아하는 가족을 배려하는 공동체 철학의 공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나. 주거단지 육아친화성 진단

주거단지의 육아친화 정도를 진단하는 과정은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할 수요자가 참여하여 진단하고 개선점을 찾아보는 과정이다. 이는 4장에서 제시한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참여형 워크숍 형식이나 설문조사 등이 가능하다.

다. 주거단지 육아친화성 증진 방안 모색

진단을 통해 구체적으로 발견된 부족 부분을 확인하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다. 철학과 가치의 공유 방안, 물리적 환경의 조성 및 개선방안, 서비스 인프라의 구축과 개선방안, 인적 네트워크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 과정도 입주민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추진 가능하다.

라. 개선안 실행

신규 단지는 공급 시점부터 진단 내용을 반영하여 육아친화성을 증진하고, 기존 단지의 경우 도출된 개선안은 지자체가 중심이 실행을 지원한다.

	신규 주거단지	기존 주거단지
특징	지자체 및 공급자 협력으로 추진	지자체 주도로 추진
	주택공급 시 계획단계부터 적용 육아친화 특화단지로 공급 가능	기 형성된 인프라와 서비스 개선에 초점
1. 대상 주거단지 선정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단지 등 육아친화 주거단지로 특화 공급	지자체 공모를 통해 개선 희망 주거단지 선정
2. 육아친화성 진단	공급자 및 입주예정자 등이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진단 (워크숍 또는 설문조사)	현재 거주 중인 입주자가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활용하여 진단 (워크숍 또는 설문조사)
3. 육아친화성 증진방안모색	철학/가치 공유 (입주민 모집 시 육아친화 주거단지임을 강조하여 홍보) 물리적 환경 조성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요소를 고려한 설계와 조성) 서비스 인프라 구축 (근린 생활 시설 설치 시 육아지원 관련 서비스에 우선순위 부여 지역사회 육아지원 전달체계와의 연계 방안 모색)	철학/가치 공유 (단지 내 육아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와 공동체 참여 기회 확대) 물리적 환경 개선 (주민 대상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개선필요 수렴 후 반영) 서비스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육아지원 전달체계와의 연계 방안 모색) 인적 네트워크 강화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방안 기획)
4. 실행	인적 네트워크 구성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방안 기획)	

[그림 5-1]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 모형

이상에 제시한 모형은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 단지 규모에 따른 차별적 접근의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500세대, 1,000세대, 2,000세대 이상 단지 규모에서 육아친화 주거단지 모형이 어떻게 접목 가능한지에 대한 세부 방안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소요 비용 분담에 대한 주체를 명료화하여 단지 거주민과 지자체의 분담 비율에 대한 분석과 예산 확보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육아친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건축 공사비용(예를 들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보강, 미세먼지 환기 시설 설치, 녹지 공간의 조성 등)이 전체 세대에 분담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에 대한 주거단지 거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또한 전체 비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아파트의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은 저층부 3개 층 정도를 육아친화적 환경으로 특화하고 육아 중인 세대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층간소음 감소를 위한 구조적 보강을 저층부 위주로 하고 이를 육아 중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제2절 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의 운영

주거단지에서 육아친화적 시설이나 요소를 반영하여 공간을 조성한 경우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용이 저조하고, 운영이 한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리 담당자의 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공간이나 시설 제공뿐 아니라 주거단지의 육아지원 기능의 역동성을 부여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며, 본 과제에서는 이를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로 명명하고 그 운영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 방안

'육아 코디네이터'란 주거 단지 내에서 육아관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가를 뜻한다. 양육자들은 이러한 인력이 필요하다는데 전체 응답자 중 70% 이상이 동의하였고, 지속 가능성이나 전문 인력의 확보 등을 이유로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를 지자체 육아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안(41.6%)[30]을 가장 선호하였다.

가. 운영 주체

육아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를 선발하고 교육하여 단지에 파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관리는 지자체 육아지원 전달체계인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담당한다. '양육지원'은 이 두 기관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과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가족상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주거단지 양육원서비스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주거단지 내 물적 인적 자원의 연계와 안내를 위한 전담인력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최근 서울특별시의 경우 SH 청신호 행복주택에 '공동체 코디네이터', LH에서는 신혼부부 행복주택

30) 본 조사결과, '육아관련 공공기관(41.6%)', '단지 내 주민 협의체(20.3%)', '지자체 행정기관(18.3%)', '단지 내 관리사무소(11.8%)', '민간(사회적 기업 등) 관련기관 위탁운영(7.8%)'의 순서로 높게 나타남.

‘주거지원 코디네이터’라는 제도를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육아를 중심으로 한 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의 운영을 제안하면서 주거단지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기존 ‘주거지원 코디네이터’의 업무로 육아지원 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고려가능하다.

나. 운영 비용

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의 운영비용은 자녀를 양육 중인 수요자들은 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의 운영비용을 실제 이용자가 부담해야한다는 의견(65.5%)이 가장 많았고, 월 5,000원 이내(28.2%) 또는 월 5,000원~ 10,000원(28.3%) 정도의 부담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의 운영비용의 분담을 실제 이용자로 제한할 경우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그 비용은 주거단지 거주민과 지자체에서 비율을 정해 분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다. 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의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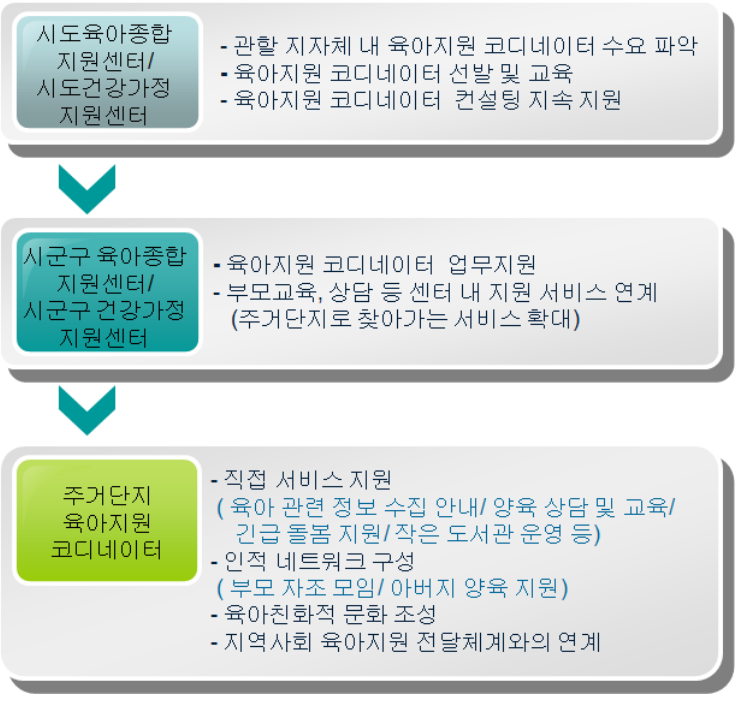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는 양육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야함으로 교육과 보육, 사회복지, 상담 전공자 등이 적절하다. 양육자들도 관련분야의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선호하였다. 또한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는 양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더 선호된다.

라. 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의 선발 및 교육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자체 내 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의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고,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담당업무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전담한다. 추후 연구로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상세 업무에 대한 매뉴얼의 개발과 시범사업이 필요하다.

마.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지원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거단지의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들이 추후 업무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운용 중인 부모교육이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육아지원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단지 내로 찾아가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그림 5-2]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운영방안

2.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역할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는 주거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육아지원을 기획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양육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육아와 관련된 단지 내·외 물적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양육자들에게 필요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육아지원 코디네이터가 수행 가능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는 주거단지 내 육아지원 서비스의 운영을 총괄한다. 다음의 내용은 주거단지의 규모, 인구 구성 등 상황에 따라 그 업무 범위가 조정될 수 있다.

가. 서비스 지원

1) 육아관련 자원 및 정보수집 및 관리

주거단지 내·외에서 육아에 도움이 되는 자원을 발굴하고 양육 가구에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이용 가능한 정부 지원정책이나 어린이집 정보, 단지 내 육아지원시설의 이용, 육아자조 모임 안

내 뿐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활용 가능한 장남감도서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가능하다.

2) 양육 상담 및 교육 제공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는 아이를 기르면서 생기는 양육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직접 상담이나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연계를 지원할 수도 있다.

3) 긴급 돌봄 지원이나 작은 도서관 운영

주거단지의 육아지원 공용 공간을 활용하여 영유아의 긴급 돌봄이나 시간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단지 내 도서관이 있는 경우 시간제로 직접 운영하거나, 주민자치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긴급돌봄 지원이나 초등 돌봄 제공, 도서관 운영과 같이 전담업무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단지 여건에 따라 육아지원 코디네이터 외에 필요 인력을 관리할 수도 있다.

나. 단지 내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

1) 부모 자조모임의 구성 지원

비슷한 또래 자녀를 두고, 관심사가 유사한 양육자 간의 모임을 연결하고 지원한다. 영아 자녀 부모모임, 유아자녀 부모모임, 맞벌이 가구 모임 등 연령이나 특성, 관심사가 비슷한 양육자들이 연계함으로써 육아로 고립된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또 필요하다면 자자모임이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도 할 수 있다.

2) 아버지 양육 지원

덴마크의 경우 시에서 운영하는 '아빠들의 놀이터'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육아휴직 중인 아버지들의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립도서관이나 체육관등의 장소에서 1주일에 3시간 진행된다. 간단한 다과와 함께 자녀와 놀이 하는 방법이나 양육 경험을 공유하고, 양육 상담 등도 제공한다.

이와 유사하게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는 토요일에 2~3시간 정도의 양육 가정 아버지를 위한 모임을 운영할 수도 있다.

3) 육아정(育兒亭) 운영

육아정(育兒亭)은 노인정처럼 육아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양육자들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소통의 공간인 육아저의 운영 관리를 육아지원 코디네이터가 담당한다. 단지 내 양육자들이 모이는 상황에서 촉진자의 역할이 가능하다.

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문화조성

1) 육아존중, 성평등한 육아를 위한 캠페인

주거단지 내 주민 간의 이해를 돈독하게 하고, 육아에 대해 지지적인 분위기 조성, 공감대 형성을 위해 홍보하는 캠페인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층간소음이라든지 놀이터소음 등 세대 간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를 위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노키즈존', '맘충', '독박육아' 등과 같이 육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고, 육아하는 가정을 지지하는 육아존중문화, 아버지의 적극적인 육아참여가 이루어지는 성평등한 육아문화 조성을 도모한다.

주거단지 내 공동체 모임이 있을 때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행사를 기획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영주 별내의 한 주거단지에서는 모든 주민이 참여 가능한 '육아 콘서트'를 토요일 오후에 단지 내 광장에서 진행하기도 하였다.

라. 지역사회 육아지원 전달체계와의 연결

지역사회 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육아지원서비스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주거단지 내로 연결하는 것이다. 육아지원 코디네이터는 필요한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찾아가는 부모교육, 가족상담, 아버지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단지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은진·박진아·조혜주·황명화·김우창·문일철·김영철·이성희·김상연·이하경·김예슬(2020). 육아친화 중점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리빙랩(living lab) 운영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은진·유해미·윤지연(2016).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Ⅵ): 지역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17). 인권위 "노키즈 식당은 아동 차별"-13세 이하 아동 식당 출입 전면 금지는 합리적 이유 없어-. 보도자료.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Ⅰ):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김도희(2017). 민관협력파트너십을 통한 가족친화만들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과제- 울산시 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8(2), 91-130.

김숙하(2015). 아동친화적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외부공간 환경계획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자경(2013). 친환경 실외 놀이터 계획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2(2), 120-130.

김자경(2014). 국내 상상 어린이 공원의 친환경성 평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23(4), 169-180.

김효정·박경옥(2017). 아파트단지 옥외공간의 친육아환경 요소에 대한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28(1), 95-107.

박금식·박지영(2018).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박소현(2006). 가족친화마을환경개념 및 평가지표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박소현(2007). 가족친화마을 평가지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부.

박전자(1997). 주거단지 계획의 원리 및 방법론. 세진사.

박현선(2020). 놀이친화적 환경이 아동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놀이공간 조성과 지역 유형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9(2), 175-201.
변기동·하미경(2015). 안전성 향상을 위한 주거단지 외부공간의 환경 디자인 요소에 관한 연구: 어린이안전을 중심으로. 디자인지식저널, 33, 25-36.
서울특별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 (2011). 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개발. 서울특별시.
양동양(1993). 도시·주거단지계획. 기문당.
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7). 2017년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유니세프(2019). 알기 쉬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길라잡이.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윤용한·주창훈·박헌·김정호(2014). 가로변 완충녹지의 조성유형에 따른 음이온 농도 비교 분석. 한국환경과학회지, 23(7), 1339-1347.
이송지·김혜장·이경란·곽영선·정영화(2009). 가족친화마을만들기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이미화(2019). 아동권리가 실현되는 아동친화적 지역사회환경.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이윤진(2015).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이한 육아종합 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이현정·정대현(2017). 숲교육이 유아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4(4), 51-70.
정소이·조승연·박준영·조상희(2016). 생애주기별 주거수요 대응형 공공주택 공급방향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정소이·최은희·박서경(2018). 저출산 대응 주택정책 및 계획방향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지원 2018-164.
최두호(2007). 주거단지 계획 이론의 변천과 계획요소의 특성 연구, 박사학위청구논문, 한양대학교
최병숙·박정아(2017). 도시지역 자연발생 노인커뮤니티(NORCs) 가능지역의 주거환경특성-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9(6), pp. 33-40.
차성란(2010). 가족친화마을 만들기를 위한 모델 및 핵심 요소.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63-76.
최수경·석주영·박인전(2013). 숲에서의 자유놀이가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 및 행복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8(2), 181-198.
최아수(2019). 아동친화도시의 종합 평가지표 수립과 공간 분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지은·김현경 (2019). 아버지 직장의 가족친화제도가 아버지, 어머니,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13(2). 145-169.
하정화·박금식·손주영(2016).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한국주거서비스소사이어티(2018), 신혼희망타운 주거서비스 운영방안 제안. LH.

홍승아·김혜영·류연규·소마나오코·조순주·진미정(2007).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모형개발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광일·한봉호·곽정인·박석철(2018). 도로변 완충녹지의 식재구조에 따른 초미세먼지 (PM2. 5) 농도 저감효과 연구-서울 송파구 완충녹지를 대상으로.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6(4), 61-75.

Amoly, E., Dadvand, P., Forns, J., López-Vicente, M., Basagaña, X., Julvez, J., ... & Sunyer, J. (2014). Green and blue spaces and behavioral development in Barcelona schoolchildren: the BREATHE project.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22(12), 1351-1358.

Barrera-Hernández, L. F., Sotelo-Castillo, M. A., Echeverría-Castro, S. B., & Tapia-Fonllem, C. O. (2020). Connectedness to nature: its impact on sustainable behaviors and happiness in children. Frontiers in Psychology, 11, 276.

Balogh, P. I., Nagy, I. R., Reith, A., Zajacz, V., & Teremy, V. (2020). Child-Friendly Urban Landscapes: The Meaning of Child-Friendly Urban Open Spaces and the Opportunities for Implementing Initiatives in Hungary= Gyermekbarát városi szabadterek: A gyermekbarát szabadtér jelentése és szempontjainak érvényesítési lehetősége Magyarországon. 4D TÁJÉPÍTÉSZETI ÉS KERTMŰVÉSZETI FOLYÓIRAT, (55-56), 94-113.

Bell, J. F., Wilson, J. S., & Liu, G. C. (2008). Neighborhood greenness and 2-year changes in body mass index of children and youth.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5(6), 547-553.

Carroll, P., Witten, K., & Kearns, R. (2011). Housing intensification in Auckland, New Zealand: Implications for children and families. Housing Studies, 26(03), 353-367.

Chen, K., Deng, J., Liang, G., Fang, D., & Zhu, H. (2016). Effects of landscape tree species and their arrangement on PM 2.5 sedimentation-A case study of Beijing, China. Nature Environment and Pollution Technology.

Dong, N., Chen, J., & Zhang, S. (2017). Safety research of children's recreational space in Shanghai urban parks. Procedia engineering, 198, 612-621.

Dzierżanowski, K., & Gawroński, S. W. (2011). Use of trees for reducing particulate matter pollution in air. Challenges of Modern Technology, 2.

Gleeson, B., & Sipe, N. (2006). Creating child friendly cities. London: Routledge.

Government of New South Wales, Australia(2018). Australian: Apartment Design Guide, Government of New South Wales.

Gyimóthy, A. (2015). How does urban greenery influence our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 the effect of city squares with or without trees on well-being users, journal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garden art.

Harvey, D. J., Montgomery, L. N., Harvey, H., Hall, F., Gange, A. C., & Watling, D. (2020). Psychological benefits of a biodiversity-focussed outdoor learning program for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67, 101381.

Huynh, Q., Craig, W., Janssen, I., & Pickett, W. (2013). Exposure to public natural space as a protective factor for emotional well-being among young people in Canada. BMC public health, 13(1), 407.

Johnson, S. A., Snow, S., Lawrence, M. A., & Rainham, D. G. (2019). Quasi-randomized trial of contact with nature and effects on attention in children. Frontiers in psychology, 10, 2652.

NIUA(2016). Indicators for Child friendly local development(I-CHILD), Delhi: National Institute of Urban Affairs.

Nowak, D. J., Hirabayashi, S., Bodine, A., & Hoehn, R. (2013). Modeled PM2. 5 removal by trees in ten US cities and associated health effects. Environmental pollution, 178, 395-402.

Payton, J., Weissberg, R. P., Durlak, J. A., Dymnicki, A. B., Taylor, R. D., Schellinger, K. B., & Pachan, M. (2008). The Positive Impact of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for Kindergarten to Eighth-Grade Students: Findings from Three Scientific Reviews. Technical Report. Collaborative for Academic, 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NJ1).

Różański, S. Ł., Kwasowski, W., Castejón, J. M. P., & Hardy, A. (2018). Heavy metal content and mobility in urban soils of public playgrounds and sport facility areas, Poland. Chemosphere, 212, 456-466.

Seto, K. C., Fragkias, M., Güneralp, B., & Reilly, M. K. (2011). A meta-analysis of global urban land expansion. PloS one, 6(8), e23777.

Tillmann, S., Tobin, D., Avison, W., & Gilliland, J. (2018). Mental health benefits of interactions with nature in children and teenagers: A systematic review.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72(10), 958-966.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23#J39:0 (2020.09.11. 인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친화' 검색 결과,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View.do?word_no=339716&searchKeywordTo=3(2019. 6. 20. 인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sp/geq/sp_geq_f008.do. (2020. 9. 11. 인출).

부록

〈부록 1〉 KICCE 육아친화마을 계량 지표

요인		범주	지표명	하위정보	단위	출처
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표	영유아기 (상대지표 시 영유아 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유아 천명 당 보육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어린이집 시설		총합	시군구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유치원 시설		유치원 설치 현황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부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현황	시군구	https://www.familynet.or.kr
	아동기 (상대지표 시 아동인구 천명당 비율환산)	초등학교 시설		초등학교 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육부문
		지역아동센터시설		지역아동센터 설치현황	읍면동	http://www.hjy.kr/
		지역아동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직원 수	읍면동	http://www.hjy.kr/
육아 인프라 관련 지표	전 연령 돌봄 인프라 (상대지표 시 영유아+아동 총인구 1천명 비율)	공원/녹지	공원	공원개소 및 면적	시군구	시군구기본통계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개소 및 면적	시군구	시군구기본통계
		여가/문화	도서관시설	공공 어린이도서관 설치현황	시군구	광역지자체기본통계
			문화시설	인구 십만명 당 문화기반시설 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통/안전	교통문화	자동차 천대 당 교통사고발생건수	시군구	e지방지표
				교통안전지수	시군구	도로관리교통공단
			지역안전 상대유형	화재	시군구	e지방지표
				범죄		
				생활안전		
		보건/의료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원 수	시군구	국가통계포털
			소아과	소아과 의원 수	시군구	국가통계포털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 의원 수	시군구	국가통계포털
			종합병원	종합병원 수	시군구	건강보험통계

〈부록 2〉 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Pool)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철학과 가치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결속감, 연대감, 충족감)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
			내가 이 마을에 속해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언제든지 마을과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아이를 기르는 데 마을과 마을 사람들에게 받는 도움은 충분히 만족스럽다.
	아이다움 인정	영유아/아동 개별성 인정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성평등 육아문화	성평등 공간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조성되어 있다(ex: 남성화장실 내 기저기갈이대 비치 등).
		성평등 서비스	가족들에게 제공되는 양육 프로그램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다(ex: 남성양육자가 참여하는 놀이 프로그램, 남성 양육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등).
		성평등 가치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 육아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캠페인이 이뤄진다
인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 특성	인적네트워크 연결성	마을 내에 가족과 같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인적네트워크의 지원(자원 및 활동)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이 있다(ex: 지역맘카페모임, 시민 단체, 공동체 활동 단체 등).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공동체 활동이 있다.
			아이를 기르는 데 도움을 주는 조직(혹은 모임)은 양육자들끼리 관계를 맺어주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소통을 위한 공간	다양성 (온라인/ 오프라인)	공동체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충분하다.
			마을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방(ex: 지역맘카페)이 있다.
		접근성	내가 사는 곳에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에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편리하다.
		편리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ex: 사용시간, 사용방법 등).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수유시설, 주차시설 등).
보육 (교육)·돌봄 서비스 인프라	서비스 질	교사 근로환경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의 교사 1인당 맡는 아이 숫자가 적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 교사 근무기간이 길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교사의 태도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이다.
		보육(교육) 시간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보육 이외의 개인적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을 제공하는 시간이 양육자들이 근무를 하기에 충분하다.
		급간식 수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 급식수준이 만족스럽다.
		프로그램 및 교구 수준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 프로그램 수준이 만족스럽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갖추고 있는 보육(혹은 교육) 교구 수준이 만족스럽다.
	공간 질	보육(교육) 공간충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보육(혹은 교육) 공간이 충분하다.
		야외놀이 공간충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의 야외/놀이 공간이 충분하다.
		공간의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은 양육자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한다.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응 양육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투명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보육(혹은 교육)의 모든 정보는 양육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을 보내는 데 비용 부담이 적다(ex: 어린이집, 유치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 기관의 거리가 짧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혹은 교육) 기관에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차량 안전성	내 아이를 보내는 보육(교육)기관은 안전하게 차량 운행한다.
공원 녹지 공간	접근성	비용 접근성	공원/녹지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공원/녹지 공간(ex: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공원/녹지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공간과 시설 질	공간충분성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공간과 시설 안전성	공원/녹지의 공간과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비스인프라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다.
		체험시설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공원/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종사자의 태도	공원/녹지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공원/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공간의 설계	공원/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모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여가문화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비용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여가/문화 공간(ex: 어린이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등)이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여가/문화 공간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공간과 시설 질	공간 충분성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히 넓다.
		공간 시설 안전성	여가/문화 공간 내 시설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어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서비스 인프라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도서관, 장난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등 다양한 여가/문화 공간들이 있다.
		체험시설의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의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종사자의 태도	여가/문화 공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이용 편리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공간의 설계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ex: 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등).
보건 의료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대형병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대형 병원이 있다.
		개인병원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 개인 병원 등이 많다.
		대형병원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형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개인병원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개인 병원까지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서비스 질	대형병원 서비스 질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개인병원 서비스 질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의 의료 서비스는 만족스럽다.
	인력수	대형병원 의료인수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개인병원 의료인수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에는 의료인의 수가 충분하다.

구분	핵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내가 살고 싶은 마을은....)
	인적환경 육아친화성	대형병원 의료인 태도	내 아이가 진료 받는 대형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개인병원 의료인 태도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물리적 환경 육아친화성	대형병원 육아친화성	내 아이가 진료받는 대형병원은 아이와 양육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개인병원 육아친화성	내 아이가 진료받는 개인병원은 아이와 양육자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교통 보행 네트 워크	접근성	비용 접근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비용은 무료이거나 저렴하다.
		접근거리	내가 사는 집에 멀지 않은 곳에서 대중교통(ex: 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접근방법	내가 사는 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러 가는 길은 안전하고 편리하다.
		보행도로상태	보행도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편하다.
	다양성	대중교통 다양성	내가 사는 집 근처에는 다양한 대중교통 인프라(ex: 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가 있다.
	교통/운전 문화	운전자의 태도	내가 사는 마을의 운전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치안 안전 서비스 인프라	접근성	소방서접근성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소방서가 있다.
		경찰서접근성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경찰서가 있다.
	인력	방범인력순찰	경찰 등 방범인력이 자주 순찰을 돈다.
	물리적 환경	치안장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시설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보행도로	마을길은 밤에 안전하다.
행정 서비스 인프라	행정체계	조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법(조례)이 있다
		예산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예산이 충분하다.
		인력의 태도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정보접근	정보의 충분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정보의 편리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기 편리하다.
	거버넌스	참여성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개방성	대표(구청장)는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들의 의견을 들으려 노력한다.

〈부록 3〉 주거지역의 법정 정의

주거지역의 법정 정의

□ 배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서 명시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뜻함(국토계획법 제2조)
-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국토계획법 제6조)
  -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주거지역에 관한 법정 정의

- 용도지역 가운데 도시지역은 네 가지로 구분하여 지정(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국토계획법 제 36조)
-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정의(국토계획법 제 36조)
- 주거지역은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라 세분(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30조)

구분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최대)	건폐율 (서울)	용적률 (서울)	지정목적
도시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	100%	50%	100%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	150%	40%	120%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	200%	60%	150%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	250%	60%	200%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	300%	50%	250%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
	준주거지역	70%	500%	60%	400%	주거기능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보완
	중심상업지역	90%	1500%	60%	1000%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의 확충
	일반상업지역	80%	1300%	60%	800%	일반적인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담당
	유통상업지역	80%	1100%	60%	600%	도시내,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근린상업지역	70%	900%	60%	600%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
	전용공업지역	70%	300%	60%	200%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일반공업지역	70%	350%	60%	200%	경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부 기능 보완
	준공업지역	70%	400%	60%	400%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 공간을 보전
	보전녹지지역	20%	80%	20%	50%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과 서비스의 공급
	생산녹지지역	20%	100%	20%	50%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
	자연녹지지역	20%	100%	20%	50%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라하기 곤란
도시외 지역	보전관리지역	20%	80%			농림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
	생산관리지역	20%	80%			농업, 임업, 어업생산 등을 위한 관리가 필요
	계획관리지역	40%	100%			도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을 고려한 제한적 이용
	농림지역	20%	80%			농업진흥 지역, 보전산지 등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
	자연환경보전지역	20%	80%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 방지, 도시용지 공급 등

구분	용도지역	지정목적
도시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 전용주거지역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보호
	준주거지역	주거기능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보완
	중심상업지역	도심/부도심의 상업기능과 업무기능 확충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담당
	유통상업지역	도시 내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
	근린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과 서비스의 공급
	전용공업지역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
	일반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의 배치
	준공업지역	경공업 등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업무기능 보완
	보전녹지지역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녹지공간을 보전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인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
	자연녹지지역	도시 녹지공간을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 허용
도시외지역	보전관리지역	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관리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해 관리
	계획관리지역	도시 편입이 예상되거나 자연을 고려한 제한적 이용
	농림지역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문화재 보전

〈용도지역 세분〉

〈부록 4〉 설문조사지

응 답 자 특 성

SQ1) 귀하께서 살게 계신 지역의 도시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거주 중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1. 대도시(특광역시) 2. 중소도시(시지역) 3. 읍면지역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SQ3) 귀하의 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세 → 만 18세 이상만 조사 대상

SQ4) 귀하의 혼인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미혼 → 조사 종료 2. 기혼 → SQ4-1)로 이동
3. 기타 → SQ4-3)로 이동

SQ4-1)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1. 있음 → SQ4-2)로 이동 2. 없음 → SQ4-3)로 이동

SQ4-2) 귀하의 자녀 연령과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2011년(만 9세, 초등학교 3학년)~2020년생(0세) 자녀가 없을 경우, 조사 종료

구분	해당 여부		자녀 출생년도	자녀 성별	
	있음	없음		남자	여자
첫째	①	-	년	①	②
둘째	①	②	년	①	②
셋째	①	②	년	①	②
넷째	①	②	년	①	②
다섯째	①	②	년	①	②

SQ4-3) 귀하께서는 언제 결혼을 하셨습니까?

[ ][ ][ ][ ] 년 [ ][ ] 월

A. 응답자 가구의 양육 현황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1) 현재 귀하의 ○째 자녀가 주로 이용하는 기관/학교는 어디입니까?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반일제 이상 학원(영어유치원, 놀이학교 등)
④ 초등학교
⑤ 기타(적을 것 : _____)
⑥ 기관/학교 다니지 않고 집에 있음

문2)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가지 않는 동안 또는 정규 시간 이외 ○째 자녀를 주로 돌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부모 ② 아이 조부모
③ 개인 돌봄서비스(아이돌보미 및 민간도우미 등)
④ 공공 기관 돌봄서비스 (긴급 돌봄 및 방과 후 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⑤ 학원 등 사교육 기관 ⑥ 주로 혼자 있음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3)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는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각각의 내용에 대해 해당하는 번호에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부담을 느끼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부담을 느끼는 편이다	매우 부담을 느낀다
1) 부모로서 양육책임에 대한 부담	①	②	③	④	⑤
2) 체력적 부담(수면 부족 등)	①	②	③	④	⑤
3) 인적 자원 부족 (사회적 고립 및 상담할 사람 부족)	①	②	③	④	⑤
4)경제적(양육 및 교육) 부담	①	②	③	④	⑤
5)자녀 돌봄 부재로 인한 문제	①	②	③	④	⑤
6)자녀 교육 문제	①	②	③	④	⑤

※ 다음은 아버지-어머니 공동양육 정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 어머니와 아버지의 자녀 양육 분담 정도는 어떠합니까?

어머니 양육 분담 정도가 100% 일 경우, 문6으로 이동

어머니 [ ] % + 아버지 [ ] % = [1 0 0]

문5) (아버지 양육참여 부분) 자녀의 양육과정의 각 영역에서 아버지가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를 응답해 주세요. (본인이 아버지일 경우, 본인의 참여 정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	실제 참여도				
	전혀 참여 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참여하는 편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기본생활돌봄 (먹이기, 입히기)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돌봄을 위한 가사활동 (식사준비, 빨래, 청소)	①	②	③	④	⑤
3) 자녀와의 놀이 (함께 놀아주기, 외출하기)	①	②	③	④	⑤
4) 자녀의 훈육 (생활지도)	①	②	③	④	⑤
5) 자녀의 학습지원	①	②	③	④	⑤

B. 주거 현황 및 희망 주거지역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6) 현재 거주하고 계신 귀 댁의 주택유형은 무엇입니까?

① 아파트 ②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③ 단독주택 ④ 주택이외의 거처(오피스텔 포함)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6-1) 현재 주택의 거주형태는 어떠하십니까?

① 자가 ② 민간 임대(전세·월세 등)
③ 공공 임대 ④ 기타 (적을 것 : _____)

문6-2)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의 건축연도는 어떻게 됩니까?

① 1년 이내 ② 1년 이상 ~ 5년 이내
③ 5년 이상 ~ 10년 이내 ④ 10년 이상 ~ 20년 이내
⑤ 20년 이상

문7) 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살고 싶은) 주택유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파트 등 공동주택 ②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③ 단독주택 ④ 주택이외의 거처(오피스텔 포함)

문7-1)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층간소음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어서
② 놀이터, 주차장, 부대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여
③ 개인 마당/정원 등을 사용가능해서 ④ 타 주택유형보다 주거비가 저렴해서
⑤ 아이를 키우기에 적정한 규모(세대 혹은 단지)여서
⑥ 쾌적한 자연환경 때문에 ⑦ 보안 및 안전성 때문에

문8) 귀하가 현재 거주지를 선택하신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R)

① 남편(아내)이나 나의 직장이 가까워서
② 아이의(외)조부모 댁이 가까이 있어서
③ 조부모 외 자녀를 돌봐 줄 지인이 가까이 있어서
④ 보육/교육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이 좋아서
⑤ 시장, 마트 등이 가까워서
⑥ 공원, 산책로, 체육관 등 근린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⑦ 집값 또는 임차료가 적절한 곳이라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9) 현재 귀하의 주거단지는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좋은 환경이다 문9-1로 이동
② 대체로 좋은 환경이다
③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문9-2로 이동
④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다

문9-1) 현재 살고 계신 주거단지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R)

①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② 주변에 자녀가 놀 수 있는 놀이터 혹은 공원이 있어서
③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및 문화 시설이 가까이 있어서
④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 이 좋아서
⑤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편해서
⑥ 범죄발생률이 낮거나 유해시설이 없는 등 자녀 기르기에 안전한 지역이어서
⑦ 이웃이나 동네주민이 친절해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9-2) 현재 살고 계신 주거단지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R)

①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보육 및 교육 시설이 멀리 있어서
② 주변에 자녀가 놀 수 있는 놀이터 혹은 공원이 없어서
③ 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 및 문화 시설이 멀리 있어서
④ 자연환경(공기의 질, 수질 등) 이 좋지 않아서
⑤ 범죄발생률이 높거나 유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등 자녀 기르기에 안전하지 못한 지역이어서
⑥ 도로, 교통 등이 자녀와 이용하기 불편해서
⑦ 이웃이나 동네주민이 불친절해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C. 육아친화 거주단지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 최근에는 주거단지 조성 시 자녀가 있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10) 육아 친화적 단지에서 거주할 때 다음의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와 현재 거주하시는 주거지가 어떤 수준인지를 각각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 중요도					(2) 현재 거주하는 주거단지에 대한 평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이와 자녀를 기르는 가족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배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양육에 편리한 실내외 물리적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 양육에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 확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함께 육아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11) '육아친화 거주단지'에 필요한 물리적 환경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적용될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정도를 알려주세요.

물리적 환경	(1) 중요도					(2) 우리 가족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정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유아차, 휠체어, 자전거 등의 이동에 불편이 없는 도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야간 보행 안전에 충분한 가로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차, 오토바이 등이 다니지 않는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수목이 풍부하고 자연생태계를 체험 및 교육할 수 있는 환경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실외 놀이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실내 놀이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9) 놀이터 및 스쿨버스 공간에 녹지를 이용한 그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0) 아이들의 놀이 시설 근처에 부모를 위한 별도의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1) 주민들이 소통가능한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2) 순환형 녹지 네트워크 산책로 조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3) 비, 눈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4) 물환경 시설(인공얀못, 폭포 등) 및 관찰시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5) 자녀들의 정서안정을 고려한 색채 및 공간 디자인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16) 안전 및 보안을 위한 놀이터 및 주동 현관에 CCTV 및 비상벨 설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12) (서비스 인프라) 다음은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육아친화 관련 시설들입니다. 다음의 시설 및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 지를 표시해 주시고, 그런 시설 및 프로그램이 단지 내에 있다면 이용할 의향의 정도를 답해주세요.

시설		(1) 중요도					(2) 이용 의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이 있다	해당 없음
보육 교육 기관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2) 초등학교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3) 학원 시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돌봄 및 육아 공간	4)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5) 영유아 실내 놀이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6) 공동육아 공간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7) 초등 돌봄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8) 장난감 대여 시설 (주민 나눔)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문화 공간	9) 실내 체육시설 (헬스, 수영장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10) 실외 체육시설 (배드민턴, 테니스 코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11) 소규모 도서관(대여가능)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12) 청소년을 위한 공간(청소년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13) 입주민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 (스터디 룸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14) 입주민 Cafe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근린 시설	15) 의료시설(소아과, 보건소 등)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16) 문화시설(공연, 체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17) 육아시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18) 공공육아지원시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⑨

※ 문13-1) ~문13-4)를 아래의 보기를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보육 교육 기관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2. 초등학교
	3. 학원 시설
돌봄 및 육아 공간	4.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
	5. 영유아 실내 놀이방
	6. 공동육아 공간
	7. 초등 돌봄 제공
	8. 장난감 대여 시설(주민 나눔)
문화 공간	9. 실내 체육시설(헬스, 수영장 등)
	10. 실외 체육시설(배드민턴, 테니스 코트 등)
	11. 소규모 도서관(대여가능)
	12. 청소년을 위한 공간(청소년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13. 입주민을 위한 소규모 회의실(스터디 룸 등)
	14. 입주민 Cafe
근린시설	15. 의료시설(소아과, 보건소 등)
	16. 문화시설(공연, 체육)
	17. 육아시설(문화센터, 키즈카페 등)
	18. 공공육아지원시설(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문12-1) 위의 항목 중에서 영아 자녀(만 0~2세)를 기르는 가정을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문12-2) 아이 기르기 좋은 단지를 설계할 때, 유아 자녀(만 3~5세)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문12-3) 아이 기르기 좋은 단지를 설계할 때,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문12-4)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위해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것이 무엇인지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3순위

문13) 다음은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에서 인적네트워크를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적용될 경우 실질적으로 이용할 의향 정도를 알려주세요.

커뮤니티 내 활동	(1) 중요도					(2) 이용 의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이 있다
1) 자녀 연령별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방 (단지맘 카페)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공동체 활동(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을 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지역사회와 단지 내 육아지원을 안내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단지 내 육아하는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주민 자치회(부모들이 주거단지 내의 육아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어린이 자치회(어린이들이 주거단지 내의 프로그램 및 환경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문14) '육아친화 거주단지'에 필요한 인식과 배려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알려주세요.

긍정적 인식과 배려	중요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1)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아이를 기르는 가정을 배려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를 기르는 가정의 어려움을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양성 평등한 육아문화를 지향한다	①	②	③	④	⑤

D. 육아 코디네이터 제도와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 육아 코디네이터란 주거 단지 내에서 육아관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문가를 뜻함.
필요시 영유아 놀이방 및 단지 도서관 등 필요한 시설에 상주 가능.

문15) 육아 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가 바람직할까요?

① 단지 내 주민협의체 운영 ② 단지 내 주민협의체 운영
③ 육아관련 공공기관 운영 ④ 지자체 행정기관 운영
⑤ 민간(사회적기업 등) 관련기관 운영 ⑥ 기타 ( )

문16) 위에서 언급한 육아관련 커뮤니티 시설(단지 내 도서관, 영유아 놀이방, 영유아 긴급 돌봄 제공, 초등돌봄 제공 등)을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한다면, 운영을 위한 실무자(육아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22로 이동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문17) 공동체 육아를 위해서 육아코디네이터 제도가 생긴다면 육아코디네이터의 적절한 근무형태는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하루 9-6시 상주할 수 있는 인력
② 하루 반일 근무정도의 파트타임 인력
③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만 간헐적으로 근무하는 인력
④ 자원 봉사 형태로의 자발적 참여 인력

문18) 육아코디네이터 제도가 생긴다면 육아코디네이터의 자격은 어떠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R)

①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② 단지 내 거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의 부모 중에서
③ 단지 내 거주 청년 중에서 ④ 단지 내 거주 어르신 중에서
⑤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누구나 가능 ⑥ 자원봉사 단체 중에서

문19) 육아코디네이터 제도가 생긴다면 육아코디네이터는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R)

① 경력과 시간에 맞는 임금 제공 ② 실비 제공(교통비, 식비 제공)
③ 기타(적을 것 : _____)

문20) 육아 코디네이터 운영의 비용을 단지 거주민 간에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R)

① 거주하는 주민 전체가 분담
②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를 중심으로 분담
③ 실제 이용자들이 분담

문21) 주거단지에 육아를 위해서 육아코디네이터 제도가 생긴다면 육아 코디네이터 업무에 대한 급여를 공동으로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R)

① 전혀 없다 ② 월 5천원이내 의향 있음
③ 월 5천원 – 1만원 이내 의향 있음 ④ 월 1만원 – 2만원 이내 의향 있음
⑤ 업무범위에 따라 월 2만원 이상 지불 의향 있음

문22) 귀하는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시설 중 단지 내에 다음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시설 종류	종일근무 상주인력이 필요	반일제 인력이 필요	별도 요구가 있을 때에만 필요	필요 없음
1) 영유아 긴급 돌봄제공	①	②	③	⑤
2) 영유아 실내 놀이방운영	①	②	③	⑤
3) 초등 돌봄 제공	①	②	③	⑤
4) 소규모 도서관	①	②	③	⑤
5) 공동육아 공간	①	②	③	⑤
6) 청소년을 위한 공간	①	②	③	⑤

문22) (철학과 가치의 공유 방법) 아이기르기 좋은 육아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이나 서비스 인프라 뿐 아니라 주거단지 내 구성원 간에 아이 기르는 일에 가치를 두고 가족을 배려하는 철학과 가치를 공유함이 중요합니다. 다음 중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R)

① 주민들이 함께하는 소통 공간 마련 ② 온라인 공간을 통한 홍보 및 교육
③ 육아를 응원하는 표어의 선정과 단지 내 부착
(예. 유아차 먼저, 육아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④ 모든 주민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예.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의 환경)
⑤ 환경개선 참여 체계 마련(예.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등)

문23) 지역사회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시는데 다음의 서비스들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러한 서비스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주거단지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시설		(1) 중요도					(2) 이용 의향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중요한 편이다	매우 중요하다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보통이다	있는 편이다	매우 많이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 장난감 도서관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2) 도서 대여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3) 열린육아방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건강가정지원센터	5) 가족교육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6) 가족·부모·자녀 상담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7) 공동육아나눔터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8) 찾아가는 아버지 교실	①	②	③	④	⑤	①	②	③	④	⑤

E. 응답자 배경 문항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 이상

DQ2) 귀하와 배우자의 경제활동 상태에 대해 응답해주십시오.

내용	(1) 아이의 아버지	(2) 아이의 어머니
1) 경제활동 상태	① 일을 하고 있음 ② 일을 하지 않음 ③ 아이의 아버지 없음	① 일을 하고 있음 ② 일을 하지 않음 ③ 아이의 어머니 없음
2) 근무형태	① 전일제 근무 ② 임시/일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무 포함) ③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⑤ 기타	① 전일제 근무 ② 임시/일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무 포함) ③ 고용원이 있는 사업자 ④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 ⑤ 기타
3) 근무시간 - 일을 하고 있는 경우만 응답 - 1일 평균 근무시간을 응답 - 초과근무 시간도 포함하여 실제 일하는 시간 전체를 응답	1일 평균 [ ][ ][ ] 시간 일함	1일 평균 [ ][ ][ ] 시간 일함
3) 통근시간 - 일을 하고 있는 경우만 응답 - 편도를 기준으로 응답	편도 기준 [ ][ ][ ] 분 걸림	편도 기준 [ ][ ][ ] 분 걸림

DQ3) 지난 1년 평균 귀댁의 평균 가구 소득은 얼마입니까?

① 월 200만원 미만 ② 월 200-399만원 ③ 월 400-599만원

④ 월 600-799만원 ⑤ 월 800-999만원 ⑥ 월 1,000만원 이상

〈부록 5〉 부모 심층면담 자료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방안 연구」 영유아 부모 면담 자료

■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란?

'아이를 기르는 일', '육아'하는 가정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활환경으로의 마을 단위에서 '육아하기 좋은 환경'으로의 발전적인 재구성을 의미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을 '한 아이를 기르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라는 표현으로 강조한다. 이 연구는 과연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온 마을, 아이기르는 가족의 삶의 터전인 주거단지에서는 무엇이 담겨야하는지, 또 어떻게 실현해갈 것인가의 답을 찾아보고자 함이다.



[그림 1] 육아친화적 주거단지의 구성요소

■ 육아 담당자, 육아지원정책 수요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발전시켜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함.

■ 주요 논의 내용

- 아이 기르기 좋은 마을의 요건, 아이 기르는 데 불편한 요소의 발굴
- 개선 방안의 모색

응 답 자 일 반 특 성

1. 귀하의 자녀 연령 및 낮 시간 이용 기관
   - 첫째아: 만 _____세,
     어린이집 이용 or 유치원 이용 or 기타 이용 or 이용 안함
   - 둘째아: 만 _____세,
     어린이집 이용 or 유치원 이용 or 기타 이용 or 이용 안함
   - 셋째아: 만 _____세,
     어린이집 이용 or 유치원 이용 or 기타 이용 or 이용 안함

2. 기관, 부모 외에 양육 지원자

3. 부모 근로 형태 및 맞벌이 유무

주 요 면 담 내 용

1. **[주거단지 장 단점]** 귀하는 지금 살고 있는 단지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1-1. 이전 주거단지와 비교하여 현재 주거단지가 지니는 장점은?

   1-2. 이전 주거단지와 비교하여 현재 주거단지가 지니는 어려움은?

2. **[시설과 기관이용]** 육아를 위해 단지에서 이용해 본 시설이나 기관이 있습니까?
   2-1. 해당 시설이나 기관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주거단지 인프라 관련]** 육아에 있어 귀하의 주거단지에서는 문화 인프라, 의료 시설 등이 충분하고 교통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측면 때문에 그렇게 느끼십니까?
   3-1. 문화인프라 3-2. 의료접근성 3-3. 교통 편리성

4. **[추가 필요 시설]** 주거단지 내에 육아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시설이나 기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4-1. 필요한 커뮤니티 내 시설은 무엇인가요?
   4-2. 커뮤니티 내 시설에의 운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 **[육아 철학과 가치]** 육아하기 좋은 주거단지는 어떤 가치들이 공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1. 그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6. **[육아지원공동체 운영]** 다양한 주거단지 조성과 지원이 지자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을 위한 공동체 활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6-1. 또 그러한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7. **[아버지 참여]** 아버지의 육아참여는 어떠합니까?
   이를 독려하기 위한 단지 내에서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8. **[영유아 자녀를 위한 요소]** 주거단지에서 영유아 자녀와 그 가족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무엇인가요?

〈부록 6〉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리플렛



육아친화 주거단지란?

육아친화 주거단지는 한 마디로 '아이기르기 좋은' 주거단지입니다. 육아를 지지하고 환대하는 철학적 가치에서 시작하여, 그 철학을 바탕으로 육아하는 가족의 요구를 반영한 공간과 환경을 지닌 곳입니다. 육아친화적 주거단지는 육아친화적인 환경, 즉 아이 기르는 데 최적화된 교육·보육시설, 공원 녹지 등의 물리적 환경, 지역사회 내 도로 교통 등의 인프라, 육아 및 가족지원 제도, 지역주민의 인식과 참여 등 양육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리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 뿐 아니라 지지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갖춘 곳입니다.

육아친화 주거단지 구성 요소



철학 / 가치

육아친화 주거단지의 공동체성

- 부모의 육아권과 아동권리 인식
- 아이기르는 가족에 대한 환대와 배려
- 아이다움에 대한 인정
- 성평등한 육아문화

물리적 환경

주거단지 환경의 육아친화성

- 영유아를 배려한 공원 및 녹지공간
- 육아하는 가족을 고려한 실내환경
- 안전하고 편리한 실외환경
- 육아를 위한 부대시설

인적 네트워크

육아를 지원하는 인적 환경

- 육아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의 구성
- 육아관련 인적 네트워크 운영 지원
- 양육자 소통을 위한 기회와 공간

서비스 인프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

- 보건 의료 서비스
- 영육아 및 초등 교육 및 돌봄 서비스
- 가족이 함께하는 여가 문화 서비스
- 치안 및 안전
- 지역사회 육아지원 서비스와의 연계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현재 살고 계신 단지의 육아친화 정도를 진단해볼까요?
다음의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여 보십시오.

철학과 가치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Y 그렇다(있다)	N 아니다(없다)
아이와 가족에 대한 환대	공동체성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을 환대한다고 느낀다.	Y	N
		아이를 키우기 좋은 주거 공간이라고 느낀다.	Y	N
아이다움 인정	아동의 특성 인정	아이의 아이다움에 대해 인정받고 있다고 느낀다 (놀이터 소음 및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 등).	Y	N
성평등한 육아문화	성평등한 공간구성	주거단지 내 공용 공간이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다 (남성화장실 내 기저귀 같이 대 비치 등).	Y	N
	성평등한 서비스	주거단지 내 육아지원 서비스는 남성과 여성 양육자를 모두 고려한다 (남성 양육자 참여 놀이 프로그램).	Y	N
육아친화 가치 확산	육아친화 기회제공	주거단지 내 육아친화 환경 조성 기회가 있다(육아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캠페인, 남성양육자의 육아 참여 독려 모임, 행사 등).	Y	N

물리적 환경(단지 내)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Y 그렇다(있다)	N 아니다(없다)
녹지 환경	자연환경 접근성	아이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공원/녹지 공간(공원, 수변공간, 숲체험장)이 있다.	Y	N
	녹지기반 시설 안전성	녹지를 이용하여 쓰레기장, 재활용장 등 기피시설을 차폐하거나 분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Y	N
		녹지, 친환경시설 기반의 보차도 분리를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하는데 무리가 없다.	Y	N
	이용 편의성	녹지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들 있다.	Y	N
		녹지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Y	N
		녹지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조성되어 있다(주차장까지 동선, 수유시설까지 동선, 유아차, 킥보드 등을 이용하기에 편리한 보행환경 등).	Y	N

세대 실내환경	층간소음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설계 및 시공이 반영되어 있다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바닥 두께, 기능성 바닥재, 공간배치 등).	Y N
	친환경성	친환경 인증을 받은 실내 마감재를 사용하였다.	Y N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기장치가 적용되었다.	Y N
	편리한 구조	충분한 수납공간, 자녀성장을 고려한 가변형 구조 디자인이 적용되었다.	Y N
	내부 안전설계	아이맞춤형 치수, 방문 손끼임 방지장치, 모서리 마감처리, 콘센트 캡 설치 등 안전사고 방지 설계가 적용되었다.	Y N
외부 환경	외부 안전설계	놀이터 CCTV, 비상벨 설치 등이 적용되었다.	Y N
		단지 및 주차장 진입로, 단지 내부 등에 보차분리가 적용되었다.	Y N
	보행 편의성	보행도로는 유아차, 휠체어, 자전거 등이 다니기 편리하다.	Y N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Y N
	이용 편의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사용가능한 공동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다.	Y N
		아이와 부모가 함께 사용가능한 지붕있는 휴게시설(벤치, 정자)이 설치되어 있다.	Y N
	통학버스 승하차 시설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시설이 있다.	Y N
	대중교통 접근성	인근[*]에서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공공자전거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Y N
	대중교통 인프라	2개 이상의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공공 자전거 등)에 접근할 수 있다.	Y N
주민공동 시설	육아지원 시설	단지 내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다.	Y N
		단지 내에 영유아 지원시설(영유아 놀이방,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대여소 등)이 설치되어 있다.	Y N
		단지 내에 초등학생을 위한 지원시설(돌봄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Y N
	문화시설	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 등 문화시설이 있다.	Y N
	체육시설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있다.	Y N
	놀이시설	단지 내에 연령별 실외 놀이터가 구비되어 있다.	Y N
	주차장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Y N

서비스 인프라(인근환경 포함)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Y 그렇다(있다)	N 아니다(없다)
보건 의료	의료시설 다양성	인근*에 보건소 및 병·의원이 다양하게 있다.	Y	N
	소아과 접근성	인근*에 영유아를 위한 병·의원이 있다.	Y	N
	긴급의료 접근성	인근*에 주말이나 야간에 이용가능한 병원이나 약국이 있다.	Y	N
영유아 보육 교육 및 돌봄	영유아기관 충분성	주거단지와 인근* 보육(교육)시설의 정원이 충분하다.	Y	N
	영유아기관 접근성	보육(교육) 시설이 이용하기에 적절한 거리에 있다.	Y	N
	육아지원기관 접근성	인근*에 영유아 양육지원을 위한 공공시설이 있다(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장난감 도서관 등).	Y	N
	긴급돌봄 접근성	긴급하게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인근*에 있다.	Y	N
초등 교육 및 돌봄	초등기관 접근성	아동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	Y	N
		초등학교 등굣길이 안전하다(보차도가 안전하게 분리, 유해시설 없음, 횡단보도 안전, 차량 속도제한 표시 등).	Y	N
	초등돌봄 접근성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기관이 이용 가능하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Y	N
	초등돌봄 서비스의 질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수하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Y	N
치안 안전	단지 주변 안전점검	CCTV가 충분히 설치되어 있다.	Y	N
	야간 안전성	밤에도 어두운 사각지대가 없어 야간 보행이 안전하다.	Y	N
	단지 주변 시설	단지 주변에 유흥업소나 유해시설이 없다.	Y	N
여가/문화 공간	여가/문화 공간 접근성	인근*에 여가/문화 공간이 있다(어린이도서관, 어린이박물관, 미술관 등).	Y	N
		여가/문화 공간을 이용하는 비용이 저렴하다.	Y	N
	체험형 여가/문화공간	여가/문화 공간에는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	Y	N
	여가 문화공간의 육아친화성	여가/문화 공간의 이용시간과 방법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있다.	Y	N
		여가/문화 공간은 아이와 아이를 기르는 가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 없게 조성되어 있다(주차장 및 수유시설 동선 등).	Y	N

인적 네트워크

구성요소	측정항목	체크리스트	Y 그렇다(있다)	N 아니다(없다)
단지 내 육아 지원	전담인력 여부	육아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육아지원 코디네이터)이 있다.	Y	N
	육아정보 제공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육아관련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Y	N
인적 네트워크 구성	주민 참여성	아이를 기르는 데 필요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Y	N
	주민 연결성	주거단지에 양육 정보나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웃, 모임이 있다.	Y	N
	주민 활동 여부	육아를 위한 우리단지만의 주민 활동이 있다(운영위원회 등).	Y	N
육아를 위한 소통 공간	소통방법의 다양성 (온라인/오프라인)	단지 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과 시설이 있다 (공동육아, 품앗이 육아 등).	Y	N
		단지 내 사람들의 온라인 소통 공간이 있다.	Y	N
	소통공간의 육아친화성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설이 아이와 함께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조성되어 있다(수유시설, 주차시설 등).	Y	N

*인근: 인근이란 도보로 10분 이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말함.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그렇다. 아니다' 라고 표시한 개수를 적어보십시오.

철학과 가치	6개 항목 중	개
물리적 환경	27개 항목 중	개
서비스 인프라	19개 항목 중	개
인적 네트워크	8개 항목 중	개
전체 60개 항목 중 ___개		

체크한 내용들을 분야별로 살펴보십시오.

Q 철학과 가치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Q 물리적 환경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Q 서비스 인프라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Q 인적 네트워크 내용 중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아이 기르기 좋은' 주거단지를 만들기 위해 개선해야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육아친화 주거단지 체크리스트

육아정책연구소

KE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협동연구총서 21-23-01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

발 행 2021년 2월
발 행 처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909호
전 화 044) 211-1000
홈 페 이 지 www.nrc.re.kr
I S B N 979-11-5567-440-6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육아친화적 주거단지 조성 모형 개발 연구

비매품/무료
93300
9 791155 674406
ISBN 979-11-5567-440-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